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

영원한 결혼을 준비함, 종교 234

영원한 결혼을 이룸, 종교 235

교회 교육 기구 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인쇄상의 오류를 비롯하여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CES Editing, 50 E. North Temple Street, Floor 8, Salt Lake City, UT 84150-2772 USA.
이메일: ces-manuals@ldschurch.org

© 2001, 2003, 2007 Intellectual,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the USA

영어 승인: 6/03
번역 승인: 12/05
*Eternal Marriage: Student Manual*의 번역
Korean

목차

서문

학생 교재를 사용함	viii
교재의 목적	viii
교재의 구성	viii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함	viii

낙태

정선된 가르침들	1
----------	---

학대

정선된 가르침들	3
학대의 정의	3
학대에 대한 정책	3
학대의 원인	3
학대를 피함	4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5

결혼 생활에서의 조정

정선된 가르침들	9
인척에 대한 조정	9
재정적인 조정	9
애정 관계의 조정	9
관련 성구	10

속죄와 영원한 결혼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1
-----------------------------	----

산아 제한

정선된 가르침들	14
질 의 응답, 호머 엘스워스 박사	16

사랑(Charity)

정선된 가르침들	19
관련 성구	19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	20

결심

정선된 가르침들	21
----------	----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러셀 엠 넬슨 장로	26

대화

관련 성구	31
정선된 가르침들	31
가족간의 대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32
배우기 위해 경청함, 러셀 엠 넬슨 장로	35

성약과 의식

정선된 가르침들	38
성약을 지킴	38
성약에 근거한 주님과과의 관계	40
빛나간 성약의 자녀	47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데이트 표준

정선된 가르침들	5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소책자	52

부채

관련 성구	59
정선된 가르침들	59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60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 차이점

정선된 가르침들	63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65
여성의 기쁨,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	70

이혼

정선된 가르침들	73
관련 성구	73
가족 생활에 대한 걱정	73
역병처럼 증가하는 이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	73
결혼과 이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74

교육

정선된 가르침들	77
미래를 준비함	77
여성 교육의 중요성	78

남녀 평등

정선된 가르침들	79
----------------	----

영원한 관점

정선된 가르침들	81
----------------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83
정선된 가르침들	84
신앙의 원리	84
기도의 원리	85
회개의 원리	86
결혼 생활에서의 용서의 원리	88
용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89
상호 존중의 원리	90
연민(compassion)의 원리	91
일의 원리	92
“어깨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94
건전한 오락 활동의 원리	97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100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103

결혼 생활에 충실함

정선된 가르침들	111
충실함에 관한 교리	111
불충실함에 대한 대가	112
불충실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 주의 사항	113

재정

정선된 가르침들	115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가족 재정 지침,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115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119

영원한 결혼의 기초

정선된 가르침들	124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 수칙, 해롤드 비 리 회장	124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신성한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위스린 장로	130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

정선된 가르침들	133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결혼	133
사탄은 행복을 파괴하려 함	134

약속의 성령

정선된 가르침들	136
----------------	-----

독립

정선된 가르침들	137
----------------	-----

결혼 생활에서의 애정 행위

정선된 가르침들	139
관련 성구	139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육체적 애정 행위	139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함	140
애정 행위의 목적	140
오용된 육체적 애정 행위	140
생활의 기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141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147
---------------------------	-----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148
--------------------------------	-----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함

관련 성구	152
정선된 가르침들	152

사랑

정선된 가르침들	154
관련 성구	154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	154
무엇이 참된 사랑의 모조품인가?	156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157	성숙함 정신된 가르침들198
어떤 행동이 결혼 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157	남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정신된 가르침들200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158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책자200
사랑과 이해의 결합, 말린 케이 젠슨 장로162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203
영원을 위한 결혼 정신된 가르침들167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206
영원한 증진167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209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167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러셀 엠 넬슨 장로212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168	아버지의 손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215
결혼과 이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68	도덕과 정숙함 정신된 가르침들219
하나님께서 짜지어 주심, 고든 비 힝클리 회장174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과221
왜 성전에서 결혼하는가?, 존 에이 윗소 장로178	정숙함221
결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180	정숙한 생각222
오랜 세월을 통한 결혼 생활 정신된 가르침들184	정숙한 언어222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184	정숙한 복장222
힝클리 부부의 결혼 60주년에 즈음하여, 텔 반 오텐186	정숙한 행동223
배우자 선택 정신된 가르침들188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으라, 해롤드 비 리 회장223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188	순결의 법,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227
배경 요인188	제일회장단 사무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229
합당한 사람188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230
외모와 내적인 아름다움189	개인적인 순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233
독신 자매들에게 주는 권고190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정신된 가르침들237
독신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190	부모의 역할: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룸 정신된 가르침들241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의 역할191	부모로서의 성공241
합당한 사람을 찾음191	가정의 밤243
선교 사업이나, 결혼이나?192	가족 평의회 절차244
적절한 시기에 결정함192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 브리스 알 맥쿱키 장로193	

훌륭한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를 축복함.....	245	결혼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284
부모가 되는 것: 영원한 관점.....	246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로버트 이 웰즈 장로.....	286
부모가 되는 기쁨.....	247	선지자의 권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침.....	248	권고에서 안전을 찾을,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90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침.....	250	동성 연애	
아버지의 의무.....	251	정선된 가르침들.....	294
어머니의 의무.....	252	동성 연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294
사랑으로 훈육함.....	252	동성(同性) 결혼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부모가 되는 것을 준비함.....	253	정선된 가르침들.....	303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254	이기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제—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255	정선된 가르침들.....	304
구원의 계획		자립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자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305
외설물		자립하는 사람이 됨, 엘 톰 페리 장로.....	307
정선된 가르침들.....	264	편부모	
외설물이 데이트, 결혼 생활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264	정선된 가르침들.....	311
영화와 비디오.....	266	성전 준비	
교만		정선된 가르침들.....	314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68	성전에 가기 위한 합당성.....	314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69	성약과 의무.....	314
원리		성전의 상징성.....	314
정선된 가르침들.....	274	엔다우먼트의 목적.....	314
우선 순위와 균형		엔다우먼트를 이해함.....	315
정선된 가르침들.....	276	성전 결혼을 위한 준비.....	316
영적인 우선 순위.....	276	국법.....	316
가족의 우선 순위.....	276	교회의 절차.....	316
회원들에게 보내는 제일회장단의 서한.....	277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318
시온의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77	내적인 결의의 외적인 표현 칼로스 이 애시 장로.....	322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80	세상적 준비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함		정선된 가르침들.....	327
정선된 가르침들.....	283	건강.....	327
		고용과 재정.....	327

가정 비축 및 생산	329	결혼 생활에서의 단합의 중요성	344
사탄의 유혹과 육으로 난 인간		주님과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써 단합을 이룸	344
정선된 가르침들	330	사랑을 통해 단합을 이룸	344
사라지는 예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1	충실함을 통해 단합을 이룸	345
걱정을 다스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2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단합을 이룸	345
육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승리자가 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332	단합이 가져오는 축복	345
관련 성구	336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조상들의 전통		정선된 가르침들	347
정선된 가르침들	337	여성의 신성한 의무	347
의로운 전통을 지킴	337	돕는 배필이란 무엇인가?	349
그릇된 전통의 예	337	의로운 여성의 역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349
그릇된 전통을 극복함	338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352
조상의 전통,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338	교회의 여성,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57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60
정선된 가르침들	342	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세리 엘 듀 자매	364
신뢰	342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지닌 여성이 됨, 패트리시아 티 홀런드 자매	366
더 큰 존경, 충실함 및 단합	342	인용 출처	373
단합		색인	375
정선된 가르침들	344		

서문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학생 교재를 사용함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종교 교육원 과정을 위한 학생
독서 과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 종교 234, “영원한 결혼을 준비함”
- 종교 235, “영원한 결혼을 이룸”

교재의 목적

학생 독서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 교회 지도자, 그리고
경전에서 가르치는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것이다. 본 교재는 학생들이 매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지명된
과제물을 읽음으로써 반 토론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데이트, 결혼 및 가족 생활에 관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학생들은 올바른 원리로 자신의 생활을
다스리고 주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르도록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본 교재에 있는 가르침의 지침 원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취하였다. 선언문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교재의 구성

학생 교재는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에는 또한 색인이
있으며 색인은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기사를 전후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제별 제목 아래에는 여러 종류의 인용문들이 열거되어 있다.
먼저 “정선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나 인용문들이 있다. 이 인용문들은 대체로 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주제 아래 나타나 있다.

두 번째 형태의 인용문은 선정된 주제에 관해 말쑥한 내용의
전문이다. 대부분의 주제에는 정선된 가르침들과 하나 이상의

말씀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구성은 독자에게
증인의 율법이 갖고 있는 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증인의 율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이 시대에 우리는 권고의 말씀을 통해 어디서 슬픔과 죄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그러한 경고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 대회에서 우리의 선지자가 이전의
선지자의 말씀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인용함으로써 두 번째 증인이
되거나, 때로는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볼
회장님께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벤슨 회장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신 것, 그리고 핑클리 회장님께서
그 두 분의 말씀을 모두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증인의 율법을 통해서, 즉
관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감사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25쪽)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함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여러분이 ...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경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껏
취하십시오. 그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십시오.”(“말씀의 힘”,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9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원리들을 탐구하십시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부터 그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추려내십시오. 원리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축된 진리입니다. 참된 원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격심한 상황 아래에서도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들을 단순한 원리의 말씀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있는 일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86쪽)

올바른 원리들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행복한 삶과 행복한 결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복음 원리에는 교리, 계명, 성약, 의식, 훈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 원리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권고와 행동 지침을 주는 복음 진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함

원리는 종종 *만약*과 *그렇다면*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만약*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주님께서 전제로 내거시는 일반적인 권고의 말씀이고 *그렇다면*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그 권고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약속된 결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지혜의 말씀을 “약속이 따르는 원리”(교리와 성약 89:3)이라고 부르셨다.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의 육신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권고를 의미하며, *그렇다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강, 지혜, 힘 등을 비롯한 여러 축복들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해야만 한다.(교리와 성약 82:10)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에 따라 ~할 것이다 부분을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원리는 항상 ~하면 ~할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쳐지거나 기록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총관리 역원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가 충실하게 되도록 신앙을 설명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예를 들지 모른다.

복음 원리는 보편적임

복음 원리는 보편적이다. 복음 원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화에서 언제든지 참되다. 세상의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원리들은 이 후일에도 똑같이 참되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원리들을 알고 적용하도록 주와 주는 선지자와 경전, 그리고 성신의 인도가 있다.

요약

원리란 결정을 내리는 데 지침이 되는 영원한 진리, 율법, 또는 규칙 등을 말한다. 원리는 복음 교리를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점점 혼란스럽고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는 빛의 역할을 한다.

낙태

낙태는 죄악입니다. 음울하며
이기적이고 가증한 행위인 낙태가
지구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낙태가 심각한 사회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낙태를 행한 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면목을 세우거나, 괴로움과 불편을 덜기 위해,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낙태를 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수술에 몸을 맡길 수 있으며, 금전을 지불하거나 수술을 종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낙태를 매우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유발하는 이완된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 오늘날 낙태는 가증스럽고 죄스러운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신권 공보, 1973년 2월, 1쪽)(성도의 벗, 1974년 8월호, 3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질문 3: 낙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질병 예방 센터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1995년 한 해 동안에 120만 건의 낙태가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녀가 거부하고 있던 말입니까?”

“자녀란 참으로 훌륭한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창조해 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낙태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추악한 행위이며, 반드시 양심의 가책과 슬픔과 후회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분명한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근친 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출산으로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는 정확한 진단이나, 태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출생 후에도 살아 남기 힘들 것이라는 유능한 의료진의 확인이 있을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극히 드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신권 지도자들과 접견을 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 올바른 결정에 대한 확신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된 남성이 결혼할 의사가 없고 산모만 혼자 남게 될 경우, 자녀를 입양하여 돌보고자 하는 부모에게 입양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훌륭한 가정에 살면서 오랫동안 자녀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이 많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1쪽)

“아내이면서 어머니인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배의 닻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의무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1972~1990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2천 7백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낙태는 죄악입니다. 음울하며 이기적이고 가증한 행위인 낙태가 지구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죄악을 피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낙태를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낙태가 행해질 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일 뿐, 대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될 거룩한 책임입니다.”(“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9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인간의 법이 아무리 눈감아 준다 해도, 출산의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낙태 행위로 죄없는 생명을 파괴시키며,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순진 무구하며 무력한 어린 아이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낙태를 정당화하고자 할 때보다 더 강력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선택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그 행위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최선의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결혼 성약이 깨지기도 하며 결혼 성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상태이든 아니든 낙태는 혼자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세 사람의 운명이 관련됩니다.

“경전에는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6)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친 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사악한 죄와 관련되거나 합법적인 의료진이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분명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외적 경우일지라도 옳은 결정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97쪽)

“도덕적 표준과 관계된 죄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낙태도 예외는 아닙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68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크게 증가한 낙태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가 최소한 어머니의 이웃으로라도 사랑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아니한 아기에게 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지는 못 합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6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잃게 된 것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해마다* 이제까지 이 나라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의 사상자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인해 그러한 숫자가 오히려 위축되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전쟁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낙태’라고 칭하는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비율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 지구상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1974년 한 해 동안에만 전세계적으로 오천 오백만 이상의 낙태가 보고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64퍼센트가 현재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에서도 매년 백 오십만 이상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임신의 약 25~30퍼센트가 이제 낙태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대도시 지역에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견줄 만한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14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가장 심각한 파괴 행위는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태가 그토록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낙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관해 법적인 취지로 알려진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에 따라 모든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와야 하며, 개인의 존재는 잉태되기 오래 전부터 영원을 두고 계속된다는 복음의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유산하는 행위’는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6)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회 지침서, 1989년 판에 대한 1991년 보충 자료, 1쪽)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므로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습과 법률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몇몇 유력한 경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4쪽)

학대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혹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Responding to Abuse

정선된 가르침들

학대의 정의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혹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신앙을 파괴하고 혼란과 의심, 불신, 죄책감과 두려움을 야기시킨다.”(*Responding to Abuse: Helps for Ecclesiastical Leaders*, 1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 사무실에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호소하는 여인들로부터 받은 편지철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받은 책임을 지닌 남편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거나 공개적으로 학대 받은 이야기도 합니다. 추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고 저속하기도 한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남편들과, 자녀들에 대해 인내와 자제라는 의미조차 모르는 듯한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60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학대하는 것은 어떤 신권 소유자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 물론 이것은 신체적인 학대와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학대도 포함됩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42쪽)

학대에 대한 정책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학대하거나 또 자녀들에게 이와 똑같이 행하는 신권 소유자는 중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조성, 에베소서 4:26)라고 물었습니다.”(*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66쪽)

“만일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감정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권 소유자로서의 품행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인다운 품행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1쪽)

“어떤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현실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녀의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비평하거나 그녀의 결점을 찾거나 또는 말로나 거친 행동으로 그녀를 학대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입니다.”(*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67, 68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자신의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하거나 천하게 대하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므로 심각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1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질문 6: 배우자 및 자녀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

“우리는 이러한 악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양육하고 도우며, 인내를 갖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참된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하나님을 심히 거스르는 것이며, 그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회원은 누구든지 마땅히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9년 1월호, 72쪽)

학대의 원인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만의 다른 모습은 논쟁하는 것입니다. 말다툼, 싸움, 불의한

지배, 세대 차이, 이혼, 배우자 학대, 폭동 및 소요 ... 이러한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범주에 포함됩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이러한 패륜의 악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학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해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57쪽)

학대를 피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우리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도 또 하나의 자아 통제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미루고 자기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충동적인 행동에 빠져 들지 않습니다. 인내심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침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해합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2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는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신앙에 영향을 주어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두가 신성한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이들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질문: [어린 학대]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 ‘우리는 방법을 아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감독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내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감독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전화도 개설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학대, 배우자 학대, 노인 학대 및 모든 학대 문제를 다루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저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 매우 걱정합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털어 주고 그러한 사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와 맞싸우기

위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는 조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끔찍한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손길을 내밀고,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1쪽)

닐 에에 맥스웰 장로

“가족간의 학대 형태와 불의한 부모의 지배는 분명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의 세대까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부모의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마주치게 될 어려움의 정도를 줄여 주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Not My Will, But Thine, 62~63쪽)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권세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설득에 의해서, 그는 아비한 언행을 삼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며, 남자, 여자, 소년, 소녀를 가릴 것 없이 그들의 품위와 선택의지를 존중한다.

“오래 참음으로,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아주 비천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부드러움으로, 그는 상을 쟁그리기보다는 미소로 대한다. 그는 소리치거나 무섭게 굴지 않고, 화가 나서 징벌을 가하는 일이 없다.

“은유함으로, 그는 자랑하지 않고,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일치시킨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는 기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그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랑을 베푼다

친절함으로, 그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예절 바르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

순수한 지식으로, 그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탐구한다.

“위선을 버리고,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원리를 실천한다. 자신이 항상 옳은 것만을 아님을 알고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안다.

“교활하지 않음, 그는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교활하거나 술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나타낼 때에는 정직하고 신뢰감 있게 표현한다.

모든 남편 및 아버지들은 자신이 불의한 지배력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1. 나는 가족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가?
2. 나는 내가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순종하기를 강요하는가?
3. 나는 집안에서보다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을 더 찾는가?
4.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감정과 관심사에 관해 나에게 말하기를 꺼리는가?
5. 나는 체벌이나 징벌을 가함으로써 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가?
6. 나는 가족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고 시행하는가?
7. 가족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가?
8. 가족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능 및 책임을 다른 가족들과 나눈다는 생각을 하면 위협을 느끼는가?
9. 나의 아내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스스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가?
10. 나의 아내는 내가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꾸려 나가는 경비가 불충분하다고 불평하는가?
11. 나는 자녀들에게 영예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기보다는 가족의 각 구성원을 위해 자신이 영감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가?
12. 나는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비난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과연 가족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성신의 영향력이 차츰 줄어들고 빠져나감을 느끼게 되면(다툼, 불화 또는 반항 등으로 나타나는), 자신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성도의 빛, 1990년 6월호, 21~22쪽)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사랑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쉽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어떤 식의 박해나 불의한 행위를 참는 것은 사랑이나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선택의지를 부정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절망하여 어찌 할 수 없어서 굴복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류의 참음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하며 혼자서 그것을 종결시키기란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도움을 주며 그들을 강화시켜줄 신권 지도자와 사랑하는 또 다른 역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90쪽)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31~33쪽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

저는 교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관계없이 학대라는 흉측한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아주 조심스레 다루어야 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잔인한 일들에 대해 주님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의해 치유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여러분은 그러한 학대 가운데 일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에는 공포심, 우울증, 죄, 자기 혐오, 자존심의 파괴 및 정상적이지 못한 대인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계속되는 학대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항, 분노, 그리고 증오의 감정이 강력하게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종종 자신이나 타인 또는 인생 자체,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항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불의에 저항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이는 마약 남용, 성적 문란, 가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극적인 자살로 치닫게 됩니다. 궁극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감정은 실의에 찬 삶,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혼 생활,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타인을 학대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무서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타인에 대한 신뢰의 점진적 결핍으로서 이는 치유에 장애가 됩니다.

상처가 오래가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율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대는 여러분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선택의지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해를 입히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원리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사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가한 행동의 파괴적인 결과를 극복할 방법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은 신권의 도움과 더불어 영원한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파멸시키려고 해도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과 고뇌와 심지어는 신체상의 해악까지도 겪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짧지만 중요한 이 지상 생활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가능성만큼은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학대로 인해 생겨난 유해한 결과를 극복하는 것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생활에서의 선을 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 하는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회를 탈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주님의 속죄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함정에 빠져 탈출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불의한 영향력이나 보복의 위험 또는 여러분을 학대하는 가족에게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기리라는 공포 등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야고보서 1:6; 이노서서 1:15; 모로나이서 7:26; 교리와 성약 8:10; 18:18 참조)

다른 사람들의 폭행, 성도착 또는 근친 상간 등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심한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학대로 인한 상처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처를 영원히 남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한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러한 상처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함

여러분이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학대를 받으셨다면 바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여, 믿거나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신 여러분의 구주께 먼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의 계명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강화하고 격려해 줄 다른 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 즉 감독이나 때로는 스테이크 회장단 등이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권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7쪽)

감독님께 아무도 모르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시킬 교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치유 받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위해 영감 받을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권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지지해 줄 믿을 만한 친구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자신감과 자존심을 다시 갖게 해 줄 것입니다. 학대가 지나칠 경우에는 감독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적절한 보호책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학대로 인한 상처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처를 영원히 남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치유의 원리

다음은 여러분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치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온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지상의 부모, 배우자 혹은 현신적인 친구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여러분의 망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으십시오.

니파이인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앎이니라."(제3니파이 17:7~8)

최선의 치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선택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구주의 사랑을 통해 마음이 온유해져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게 할 수 있는 학대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경은 육체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고의로 자행되었을 지라도, 영원한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피해자는 학대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공포 혹은 범죄자가 휘두르는 무력이나 권력에 불가항력이었기에 무고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이 겪은 학대에 대해 부분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평가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씨앗은 남아 싹이 터서 못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편 전혀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학대에 동의함으로써 빚어진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유력은 완전한 치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1~4 참조) 학대에 관련한 모든 이들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참조) 그런 연후에야 자존심과 자기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여러분을 학대한 사람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여러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범죄자의 징계는 사법 당국과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결국 죄인은 완전한 심판관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학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 및 악탈 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해 물품 공급자와 비도덕적이고 타락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함으로써 자신의 부패된 생활을 정당화하는 악탈자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6)

치유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선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는 더욱 빠르게 진척됩니다.

용서는 치유에 도움이 됨

대수술 후 오랜 회복기를 거치면서 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병간호에 의지해 인내하는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환자가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회복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학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용서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판을 자제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학대자들도 무고한 피해자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회개에 이르는 길은 그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징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고통이 완화되고 있음을 느낄 때 온전한 용서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미 행해진 일을 지워 버릴 수는 없었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4:10 참조) 용서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미움이라는 독을 말끔히 씻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복수심을 정화시킵니다. 용서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자리잡게 해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제3니파이 12:44)

비통해 하고 증오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파괴를 낳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열망하는 구원과 치유를 더디게 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잘 할 수 없습니다.

학대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라는 권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치유시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치유는 여러분을 축복할 영감과 권능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처를 치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저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더 가져올지도 모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치료법에는 관여하지 마시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1)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 관해 세부 사항까지 지나치게 조사하는 것, 특히 그룹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 (2) 여러분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학대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

중요한 과거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치료 과정에 긴요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묻혀졌고 관용으로 잊은 채 기억하지 않던 과거의 행적을 거의 병적으로 파헤치는 일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낮고 있는 상처를 긁어 터트려서 이를 낫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은 피해자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한 유도 질문은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상적이거나 환상적인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범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치료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후일 허위로 판명된 바 있는 비난으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기억,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한 성인들의 기억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허위 비난 역시 죄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좀더 간단히 말씀드려, 만일 누군가가 한 통의 오물을 고의로 여러분의 카펫 위에 부었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얼룩을 남긴 각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은 은밀하게 그 얼룩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대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는 일은 신뢰 받는 신권

지도자와 함께 은밀하게 기밀 사항으로 처리하되, 필요하다면 신권 지도자가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대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만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더 많은 폭력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은 과거를 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이는 사악한 학대로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충분한 삶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활용하신 영원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구주의 치유력

만약 한 가닥 희망만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가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구명구를 놓아 두시는 주님께 이어지는 끊어질 수 없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물몬서 9:27; 모로나이서 7:26, 33 참조) 지금 여러분의 감독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학대의 상처로 어두워진 안경을 통해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삶에는 아름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사랑을 맞아들이십시오. 지극히 고통스런 생각들이 되살아나면 구주의 사랑과 치유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낙심은 평화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뇌의 장을 덮고 행복이라는 새 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결혼 생활에서의 조정

그 때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반성하며, 올바른 상식과 이성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 온 두 사람은 결혼 의식이 끝나면 곧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환상이나 공상에 젖은 삶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환상의 구름 속에서 빠져 나와 현실의 땅에 발을 굳건히 디뎌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가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여러가지 면에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약점들을 결혼 후에 곧바로 알게 됩니다. 구애 기간에는 한결같이 크게 보였던 덕성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고, 아주 하찮게 보였던 약점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 때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평가하며, 올바른 상식과 이성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갖고 있던 습관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인색한 사람이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거나 근면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신앙이 깊은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친절하고 협조적인 사람이거나,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척 문제가 점차 표면화 되고 배우자와 그들의 관계가 다시 확대됩니다.”(“결혼으로 하나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6월호, 2쪽)

해롤드 비 리 장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상대방을 위해 옳은 일이면 무엇이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즐기는 것이나 욕구, 또는 소망까지 희생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서로 조정해야 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그들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희생 위에 세워지며 서로의 복지를 위한 희생의 원리가 날마다 표현되는 가정은 위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가정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111쪽)

인척에 대한 조정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부부는 양가의 인척으로부터 독립해서 즉시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은 보잘것없고 수수할 수도 있으나 독립적인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부모를 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들의 권고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권고를 들은 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결합하다’라는 말은 단지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즉 ... 둘이 한 몸을 이룸은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의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6~17)”(“결혼으로 하나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6월호, 5쪽)

재정적인 조정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우리는 영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존재로서 지상에서 살고 있는 한 다른 쪽이 없는 한쪽은 수행될 수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00년 10월, 46쪽)

애정 관계의 조정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이성간의 성적 결합은 종족 보존의 유일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더 높은 기능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으로 영감 받은 동반자 관계만이 보증하여 줄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보다 고귀한 특성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59쪽)

관련 성구

결혼 생활에는 다른 모든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정이 요구된다. 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태도에는 사랑스러운 관계, 대화, 공동의 목표, 희생, 회개, 용서, 화해 및 기밀성 등이 포함된다.

관심 분야	조정이 필요한 이유	경전에 나와 있는 권고
재정	부적절한 관리, 이기심, 부채, 물가 상승, 게으름, 돈에 대한 사랑, 욕심, 질투, 재정적인 목표에 대한 대화의 실패	마태복음 16:26 교리와 성약 75:28~29 교리와 성약 104:78
현실과 새로운 책임	학교, 직장 및 교회로 인한 별거 현실 복귀로 인한 정신적인 별거 시간에 대한 요구	에베소서 5:25 교리와 성약 42:22
성적인 조정 혹은 애정 행위	새로운 경험, 무지, 이기심, 욕정, 자기 통제의 결핍, 오용, 임신	고린도전서 7:3~5 히브리서 13:4
확대 가족	지나친 의존, 부모를 지나치게 가까이함, 시간 경쟁, 전통과 생활 습관의 차이, 조부모의 요구 사항	마가복음 10:6~9 제3니파이 13:24
자녀	자녀를 원치 않거나 자녀 갖는 일을 연기함, 자녀를 소홀히 함,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 부모로서의 조정	시편 127:3~5 이사야 54:13 교리와 성약 68:25~28 모세서 2:27~28

속죄와 영원한 결혼

화평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2~84쪽

예수께서 화평과 힘과 소망을 주심

화평은 곧 좋은 소식이며, 좋은 소식은 곧 화평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란스런 세상과 그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갈등과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 곧 지친 삶이나 절망의 시간에 힘을 북돋아 주는 근원이 됩니다. 이 연차 대회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이 대회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과 소망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를 둘러싼 산처럼 견고합니다.”³ 물몬경의 선지자 아브나다이는 이사야가 외친 것을 약간 달리하여 이 말씀의 뜻을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이시요, 화평을 세우신 이 곧 참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시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이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고.”⁴

산 위의 아름다우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이름에 복이 있으라고 외치며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 때문이요,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⁵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소식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져다주실 수 있는 화평을 구함

화평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기는 대부분 왔다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친절한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 줍니다. 아름다운 햇빛에 기운이 돋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큰 슬픔이나 고통, 혹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져다주실 수 있는 화평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기는 사람이 영적인 굶주림을 강하게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절친한 친구들조차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대회처럼 큰 모임이나, 지역이나 와드나 스테이크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 또는 자신의 가족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나, 말 못할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환란 가운데 어두운 계곡을 걷고 있지만 용기 있게 이를 헤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에 관해 심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이나 행복 또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고통, 또는 나이에서 오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곳에 썩어 할 돈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사랑과 관심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읽을 때나 찬송가를 부를 때, 또는 기도할 때 자신의 절실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심신이 지친 나머지 거의 포기 직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 주일, 하루 또는 한 시간을 버텨 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천사 및 선지자들의 도움을 구함

연차 대회의 목적이자 여러 시대를 통해 내려온 선지자들의 가르침 중 하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⁶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을 격려하고 우리를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온케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영원토록 애를 쓰십니다. 이분들은 우리 모두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⁷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환란 속에 처할지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⁸ 그분은 희생과 순종을 통해 “평강의 왕”으로서의 왕관을 얻으셨고 합당하게 쓰고 계십니다.

순종과 회개는 화평을 가져옴

바로 이러한 영으로, 우리는 진실되고 영속적인 화평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심과 인내심,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힘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점에 대해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겪고, 복음에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단어는 이전의 문제와 버릇과 슬픔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약속에 그 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평화를 약속해 주는 복음의 단어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추구함에 있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고백하고, 용서 받아야 할 것은 용서 받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도와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변함없이 계속 그러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에서 떠나 과거는 과거지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매우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것을 고백하고, 이에 대해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 실수의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으며, 지나간 것들을 모두 털어 버립시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팔의 첫 번째 압력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해,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자신의 영혼을 슬프게 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씻어 버리기 바랍니다. 경전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¹⁰

화평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함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속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땅이 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던 그 운명의 금요일의 참으로 장엄한 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¹¹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오늘도 이와 같이 탄원하고 계십니다.

만사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을 설정하셨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중오심을 키우거나 노여움을 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좋은 일은 기록하지 않고 나쁜 일만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는 데 열중한다면,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과 우리가 분개해야 할 이유를 틀림없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 구실을 찾으면 찾을수록, 용서함으로써 그러한 해로운 감정과 노여움의 파괴적인 지옥으로부터 구제 받아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¹² 화평을 찾으려면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데는 목적이 있음

그렇습니다. 화평은 너무나 고귀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화평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이전보다 감절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 여러분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슬픈 일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은 때, 그 달갑지 않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월이 흐르고 통찰력이 생기면, 그러한 절망에 직면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거의 베푸는 법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외롭거나 버림 받은 것처럼 느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제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간절히 호소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나 용서의 필요성, 또는 구속이나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도덕적인 자기 만족이나 물질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절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제점이나 한계점 또는 도전이 없는 인생, 즉 리하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¹³이 없는 인생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자주 어려움과 실망과 슬픔에 직면하는 인생보다 보람이 적고 값진 것이 못됩니다. 사랑하는 이브가 말했듯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 그리고 우리들, 그 누구도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¹⁴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품성의 보다 훌륭한 면”

그러므로 인생에는 상반되는 것이 있고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 대한 해답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절한 남북 전쟁 당시 한 나라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은 결혼과 가족과 우정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에 에이브러햄 링컨은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를 하고, 평화를 호소하며, 연방이 깨지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를 모색하면서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분단코자 하는 걱정으로 인해 동포애가 상처를 입었기에, 이러한 걱정이 더이상 동포애의 유대 관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 품성의 보다 훌륭한 면에 의해 감동받게 되면 신비로운 기억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¹⁵

우리 품성의 보다 훌륭한 면, 이것이 바로 교회와 연차 대회와 복음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물론 내일도 변함없이 보다 깨끗한 것, 보다 친절한 것, 보다 거룩한 것을 성취하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려면, 늘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거듭남의 은사

저는 제 자신의 생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라는 약속이 실현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는]”¹⁶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피곤할 때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함]”¹⁷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힘과 성결케 하는 거듭남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화평을 주십니다. 그러한 보상은 가능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성약은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¹⁸

주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에 대해, 이 대회와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화평에 관한 말씀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3. “Carry On”, 영문 찬송가, 255장.
4. 모사이야서 15:18.
5. 교리와 성약 59:23.
6. 시편 121:3~4.
7. 로마서 8:31.
8. 요한복음 16:33 참조.
9. 빌립보서 4:7.
10. 시편 34:14.
11. 누가복음 23:34.
12. 조지 맥도널드의 연설에서 인용함.
13. 니파이후서 2:11.
14. 모세서 5:11.
15. 에이브러햄 링컨, 취임사, 1861년 3월 4일.
16. 이사야 40:28~29.
17. 이사야 40:31.
18. 제3니파이 22:10.

산아 제한

땅과 하늘의 최고의 보물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우리 후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제일회장단 -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회 제일회장단의 권능으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주님은 일찍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그 계명을
거듭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이 후일의 경륜의 시대에 또 다시
결혼 성약의 영원한 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 즉 육신의 장막을 기다리는 선택 받은 수많은
영들이 이곳에 와서 온전한 영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남편과 아내의 의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그 영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남편과 아내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성스럽고 영원한 성약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3쪽)

제일회장단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휴 비 브라운, 앤 엘돈 테너

“우리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 자녀의 출산을 제한하려는 견해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라는 계명을 받았습시다.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부정하지 않을 경우,
인위적으로 자녀의 출산을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남편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뿐 아니라, 유년
시절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건강은
잘 유지되어야 하며, 남편들의 첫째 의무는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요소는
자제심입니다.”(스테이크 회장, 감독 및 선교부 회장에게 보내는
서한, 1969년 4월 14일)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모성은 가정의 행복과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성에 관한 매우 성스러운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이며, 이를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디모테전서 2장 13~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 아기를 낳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259~260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자녀의 출산이 제한되지 않고, 그들의 탄생을 가장 환영 받고,
부모의 의무가 영원한 창조주와 더불어 공동 협력자로
받아들여지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성한 사랑의 극치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머니의 건강이 보호되어야 한다.
아내의 영역에서, 여성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다스려야
한다.”(Gospel Ideals, 469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족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은 영원한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어서 성전 인봉의 축복과 영원한 결혼의 반차와 관련되어 맺어진 성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성도의 빛, 1972년 12월호, 8~9쪽)

“아담에게 주어진 번성하라는 계명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창세기 9:7~9]

“인류가 영생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결혼 성약을 거절했는지라도 이 성약은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산아 제한은 사악한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성약의 남용이 국가의 멸망에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의 성스러운 맹약이 깨어지고, 결혼의 참목적이 남용될 때, 멸망은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입니다.

“결혼 성약을 함부로 남용하고 이를 하찮게 다루는 국가는 결코 오래 존속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고대 여러 왕국의 부도덕을 보고 타올랐습니다. 인간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게 되는 이 성약보다 더 성스럽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구원의 교리, 2:76~77)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여러분을 영원히 구속하게 될 말씀을 내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잘생긴 청년과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씀을 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얻은 것은 완전해지고, 불멸의 상태가 되기 위함이며, 다른 영들을 위해 육신을 마련해 주는 일에 하나님과 동반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가 되는 일을 연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되는 일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이유들을 대는 합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갖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해서 가족을 위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지닌 힘은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가지십시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여러분은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책임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세상의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John and Mary, Beginning Life Together”, *New Era*, 1975년 6월호, 8쪽)

“결혼을 한 후에 아내는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합니다. 젊은 아내가 자녀를 갖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남편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성구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젊은 부부는 각오만 한다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 결정”, *성도의 빛*, 1976년 7월호, 2쪽)

“결혼 생활에서 최고의 행복은 비교적 기본적인 요인, 즉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에 의해 좌우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좀더 안전해질 때까지,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직업이 좀더 확실해질 때까지, 부채를 갚을 때까지, 아니면 생활이 좀더 편해질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28)는 첫 번째 계명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계속 일을 하고 남편들은 그것을 권장합니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 용품들을 사용합니다.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는 어머니들까지 젊은 신혼 부부에게 산아 제한을 권합니다. 변명거리는 많지만 대부분 설득력이 약합니다. 아내가 건강하지 않다, 가족의 예산이 한 식구를 더 부양할 수 없다, 혹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거나 다른 부수적인 행사들이 너무 많다, 아이를 갖게 되면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다, 두 사람이 돈 버는 일에 아이 갖는 일이 방해된다 등등. 그리하여 비정상적인 생활이 자녀의 출산을 막습니다. 교회는 가족을 제한하는 그 많은 이유들을 승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습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28~329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여러분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가진 유일하고 거룩한 역할과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이 지상의 빛과 진리로 데려오라는 신성한 계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모세서 2:28; 교리와 성약 93:40 참조)여러분은 사랑하는 반려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아내를 도우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을 도우십시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0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후기 성도 여성의 유일한 운명은 집에 머물러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하는 궤변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현명한 생각 같지만 거짓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를 믿습니다. 주님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후손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자녀들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나 교회는 그 자녀의 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부와 주님께 맡겨진 신성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일뿐 아니라, 유년 시절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아내를 배려해야 하며 그들이 건강과 힘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결혼한 부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해야 한다.’(General Handbook of Instructions[1983], 77쪽)(Cornerstone of a Happy Home, 6쪽)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후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바뀐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육신을 주어 지상에서 살게 하는 일이 인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명예로운 결혼을 통해 육신을 갖고 이 지상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을 발전시켜 얻게 되는 명예와 영광, 세상 사람들이 박수 갈채로 보내 주는 성원과 찬사, 영웅으로 추앙 받는 일 등은 여성이 첫째되는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지고한 명예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Hinckley,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 203~204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세상은 산아 제한을 가르칩니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 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임약을 먹고 기구를 사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에게 육신의 장막을 마련해 주는 기회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오도록 지명된 모든 영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에는 제한된 가족과 더불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후손이 될 수도 있었던 영들을 만나게 될 때 회한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은 번성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결코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편리할 때, 혹은

부유하거나 학교 공부를 마친 후에, 혹은 지상에 평화가 있을 때, 아니면 자녀를 네 명 낳을 때까지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요 …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3,5)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갖고 그들을 완전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후손을 갖고 그들을 의로움 가운데 키우려고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12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주님은 지상의 첫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모세서 2:28; 창세기 1:18; 아브라함서 4:28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순서적으로나 중요성으로나 첫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

“후기 성도들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관해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자녀들은 가정 경제 조직에 있어서 단순히 일꾼이나 그들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압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안락이나 편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해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6:19~21 참조)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땅과 하늘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라고 믿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2, 75쪽)

질 의 응답

호머 엘스워스 박사

성도의 벗, 1980년 6월호, 3~5쪽

우리는 육신의 능력이 감당하는 대로 자주 그리고 늦게까지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까? “복음에 입각한 가족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질문 곧 나의 전문 분야 밖의 질문을 나는 교회의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후기 성도 여성으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 즉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몇 번이고 자문하게 되는 질문에 적용되리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원리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나온 목적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시험을 받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것에 먼저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위한 육신을 제공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 깊이 고찰할 때, 나는 자녀를 갖고 가정을 갖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즐거움이며 영적인 의무라는 교회의 확고한 입장에 또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면이 우리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나에게 더욱 감명을 줍니다.

나는 구원의 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 중의 하나가 선택의지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삼분의 일에게서 그들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기꺼이 주지 않으신 채 보류하고 계십니다. 이 선택의지의 원리는 우리의 시험 기간의 성공에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은 교회 지침서나 모임이나 경전에서까지도 예, 아니오라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이 원리의 응용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은 대안을 숙고하고 문제를 자세히 연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계획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에 있어서 영감 받은 선지자들이 개인의 선택의지의 계획을 침해하지 않고 다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광범위한 지침 내에서 운용해 나가는 것을 볼 때 큰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기를 유산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딸을 문병가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교회 회장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사십대 초반이었지만 이미 여덟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이를 그만 낳을까요?” 회장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내게 묻지 말아라. 그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 네 남편의 문제다. 너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고 그분께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진실로 노력했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만두거라. 그러나 어디까지나 너와 네 남편이 결정할 문제다. 주님과 만날 때 내 자신의 문제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도 너무 많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결정은, 즉 언제 자녀를 갖고 몇 명이나 가질 것인가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질문에 관한 결정은

부부간의 진실한 토론과 기도 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게 유익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측량의 척도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기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죄는 이기심에서 오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십일조를 바치지 않을 때에도 그 근원은 이기심입니다. 간음의 경우에도 그 근원은 이기심입니다. 부정직하다면 그것도 이기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의 이기심을 견책하신 것을 나는 경전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기심이나 물욕으로 인해 가족의 수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심에 근거를 둔 성품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경전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것은 해의 왕국의 성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석하여 우리의 동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동기과 변명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모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자녀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모의 능력 등이 그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즉시 또 다른 아기를 갖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신중하게 결정한 경우, 자녀의 터울 조정 방법은 의료적, 신체적 위험을 줄이기는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금욕이 또한 피임의 한 방법이며, 다른 피임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칠 만한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전문의로서 나는 종종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되는 사회적, 정서적인 증상을 치료해 달라는 요구에 접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항상 과거나 현재의 선지자가 결코 자녀 출산이 결혼 관계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육체적인 애정 행위를 결혼의 단합을 높이며 강화시키는 강한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운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로 떨어지지 말라. 다만 얼마동안 합의로써 금식과 기도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이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조성, 고린도전서 7:4~5)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금욕은 불필요한 유희과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해로운 후유증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그 밖의 문제에 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의롭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토론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부가 잘 생각하고 계획하여 어머니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선지자들이 현명한 권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일회장단의 권고가 무시되거나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될 때,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자녀 일곱을 둔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 증세인 부인에게 의사는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임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어떤 상황에서도 피임 조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여덟 번째 아기를 분만하다가 뇌졸중으로 숨졌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형편에 대해 들을 때마다 항상 제일회장단이 교회 지침서에서 밝히신, 산모의 건강과 가족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34년 동안 부인과 전문의로, 또한 후기 성도 가정을 관찰하면서 나는 신체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복지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낙담도 덜하며, 많은 자녀에게서 오는 압박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원하는 바와 동기가 같은데도 보다 효율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는 자녀의 생활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치에 대한 욕구가 가족 수의 적절한 결정 요인일 수 없습니다. 사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사치인지 아닌지를 즉각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건대 부부는 가장 작은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규모, 자녀의 터울, 그 밖의 부수적인 문제들에 관해 생각하는 중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현명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와 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들리는 작고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현명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Charity)

사랑(charity)은 세속적인 사랑(love)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영원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베드로가[베드로후서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의 성품을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얻는 열쇠가 됩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3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진정한 사랑이란 남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미덕이 심어질 때, 여러분은 완전히 판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혹독한 비난자가 되는 것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범주 속에 집어 넣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을 믿거나 조용히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과 단점을 수용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19쪽)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경건함과 온전함의 모든 속성 중에서 사랑은 가장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속성이다.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영원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의로운 것에 중심을 둔 사랑이므로 그런 사랑을 지닌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영혼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영원한 복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목표나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니파이후서 26:30; 모로나이서 7:47; 8:25~26 참조)”(Mormon Doctrine, 121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간단히 말씀드려, 사랑이란 구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 사항을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고린도전서 13:13)이라고 기록했으며, 모로나이는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 받을 수 없고’ (모로나이서 10:21)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봉사가 복음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8쪽)

관련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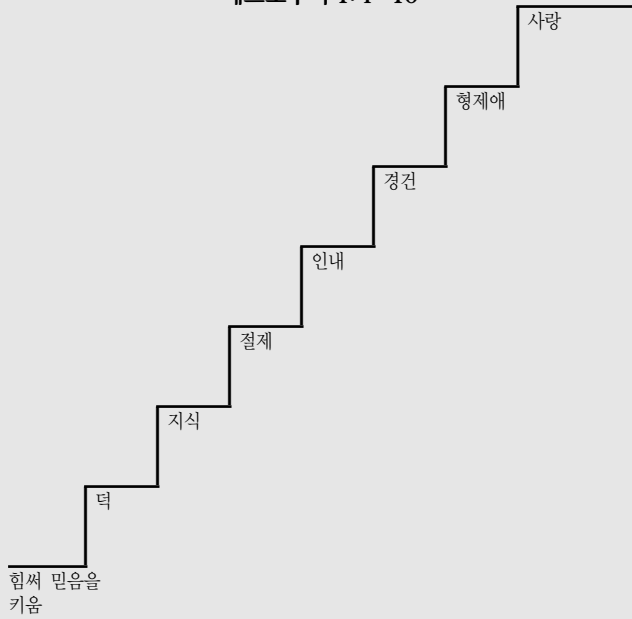
마태복음 5:46; 고린도전서 13:13; 골로새서 3:12~15;
베드로전서 4:8; 니파이후서 26:30; 앨마서 7:24;
34:29; 이터서 10:32; 12:34; 교리와 성약 18:19;
31:9 참조.

모로나이서 7장 45~47절에 열거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랑의 속성을 생각해 본다.

- 오래 참음
- 온유함(친절함)
- 시기하지 않음
- 교만하지 않음
- 무례히 행치 않음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 쉽게 성내지 않음
-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 진리와 더불어 기뻐함
- 모든 것을 참음
- 모든 것을 믿음
- 모든 것을 바람
- 모든 것을 견딤
- 영원히 견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

베드로후서 1:4~10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결심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개인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안정된
결혼이 바로 시작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개인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안정된 결혼이 바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시작됩니다.”(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4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우리가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또는 완전한 성공을 이룬 교회로 생존하려면 그러한 힘과 결심이 보여져야 하는 사회의 한 장소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과 고결성과 강한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자녀와 그리고 도덕에 대해 변함없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상의 성공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성공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70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영적인 화평은 민족이나 문화나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결심과 복음의 성약과 의식에서 찾아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2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저는 결혼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의 신성한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곧 딸의 내면에 피어나는 여성스러움과 이들의 남성다움이 찌트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항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들은 은밀히 해결돼야 합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성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실패하는 결혼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이해합니다. 어떤 이혼이든 그 자체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식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는 약속은 어떤 것이든 존엄한 성약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맺어지는 가족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리나 문화가 달라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결혼은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약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성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인봉의 권세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혼 성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성약을 깨뜨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인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성약을 깨뜨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정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나 권능도 갖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혼 당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약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 일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이유’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도저히 희망 없이 계속되는 관계보다 덜 심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저는 성스러운 결혼 성약을 깬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정신적인 갈등’ 때문이라거나 ‘성격 차이’ 라거나 ‘성장 환경이 달라서’ 라거나 ‘사랑이 식어서’ 라는 따위의 것들은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 거룩한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디도서 2:4)

“저는 가정 생활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나 여자나 자녀 모두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룩한 역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으로 인해 교회 회원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말라기가 언급했듯이 엘리야에 의해 회복된 위대한 인봉의 열쇠는 이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데 적용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렇지 않을 때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교리와 성약 110:15; 말라기 4:6)고 예언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6~37쪽)

러셀 엠 넬슨 장로

"결혼 생활이라는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며 게으름에 의해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사랑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즐거운 특권일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경전상의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23쪽)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구에 기간에 했던 것처럼 배려와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듯이 둘만의 시간을 매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이를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를 위해 헌신과 계획과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4쪽)

아테스 지 캡 자매

"성약을 맺고 우리의 위대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집인 성전이 참으로 중요한 모든 것의 초점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는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가족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의 청년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청년 주제를 암송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9쪽)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56~60쪽

형제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고도 우리의 생활 속에 기억되고 적용될 만한 많은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여러분에게 총관리 직원들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성스러운 신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더 큰 소망과 결의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경험

지난 십년 동안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적지 않은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십년 가까이, 저는 교회에서 파문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길 청원하는 사람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일에 관여해 왔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들은 교회 표준에 저촉되는 심각한 범법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은 범법은 간음이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남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도 조치가 취해지고 여러 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들은 전에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다시금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 중의 한 사람은 제게 "성신의 은사가 거두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은사의 고마움을 알고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불행

지난 십년 간 저는 교회의 자매들에게 서너 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씀에 대한 느낌을 편지로 적어 보내 주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저는 "불행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파일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편지들이지만 모두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바로 지난 주에 받은 편지의 일부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지의 발송인에게서 이미 허락을 받아 두었습니다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적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남편은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 온 아주 활동적인 회원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또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열렬히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복음을 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음악회나 명승지를 찾았으며, 지식을 얻는 것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곧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이 영예로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귀환하자 남편은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 저희는 독립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대학) 수석 입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으나, 임신한 뒤로 몸이 아파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온 시간과 노력을 남편과 아기에게 쏟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저는 남편을 도왔으며, 남편은 학업을 마치고 얼마간의 직장 경험을 가진 후, 마침내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모두 교회와 지역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봉사했습니다. 또한 다섯 명의 아름다운 자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봉사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요령,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빵을 굽고, 복숭아, 사과, 토마토 병조림을 만들었으며, 바느질과 뜨개질, 집안 청소를 하거나 꽃과 채소를 가꾸느라 분주했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관계는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저나 남편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저는 완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력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생활에 파탄이 찾아왔습니다. 약 1년 전인가,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면서, 그에게 있어 저희들의 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수속을 하더니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기다려요.’ ‘아,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 떠나야만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발 말 좀 해 봐요. 애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꿈은 어떻게 하고요? 성약을 잊으셨나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라고 외쳤으나,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어린 아들들은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어린 딸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또한 술한 밤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여야만 하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혼란 속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 했습니까? 제 학교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제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 주세요! 저 역시 남편에게 버림 받은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돌보아야 할 자녀는 많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쌓여만 가는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전 남편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의 편지라도 한 장 제게 보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지만, 성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주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18년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와 그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 살과 피와 유산을 나눈 다섯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이유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니파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선지자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는 보라, 나 주가 예루살렘 땅에서 참으로 내 백성의 모든 땅에서, 그 남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내 백성의 딸들의 슬픔을 보았고, 그 슬퍼함을 들었음이라.

“... 너희의 마음 고운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너희의 자녀들 앞에 보인 너희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나니,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너희를 고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 또 너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찢려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야곱서 2:31, 35)

폭력적인 기질을 다스림

또다른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뛰어난 성품과 많은 능력을 겸비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통 권위주의 일색이지요 ... 그의 그러한 변덕스러운 기질이 폭발할 때면, 제

마음은 종종 그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의 요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곤 합니다.

“헝클리 회장님, ... 모쪼록 형제들에게 여성에 대한 육체적, 언어적 학대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서로의 차이점을 트집잡는 비겁한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특히 신권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더욱더 인격을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결혼은 행복하며, 아내와 남편 모두 다, 안정과 사랑, 상호 의존과 짐을 서로 나눠지겠다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평화와 평안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칠고 불친절한 말로 인해 생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별 의미도 없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평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물론 각자 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극히 사소한 일로 인해 분노를 발하는 성향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제껏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언에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잠언 27: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기질은 것처럼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이 주는 비극은, 그것이 선을 이루는커녕, 오로지 적의와 반항심과 고통만을 수반하는 악을 조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들 중에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할 것과, 고통을 주어 온 사람에게 사죄할 것,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혀를 제어할 힘을 스스로 갖추게 되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자신의 성향(기질)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과 힘을 키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분노를 터뜨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약점이 득세하게 되면, 이성이라는 강점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강한 자제력을 연마시키십시오.

결혼 성약의 신성함

이제 저는 수많은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결혼을 파괴하는 또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의 계명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4, 17) 미국 ABC 방송국의 ‘나이트라인’ 뉴스 사회자인 테드 코펠은 듀크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마약과 부도덕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슬로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표어나 표제 따위가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 하지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이 참신하거나 재치가 있지 않아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거나 아니면 에이즈 병동에서 죽어가는 신세이기 때문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의를 찾아냄으로써 우리 자신을 원시적 진흙탕 속으로부터 끄집어 내고자 이미 오천여 년 동안 힘써 노력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리는 어깨를 그저 살짝 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부짖는 포효와 같은 심한 질책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결코 열 가지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것은 열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물론 나아가 모든 세대의 행복과 안녕, 구원과 안전을 위해 여호와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거의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침에 아내를 두고 집을 나서서 직장으로 가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잘 차려 입고 화장을 한 매력적인 여성들과 어울리게 되고, 자연스레 자신 역시 젊고 미남이어서 남들의 피할 수 없는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는 이제 이십 년 전 결혼할 때의 모습과는 같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십 년이나 함께 살고서도 똑같은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약점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신권의 권능으로써 인봉한 가장 성스럽고도 엄숙한 성약을 바람결에 날려 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깊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아내를, 마치 부유해졌을 때에 버리기로 예정이라도 한 것처럼 내어 던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법정에서 선고 받은 자녀 양육비 및 부양 보조비를 무슨 수를 써서건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부정적으로만 말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다루다 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같은 서신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디모데전서 5:22)고 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참고 지속시킬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설사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갖게 되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18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다섯 자녀를 둔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의 불평은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성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치졸한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를 빚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사소한 잘못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서로간의 작은 차이가 커다란 갈등의 심연으로 깊어져 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내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녀가 더욱더 매력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내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라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외모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내에게 거드름 피우며 아내를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요구를 일삼는 남편이 있다면, 이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임은 물론 자기 자신의 품위마저도 깎아 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들들에게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범할 수 있는 소지마저 물려주게 됩니다.

여성 없이는 끝없는 행복도 없음

하나님의 신권을 부여 받은 형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좋은 아내 없이는 끝없는 행복도, 마음의 지속적인

평화도, 가정 내의 평온함도 없습니다. 아내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 받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행동을 태초에 이미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지배당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경전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잔악한 행동을

정당화시켜 온 연약한 인간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슬픔과 비극과 비통함이 자행되어 왔습니까? 그들은 같은 구절에 이브가 아담의 배우자로서 주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서로 함께 있었으며,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함께 쫓겨났으며, 이마에 땀을 흘려 함께 열심히 일함으로써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너무 소수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수 중에서도 희생자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저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신발이 맞으면, 신어라”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징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꾸짖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결혼의 아름다움

주님의 제단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시작되는 선남선녀의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양육과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 받고 축복 받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평화와 힘과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게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후에 닥칠지도 모를 비극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하나 둘 독립하여 떠나면, 집에는 단지 부모만이 외로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지하고, 서로 북돋아 주고, 격려하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에 서게 되더라도 만족과 기쁨만이 떠오를 뿐입니다. 온 생애 동안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예의가 있었으며, 텅 빈 관계를 채워 주는,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곧 닥칠

결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갖게 되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것이라는 것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리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신권의 권능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인봉되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릴 만큼 합당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감미로운 재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며, 주님의 선지자들 또한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도 필요하며, 비이기적인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인 동반자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깊은 관심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축복이 되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70~72쪽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트에” 머물러 있거라

저와 제 아내가 결혼 초기에 미네아폴리스에 살던 어느 날, 우리는 남는 오후 시간을 두 살 된 딸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의 많은 아름다운 호수 중의 하나를 찾아가 작은 보트를 빌렸습니다. 호숫가로부터 멀리 배를 저어 나가, 잔잔한 호수 가운데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별안간 우리 딸이 한 쪽 다리를 들어 보트 밖으로 내밀면서 “아빠, 이제 보트에서 내릴래.” 하고 소리쳤습니다.

황급히 우리는 아기를 붙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애야. 지금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트가 우리를 안전히 호숫가로 데려다 줄 때까지는 보트에 있어야 한단다.” 오랜 설득 끝에 우리는 딸 아이에게 보트에서 너무 일찍 내리는 것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지 부모가 지닌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들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리석게 보트에서 내리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²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전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구절 중 한 예를 들겠습니다.

“... 시온을 세우려 힘을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³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⁴ 제가 말씀드린 경험에 비유해 보면, 우리는 처음에 주님과 함께 “보트에 타어” 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 그분과 함께 “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보트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할 것이며, 그 곳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다면 들리워질 것이다

‘들리워진다’는 말은 간단한 실험으로 입증될 수 있는 물리 법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⁵ 속이 빈 실패를 사용하여, 실패에 난 구멍을 붙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쉬는 힘으로 종이 조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와 끈은 핀을 준비합니다. 이 핀으로 카드 가운데를 뚫습니다. 실패 구멍에 핀을 넣어 카드를 실패 가까이 붙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시 실패 구멍을 붙겠습니다. 제가 부는 순간, 카드를 놓아 물리적인 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충분히 입김을 부는 한, 카드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불지 못했을 때, 카드는 떨어졌습니다. 제 입김이 다 했을 때, 반작용인 중력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 힘이 견딜 수만 있다면, 카드는 무한정 떠 있게 될 것입니다.⁶

중력에 대항하여 무언가를 떠 있게 하려면,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우리 개인의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에너지와 참여려는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5킬로미터 경주의 승리자는 5킬로미터의 마지막 지점에서 선언되는 것이지, 1~2킬로미터 지점에서 선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스턴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면, 별런톤에서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위를 받고자 한다면, 학기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멋진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시켜 놓고, 샐러드만 먹어 보고 식당을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시작하면서 참고, 일을 해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반대를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즐기려면 먼저 그 일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
일을 벌이는 자는 많으나, 완수하는 자는 적다.
명예, 권세, 권좌 및 칭송들은 항상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
일을 마칠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
힘을 쏟고 땀을 흘리고 미소를 지으라
열심히 일한 것과 땀과 미소가
결국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 주리라.⁷

때때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참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병을 앓거나 고령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그러한 시련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⁸ 대체로 심한 육체적 고통은 영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참아 내기 위해 우리는 확실하게 개종해야 합니다

초기 개척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서부 이주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올해의 150주년 기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핼박,⁹ 추방,¹⁰ 정부의 근절령,¹¹ 재산 몰수¹² 등 많은 것들을 굳건히 견디어 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끈기 있는 신앙은 여러분과 저를 들어올리듯이 그들을 들어올렸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은 각 개인의 구원과 승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한 후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성역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간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¹³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분의 사명을 회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¹⁴ 그분의 속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멸과 영생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¹⁵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¹⁶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성역 초기에 그의 추종자들의 결심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그분은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¹⁷ 그러나 몇몇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¹⁸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견딜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분이 십이사도들을 돌아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¹⁹

베드로의 답변은 결심의 참 핵심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개종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것이 됩니다.

결혼 성약 안에서 견딜

이 견디는 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회원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성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결혼, 특히 성전 결혼과 가족 결속은 성약 관계입니다. 그것들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때, 많은 배우자가 서로에 대한 성약을 끝까지 지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부 성전 결혼도 실패하는데, 이는 남편의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신권 의무가 아내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²⁰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²¹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최근에 모든 후기 성도 남편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신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²² 그의 현명한 조언에 우리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²³ 영원한 사랑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영원히 들어올려 줍니다. 참고 견디는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결속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심 중의 하나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안에서 견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결심은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²⁴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견디겠다는 진실된 결심도 없이 성스런 침례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침례는 참으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²⁵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 줍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서 건성으로 활동하는 자와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²⁶

주님께 충실함이란 그분의 교회를 이끌도록 주님께 부름 받은 자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하도록 성임된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²⁷ 그들이 주님의 가라앉지 않는 보트를 구원의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동안 우리는 보트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²⁸ “대양과 천지의 주 계시는 그 배를 삼킬 파도 없도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보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합니다. 슬프게도 또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선지자들보다도 인생의 험난한 길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에 의해 현혹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결정과 관계없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실수가 아닌 일로 부당히 버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속주로부터는 결코 버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³⁰

주님에 대한 강한 결심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결심에도 소홀하기 쉽습니다. 영원한 성약에 대한 결심이 약하면 영생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표현된 대로 인생에 대한 불평은 미래를 후회로 점철되게 합니다.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것 중에
가장 슬픈 것은, “할 수 있었는데.”라는 말이다.³¹*

우리는 모든 축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³²

올바른 우선 순위는 우리가 견디도록 돕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견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끝까지 견디길 원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몇 가지 개인적인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충실함을 유혹하는 많은 흥미로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우선 “보트에서” 안전하게 있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³³ 만약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재미, 무절제한 관계, 명성, 또는 부귀 같은 것들을 끝까지 견디도록 거룩한 성약을 맺은 배우자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한다면, 이는 사탄이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혹에 맞서서 이전에 맺은 성약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길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고, 명한 것을 행할지어다.”³⁴ 주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³⁵

우선 순위가 올바르다면 견디는 힘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선 순위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보트에서 내리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혼이나, 교회나, 인생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창조주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의 원리에 의해 자신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디도록 도우실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면 주님의 들리우는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며, 여러분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³⁶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부름을 주셨습니다. 히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뚝 서서, 가슴 속 깊은 찬송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복음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왕국을 건설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충성하며 신앙을 지킵시다.”³⁷

우리 모두가 참고 견디어 마지막 날에 들리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마태복음 24:13; 마가복음 13:13; 니파이후서 33:4; 옴나이서 1:26; 제3니파이 15:9; 교리와 성약 14:7; 18:22; 20:29 참조.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주셨다. 위대하신 엘로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니파이후서 31:15) 또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흡족할 것이요, 내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제3니파이 27:16)
2. 견디다라는 영어 낱말 *endure*(엔듀어)는 라틴어의 두 개의 어근에서 비롯된다. 접두사 *en*은 “내부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뒤의 *dure*는 동사 *durare*에서 나온 것으로,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endure*는 “당신 내부에 확고해지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뜻이 성경의 원어에 도입된 것이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어근인 *aman*이라는 말은 “신뢰하기 위해 확고하게 주다” 혹은 “충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종종 “믿음이 있는(faithful)”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신앙(faith)”이라는 말로 번역된 경우는 없다. ‘*Aman*’은 신앙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동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충실하기 위한 확고한 결심”을 의미한다. ‘*Aman*’은 또한 히브리어 어근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련 용어로 번역되었다. “확인하다(verified)”, “믿다(believe)”, “오래 계속됨(long continuance)”, “확신(assurance)”, “설립(establish[ed])”, “확실한(sure)”, “신뢰하다(trust)”, “꾸준한(steadfast)”, “안정된(standfast)” 등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hupomeno*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것은 “남아 있다”, “머물다”, 또는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Hupo*(*hypo*)는 “아래(under)”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hypodermic*(“피부 아래”) 혹은 *hypothermia*(저온) 등과 같이 사용된다. 견딘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 결의하는 것을 내포한다.
3. 니파이전서 13:37; 모사이야서 23:22; 엘마서 13:29; 36:3; 37:37; 38:5; 제3니파이 27:21~22; 이더서 4:19; 교리와 성약 5:35; 9:14; 17:8; 75:16. 더욱 강조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이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따르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회개치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지 아니하면 저주 받으리라 하시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 말씀하셨음이라.”(니파이후서 9:24; 31:16; 몰몬서 9:29 참조)
4.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5.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거주하는 교회 지역 관리 역원이었던 노먼 시 보험 장로가 1996년 8월 17일에 물리학에서의 이 버눌리 법칙 실험을 처음 저자에게 보여 주었다.
6. 부양의 법칙은 비행기가 날 때마다 작용한다. 그것은 “비행기의 외장 또는 날개에 달린 미사일에서 작용하는 총체적인 역학적 힘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마주치는 바람에 수직으로 떠오르며, 일반적으로 중력의 끌어당기는 힘과는 반대로 위로 추진된다.”(*American Heritage Dictionary*, 3판 [1992], “lift”, 1040쪽)
7. “일에 매달리라”, 후기 성도 애송시, 잭 엠 라이온 외 다수 편(1996), 255~256쪽.
8.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95세에 자신이 “이 생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했다.(대회 보고, 1970년 10월, 92쪽) 평생토록 충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했던 스미스 회장은 우리 모두의 표상이 되었다.
9. 조셉 스미스-역사 1:20, 22~24, 27, 58, 60~61, 74.
10. 개척자들은 오하이오 주에서 미주리 주로, 다시 일리노이 주로 쫓겨났으며, 결국에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까지 이동해 갔다.
11. 초기 개척자들은 “물문을 적으로 간주하여 이 주에서 근절시키거나 쫓아내야 한다.”(*교회 정사* 3:175)고 지시한 미주리 주지사의 명령에 따른 위협으로 미주리 주를 떠나야 했다.
12. 1887년, 미국 의회는 공동 현장을 폐기하고, 로간, 맨타이, 세인트조지 및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비롯해, 교회의 모든 소유물과 기타 자산을 연방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소유하도록 승인함으로써 교회의 법적 존립 자체를 말살하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재단 법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대 미국 소송*, 136 U. S. 1[1890년] 참조)
13. 디모데후서 4:7.
14. 제3니파이 27:13 참조.
15. 모세서 1:39 참조.
16. 요한복음 17:4; 4:34 참조.
17. 마태복음 14:21; 16:9; 마가복음 6:44; 8:19; 누가복음 9:14; 요한복음 6:10 참조.
18. 요한복음 6:60.

19. 요한복음 6:67~69.
20. 교리와 성약 42:22.
21. 이 말은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해 왔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49쪽 참조.
22. 1996년 11월 9일, 페루 리마에서 가진 첫번째 회원 노변의 모임.
23. 에베소서 5:33.
24. 합당한 사람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 신권을 통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84:33~48 참조)
25. 교리와 성약 132:19.
26. 마가복음 4:17.
27. 교리와 성약 1:38; 21:5; 68:4 참조.
28. 사도행전 27:30~31; 니파이전서 18:21~23.
29.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찬송가, 59장.
30. 교리와 성약 82:10.
31. 존 그린립 위티어, “모드 물러”, *위티어 시집*(1892년), 48쪽.
32. 교리와 성약 14:7.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인내에 관한 개념을 신앙개조 제13조에 포함시켰다.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33. 마태복음 6:24 참조.
34. 조성, 누가복음 14:28.
35. 예레미야 31:33.
36. 모로나이서 10:32.
37.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0쪽.

대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원할 때
들어주어야 합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관련 성구

욥기 6: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골로새서 3:8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히브리서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19~20

“...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사이야서 2:32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주의하고”

엘마서 12:14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제3니파이 11:29

“...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버지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교리와 성약 20:54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들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리와 성약 88:124

“...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라 ...”

교리와 성약 136:23~24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

“술 취하기를 그치라. 그리고 너희 말은 서로 교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되게 하라.”

정선된 가르침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대화할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의 관계와 현실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에드워드 노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을 잘 지키려면

다섯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말하는가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지만 기꺼이 대화해야 합니다. 이는 참된 형제애는 친구와 가족이 대화 중에 별 가치 없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지니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의 경우 오히려 더 거리만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침묵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모를 때 그들을 믿기가 어려우며, 이것이 대화와 관계의 성장을 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영혼의 창을 여는 것은 건전한 관계를 이룩하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나 그 창문이 항상 닫혀 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면,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81~82쪽)

가족간의 대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50~52쪽

몇 주 전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어느 아버지가 내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원만하게 대화를 하는데 왜 아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이지요?”

“제가 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높은 탄성을 피우거든요.”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가족간의 대화

그 다음에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주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가족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대화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가족간의 대화는 희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함께 나누며, 이해하려면 시간, 금전, 재능, 인내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번히 대화의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간청하거나 위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족간의 대화 중에 강요나 명령, 또는 당황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감정과 지식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가족이 토론하는 중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잘 검토하여 조용히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견해나 의견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관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대화를 위해서는 예의와 존경을 보이며 경청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훌륭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느껴 대화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여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논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스 스티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떤 것을 들을 때 비로소 머리로 듣게 되며, 오늘 마음이 어떤 일을 알게 되면 머리는 내일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기본적인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생

1. *기꺼이 희생하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는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가족이 갖고 있는 대화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능력과 자기 수련을 쌓으십시오. 즉 나누어 주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을 기꺼이 마련하십시오. 자신의 선입관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의 선입관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날은 슬픔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만 자신만은 주시지 않아.”

우리는 너무 속히 그리고 너무 자주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바쁜 게 안 보여요?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는 태도를 보일 때 가족은 다른 곳으로 가 버리거나 혼자서 조용히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기꺼이 서로에게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상황에 있을 때, 즉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혹은 데이트 후, 상심, 성공, 실망을 했을 때라든가,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해 대화하려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를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각기 반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감정과 지식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화가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과 느낌과 걱정거리를 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야고보서 3:13)

환경을 조성함

2. 대화의 장소를 잘 마련하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는 장소의 위치, 배경, 환경 등이 편하고, 은밀하며, 대화를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화는 작은 숲 속, 산, 바닷가, 가정의 밤, 산책 중, 자동차 안, 휴가 중, 문병 중, 그리고 등교 중이나 운동 경기 중에 잘 이루어집니다. 장소가 마련되면 가족의 말을 열심히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 구경을 간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득점 수를 잊어 버릴지는 몰라도 아빠와 함께 구경한 추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살 된 소녀가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솔트레이크에서 프로보까지 갔다 왔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는 쉽게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틀어 놓았었어?” 하고 내가 물었더니, “아니오, 아빠와 이야기만 했어요.” 이 소녀는 아버지와 단 둘이 이야기한 즐거운 경험을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원할 때면 언제나 이러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경청

3. 귀를 기울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기만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부단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의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움, 우리의 공감을 구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때가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열심히,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야고보서 1:19~20)

느낌을 말로 표현함

4. 느낌을 말로 기꺼이 표현하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우리의 느낌을 추측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추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생각과

기대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보다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포웰은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 조그만 병실에서 나는 팔로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베개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

“모두 끝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모른다. 너를 끔찍이 사랑하셨어.’라고 첫 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 이 말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마치 섬광과도 같았으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방 저쪽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에게 와서 어깨에 팔을 얹고 위로를 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약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애와 마음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사랑의 비결, 나일스, 일리노이주, 아저스, 1974년, 68쪽)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찬 대화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

부모는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와 효율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냥함과 사랑을 지니고 이야기할 때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은 이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목소리를 사용하여 말할 뿐 아니라 어조, 감정, 시선, 태도 그리고 인격을 나타내 보이며 효과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나 딸과 이야기할 수 없게 될 때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의미 있는 미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따뜻한 악수 등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침묵은 고립을 가져 옵니다. 긴장된 침묵은 의아한 마음과 상심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것은 지속적인 대화의 완전한 영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5. 비판을 하지 않으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놀라움과 혐오감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선택의지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해지십시오. 밝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훌륭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을 위해 공통되는 근거를 발전시키도록 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는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개성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다루며, 편견과 감정을 피할 수 있다면 가족간의 대화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부적당하거나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면서도, 그에게는 결정의 권리가 있으며, 여전히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태도를 보일 만한 능력과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칭찬해 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원숙한 부모가 아니고는 실수를 한 경우 자녀에게 사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한 사과는 아들이나 딸로 하여금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야고보서 3:2)

신뢰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됨

6.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중요한 일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관심을 보이십시오.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믿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간의 신뢰가 지역 사회의 신뢰보다 덜 중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대화함

7. 인내심을 나타내 보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대화 중 자신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할 때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 주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일 때 우리 자신의 인내심이 발전합니다.

“인내하라. 진지하라. 절제하라. 인내, 신앙, 소망, 사랑을 품으라.”(교리와 성약 6:19)

“난 네 불평 소리에 넋덜이 난다.” 혹은 “내가 수도 없이 말했다.”라는 말은 가족간의 대화에서 인내심이 사라지고 대화의 길이 단절되는 것을 나타내는,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긍지와 희망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는 대화는 보다 효과적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용히 인내하는 것은 값진 미덕입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반감만 갖게 됩니다. 가족 단위는 교회의 기초가 되므로 가족 각자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화는 가족의 결속과 영속을 다지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효율적인 대화

저는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듣고,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비밀을 지키며, 인내심을 기쁨으로써 가정에서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울고, …”(욥기 6:25) 정말 그렇습니다.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때 나눈 적당한 말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가족간의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노력한다면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가정의 단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배우기 위해 경청함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22~25쪽

배우기 위해 경청함

이 모임을 위한 개회 기도를 하면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님은 우리가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쓰여진 많은 기사들은 경청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¹ 이 기사들은 잠언에 나오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잠언 19:20)²는 중요한 교훈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린이, 부모, 배우자, 이웃, 교회 지도자 그리고 주님께 배우기 위해 경청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녀

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녀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경청하십시오. 한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³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막내딸이 네 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하루 종일 겨우 아홉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돌보았을 뿐인데 왜 그렇게 지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네 살짜리 막내를 재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엄한 상사가 하는 것처럼 막내 딸에게 “옷을 벗어라, 벗은 옷을 걸어라. 잠옷을 입어라. 이를 닦아라. 기도를 해라”하는 등의 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딸아이는 머리를 한쪽으로 쳐들면서 애원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며 “아빠, 제가 아빠의 소유물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힘으로 다루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 아닌 구주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특권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인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원할 때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기쁨에 찬 일에서부터 고달픈 역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열망을 그만큼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즉흥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믿고 그들의 느낌을 이해할 때에 자녀들은 포근한 안도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일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가끔 오해를 부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저 때문에 화 나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엄마가 뒷짐을 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이 고독을 느끼거나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친절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가장 없어 보일 때 가장 많이 돌보아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명하신 부모와 교사 여러분, 어린이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경청하십시오.

부모

자녀 여러분, 오늘 아침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배우기 위해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는 일은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뉴욕의 어떤 의과 대학으로부터 중요한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강의 전 날 아내와 저는 저녁 식사를 초대 받아 저희를 초청한 교수의 집에 갔습니다. 그 때 그 교수는 자랑스럽게 의과 대학 우등생인 아름다운 딸을 소개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 교수는 슬픔에 가득 차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난 제 딸을 기억하시지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매력적인 따님을 잊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는 흐느끼며 “어젯밤 제 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말하기를 “딸애가 어느 젊은이하고 무도회에 가도 되느냐고 묻길래 저는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애가 왜냐고 이유를 묻기에 그저 불안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딸애는 항상 순종적이었는데 그 날은 제가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없다면 무도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 애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도회에서 술 잔이 오갔고, 제 딸을 데리고 간 젊은이는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젊은이는 과속으로, 회전할 곳에서 회전을 못하고 길 난간을 들이받고 밑의 저수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익사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제가 더 가슴이 아픈 이유는 다가올 불행을 알면서도 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경험이 헛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모든 연령층에 해당됩니다.⁵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잠언 1:8)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⁶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에베소서 6:1)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⁷

현명한 자녀 여러분, 배우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배우자

남편과 아내 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경청하십시오. 저는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가 쓴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의 전기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 아이다 자매님에 대한 롬니 회장님의 유머와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롬니 회장님이 아이다 자매님의 청력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번은 아내의 청력이 걱정되어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상태를 물어 보았으나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먼 방에서 아내를 불러 보고 아내가 들을 때까지 가까이 가면서 계속 불러 보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아내가 부엌에 있을 때

침실에서 불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더 가까이 가서 말을 해 보았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엌문 앞에 가서 ‘여보, 내 말이 들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무슨 일이에요. 세 번이나 대답을 했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⁸

어떤 부부들은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원활한 의사 소통의 지름길입니다. 결혼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관계라면 가장 귀중한 시간을 그것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중요하지 않은 약속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배우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며 게으름의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사랑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즐거운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전적인 요구 조건입니다.⁹

훌륭한 배우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

현명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그의 오시는 시각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경청하고 주의 음성을”(교리와 성약 133:16~17) 들을 때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마빈 제이 애쉬튼, “가족간의 대화”, *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50~52쪽.

린 베이커, “시간을 내어 들어 보세요!”, 1969년 3월호.

Marilyn A. Bullock, “Listening to My Two-Year-Old”, *Ensign*, 1983년 1월호, 70쪽.

헨리 비 아이어링, “Listen Together”, 1988~1989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Provo: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89), 11~12쪽.

Winnifred C Jardin, “Listen with All of You”, *Ensign*, 1974년 2월호, 51쪽.

래리 케이 랑글로이스, “부부가 서로에게 경청하지 않을 때”, *성도의 빛*, 1990년 10월호.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80년 1월호, 18~20쪽
에이치 버크 피터슨, 1990년 7월호, 96~97쪽.

“Giving with Your Ears”, *Church News*, 1985년 1월

- 13일, 16쪽.
- “Parents, Are You Listening?”, *Ensign*, 1971년 2월호, 54~57쪽.
2. 잠언 8:32~33; 야곱서 6:12 참조.
 3. 조지 디 듀란트, “말할 시간을 가짐”, *성도의 벗*, 1973년 4월호; 야고보서 1:19 참조.
 4. Florence B. Pinnock, “Let’s Listen”, *Improvement Era*, 1964년 10월호, 872~873쪽.
 5.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마태복음 15:4; 19:19; 마가복음 7:10; 10:19; 누가복음 18:20; 에베소서 6:2; 니파이전서 17:55; 모사이야서 13:20 참조.
 6. 레위기 10:11; 신명기 4:10; 6:5~7; 11:19; 모사이야서 1:4; 교리와 성약 68:25, 28; 모세서 6:57~58 참조.
 7. 골로새서 3:20 참조.
 8. F. Burton Howard, *Marion G. Romney: His Life and Faith*[Salt Lake City: Bookcraft, 1988], 144~145쪽
 9. 에베소서 5:25, 33; 골로새서 3:19; 베드로전서 3:1; 야곱서 3:7; 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성약과 의식

성약을 지키면 안전할 것이나,
성약을 깨뜨리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성약을 지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약속의 성령이란 침례나 확인이나 성임이나 결혼 등 모든 의식에 승인 도장을 찍는 성신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란 우리가 충실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침례나, 성임이나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에서든 성약을 깨뜨리면 영은 승인 도장을 취소하게 되어, 그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의식은 충실을 전제로 한 보상의 약속과 함께 인봉됩니다. 성약이 깨어지면 성령은 승인 도장을 취소합니다.”(구원의 교리 1:45)

“이혼은 복음의 계획이 아님. 모든 인류가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이 가져다주는 사랑 안에서 생활한다면, 모든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혼이라는 단어는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이혼에 대한 주님의 형벌 ...

“교회의 율법에 따른 결혼은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결혼 성약을 지키며 생활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충만한 승영을 얻게 됩니다. 성약이 깨질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이니, 이는 우리가 육신으로 생활한 모든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의식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 없이 성전 성약이 깨어질 수 없습니다. ...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음. 결혼한 부부가 저야 할 의무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28;

모세서 2:28] 이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현세적 존재의 특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의 자녀들이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다시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신이 나뉘어질 수 없게 결합되는 부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

“아담에게 주어진 번성하라는 계명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 에게 세우리니[창세기 9:7~9]

“인류가 영생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결혼 성약을 거절했을지라도 이 성약은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극악한 죄임 ...

“결혼 성약을 범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죄를, 주님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 다음에 놓으신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까?[앨마서 39:5~9 참조] 이 영원한 율법을 깨뜨린 자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음란한 죄와 결혼 성약을 깨뜨리는 것의 극악함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생명의 율법을 함부로 악하게 변경시키는 무서운 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른체하고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엄연히 있음에도 한두 대 정도의 매만 맞음으로써 율법을 깨뜨린 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구원의 교리, 2:71, 76~77, 81~82)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이러한 복음의 결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신과 그러한 확신이 주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얻게 될 영생은 우리 모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전 성약을 지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성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전해 준 부활에 관한 시현의 기록에서 교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이 기대했던 부활보다 낮은 단계의 부활에 이르러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커다란 슬픔

가운데 하나였다고 기록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49년 10월호, 43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오늘 저녁 저의 말씀은 성약을 어기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올 생활 방식을 조장하거나, 이에 빠져 들거나,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영적으로 위험한 생활 방식을 합법화하고 보편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낙태, 동성애 그리고 약물 중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에 걸쳐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 학교, 또는 일상의 대화나 대회 및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도덕적, 영적인 측면입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면은 도덕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성약이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약을 지키면 안전할 것이나, 성약을 깨뜨리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부도덕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라고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96~97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이 성구(교리와 성약 132:19)에서 가르치듯이 영원한 결혼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인봉 성약의 결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갖는 가족 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영원을 통해 대대로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계명에 의해 부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고 말씀하셨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5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패트리시아 티 홀런드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권세가 어둠과 위험과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개인적인 모든 실수와 우리가 행한 모든 어리석은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복의 계획에 대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걱정을 털어 주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결점을 보완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순수하고 한결같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라모나이 왕이 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획이었으며, 그것은 그를 기절시킬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 사항이 그만큼 간절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강하고, 우리의 견해가 그만큼 분명할 때, 우리도 기절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성약을 지키면, 어둠의 구름이 물러가고 영원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불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패트리시아 티 홀런드: 성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도록 결의를 굳게 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갖고 계신 큰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마음 역시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성약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간에 구속력이 있고, 거룩하고, 완전한 계약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자신이 맹세한 것들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맹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절함으로 답하실 때에만 성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가 결코 가볍게 언급되어서는 안 되며 성약의 언어들은 더 높은 차원의 언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에 의하면 성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인간 세상에서 독특한 계약과 관계를 맺어 줍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출애굽기 19:5)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약을 지키는 일이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26)고 하는 이유입니다.”(Green and Anderson, *To Rejoice as a Woman*, 99~100쪽)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따라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이라고 불리우는 신권의 반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약에는 자녀를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부모들이 이 성약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야기됩니다. 부모가 건강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성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5년 전,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기혼 여성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를 그만둘 때에는 충실한 후기 성도가 아닌 기혼 여성이 한 명이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 원하는 것이 드문 일이 되었으며,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 성약을 어기게 하는 세상의 거짓 교리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시험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12쪽)

성약에 근거한 주님과와의 관계

복음의 성약을 점검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검은 우리의 성약과 성스러운 의식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느 면을 회개하고 어느 면을 개선해야 할지를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훌륭한 계획과 신중하고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14쪽)

아래 도표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내용과 각 복음 성약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을 검토한다. 여러분은 향상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성약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과 관련된 성약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침례

권능

아론 신권의 제사(혹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지역 신권 지도자의 승인 아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그는 경전에 나와 있는 침례 기도를 드린 다음 침례 받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한다.

우리가 맺는 성약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성약한다.

-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간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 항상 계명을 지킨다.
-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진다.
-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결심을 나타낸다.
-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낸다.
- 죄 사함을 완전케 하기 위해 성신을 받을 준비를 한다.

니파이후서 31:17~21; 모사이야서 18:8~10; 교리와 성약 20:37; 신앙개조 제4조 참조.

약속된 축복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2. 우리가 합당할 경우,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하신다.
 -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심
 -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
 - 첫째 부활 때에 우리를 일으키심
 -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

성신의 은사

권능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지역 신권 지도자로부터 권능을 받아 기도와 안수로써 성신의 은사를 줄 수 있다.

우리가 맺는 성약

성신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침례 성약을 완수하고, 계속해서 겸손과 신앙을 지니며 끊임없는 성신의 동반을 받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신앙개조 제4조 참조)

약속된 축복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된다.
2. 우리는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을 누릴 권리 혹은 특권을 받는다. 또한 계속해서 영감과 신성한 나타내심과 영적인 은사와 성신으로부터의 지시를 받는다.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한 진리에 대해 증거해 주고, 영적인 지도와 경고를 전해 주며,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3. 우리는 성신의 권세로 성결케 혹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충실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이 불과 성신의 침례를 통해 개인의 마음과 소망이 깨끗하게 되고 영이 순수하게 된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회개와 침례의 과정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니파이후서 31:13, 17; 제3니파이 27:20 참조)
4. 우리는 성신의 은사가, 예언과 계시, 병 고침, 방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찬

권능

아론 신권의 제사(혹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지역 신권 지도자의 승인 아래 성찬을 집행할 수 있다. 성찬 축복문은 경전에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맺는 성약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약을 맺는다.

-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새롭게 결심한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자기 성찰과 회개 및 재현신의 시간이다.

제3니파이 18:28~29; 모로나이서 4~5; 교리와 성약 20:75~79; 27:2:46:4 참조.

약속된 축복

1.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신다.
2. 주님은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받음

권능

권능을 가진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합당한 남자 회원에게 기도와 안수로서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할 수 있다.

우리가 맺는 성약

신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성약한다.

- 훌륭한 신앙과 정직한 의도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다.(교리와 성약 84:33 참조)
- 그들이 부름 받게 되는 신권 직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
-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한다.(야곱서 1:19 참조)
- 복음의 지식을 습득한다.(교리와 성약 107:31 참조)
-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강화함으로써 봉사한다.(모사이야서 18:8~9 참조)
-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심하기에 부지런”한다.(교리와 성약 84:43)
- 주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따른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임이라.”(44절)

또한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49~51쪽에 있는 칼로스 이 에이 장로의 말씀을 참조한다.

약속된 축복

합당한 신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는다.

1.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지게 된다.(교리와 성약 84:33)
2.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34절)
3.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기” 된다.(34절)
4. 아버지의 왕국을 받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는다.(38절)
5. 아버지의 충만함과 영광을 받고 “신 ...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교리와 성약 76:58)이 된다.
6. 성약을 거부하고 “깨뜨리고 이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41)는 경고를 받았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교리와 성약 84편 41절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주님은 이 성구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4년 9월호, 38쪽)

성전 엔다우먼트

권능

성전 엔다우먼트는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의 은사이다. 그것은 헌납된 성전에서만 권능을 부여 받은 집행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의식으로, 가르침의 과정과 구원의 의식을 받는 것과 성약을 맺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95:8; 97:14; 109:13~15 참조)

성전 엔다우먼트는 침례를 받을 때 맺는 성약이 계속되는 것이며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전 성약에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과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알게 하는 시험”이 포함된다.(John A. Widtsoe, *Program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78쪽)

우리가 맺는 성약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약한다.
 “덕과 순결의 법을 엄격히 지키고, 자비롭고 유덕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결하기로 결심하며, 재능과 재물을 바쳐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진리의 대업에 계속해서 헌신하며 이 지상을 만왕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힘써 공헌하기로 성약을 맺는다.”(주님의 집, 73쪽)

약속된 축복

1. “모든 성약을 맺고 책임을 받아들이면, 조건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다.”(주님의 집, 73쪽)
2.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의 참된 관계와 ... 전반적인 면을 이해”(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07쪽)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258쪽)게 하며, “약에 정복되지 않”(242쪽)음으로써, “장자의 교회에 예비된 충만한 축복을 얻을 수”(224쪽)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가르쳤다.
3.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유타 버널 성전 헌납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당신께서 이 집을 방문하시고 당신의 영이 이 곳에 거하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We Thank Thee for This Sacred Structure”, *Church News*, 1997년 11월 8일, 4쪽) 성전 엔다우먼트를 통해 우리는 “성신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109:15)을 얻을 수 있다. 성전 의식은 성령을 통해 영감과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의 왕국의 결혼

권능

인봉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성전 의식 집행자는 성약이 현세와 영원을 통해 효력을 갖도록 기원한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거룩한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교리와 성약 131:1~3; 132:18~19 참조)

우리가 맺는 성약

해의 왕국의 결혼의 율법에 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부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원토록 상대방과 하나님에게 충실하겠다고 순수한 사랑으로 성약한다.
- 애정과 성관계를 상대방에게만 국한시키겠다고 성약한다.
-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족의 생활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생활하겠다고 결심한다.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창세기 1:28)하겠다고 성약한다. 이 세상에서 성전 결혼을 하는 주요 목적은 의로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업에 참여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거하는 집인 필멸의 육신을 마련해 주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반 관계를 갖게 된다.”(Ludlow, *Encyclopedia of Mormonism*, 2:859)

약속된 축복

1. 남편과 아내는, 해의 왕국의 영광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교리와 성약 88:4; 모세서 6:59 참조)
2. 그들은 모든 권세를 가진 신이 될 것이며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교리와 성약 132:19)을 상속 받게 될 것이다.
3. 그들은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에서 승영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4.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48~50 참조)

빛나간 성약의 자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봉되는 것은 후손을 안전하게 하여 그들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약에 의해 그들도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5:530)

브리검 영 회장

“이 교회와 왕국의 회원인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걷고 온 힘을 다해 결코 그릇된 것을 행하지 않고 평생 동안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게 하십시오. 자녀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신앙과 기도를 통해 자녀를 주님께 묶어 주고 해야 할 바를 행한다면, 저는 그러한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유대로 부모와 맺어져 있으며, 이 세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그들의 부모에게서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73쪽)

제일회장단 -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테너, 매리온 지 롬니

“가정의 신성함이 침해당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이 경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가정의 밤 교재를 통해 가정에서 사랑을 키우는 일의 중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빛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가족의 유대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Family Home Evening: Love Makes Our House a Home*, 2)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한 동안 그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권 속으로 빠져 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부모들은 반항적인 아들이나 딸들로 인해 번민하며, 부모로서 해야 할 바를 그토록 열심히 행해 왔는데도 왜 그렇게 속수무책인지 의아해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악한 영향력들이 언젠가는 다스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에게 인봉되고 신성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봉사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구원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 여러분의 조신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불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신뢰하십시오.(올슨 에프 휘트니,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쪽)

“성전 결혼과 인봉 의식이 지닌 결혼의 가치와 그에 요구되는 합당성의 표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성전의 제단에서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영원히 결혼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8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복음에 충실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영원한 인봉을 받은 자녀들은 성약을 충실히 지킨 그들의 용감한 선조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은 이러한 위대한 성약의 상속자가 되며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9쪽)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6~28쪽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성약임

3년 전 여름, 저는 새신랑 신부가 된 톰과 트레이시가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 동안 활짝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해 주려고 온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날 밤 언제쯤 이들이 모든 결혼 생활의 시련이 되는, 상반된 것을 경험하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결혼이 계약 결혼인지 성약 결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부가 결혼식 날 기쁜 얼굴로 한숨을 쉬면서 그랬답니다. “엄마, 내 모든 문제는 끝이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느 쪽 끝이란 거니?” 문제가 생길 때, 계약 결혼을 한 배우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결혼한 사람들로서, 바라던 것을 얻을 때까지만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성약 결혼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맺은 성약에 굳게 매여, 서로 베풀면서 성장하려고 결혼합니다. 계약 결혼을 한 사람은 반만 주지만, 성약 결혼을 한 사람은 전부를 줍니다.

본질적으로 결혼은 성약으로서, 원한다고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약 상태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샅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샅꾼이란 무언가를 대가로 받을 때에만 조건부로 일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샅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또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샅꾼처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달아나 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땅을 저주하는 것이며,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²

결혼에 대한 영원한 시각

톰과 트레이시는 결혼 전에 성약과 이리에 관한 영원 불변의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배웠으며 순종과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속죄를 이룩한 역사라면, 아담과 이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극복하고 주님 및 서로와 영원히 “하나”가 될 때까지 모든 상반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는 속죄를 받는 것에 관한 역사입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결코 상대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리하이는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며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리라.”³ 현명한 부모라면 여기에서 자녀가 없으면 비참함도 없다는 어느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남겨진 그들은 기쁨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슬픔과 탐과 가시덤불에서 살며 자녀들을 낳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욱이 땅이 그들로 인해 저주 받았으며⁴, 고통스러운 길은 구속과 이해의 기쁨으로 인도했습니다.⁵ 바로 그 때문에 성약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이리가 올 때 서로를 지지해 주고 고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일 톰과 트레이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거칠고 외로운 세상으로 나오던 아담과 이브처럼 팔짱을 끼고 에덴 동산 같은 성전 뜰을 더 천천히 걸어 나왔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일은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종교적 경험들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성약 결혼을 위해서는 신앙이 크게 발전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순응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마가 말한 “불가해한 기쁨”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서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이생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결혼은
성약으로서, 원한다고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역경의 “이리”

어떤 결혼이든 세 가지 종류의 이리에 의해 반복해서 시험 받습니다. 첫번째 이리는 자연적인 역경입니다. 몇 년 동안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뒤, 데이비드와 프랜은 아기를 가졌지만 중증 심장 장애가 있는 아기였습니다. 결국 3주 동안의 투병 끝에 이 아기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의 아담과 이브처럼,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함께 애통해 하고 슬퍼했습니다.⁷

개인적인 불안전함의 “이리”

두 번째로 특유의 불안전함이라는 이리가 시험합니다. 어떤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끊임없는 비난으로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소중함마저 완전히 상실해 버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맨 처음 그녀의 요리와 집안 청소 문제로 불평하다가, 다음에는 그녀의 시간 사용 방법과 말하고 보고 판단하는 방법까지도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고 기능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맨 처음 결혼할 때는 별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던 한 젊은 여성과 그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젊은 여성은 남편이 그녀를 칭찬해 주어 점차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며 그녀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믿음으로써 그녀의 내적인 자긍심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과도한 개인주의의 “이리”

세 번째 이리는 오늘날 계약에 따라 일하는 샅꾼 같은 태도를

야기시키는 과도한 개인주의입니다. 일곱 살 난 어떤 소녀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람은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은 거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의 것이 아니래요. 엄마, 난 엄마 거 맞잖아요?” 어머니는 딸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물론 넌 엄마 거야. 엄마는 네 거구 말야.” 분명히 배우자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노예도 아니고 무생물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교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족 관계와 결혼의 끈을 함께 연결시켜 주는 소중한 선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 약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개인적인 자율을 이처럼 지나치게 강조해 왔으며, 이제는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깊은 본능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 불신과 의심이라는 썩기로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집을 떠나고 혼자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고 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을 믿지만, 그래도 왜 혼자라는 느낌을 갖는지 궁금해 합니다.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 미국에는 점점 늘어나는 편부모의 자녀들이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욱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⁸ 오늘날 어린이들의 복지가 대체로 열악해져 가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 생활의 붕괴”입니다.⁹

결혼에 관한 현대의 질문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정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성간의 결혼을 금해야 할까요? 이혼을 더욱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문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은 사적인 계약일 뿐이라는 거지요.¹⁰ 그러나 현대의 선지자들이 최근에 선언했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¹¹ 세속적인 결혼이라도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국가 사이의 3자 간에 맺는 서약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는 모든 결혼의 결과와 출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결혼은 다른 모든 관계와는 다르게 구분됩니다. 웬들 베리가 말한 것처럼, 하객들은 결혼할 사람들이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서약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도 끼어 들 수 없는” 공동선을 위해 자신들을 바친다는 것입니다.¹²

성약의 준수는 힘을 가져옴

희생의 제단에서 맺는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숨겨진 힘의

저장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은 제가 몹시 흥분해서 아내 마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를 성인으로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께 투성이에 머리칼도 제멋대로인 이 아들 녀석도 좀 그렇게 하실 수 없었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독교인으로 만드시려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어느 날 밤, 아내는 그 아이가 미국 원주민 부락 축소 모형을 과자로 구워서 만들어 가는 학교 숙제를 도와 주느라 여러 시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샷콘도 견디지 못했을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노력하는 엄마에게 지지 않으려고 경쟁했으나, 잘 무렵쯤 보니 “자신의” 모형을 조리대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가려던 아이는 뒤로 돌아서서 냅다 달려와서는 엄마를 껴안고 치아가 빠진 얼굴로 씨익 웃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정말 신기해서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가 혼자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는 “저한테 그런 힘이 있는 걸 몰랐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동정심의 원천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녀가 맺은 성약의 끈을 통해 잠시일지라도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샷콘이 아니라 목자처럼 됨

다시 톱과 트레이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이들은 자신들의 동정심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아기가 살기 힘들 만큼 일찍 태어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샷콘처럼 편한 대로 유산을 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통해 성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¹³ 활달하고 활동적이던 트레이시는 5주 동안 집안에서, 그런 다음 5주 동안 병원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톱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이나 잠자는 동안 외에는 늘 트레이시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기는 11주 동안 병원에 더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기는 건강하며, 바로 그 부모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트레이시는 병원에서 주님께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녀를 위한 선한 목자의 희생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했었지만,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특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와 톱은 아기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약 결혼, 곧 서로와 주님에게 묶어 주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결혼의 개념을 성약, 정말이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다시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⁴ 그리하여 이리가 와도, 우리가 샅꾼이 아닌 목자가 되어 우리의 성약에 따른 양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단 하루라도 내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담과 이브처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요한복음 10:12~15.
2. 교리와 성약 2편 참조.
3. 니파이후서 2:23.
4. 모세서 4:23 참조.
5. 모세서 5:11 참조.
6. 엘마서 28:8.

7. 모세서 5:27 참조.
8. Barbara Dafoe Whitehead, "Dan Quayle Was Right", *Atlantic Monthly*, 1993년 4월, 47쪽 참조.
9. Maggie Gallagher, *the Abolition of Marriage*(1996), 4쪽.
10. Bruce Dunford, "Gonernor: Take State Out of Marriage Role", *Honolulu Star-Bulletin*, 9 Jan. 1996, p. A5; "Family Cannot Be Forced", *Salt Lake Tribune*, 17 Jan. 1996, A10쪽 참조.
11. The First Presidency and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the Family: A Proclamation to the World", *Ensign*, Nov. 1995, 102쪽.
12. Wendell Berry, *Sex, economy, Freedom and Community*(1993), 125, 137~139쪽; italics added.
13. 교리와 성약 97:8 참조.
14. 교리와 성약 131:2 참조.
15. 니파이후서 2:25 참조.

데이트 표준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에서 시작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개성과 취향이 자기와 똑같은 배우자’는 소설과 같은 허구요 환상입니다. 모든 젊은 남자와 여자는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배우자를 열심히 기도하며 찾을 것입니다. 훌륭한 남녀 두 사람이 모두 노력의 대가를 기꺼이 치른다면, 그들 대부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성도의 빛, 1978년 6월호, 3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는 이러한 경험을 큰 기쁨과 기대를 갖고 고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업은 미룰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얻기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목표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결혼도 젊은이가 주님을 위해 명예롭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권고하는 충실한 자매하고만 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8쪽)

“형제 여러분, 이제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유별나고 까다롭게 되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강한 간증을 갖는 것과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과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시온에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남편이 신권 책임을 수행할 때 남편을 지지하는 그러한 훌륭한 자질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녀가 여러분에게 매력적이 있어야 하지만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단지 데이트의 즐거움만을 위해 상대를 자주 바꾸며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자로서 알맞는가 하는 것에 관한 한 가지 좋은 기준은 그녀와 있을 때 자신이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가장 좋은 행동을 하도록 고무되는가,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5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 청년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딸로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단정한 차림의 청남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문신이나 귀걸이 또는 신체의 어느 곳에 다는 고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

“자 이제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젊은 여러분이 대처하기 힘들어 하는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본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존 욕구만이 이 본능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통제 받지 않으면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아주 아름다우나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이른 데이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킨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단 한 사람하고만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은 종종 비극을 불러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년 소녀가 데이트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되, 성적으로 친밀해지는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제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

“...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는 지금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이 받은 유산에 대해 긍지를 갖고 깨끗하게 서십시오. 이해와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점잔을 빼며 앉아 있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건장하고 명랑하기를 바라며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겸손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8~40쪽)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형제 여러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런 데이트와 청혼의 과정을 거쳐 훌륭한 동반자를 찾아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너무 서둘지도 말고 너무 지체하지도 마십시오. ‘성급하게 결혼하라. 틈만 있으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속담은 우리 시대에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데이트에 대한 소망만 갖게 할 뿐, 실망과 때로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는 소득도 없고, 실망스럽고, 하찮은 데이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To Single Adults”, *Ensign*, 1989년 6월호, 72~75쪽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남자들이 젊은 여자가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차려 입으면 좋겠어요.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지나친 몸치장, 화려한 복장, 섹시하게 보이는 복장, 지나친 장식은 좋은 취향이 아닙니다. 현명한 젊은 여성이라면 지나친 화장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화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젊은 남성들은 면도를 하고, 빗질을 하고, 적절하게 이발을 하고,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딱 끼고 선정적인 바지는 천박해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극단적인 유행은 아니지만 훌륭한 스타일을 갖추므로써 세련되고, 개성적이고, 점잖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Save the Youth of Zion”, *Improvement Era*, 1965년 9월호, 761쪽)

“분명히 말해서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대개의 경우 자기와 친하게 사귀[는] …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회원이거나 신앙심이 없고 교양이 없는 회원과는 데이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요.’라고 말하는 소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과 사랑에 빠질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용서가 낳는 기적, 2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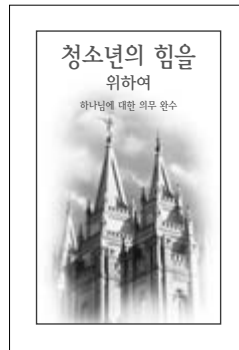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청남 여러분은 모든 연령의 여성들에게 사려깊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청녀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우해 주도록 해 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고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서서 기다리는 등 기꺼이 훌륭한 예절을 지키십시오.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지만 청녀들은 여러분이 이처럼 단순한 예절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43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소책자



선택의지와 책임

“그러한즉 … 만인의 크신 증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니파이후서 2:2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인,

선택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악을 구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성신이 주어졌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계명을 지키므로써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행동의 결과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나쁜든 간에,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릇된 선택은 여러분의 진보를 방해하며 마음의 고통과 비참함에 이르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행복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경우라도, 여러분의 환경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의로움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였으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분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태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힘껏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 의사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마태복음 25:14~29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78:19)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감사의 영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으로 생활한다면 인생에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할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강화되고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십시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교사들, 복음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생활 방식을 통해 주님께 감사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누가복음 17:12~19

교육

“내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앨마서 37:35)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성을 함양하고 기량과 능력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교육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교육은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보다 잘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배움을 얻기 위해 희생하십시오. 교육은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에게 닫혀 있게 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생을 다하는 날까지 배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에 관해 계속해서 배우는 일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육 전체에서 세미나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88:77~80

가족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에게 동반자 관계와 행복을 제공하고,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도우며,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같지는 않지만, 각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쾌활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 사항에 마음쓰십시오. 놀려대거나,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는 중재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구성 단위는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 보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가정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작은 일들을 기꺼이 도와 주십시오.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가족 경전 읽기 등을 포함한 가족 활동과 전통에 참여하십시오. 이러한 전통은 가족을 강화하고 단합하게 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십시오.

친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지원하고 그들이 처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들을 도와 주십시오.

에베소서 6:1~3

친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을 선택하여 서로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십시오. 참된 친구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려 한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관심을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십시오. 부끄럼을 타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십시오.

다른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교회 모임과 활동에 초대하여, 복음에 관해 배울 수 있게 하십시오. 그들이 환영 받으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도록 도와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의 모범과 우정 증진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복음에 관해 더 알아보라는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여 불쾌해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들과 우정을 지켜 가십시오.

새로운 개종자들과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 주십시오. 간증을 나누고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앨마서 17:1~2

복장과 외모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써 그것을 존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럽히지 마십시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옷 입는 방식은 여러분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몸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차림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동반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복장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과 인정을 얻고자 몸을 사용하며, 또 정숙함은 단지 편리할 때에만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는 짧은 반바지와 치마, 몸에 꼭 끼는 옷, 배를 노출시키는 윗옷,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이 있습니다. 청녀는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슴이나 등이 깊이 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하게 노출된 옷을 피해야 합니다. 청남 또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의복이나 외모 또는 머리 모양을 피해야 합니다. 의복이나 몸차림, 또는 몸가짐에서 언제나 깔끔하고 청결해야 하며, 또한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의 없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면전에 선다면 내 모습에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언젠가 여러분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행동이 그 성스러운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문신이나 몸에 구멍을 뚫는 일로 외모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소녀나 여성이 귀를 뚫기를 원한다면, 수수한 귀고리 한 쌍만 하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든 또는 주중이든 교회 모임과 활동을 위해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 주님과 자기 자신에게 존중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적합한지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앨마서 1:27

오락과 대중 매체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치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듣고, 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직 여러분을 고양시키는 오락과 대중 매체만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오락은 여러분이 선한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영을 잃지 않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줍니다.

대다수의 오락은 좋은 것이지만, 일부는 여러분을 의로운 생활에서 멀어지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심성을 해치는 자료들이 흔히 웹사이트, 음악회, 영화, 음악, 비디오카세트, DVD, 도서, 잡지, 그림, 기타 매체 등에서 발견됩니다. 사탄은 그릇되고 악한 것이 정상적이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속이는 데에 그러한 오락물을 사용합니다.

어떤 형태의 오락이든 조금이라도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면 결코 참여하거나 보거나 가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소개하는 오락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특히 외설은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시작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파괴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범법은 물론 심지어 범죄 행위로 여러분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외설은 여러분의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며, 영의 인도를 잃게 하는 하나의 독이며, 심지어는 미래의 배우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설물과 마주치게 되면, 즉시 그것에서 돌아서십시오.

때때로 폭력의 묘사가 사악한 행위를 매혹적인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한 묘사는 영을 거슬리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반응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한 폭력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구주의 사랑의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영화나 비디오 파티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방송국을 바꾸거나, 잡지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준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음을 친구와 가족들이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모로나이서 7:12~19

음악과 춤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교리와 성약 136:28)

음악은 삶에서 중요하고 강력한 한 부분입니다. 음악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또한 악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음악은 무해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주의하십시오. 영을 물러가게 하거나, 부도덕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미화하거나, 추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탄 송배나 기타 악한 행위를 조장하는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춤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춤을 출 때 상대방과 신체를 완전히 밀착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나 동작을 취하지 마십시오. 복장, 몸차림, 조명, 가사, 음악 등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무도회를 계획하고 그러한 무도회에만 참석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25:12

언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 선한 말은 ... 하라”(에베소서 4:29)

말하는 태도나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에 관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깨끗하고 지적인 언어는 총명하고 건전한 정신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설사 농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창피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농담은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상스럽고 천박한 언어 또는 품짓을 하는 것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입니다. 상스러운 언어는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품위를 손상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선택하십시오. 모범을 보이고 다른 말을 선택하도록 선의의 격려를 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 정중히 그 자리를 떠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십시오.

욕하는 버릇을 들였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십시오.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있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말을 하십시오.

야고보서 3:2~13

데이트

“주님께서서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통제 받지 않으면 화약고라 될 수도 있습니다. ...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이른 데이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고든 비 헝클리 회장)

데이트나 구애가 용인되는 문화권에서, 데이트는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표준을 갖고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표준을 지킬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사람과 데이트하십시오.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는 서로가 표준을 지키도록 돕고 서로의 명예와 덕성을 지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과 여성의 신성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 만 16세가 될 때까지는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 이전의 데이트는 부도덕으로 이끌고, 만나게 될 다른 청소년들의 수가 한정되며, 영원한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심대들이 데이트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은 이성 교제에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할 기회가 없거나, 심각한 관계를 맺는 것을 뒤로 미뤄 두고 싶기

때문에 십대에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우정은 모든 연령층에서 키울 수 있으며 또한 키워야 합니다.

데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두 쌍 이상이나 또는 여럿이 함께 하십시오. 같은 사람과 빈번하게 데이트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데이트하는 상대를 부모님이 만나 보게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에 상대방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비용이 안 들며 서로를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될 데이트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과 데이트 상대자가 자존심을 지키며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될 일들을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14

성적인 순결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친밀한 행위가 결혼을 위해 보존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성전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결혼 관계를 이룩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일부로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범위 밖에서 어떤 사람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따르는 정서적인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갖지 말며,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십시오. 사탄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도록 주신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심각한 죄입니다. 선지자 엘마는 살인과 성신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적인 죄가 그 어떠한 죄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가르쳤습니다.(엘마서 39:5 참조)

결혼한 경우에만 표현해야 할 강력한 감정들을 유발하는 어떠한 일도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옷을 입은 채로나 입지 않은 채로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의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데이트나 구애가 용인되는 문화권에서, 언제나 데이트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될 대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느낌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무십시오. 성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려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강간이나 근친 상간, 또는 기타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여러분은 무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독의 조언을 구하여 그분이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적인 범법을 행하도록 유혹 받는다면, 부모님과 감독,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유혹에 대항하고 부적절한 생각과 감정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적인 범법을 행했다면, 지금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여 내적 평안을 찾고 영의 완전한 동반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감독께 말하십시오. 그분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서를 얻도록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9:1~12; 교리와 성약 38:42

회개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 받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희생은 속죄라 불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속죄를 통해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속죄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니고 계신 사랑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힘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생각은 전혀 참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요구되는 일을 한다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가 빠를수록, 용서에서 오는 축복들을 그만큼 빨리 찾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전에 가거나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는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그 같은

의도적인 죄는 구주의 속죄를 조롱하는 것이며,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 같은 행위에 대한 회개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짓는다면, 오랫동안 축복과 영적인 인도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악의 행위에 갇히게 되어, 그로부터 되돌아오는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신의 죄를 여러분이 해를 입힌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부도덕과 같은 심각한 죄를 범했다면, 감독에게 그러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앨마서 36:6~24

정직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15~16)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주님께 정직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지닌 성품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과 자기 존중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정직할 때 주님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 신뢰 받게 될 것입니다.

부정직은 여러분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 오거나, 부정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게 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여 자신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일을 하십시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해도 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할지라도 그릇된 것을 옳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정직하려면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앨마서 27:27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애굽기 20:8)

주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주님과 가족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필요로 하는 휴식과 활력을 여러분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정서를 고양하는 많은 활동들이 안식일에 적합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공부하고, 편지를 쓰고, 일지를 적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병든 자나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을 방문하십시오. 교회 모임 전이나, 그 동안이나, 그 후에도 복장에

안식일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리십시오. 많은 고용주들은 이러한 개인적 확신을 가진 구직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십시오.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며, 레크리에이션이나 운동 행사를 위한 날도 아닙니다. 이 날에는 오락거리를 구하거나,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표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안식일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59:9~13

십일조 및 헌금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제3니파이 24:10)

십일조의 법은 일생을 통해 순종해야 할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일조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말합니다.

십일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십일조는 성전과 집회소를 건립하고, 경전을 번역하고 출판하며, 회원들에게 교회 자료를 제공하고, 선교 사업을 행하며,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하고,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십일조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십일조를 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십시오. 여러분의 다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충분한 돈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십일조를 먼저 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영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감독과 십일조 정산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부금 기록을 검토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냈음을 선언하는 만남입니다.

보통 그 달의 첫 번째 일요일에, (건강이 허락한다면) 매달 한 번씩 금식을 하여 금식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합당하게 금식일을 지키려면 연이은 두 끼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관대한 금식 헌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써 금식을 시작하고 끝내십시오.

교리와 성약 119:3~4

육체적 건강

“무릇 ...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0)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다면, 해로운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건강한 육신과 기민한 정신과 성신의 인도라는 축복들을 얻게 됩니다.

꺾련, 흡입하거나 씹는 담배, 여송연, 파이프 담배 등과 같은 담배 제품을 결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며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중독적이며 해롭습니다.

어떤 형태의 술이든 몸과 영에 해롭습니다. 술의 영향을 받게 되면 판단력과 자제력이 약해져 순결의 법이나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는 개인과 가족을 파멸시키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짜릿한 느낌이나 “황홀감”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마약이나 화학 약품, 또는 위험한 습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에는 불법 마약, 남용의 소지가 있는 처방 또는 비처방 의약품, 가정용 화학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지혜의 말씀을 어기면 더 행복해지거나 더 매력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니엘 1:3~20

타인에 대한 봉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며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모사이야서 18:8~9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봉사할 때 구주를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셨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교회 부름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 등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봉사할 것이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있도록 매일 성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흔히 가장 중요한 봉사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친절한 행위를 통해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증대될 것이며,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의 생활이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25~37

신앙으로 나아감

이 소책자에 제시된 표준들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자주 읽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완전히 되도록 도움을 얻기 위해, 매일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표현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은 개인적인 계시의 강력한 근원이며, 간증으로 이끄는 변함없는 힘입니다.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매주 성찬을 취할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남 여러분은 신권을 받았을 때 맺은 성약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성약들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맺을 성전 성약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참되십시오. 교회의 관리 역원들이 행복의 길에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회원이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겸손하며, 영의 속삭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 자신의 지혜보다 높이 두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를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회를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넓혀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써 참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31:16~21

부채

우리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관련 성구

잠언 22: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로마서 13: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사이사서 4:28

“또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니, 너희 중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서 꾸는 자는, 그가 합의하는 대로, 그가 꾸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아마도 네가 네 이웃으로도 죄를 범하게 하리라.”

교리와 성약 64:27

“보라, 네 원수에게 빚지는 일은 나의 율법에 일렸거니와 금지되어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4:78

“진실로 내가 너희 부채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보라, 너희가 너희 모든 부채를 갚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교리와 성약 136:25

“만일 네가 네 이웃에게서 빌리거든 너는 빌린 것을 돌려줄지니라. 만일 네가 갚을 수 없거든, 곧 바로 가서 네 이웃에게 고하라. 그리하여 그가 너를 정죄하지 않게 하라.”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총관리 역원들이 ‘빛에서 벗어나고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왔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호, 166쪽)

“이혼은 대부분 이기심과 다른 죄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면 부부가 경제적인 면의 예산을 신중하게 세우고 그 예산대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6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우리의 영감 받은 지도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빚을 청산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큼 물건을 사라고 권고해 왔습니다.”(성도의 빛, 1987년 10월호, 2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빚을 지게 되면, 높은 이자를 지불하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그 빚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

“여러분께 검소와 근면의 미덕을 쌓아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한 가정을 자활시키는 것도 근면과 절약 정신입니다.”(성도의 빛, 1991년 2월호, 5~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는 모든 후기 성도들이 현명하게 계획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47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115~119쪽에 있는 말씀 참조

엘 톰 페리 장로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 들려 오는 소리는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 종종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려는 계획 없이 이러한 것들을 할부나 외상으로 구입합니다.

“... 우리는 역병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빚을 피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

“... 가계를 잘 꾸려 가는 가정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얻습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35~36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우리는 신용을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도처에서 신용 카드의 남용에 따라 빚더미 속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나이 든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편 주문 회사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탈로그 787쪽에 나오는 가솔린 엔진 한 개를 보내 주시오. 써 보고 좋으면 수표를 보내 드리리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이러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수표를 보내 주십시오. 수표에 이상이 없으면 엔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제이콥 엠 브라운드, *기지와 유머의 보화* 1964년, 45쪽)

“현대 사회는 물질적 재화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편승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보상을 거두고자 수확의 법칙을 변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한꺼번에 큰 부를 조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게테크에 요행수를 바라며 투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경제적 퇴보를, 때론 경제적 파탄을 낳습니다. 잠언에는 이같은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언 28:20)’(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4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저축하고 다음에 사자.’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빚지지 않고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우리의 검소한 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 저당 없이 구입한 주택은 아무도 차압할 수 없습니다.

“자립이란 많은 것을 뜻합니다. … 자립이란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하고 이자와 각종 채무로 인해 소요되는 할부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20~21쪽)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119~123쪽에 있는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참조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 회장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1~54쪽

성인에게

형제 여러분, 이제 성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청남들에게도 어느 정도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배경으로, 창세기 41장의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매우 혼란스러운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궁전에 있던 박사들도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바로 앞에 조셉이 불러 왔습니다.

“바로가 조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조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은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창세기 41:17~20, 22~26, 28~30, 32)

집에 질서를 세움

지금 제가 앞으로 다가올 흥년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 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빛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세계의 시장에 크고 무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카르타나 모스크바의 경제 변화가 즉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폭풍우 치는 날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불황의 상태에 빠지기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1932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이 지역의 실업률은 33퍼센트가 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친은 교회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이었습니다. 현재의 복지 프로그램이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저희 부친과 그분의 동료들은 겨울에 가정용 난로와 스토브에 불을 지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 나무 자르는 대형 사업을 마련하여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석탄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유복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소비자 부채에 대한 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코 불황의 상태를 겪지 않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액수의 분할 불입금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997년 3월에 그 빛은 총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7퍼센트 늘어난 액수입니다.

1997년 12월에는, 미국의 5천 5백만에서 6천만의 가정이 신용 카드 빛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빛은 평균 7천 달러가 넘었고, 이자와 비용만 해도 연 1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1993년에 수입의 16.3퍼센트를 차지했던 신용 카드 빛의 비율도, 1996년에는 19.3퍼센트로 늘었습니다.

빛지는 1달러마다 지불해야 할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 뒤따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파산 건수는 무려 135만 118건이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비해 50퍼센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2사분기가 지났을 때, 거의 36만 2천 명이 파산 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3개월 단위로 볼 때 가장 높은 신청

건수였습니다.

우리는 유혹적인 광고에 많이 속습니다. 텔레비전은 자기 집 가치의 125퍼센트에 달하는 돈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유혹적인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938년 4월 연차 대회와 신권 모임 당시,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는 자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 일단 빛을 지면, 이자는 밤낮으로 매 분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그 빛을 피하거나 빛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떨쳐 버릴 수도 없으며, 그것은 간청이나 요구나 명령에 굴복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 중간에 서 있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거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눌러 부서뜨려 버립니다.”(대회 보고, 1938년 4월, 103쪽;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36쪽)

수입의 범위 안에서 생활함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사서, 자비도 중단도 없이 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늘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지불금의 액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비상 사태가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패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의 사례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았고,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되었으며,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났으며, 지불해야 할 다른 금액들도 많았습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도 부자였던 그가 무일푼 신세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주님은 이 부채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마틴 해리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쇄업자와 계약한 빛을 갚으라 속박에서 벗어나라.”(교리와 성약 19:35)

이에 대해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도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과 가족에게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복음 표준, 111쪽)

자립함

교회에서는 자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을 때,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는 속박 속에서 독립도, 자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데에도,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를 때를 위해 교회 수입의 일부를 해마다 저축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를 전혀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운영이나 사업이나 그 사업 조직에서, 교회는 돈을 빌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지출을 삭감해서 수입에 맞는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가 모든 부채를 다 갚았을 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 교회는 부채를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부채에서 자유로워지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 둘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파우스트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예전에 집을 사면서, 집을 담보로

하여 4퍼센트의 이자를 내야 하는 돈을 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자가 적은데, 서둘러 갚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돈이 생기자, 자매님과 상의하여 큰마음을 먹고 한꺼번에 다 갚아 버렸습니다. 그 날 이후로 그분은 이자에 속박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일할 때 항상 웃으시고 휘파람을 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됨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빛은 피하시고, 빛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세와 관련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빛을 모두 갚고 난 뒤, 비록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 때에는 모진 풍파가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 줄 피난처를 갖게 될 것이며,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스러우며,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 차이점

어떤 일은 남성적인 성격에
어울리는 반면 어떤 일은
여성적인 성격에 어울립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해롤드 비 리 회장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충실한 어머니들은 우리가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신권의 부름을 수행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로 바빠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더 세밀하고 애정어린 문제에 있어 하늘의 존재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축복과 더불어 이러한 특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Teachings of Harold B. Lee*, 291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하나님께서서는 지혜와 자비로 모든 남녀가 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질투하지 않게 하셨으며 서로의 차이 가운데 피상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알아 이에 따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3쪽)

“우리는 영의 자녀로서 완전히 평등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커다란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차이점입니다. 여성에게는 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많은 책임이 주어졌고 있으며, 남성에게는 아버지와 신권 소유자로서의 놀라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여러분[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속성과 감정과 개성은 남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들은 충실함, 유덕함, 친절함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성으로서의 특성을 이룹니다. 그것들은 또한 좀더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남성의 성품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업의 세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남성과의 경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쟁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의 속성은 약화되고 남성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47~548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여러분은 결혼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짐을 여성에게 떠맡기는 것이 남성들의 견해라고 말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여성의 타고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성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또한 격려하고, 이끌어 올리고, 가르치는 기회와, 의로운 생활을 위해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는 기회에 있어 탁월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평등하기보다는 우월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신성한 계획을 통해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9쪽)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직업과 일과 사회적인 위치에 뛰어 들고, 남성과 같은 복장을 하고 남성의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이상스럽게 보입니다. 나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경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여성에 관해 말씀하신 것, 즉 가족에 관해 말씀하시고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관해, 물론 그들은 많은 면에서 평등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온세상의 모임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때가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50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남녀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했으며, 훌륭하고 풍부하게 각기 다른 재능을 부여 받고 이 세상에 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남녀는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 받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 남자처럼 되는 것은 그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답은 현재의 여러분, 즉 여성다운 여성이 되고 영원한 결심을 이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

“여러분은 모두 여성의 직감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직감은 여러분의 성품에 의해 좌우된다고 선지자 조셉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살게 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과의 사귀를 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13쪽) 선을 행하라는 여러분의 직감과 속삭임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어주신 숭고한 직감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며 진리로 성결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지닌 보살핌과 자비의 능력으로 인해 인류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95~97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은 병 고침과 격려의 따뜻한 기운을 낳습니다. 반면 남성의 손길은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손길을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2쪽)

“자매님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성품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이 정해 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영향력이나 활동을 무심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편 혹은 아버지들은 보통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내나 어머니들도 자신들의 고유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임무라고 알려진 것의 상당 부분을—필요시에는 대부분의 일들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들, 특히 부모들은 가정과 가족의 기초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간의 독특한 차이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이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이를 약화시키거나 없애 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족을 해치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가능성을 줄어뜨리게 만듭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3쪽)

가정과 가족의 기초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간의 독특한 차이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근대주의자들, 심지어는 해방 운동가들조차 여성이 개인이라는 사실은 물론 기능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다른 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기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바와 같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고린도전서 11:11)합니다.”(“The Women’s Movement: Liberation or Deception?”, *Ensign*, 1971년 1월호, 20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아담과 이브가 날 때부터 서로 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이 차이점이 행복의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일은 남성적인 성격에 어울리는 반면 어떤 일은 여성적인 성격에 어울립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1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80쪽에 있는 인용문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는 성별을 혼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압력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안목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의무와 특권을 변경시키려는 것들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이나 법적인 변화 중에 영원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것들도 있는 까닭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대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3~74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개별적인 책임에 걸맞은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역할은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개체이긴 하지만,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특성이 결합된 경이롭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특성들이 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편과 아내,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개인은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로서 행복을 위해 정해 주신 역할에 어울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경우, 이 특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혼 부부는 하나가 되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뻐하며 도전을 함께 감당하며, 사랑과 이해 가운데 서로 발전하며, 성전 의식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로 영원히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의 생을 연구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창조를 도운 미가엘로서 영화롭고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브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완전하고 능력 있는 내조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실과를 따먹고 나자, 주님은 그들에게 실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답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명하기를 먹지 말라, ...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모세서 4:17) 아담의 답변을 통해서 되도록 오른쪽 가까이 있는 존재로 인정 받기를 바라는 남자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 하라 명하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세서4:18) 그래서 주님은 이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나?’ (모세서 4:19) 이브의 답변에서 여성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브의 답변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세서 4:19)”(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3~74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우리는 어머니의 임무와 신권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성과 남성의 임무가 구분되어진 이유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 어머니로, 자매로, 딸로, 동료로, 그리고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남자들을 길들이고 보호하고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는 의로움이란 역할의

문제가 아니며 선은 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존재하나 서로의 역할을 바꾸거나 포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황무지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2쪽)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여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이해할 때, 남성은 그녀를 달리 대하게 됩니다. 남성에게 신성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성은 현재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뿐 아니라 장차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로 인해 그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이해는 서로를 존중하게 해 줍니다. 영원한 시간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케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11)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서로를 보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고린도전서 7:14) 그들을 통해 자녀와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으며 결혼은 서로를 돕는 상승 작용의 관계로서, 그 안에서 서로의 차이로 인해 영적인 성장이 증가됩니다.”(“The Eternal Family”, 113쪽)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1~24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전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즉 영의 자녀였습니다.¹ 성의 구별은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지, 지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²

천국 회의에서³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었는데,⁴ 그것은 구원의

계획,⁵ 구속의 계획,⁶ 곧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었습니다.⁷ 이 계획에는 시험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⁸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에서 구속주의 속죄와 부활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는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의 계획을 채택했으며,⁹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육신을 입을 권리를 거부했습니다.¹⁰ 우리가 이 지상에 있다는 사실은 곧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¹¹

루시퍼의 유일한 목적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방해하여,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의 경험들, 즉 낭만과 사랑과 결혼 생활과 부모의 역할 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¹² 비통과 죄악의 명령들이 그의 주위를 따릅니다.¹³ 사탄이 낸 상처는 회개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혼과 가족이 필요함

행복의 계획에는 여성과 남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의로운 결합이 요구됩니다.¹⁴ 교리는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강하고 자연적인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창조되어¹⁵ 동산으로 안내되었습니다.¹⁶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는 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¹⁷ 혼자였기 때문에 그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¹⁸

다른 어떠한 남자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혹은 아담이 다른 남자와 있었더라도 진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브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필인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결혼이 제정되어¹⁹ 아담이 그의 아내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 여자와는 결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²⁰

그 후 이브에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²¹ 이브는 그녀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 다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²²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타락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두 가지 방향, 즉 퇴보와 진보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지상에 와서 전진을 위한 대로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²³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²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셨음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보다 더 좋아하신다거나 또는 아들을 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신앙, 경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등 경전에 나오는 모든 미덕은 남자와 여자가 공유하며,²⁵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신권 의식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²⁶

타락 이후에 자연 법칙이 인간 탄생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이 소위 자연의 “몹쓸 장난”²⁷이라고 부르신 것이 여러 가지 비정상과 불규와 기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애 비추어 아무리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류를 시험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모든 합당한 직관에 따르고 의로운 충동에 반응을 보이며, 바람직한 모든 인간 관계를 성취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에서 제시되어 승인 받았으며, 그분의 계명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아담과 이브가 본래 서로 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²⁸ 상호 보완적인 이 차이점이 행복의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일은 남성적인 성격에 어울리는 반면 어떤 일은 여성적인 성격에 어울립니다. 경전과 자연 현상 모두 남성을 보호자와 부양자의 위치에 두었습니다.²⁹

교회 관리와 관계가 있는 신권의 책임은 가정 밖에서의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해 내려가도록 확인된 것이요, ... 이 반차는 아담의 시대에 제정되었고”³⁰

신권을 소유한 남자가 승명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여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완전과 승명에 반드시 필요한 덕성과 속성이 자연적으로 여자들에게 주어지며, 그것이 결혼과 모성애를 통해 정제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자연의 율법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권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니.”³¹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³² 그 사람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을 어기는 것이며,³³ 그렇게 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실 것입니다.³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역할은 해의 영광의 승영과 조건에 따라 세워진 것이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평범한 이 지상의 가정 생활에서 가장 잘 입증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성찬식에서 한 연사가 왜 자기 손자는 항상 할머니 집에 간다고만 말하고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는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큰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건 할아버지들은 파이를 구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이고 영적인 율법은 영원함

삶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과 영적인 율법은 세상이 지음 받기 전부터 제정되었으며,³⁵ 그것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결과와 같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사회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될 대상이 아니고, 변경될 수도 없으며, 어떠한 압력이나 항의나 법률로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인디언들의 세미나리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앨버커키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1학년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어린 고양이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방해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가다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교실 앞에 놓았습니다.

한 어린이가 “그건 암코양이에요, 수코양이에요?”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양이일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이가 “그 고양이가 암놈인지 수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궁지에 빠졌던 선생님은 “좋아요. 그럼 이 고양이가 암놈인지 수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봐요.”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하고 대답했습니다.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밝혀진 원리들은 여러분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남자들 [또는 여자들]의 공모로도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원리들입니다. ... 이 원리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거나 파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며 ... 세상이 함께 힘을 기울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 이 원리의 한 조각이나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결코 폐지될 수 없습니다.”³⁶

2차 대전 중 남자들은 전투병으로 싸우기 위해 소집되어 나갔으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사역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곳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 세대에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94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은 “온 세상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회 제일회장단의 권세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명령을 우리 시대에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후일의 경륜의 시대에 또다시 영원한 결혼 성약의 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선택 받은 수많은 영들이 육신을 입고 이 곳에 올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완전을 향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남편과 아내의 의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지 못한 영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남편과 아내는 성스럽고 영원한 성약 안에서 태어날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택된 영들을 지상에 데려오으로써, 부모는 각자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하여 육신을 입은 영과 주님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의무를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영원한 운명과 그 영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축복이나 벌은 부모가 베풀어 준 관심과 가르침과 훈련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적절한 모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 중 이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모성)은 성스러운 부름임

어머니들에게 주신 권고에서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부름, 곧 성스러운 헌납이며 성별인 헌신으로서, 첫째 지체를 지키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아브라함서 3:25)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지체를 지키기 위해 이 지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을 기르고 돌보며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즉, 둘째 지체를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아브라함서 3:26)질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봉사는 오직 어머니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아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특정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아버지나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어머니는, 자녀를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에 있’(교리와 성약 68:25)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 즉 모성은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임무로서, 이를 통해 이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 다음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³⁷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와 경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보다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떠한 조직의 관리자의 음성도 제일회장단의 음성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³⁸

천성적으로나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이나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를 기르고 부양하는 일을 혼자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관련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³⁹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⁴⁰

보물 창고와 열쇠의 비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유산으로 열쇠를 두 개 받았는데, 하나는 그가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보물 창고의 열쇠였으며, 다른 하나는 그 보물 창고 안에서도 매우 귀중한 보물이 들어 있는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귀중품들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이 유산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경고도 받았습니 다. 그리고 만일 보물을 가지있게 사용한다면 그 금고는 계속 채워져서 영원토록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 다. 그는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보물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의 축복과 기쁨은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보물 창고로 가서 첫 번째 열쇠로 보물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열쇠로 금고를 열려고 했으나 열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열쇠 하나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고를 열 수 없자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은 열쇠를 받았으며, 보물의 적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대로 따랐지만 금고를 열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 여인이 보물 창고로 왔습니 다. 그 여인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열쇠였습니다. 그 여자의 열쇠가 다른 자물쇠에 맞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겸손해져서 그 여인이 없으면 자신의 유산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함께 열고 또한 지시 받은 대로 남자는 보물 창고를 지키고 여자는 금고를 지키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인은 남자가 보물 창고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목적은 그들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 여인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금고 문을 열고 자신들의 유산을 취했습니다. 약속된 대로 금고는 계속해서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기쁠 습니 다.

큰 기쁨 속에서 그들은 그 보물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자손들도 각자 마지막 세대까지 줄어들지 않는 풍성한 보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후손은 상호 보완적인 열쇠를 물려 받을 배우자나, 또는 합당하고, 보물과 관련된 약속을 기꺼이 지키는 사람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계명을 지키면 가장

작은 축복이라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그릇되게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열쇠와 성약에 주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은 열쇠를 두 개나 가진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열쇠를 하나만 가진 일로 인해, 미혹당하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이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몇몇 생겨났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왜 보물을 나 혼자 차지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자손은 물려 받은 열쇠의 모양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양쪽 자물쇠에 모두 맞는 열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잠겨 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열쇠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그들은 유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보물에 관련된 율법에 순종한 사람은 한없이 넓고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 계획을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76:24; 민수기 16:22; 히브리서 12:9 참조.
2. 교리와 성약 132:63; 제일회장단, “인간의 기원”(1909년 11월),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메시지, 6권.(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1975), 4:203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여성의 축복과 책임” *Ensign*, 1976년 3월호, 71쪽; 고든 비 힝클리, 대회 보고, 1983년 10월호, 115쪽; *Ensign*, 1983년 11월호, 83쪽.
3.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348~349, 357, 365쪽 참조.
4. 아브라함서 3:24~27 참조.
5. 예이름서 1:2; 엘마서 24:14; 42:5; 모세서 6:62 참조.
6. 야곱서 6:8; 엘마서 12:25~36; 17:16; 18:39; 22:13~14; 39:18; 42:11,13 참조.
7. 엘마서 42:8.
8. 엘마서 42:2~5 참조.
9. 니파이후서 9:28; 엘마서 12:4~5; 힐라맨서 2:8; 제3니파이 1:16; 교리와 성약 10:12, 23; 모세서 4:3 참조.
10.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181, 297쪽 참조.

11.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181쪽 참조.
12. 니파이후서 2:18; 28:20 참조.
13. 엘마서 39:5; 모로나이서 9:9 참조.
14. 교리와 성약 130:2; 131:2; 고린도전서 11:11; 에베소서 5:31 참조.
15. 모세서 6:8~9 참조.
16. 모세서 3:8 참조.
17. 모세서 6:67 참조.
18. 모세서 3:18 참조.
19. 모세서 3:23~24 참조.
20. 교리와 성약 42:22.
21. 모세서 4:7~12 참조.
22. 니파이후서 2:25.
23. *교리상의 카울리와 휘트니*, 포레이스 그린 편집(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63), 287쪽.
24. 모세서 2:28; 창세기 1:28; 9:1 참조.
25. 갈라디아서 5:22~23; 교리와 성약 4:5~6; 엘마서 7:23~24 참조.
26. 교리와 성약 131:2 참조.
27.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의 아내와 어머니들”(1946년 10월 3일 여성 대회에서 하신 말씀) 제이 르우벤 클라크: 종교 교육 및 청소년 선집, 데이비드 에이치 안 이세(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출판사, 1984년), 62쪽 참조.
28. 창세기 1:28 참조.
29. 교리와 성약 75:28; 디모데전서 5:8 참조.
30. 교리와 성약 107:40~41; 교리와 성약 84:14~16 참조.
31. 교리와 성약 121:41~42.
32. 교리와 성약 121:37.
33. 교리와 성약 84:39.
34. 교리와 성약 121:37.
35.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308, 367쪽 참조.
36. 설교집, 22:342.
37. 대회 보고, 1942년 10월호, 11~12쪽.
38. 교리와 성약 107:8~9, 22, 91 참조.
39. 교리와 성약 137:7~9 참조.
40. “로렌조 스노우 설교”, *밀레니얼 스타*, 1899년 8월 31일, 547쪽.

여성의 기쁨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본부 청녀 회장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7~19쪽

충실한 여성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음

오늘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회복된 신권을 가질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모든 신권의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인도됩니다. 저는 고든 비 hing클리 회장님과 합당한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훌륭하고 충실한 여성들의 생활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신뢰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그들을 지상으로 보내셔서 위대하고 영화로운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오도록 예비 되었더라.”(교리와 성약 138:56) 이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알게 해 주는 얼마나 놀라운 시현입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딸들인 우리가 미덕의 길을 걸으며 의롭게 생활하여 인생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도움을 구할 때 도와 주십니다.

여성에게는 특별한 성품이 주어졌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성한 차이처럼, 여성들이 이 지상에 여자로 태어난 것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가족 선언문에 있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명확한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재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¹ 이 문장에서 우리는 모든 여자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영의 상태에서도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지상으로 보내실 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파우스트 회장은 여성다움은 “인간성의 신성한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닌 사랑의 크기, 영성, 섬세함, 광채, 감성, 창조성, 매력, 우아함, 부드러움, 품위, 그리고 내적인 힘이라는 특성들을 통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녀는 소녀대로, 숙녀는 숙녀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다움은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의 일부인 것입니다.”²

외적인 모습을 가꿈

외적인 모습은 내부에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참으로 구주를 알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만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엘마서 5:14)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감사하는 여성들은 외모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이해하고 있으며 몸을 품위 있게 간수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성전을 보살피듯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성은 성전에 낙서를 하여 확대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거룩하게 헌납된 성전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불러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신성합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청결과 순결의 청지기이자 관리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7)

하나님의 딸들은 그들의 몸이 생명의 원천임을 알기에 몸을 소중히 하며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몸을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정숙하게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척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임을 감사하는 여성들을 그들의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천사의 심부름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그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구하며,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을 인도하며,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를³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자신의 가정과 이웃에서, 그리고 그 외의 곳에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임을 감사하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은사를 영화롭게 함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임을 감사하는 여성들을 그들의 능력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잠재 능력을 키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축복하며, 타인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임(교리와 성약 93:36)을 이해하는 유능하고 강한 여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영속적인 미덕을 간직한 여성들입니다. 선지자 야곱은 미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야곱서 2:7)

모성을 존중함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임을 감사하는 여성들을 모성에 대한 그들의 존중심으로, 심지어는 이 축복이 잠시 보류되는 중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로운 영향력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됩니다. 그들의 모범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충실한 가정의 음성이 메아리치며, 또 하나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진리가 울려 퍼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주저하거나 성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들은 힐라맨의 이천 용사의 어머니들과 같습니다. 이 청년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엘마서 56:47)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행동을 볼 때 훌륭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이 성신의 동반과 영의 인도를 구할 때, 그들의 가족은 그녀 곁에서 사랑과 존경과 안전의 영을 느끼며 지혜와 선한 판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축복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세계 도처에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주머니에게서 진리를 배웁니다. 이들은 딸들에게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즐거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훌륭한 교육을 추구하며 그들 스스로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남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지만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역사가 모두 밝혀지면, 우리는 총소리와 서투른 자장가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군인들에 의한 휴전과 가정과 이웃에서 행해지는 여성들의 화해의 노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요람과 부엌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지배력이 있었습니까?”⁴

하나님의 딸들은 여성의 양육 본성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알며 이 신성한 속성을 키워갑니다. 확실히, 어떤 여성이 모성을 존중하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할”(잠언 31:28)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성과 같아서는 안 됨

하나님의 여성들은 결코 세상적인 여성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강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부드러운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거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친절한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무례한 여성이 많으나 우리는 세련된 여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부유하고 명성 있는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여성이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탐욕이 많으나 선이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허영이 많으나 우리에게 더 많은 덕이 필요하며, 우리는 인기를 추구하나 우리에게는 순수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청년들이 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의로움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신권을 존중하고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을 지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자유 분방한 세상에서 조롱당할 수도 있는 영원한 미덕을 수호할 잠재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길 기원합니다.

잠재력을 이해하고 키움

부모들은 여러분의 딸들이 하늘의 가정에서 물려받은 선에 대한 위대한 잠재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드러움과 양육 본성, 타고난 영성과 감성과 그들의 밝은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핑클리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구가 형성되고, 낮과 밤이 구별되고, 물과 육지가 나뉘어지고,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고, 남자가 땅 위에 놓인 후,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야 창조의 사업이

**하나님의 여성들은 결코
세상적인 여성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완성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⁵

아버지, 남편, 청년 여러분, 여성과 여성의 능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되며 그 신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신권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자매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높은 곳의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고, 되어야 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보다 높은 생각과 보다 고귀한 열망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값진 은사를 감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1.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02쪽.
2. “여성: 가장 영예로운 자리”,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16쪽.
3.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1966), 35쪽.
4. Conference Report, 1978년 4월; *Ensign*, 1978년 5월호, 10~11쪽.
5. “Our Responsibility to Our Young Women”, *Ensign*, 1988년 9월호, 11쪽.

이혼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주어 잘 가꾸십시오.
그것을 보호하여 굳건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관련 성구

창세기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마태복음 19:4~6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리와 성약 42:22, 75

“은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
“그러나 만일 어떤 자들이 간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배우자를
버렸고 그들 자신이 범법자이며 그들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거든,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쫓겨날지니라.”

가족 생활에 대한 걱정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주어 잘 가꾸십시오. 그것을 보호하여
굳건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혼 역시 너무
흔한 것이 되어 버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과 몇 년 내에
결혼한 사람들의 반이 이혼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럽지만 심지어는 주님의 집에서 인봉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전능하신 분의
계획 하에 남녀간에 이루어진 계약이고 서약이며 결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들 가운데 일부가 학대적이고,
불친절하고, 배려해 주지 않고, 사악하다는 점을 인정하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외설물에 탐닉하며, 자신은 물론 가족과
기타 모든 신성한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상황을 몰고 옵니다.

“한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집의
제단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서로 거룩하고 영원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력이 부족해 좀더 나은 성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악함에 빠짐으로써,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파괴하는 형제를 보면 안타깝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9쪽)

“저는 교회 내의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족들도 많지만 너무나 많은 가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커다란 걱정거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일입니다.”(“Pres. Hinckley Notes His 85th
Birthday, Reminisces about Life”, Church News, 1995년
6월 24일, 6쪽)

역병처럼 증가하는 이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숫자가 집에서 귀하게 자라
버릇이 없으며 만사가 항상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은 즐거움의 연속이고, 그들의 행위가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고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역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의와 화평과 진리의
반대자의 일이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그러나 결혼 성약을 깨뜨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인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성약을
깨뜨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정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나 권능도 갖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혼 당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약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 일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이유'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도저히 희망 없이 계속되는 관계보다 덜 심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저는 결혼 성약을 깰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정신적인 갈등' 때문이라거나 '성격 차이'라거나 '성장 환경이 달라서'라거나 '사랑이 식어서'라는 따위의 것들은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6~37쪽)

결혼과 이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16~19쪽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회복된 진리와 일치하고 그와 같은 하늘의 영향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기를 간구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공격

25년 이상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에 끝없이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인간의 선과 수양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공경심에 대한 거룩한 가치관은 계속해서 도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새로운 세대는 계속해서 가정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을 최대의 목표로 생각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비판 받고 무시되었으며,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회피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타 저해 요소와 더불어, 소위 즉흥적인 만족과 결혼 생활이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역할을 무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사악한 유혹의 풍조를 조장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신성한 의도

불행히도 많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결혼이 영원을 통해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맺는 영원한 결합이 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지구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자 옆에 여자를 두시어, 그와 더불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예와 위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1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주님께서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세기 2:24) 이렇게 하여 승인된 결혼으로 주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주님의 계획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잘 교육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8)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잘못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원한 관계를 가진 하늘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태초에 아버지께 자녀를 갖게 하고, 부양하며 사랑하고 이끌도록 하셨으며, 어머니에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책임과 목적 하에 유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단위 조직을 두심으로써 그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훈련하고 단련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Ensign, 1973년 7월호, 15쪽)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유대와 조화로 이루어진 관계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항상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하신 바,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심각한 경향과 이혼으로 파괴된 가정들에 대해 슬픔을 금치 못합니다.

이혼의 주요 원인은 결혼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의 완전한 의미를 알면 이혼은 줄어들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불행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행복한 결혼 관계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그들의 사랑이 싹들 때부터 그들의 결혼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과 조건이 수반된 축복을 이해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해결책으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때 이혼한다는 현대의 풍조는 처음부터 결혼에 큰 장애가 됩니다.

날로 이혼율이 증가해 가고 있는 현실은, 이혼이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은 그것이 아무리 일반적으로 용납되고 아무리 빨리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다 해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삶과 피를 나누는 자녀와 그들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추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에는 반드시 커다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따르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한 부부와 자녀, 친척, 친구 사이에 생기는 간격과 비참함과 분열과 좌절을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한 감정적인 결과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모든 이혼의 60퍼센트 이상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경우, 그들 자녀의 대부분은 범죄율이 높으며, 자신감을 잃게 되고, 더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며, 그들 자신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을 위해 준비함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해 그다지 잘 준비하지 못하는 점에 크게 놀랍니다. 대개의 젊은이들은 한두 달 또는 일이 년 데이트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친해지면 결혼합니다. 일단 결혼하게 되면, 사랑은 영적인 믿음과 인척 관계 및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윤리와 자녀 및 가정 운영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로 연결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이 숭고한 책임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이나 전문직을 위해 수년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만큼 가치있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로웰 에스 베니온, “유타 가족 대화”, *Salt Lake Tribune*, 1980년 4월 6일, F-9쪽)

훌륭한 권고를 구함

때때로 감독실에서 밝혀지는 상처 받은 생활과 심각한 범법을 생각해 볼 때, 흔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아량이 넓은 감독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받거나, 사려 깊게 자제심을 발휘하고 비이기적인 사랑의 성품을 키워 나가도록 권고 받는다면, 결혼 생활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결혼한 여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종말이 왔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감독과 상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는 우리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젊은 감독에게 우리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더니 간단히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내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감독이 우리에게 해 준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감독이 해 준 그 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곳을 걸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이 자기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혼의 주요 원인은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Ensign, 1974년 1월호, 100쪽)

결혼 생활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함

어느 저명한 영화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결혼에 관해 ... 희극이나 멜로 드라마로서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취급하기를 꺼린다. 우리는 성적인 내용을 강조하길 더 좋아하고, 어린이들의 동화에서도 같이 그 후 내내 행복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Karl E. Meyer, *The Wife of Your Youth*[일리노이 팔로스 하이츠: Np, 1977], np)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매스 미디어 제작자들이나 작가가 행복하고 유익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묘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혼 부부들이 매일, 매주, 매년, 25년 혹은 반세기 내내 영원히 노력하고, 보호하고, 기르고, 같고, 닦을 만큼 결혼 생활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중년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은 극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인들이 그들의 결혼을 보호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혼은 놀라운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중년기의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경우, 이미 자녀들을 다 길렀으며, 손자까지 갖게 될 나이에,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이기심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라기 2:14~15)

이상적인 결혼

결혼은 성약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두 계명이 결혼의 신성함에 관해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와 “네 이웃의 아내를 ...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4, 17)

예수님은 간음에 관한 율법을 더 확대시키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이상적인 결혼이란 남녀가 서로에게 충실한 것으로, 그 충실함은 각자 상대방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잠언에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잠언 5:18)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애정으로 여러분이 항상 기쁨을 느끼고, 아내와 늘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하십시오.(잠언 5:19 참조)

우리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주름살이나 백발도 마다하지 않고 현재는 물론 영원히 서로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과 하나됨과,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인생의 노년기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그것이 신앙과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임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힘으로 매일 지탱됩니다. 어떤 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감이나 안전이 자신의 만족감이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될 때 그때서야 사랑의 상태가 존재한다.”(Harry Stack Sullivan, *Concepts of Modern Psychiatry*, 2판[뉴욕: W.W.노튼사 1961년], 42쪽)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

결혼 관계에 영원히 귀중한 어떤 것이 있음을 서로가 강하게 확신하게 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강화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하였으니, 결혼이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후기 성도는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에서 어떤 긴장감이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경우, 여러분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 마음과 참뜻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덮고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빛을 받고, 과오를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며,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여러분의 겸손한 간구에 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지어다,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요리과 성약 50:2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육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
곧 남자와 여자에게 다같이 교육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미래를 준비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신권 소유자들에게. “미래를 위해 두뇌와 기술을 훈련시키는 일에 현명하게 되십시오. ...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능하고 훈련된 남성과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여 행하든지 그에 대한 훈련을 쌓으십시오. 스스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교육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르는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십시오. 앞날을 빛내 줄 학창 시절을 증후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에 대한 긴 안목을 갖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대개 상당한 기간 동안 살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60쪽)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 곧 남자와 여자에게 다같이 교육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두뇌와 손을 훈련시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

“여러분이 다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축복이 될 것입니다.”(“여러분의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115쪽)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극심한 경쟁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책임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1쪽)

신권 소유자들에게. “힘을 다해 교육을 받고자 노력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훈련을 받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된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운데 아내가 집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녀는 두 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열쇠입니다. 주님께서는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써’(교리와 성약 109:14) 배우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두뇌와 손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훈련될 때 여러분은 가족을 보다 잘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50쪽)

엘 톰 페리 장로

“직업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서너 번 직종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직장은 더욱더 자주 바뀌게 되어 보통 열 번에서 열두 번 정도 바꾸게 됩니다. ... 오늘날 사회의 불안정은 우리가 이 권고에 유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절실하게 만듭니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36~37쪽)

리셀 엠 넬슨 장로

“영적, 지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는 평등합니다. 남성만이 사고와 이성을 독점하거나 여성만이 감성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칭호들, 즉 교사, 전문가, 충실한 직장인, 신뢰 받는 친구, 경전을 항상 상고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신뢰 받는 동반자, 사랑을 베푸는 부모 등은 남녀 모두가 합당성이라는 동일한 요구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26쪽)

“제가 훈련되지 않은 10대 청소년이었던 어느 크리스마스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가지면서 했던 결심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일은 단조로웠으며, 매시간 매일이 무척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곳에서 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남아 마치 교육에 제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교육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6쪽)

빅터 엘 브라운 감독

“우리는 자녀에게 생각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126쪽)

여성 교육의 중요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우리 자매님들도 반드시 직업을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하게 되어 일을 해야 한다면, 품위 있고 보람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재능과

은사를 극대화시켜 줄 직업에 종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Prepare for Honorable Employment, *Ensign*, 1975년 11월호, 124쪽)

러셀 엠 넬슨 장로

“현명한 여성은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인생의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며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을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기 위해 진리의 창을 열어 놓습니다.

“여성은 교훈과 모범으로 우선 순위를 가르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여성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그만두고 자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다시 변호사직을 맡겠지만 지금은 아녜요. 나에게 있어서 그 동기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변호사라도 제 고객을 돌볼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결정은 권리의 견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견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자신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27쪽)

남녀 평등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다르지만 ...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열쇠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온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대대적으로 종교적인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address to the Members of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1945년 12월, 717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다릅니다. 그 차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어머니와 자매로서 많은 놀라운 책임이 주어졌으며 남성에게는 아버지와 형제로서 놀라운 책임들이 주어졌습니다만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참조)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개인적인 발전을 이룸으로써 할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70쪽)

“우리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영원한 임무에 있어서 조용하고 제한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바지하는 완전한 파트너가 되십시오.”(“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3월호, 150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가정과 가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완전히 알고 그 결정에 완전히 참여하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 주님은 아내가 남자를 위한 내조자(내조자라는 말에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고

반드시 필요한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0~51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52년간 나와 함께 생활한 나의 동반자를 봅니다. 그녀의 공헌이 주님 보시기에 나의 공헌보다 덜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 없이 내 옆에서 걸으며 내가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축복하며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가는 곳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격려와 선행을 행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반세기 이전에 주님의 집 제단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던 이 작은 여인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며, 감사하게 됩니다.”(“마음속에 기록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110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교회에는 분명한 권능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관할하는 분들이 부름을 준 곳에서 봉사합니다.

“가정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반자로서 똑같이 짐을 지고 함께 결정하며 항상 같이 일합니다. 합당하고 영감에 찬 지도력을 보여 줄 책임이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있다면, 아내는 남편의 뒤나 앞에 있어서도 안 되고 바로 그 옆에 있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73쪽)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계시를 받고 간증을 얻으며 시현을 보는 등 성령의 은사에 관한 모든 것과 개인적인 의로움의 결과로 생기는 경건과 거룩함에 관한 모든 면 등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 사도와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내실 때 반드시 영적인 키가 비슷한 여성을 그들 옆에 두십니다. 전자의 승영은 후자의 승영에 달려 있습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302)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여러분의 아내는 가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동반자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21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남편들이 그들을 복된 자라 칭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를 관대하게 칭찬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잠언 31:28 참조) 주님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결혼 생활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 서로 다른 중요하고 신성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가운데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부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충실한 자매님들이 천성적으로 특별하고 풍성한 영성을 향유하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38쪽)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준비를 하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어머니는 주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도록(현재나 미래 모두)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가정 밖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35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는 성별을 혼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압력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안목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의무와 특권을 변경시키려는 것들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이나 법적인 변화 중에 영원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것들도 있는 까닭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대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3~74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자매들은 “진정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 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테이크나 와드 및 그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싶어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평의회에서 자매님들의 중요한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의회 회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 스테이크나 와드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서로 제안하고 제안하도록

격려하십시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6쪽)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성의 사회 및 정치적인 지위는 인정 받아 마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성의 변덕이나 공상이나 정의에 의해 여성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권리 이외의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신 비난하거나 조롱해 버리는데, 이것은 곧 자기가 논박할 수 없는 올바른 원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성을 남성의 적대자로 분류하여 남성과는 별개의 정반대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여성이 철저히 독립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이 보여 주는 더욱 비난할 만한 형태를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여성들에게 따르게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개선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전형적인 극단론으로서, 그 양자 사이가 곧 ‘중용’이라는 것입니다.”(“여성의 위치”, 여성의 대표자, 1872년 7월 15일,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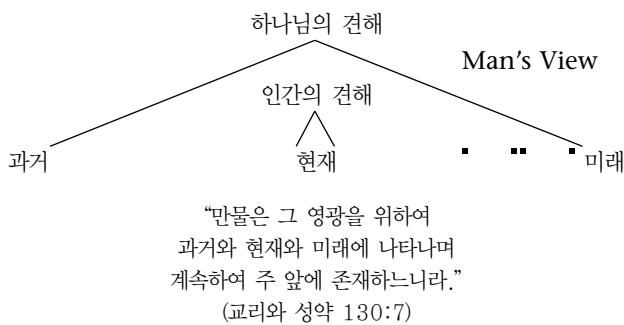
결혼 생활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관점

영원한 원리에 근거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견해는 성공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 우리가 존상하고 있는 주님의 사업이 죽음의 장막 양 편에서 매우 균형있게 행해지고 있는 방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

“매사에 영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25쪽)

“우리가 필멸의 생애를 존재의 전부로 본다면, 고통, 슬픔, 실패, 단명 등은 재앙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세와 죽음 이후의 먼 미래까지 포함하여 내다본다면 모든 일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97)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여성 운동이 끼친 분명한 영향력 가운데 한 가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젊은 여성들이 불만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가사, 기저귀 갈기, 엄마를 찾는 아이들로부터 벗어나 좀더 신나고 자기 성취적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성을 택하셨다는 것과 승영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영원한 관점을 잃게 합니다.”(‘하나님 왕국에 있는 선택 받은 여성들에게’, 나부 상호부조회 현장, 1978년 6월 30일)(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48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

“하나님은 자신의 웅대한 계획에 따라 천을 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그는 하나님이고, 이것은 그분의 사업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이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5쪽)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영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이며,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358쪽)

“결혼 생활과 가족 단위는 진보와 승영의 계획에 있어 중심이 되는 부분이 된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가족 단위에 집중되며 그 주변에 있게 된다. 승영은 가족 단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546)

“더 나은 생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위기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는지, 앞으로의 삶과 존재의 영원한 영역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관해 주님의 영원한 관점을 얻게 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더 잘 통제하게 될 것이다. 부활에 관한 그와 같은 지식이 개인적인 의를 이루게 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396)

엘 톰 페리 장로

“우리는 본질상 영원한 것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먼저 하는 뜻에 걸려,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않았습니까?”(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35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우리의 질문은 부족한 관점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다. 여기서 가껴이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창세기 25:32)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다만 인생에 관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그가 영원한 관점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앙이란 양 갈래로 뻗어 있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전을 바라보는 것이며, 신앙을 지속시킴으로써 미래를 내다 보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갖는 효용성과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 그릇의 팔죽은 그저 한 그릇의 팔죽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Men and Woman of Christ*, 116쪽)

"피해야 할 울무는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프리즘에 현혹되어 사물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키는 경향이다. 시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영원한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의 압력을 느끼게 되며, 사물을 왜곡된 방법으로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영원한 관점을 지닌 복음의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 우리가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때 이 세상에 국한된 관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영원한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복음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But for a Small Moment", 453~454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복음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부모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영적인 성품' 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제일회장단 말씀, *임프르먼트 이라*, 1912년 3월, 417쪽, 예레미야 1:5 참조) 우리는 영생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 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생은 단지 어떤 임의의 과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특별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2쪽)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독특한 방법으로 인생을 봅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와 소망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이 영원한 관점은 그들의 선택과 우선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멀어지면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영의 인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이러한 삶의 자질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Pure in Heart*, 111)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좌절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강화됩니다. 신앙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65쪽)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에 관해 영원한 관점을 지닐수록 결혼 생활이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성전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은 일반 결혼의 경우보다 훨씬 낮으며, 자유 결혼의 별거율은 일반 결혼의 이혼율을 훨씬 능가한다.(Tim b. Heaton and Kristen L. Goodman, 'Religion and Family Format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6, no.4[1985년 6월]: 343~359; John O. G. Billy, Nancy S. Landale, and Steven D. Mclaughlin, 'The Effect of Marital Status at First Birth on Marital Dissolution Among Adolescent Mothers', *Demography* 23n no. 3[1986년 8월]: 329~349; Larry L.

Bumpass and James A. Sweet, 'National Estimates of Cohabitation', *Demography* 26, no.4[1989년 11월]: 615~625) 영원한 원리에 근거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견해는 성공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사람이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면 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점잖고, 온유해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성품들이 결혼 생활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The eternal Family", 115쪽)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에 관해
영원한 관점을 지닐수록
결혼 생활이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11쪽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재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능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의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 (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정선된 가르침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저는 서로에게 충실하며 자녀들을 신앙과 사랑 안에서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공표한 가족 선언문에 대해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읽고 또 거듭 읽으시기 바랍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66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최근에 제일회장단은 세상에 전하는 가족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선언문은 가족의 붕괴는 각 개인과 지역 사회 그리고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및 현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어 온 바입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81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경전을 읽고, 경전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십시오. 가족에 관해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활용하십시오. 이 선언문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5쪽)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선언문은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가족의 성공을 가족이 질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하신다는 것이다. 신앙, 사랑, 그리고 용서가 있는 가정에서는 함께 있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상적인 것은 아버지가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가족을 보호하는 대신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반대로 세상은 종종 가족의 성공을 재물의 축적과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양으로 평가한다.”(“The Eternal Family”, 115쪽)

신앙의 원리

마태복음 9:29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고린도후서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니파이전서 3:7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교리와 성약 76:53

“그들은 신앙으로써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니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남자와 여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성약을 맺었을 때(또한 이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의롭고 참된’ 자일 때(교리와 성약 76:53)) 약속의 성령, 곧 성신은 이 인봉을 증거하고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신은 이들 부부에게 결혼 성약에 따른 약속을 인봉해 줍니다.”(구원의 교리, 2:87)

해롤드 비 리 회장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 과학이든 종교든 모든 학문의 시초가 된다 ... 영적인 지식과 힘을 얻기 위해 의문스러운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인간의 모든 지혜를 적용하고, 그런 후에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결정이 옳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것이 옳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의 결론이 옳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무감각해져서 옳지 않은 일을 있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9:8~9)”(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4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신체적인 매력뿐 아니라 신앙, 확신, 이해 및 동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헌신과, 동반 관계, 부모가 되는 것, 공동의 이상과 표준입니다. 그것은 깨끗한 삶과 희생과 비이기적인 마음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248)

“매리와 존, 나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단순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 출생, 유아 축복, 침례, 혹은 성임과 같이 순수하고

신성하며 영원한 의식을 위해 세상적인 결혼의 팡파르와 호화로우며 기꺼이 삼가한 두 분의 비전과 신앙을 축하합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27쪽)

리그랜드 리처즈 장로

“앤더슨 엠 베이트은 ‘사랑의 철학’이라는 시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뷰러에게 바쳤다. 그 내용은 자신들의 결혼 유대는 분명히 무덤 너머에까지 계속되리라는 신앙을 표현한 것이다.

“그대와의 결혼은 영원한 것
지금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소.
지상의 짧은 세월을 위한 것도 아니며
눈물을 넘고 아픈 가슴을 넘어
근심된 표정을 초월한 영원한 결혼이오.
사랑은 무덤을 모르오.
그 사랑은 다 타버린 촛불이
반짝이다 꺼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요.”
(기이한 업적, 161쪽)

브르스 알 맥쿱기 장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대한 주해. “약속된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후에, 침례를 받은 후에, 성전 결혼을 한 후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을 받은 후에,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과, 사람이 홀로 그의 조물주 앞에 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410)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결혼은 그것이 신앙과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임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힘으로 매일 지탱됩니다.

“결혼 관계에 영원히 귀중한 어떤 것이 있음을 서로가 강하게 확신하게 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강화 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하였으니, 결혼이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18~19쪽)

기도의 원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룩한 성전에 자주 가며, 가정에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 행복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09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해 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생각과 열망과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결국은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논쟁과 문제가 있을 때,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전에 의지하십시오.”(*성도의 벗*, 92년 11월호, 4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

“나는 여러분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말은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책임감 없이 진지하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 고통을 주는 작은 문제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들과 딸로서 간구드릴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매일 나누는 대화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올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반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감미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강화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생활로부터 오는 안정감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부모를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하는 친절한 말의 안전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크고 작은 축복에 대해

**결혼이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이여야 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16쪽)

“여러분의 동반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감미로워지고 강화될 것이며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증가될 것입니다.”(*Cornerstones of a Happy Home*, 11쪽)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매일 함께 기도드리러는 부부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파트너로 모셔 들일 때 부드러운 느낌과, 성신의 권세를 통해서 오는 긴장 완화가 있게 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동반자가 여러분에 대해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보십시오. 함께 일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랑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낙담을 하게 되면, 함께 기도드릴 때 다음과 같이 일인칭 단수의 표현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의미 있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내와 같은 훌륭한 동반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훌륭한 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힘을 주시고 그녀가 완전히 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

“나는 여러분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분석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자와 함께 매일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One Step at a Time*, 15~16쪽)

회개의 원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을 집행할 방으로 가기 위해 긴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의식을 마친 방에서 한 자매가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흥분된 어조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김볼 장로님?’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몹시 난처했습니다. 내가 만나 본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나는 ‘미안합니다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 대신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과 제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할 때 장로님과 함께 밤을 새웠던 적이 있었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하며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장로님께서 우리와 함께 밤을 새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였고 완전히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켰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니 기쁩니다. 사도이신 형제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구주께서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요.’”(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108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혼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가운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자신의 어깨에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률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2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간음이나 다른 성적인 죄와 같이 끔찍한 중죄라 할지라도 이에 비길 만한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이보다 덜한 죄일지라도 예방이 치료보다는 훨씬 낫다.”(용서가 낡는 기적, 74쪽)

“또다른 젊은 한 쌍이 있었는데 그들도 성적인 범죄가 무거운 죄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12월에 정식으로 약혼을 하고 다음 해 6월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6개월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범해 왔던 것이다. 6월에 그들은 각자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그들의 감독을 찾아갔다. 언제나 교회에서 활동적이었던 것을 아는 그녀의 감독은 순결에 관해서 깊이 묻지도 않고 성전 추천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형제측 워드의 감독은 주의깊게 젊은이에게 물어 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범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죄를 시인했으며, 나는 이들이 “우리는 정식으로 약혼을 했으며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무거움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전당을 더럽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성스러운 성전에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이 받은 교육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얼마나 불성실한 방법으로 결혼에 임했던가! 그들은 회개할 때까지 결혼이 연기되었을 때 당황했다.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들은 성전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를 정해 달라고까지 했었다. 그들은 회개가 며칠이나 몇 달, 혹은 몇 년의 기간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느낌의 강도나 자아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태도가 옳지 못하며 그들이 지은 무거운 죄의 심각성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심각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죄가 파헤쳐져 드러났을 때 다만 그 죄를 시인했을 따름이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온전히 죄 값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생각하며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회개와 조정의 상태에 이른다는데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들은 이러한 범법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파문당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가 던진 질문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가중한 죄를 무분별한 행동쯤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회원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으며 여덟 살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된 부정행위 생활 속에서 성령을 멀리했던 것이다. 그들은 성령을 반겨 맞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거스려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뜨거운 다리미로 다림질하듯이 그들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다.”(용서가 낳는 기적, 144~145쪽)

“어느 날 나의 사무실에 어린 자녀를 여섯 둔 한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결혼 초에 간음을 범했으나,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서 번민해 왔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으나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가시질 않았다.

“이 부부는 대답을 듣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했다. ‘저는 아내에게 우리가 오래 전에 범한 간음 때문에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고 더군다나 승영이나

영생은 바랄 수 없으니 자녀들이나 많이 낳아 의롭게 키워 그들이 복음과 교회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에 승영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대가를 치렀을 때 결국은 용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여러 성구를 인용해 주자 그들의 내부에 소망과 화평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회회에 찬 모습으로 사무실을 떠났다.”(용서가 낳는 기적, 306~307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루시퍼의 유일한 목적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방해하여,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의 경험들, 즉 낭만과 사랑과 결혼 생활과 부모의 역할 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비통과 죄악의 망령들이(엘마서 39:5; 모로나이서 9:9 참조) 그의 주위를 따릅니다. 사탄이 낸 상처는 회개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21쪽)

“인생의 전투에서 악마는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망칠 방법을 몰라 강제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모든 영혼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악마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열쇠는 회개라고 불립니다. 회개와 용서의 두 원리는 그 힘에 있어 악마의 엄청난 권세를 능가합니다.

“도덕적 표준과 관계된 죄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낙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처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그러한 회개의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0:16~17)”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8쪽)

**회개와 용서의
두 원리는 그 힘에 있어
악마의 엄청난 권세를
능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용서의 원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두 사람의 결점이 비슷하거나 두 사람이 모두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이기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는 태도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언젠가 나를 찾아와서 가족 문제를 상의한 어느 자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별거나 이혼을 피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권고의 말을 주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녀는 나의 결정을 받아들일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다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요, 자매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자매님은 선택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매님께서 일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것은 자매님의 책임이요, 자매님이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나는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자매님과 남편이 서로를 용서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나의 경고와 애원이 모두 헛되게 된 것 같군요. 나는 자매님의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님을 자매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매님이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깨끗이 씻어 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지적이고 성숙한 두 사람이 이기적인 자아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영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결코 도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두 사람이 용서하겠다는 정신을 갖지 않고 서로에게서 도피하려고 한다 해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별거나 이혼으로도 그 병은 치료될 수 없으며, 후에 하게 될 새로운 결혼에도 그 병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용서가 낳는 기적, 245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첫째,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께서 보여 주신 사랑과 소망, 자비에 주의하며 사시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 친절과 예절과 인내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기원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8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끼꺼이 사소한 잘못을 눈감아 주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4월, 97쪽; *Ensign*, May 1991, 74쪽)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는 영원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개와 용서의 위대한 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을 떨어뜨릴 때, 즉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히려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48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최근에 저는 어느 노인이 형의 장례식에서 털어 놓은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들 형제는 갓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뉴욕 주 캐티스테오 근교의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싸움을 한 후에 방 한 가운데를 나누어 분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 금을 넘어가지 않았고, 서로 단 한 마디도 건네지 않은 채 그렇게 62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결여로 빚어진 얼마나 참담한 비극입니까!”(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58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우리가 의견 차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출선해서 평화를 구한다면—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있을 수 있다면—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의 죄와 비난과 비통함과 잘못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모든 허물을 용서한다면—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압박하기 전에 크든 적든 모든 부채를 갚는다면—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확대하여 보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없앨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훌륭한 곳이 되겠습니까! 이혼은 줄어들 것이며, 법원은 반복되는 슬픈 일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가족들의 생활은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49년 10월, 133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백 수천 명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받아 봉사하며, 들어 올리지며 축복 받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사람의 일을 다룬 경험으로써 저는 그 특성이 자의식과 교만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의식과 교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데 해가 됩니다. 자의식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를 구하는 데 방해가 되며, 더 높은 사랑의 충만한 감미로움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의식은 종종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느낌만 확대시켜 줍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온전하지 못함으로써 저지른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저의 성격이나 스타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해를 입힌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8쪽)

로버트 엘 심슨 장로

“결혼한 지 1년이든 21년이든 간에 모든 부부는 하루를 마칠 때 함께 대화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의 일을 반성하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하루의 끝은 ‘여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오, 나를 용서해 주구려.’라고 말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간이기도 합니다.”(성도의 벗, 1982년 7월호, 32쪽)

용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십이사도 정윤희 보조

성도의 벗, 1974년 1월호, 73쪽,
(10월 대회 보고)

용서에 대한 교훈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친구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더 큰 사랑을 주셨으니, 그분은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으며,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행동은 그분이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것보다 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데 더 작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형태의 사랑이 용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더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친구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에 당면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을 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혀 그분을 알지 못하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시사해 주는 바가 없었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에 사로잡힐 만큼 그분께 가까이 가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친구에게 보여 주신 모범과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행을 하며 너희를 악의로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반응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오해하고, 불공평하게 또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죄를 짓고, 말로 상처를 입히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무시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상처 받고, 제언하는 것이나 선물이 거절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분개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원한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벗어버립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본질은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본질과 자질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으로

인해 신앙이 단련된 한 용기 있는 친구가 얼마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영하기 전에 굴욕을 겪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요구됨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1831년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8~10)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마태복음 6:12)

우리가 공개적으로든, “마음속으로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뻔뻔스러운 일 같지 않습니까?

물론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모사이야서 26:30~31 참조)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과 능력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참된 자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뺨을 돌려 대고, 십 리를 동행하고, 걸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난폭하고, 야만적이고 도적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해 분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파괴적인 짐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친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분개하는 마음과 좁은 도량과 어리석은 자존심을 없애고,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로새서 3:1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상호 존중의 원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간음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성스럽게 유지해야 하며, 결혼하기 전 구애를 하면서 느끼던 감정과 존경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신권으로 인봉되며 죽음 지편까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성실히 사랑스럽게 행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예절과 친절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일부입니다.”(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8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자신의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하거나 천하게 대하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며 심각하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는 사랑과 친절과 상호 화해의 정신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의 아내를 최상의 존경으로 대해 주고 사랑과 친절로 말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결혼 생활은 부드러운 꽃과 같은 것이며,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키워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1쪽)

우리는 결혼 관계를 성스럽게 유지해야 하며, 결혼하기 전 구애를 하면서 느끼던 감정과 존경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의 제단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시작되는 선남선녀의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양육과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 받고 축복 받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평화와 힘과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게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후에 닥칠지도 모를 비극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59~60쪽)

“어떤 사람이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문제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며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경우에는 사과와 회개와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3년 3월호, 7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위대한 사랑의 화음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것보다 훌륭한 음악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음악은 두 사람의 음성이 합쳐져 하나의 영적인 독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상호간의 존경과 성숙과 비이기심과 예의와 결심과 정직을 토대로 하여 가장 위대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안입니다. 결혼과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어느 것을 통해 느끼는 행복보다 수천 배나 더 큰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4쪽)

고든 비 힝클리 장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유대는 자칫하면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말며 덤덤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높고 고무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남편이 가끔 자기 옆에 있는 반려자가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두 갖고 있는,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구현되는 거룩한 자질을 찾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동의 과정이 항상 서로에 대한 감사와 보람을 ... 갖게 합니다.”(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9쪽)

엘 톰 페리 장로

“아담은 결혼 생활의 유대가 다른 어떠한 가족의 유대보다도 강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스러운 결혼 생활의 유대는 서로 화합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며, 존중하고 지지하게 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1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관계와 그 결과는 불변하고 무효화되지 않는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 같다. ... 부정직, 자기 수양 부족, 그리고 상호 개인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의 결과를 줄이는 방법은 ...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다.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71년 2월호, 46쪽)(That My Family Should Partake, 15쪽)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여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남성은 그녀를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남성에게 신성한 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성은 현재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이해는 서로를 존중하게 해 줍니다. 영원한 관점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The Eternal Family, 113쪽)

연민(Compassion)의 원리

연민의 동의어

자비, 사랑(자애), 동정, 공감, 측은히 여김, 인정, 관용, 은혜, 관대

연민의 반의어

무정, 잔인, 불친절, 분열, 무자비, 적의, 악의, 비통, 증오, 적대감, 원한, 학대

경전에서 사용된 연민의 의미

1. *Chamal*(카-말, khaw-mal) 히브리어: 동사. 정의: (Qal) 아끼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예: 출애굽기 2:6
2. *Racham*(라-감, raw-kham) 히브리어: 동사. 정의: 사랑하다, 깊이 사랑하다, 자비를 베푸다, 동정하다, 부드러운 감정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 예: 신명기 13:17
3. *Splaghnizomai*(스플랑크-니드-죌-아히, splangkh-nid'-zom-ahel) 헬라이어: 동사. 정의: 내장에 따라 움직이다, 따라서 연민을 갖고 움직이거나 연민을 갖다(내장은 사랑과 동정심이 거하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예: 마태복음 9:36; 마가복음 1:41.
4. *Eleeo*(엘-레-에-오, el-eh-eh-o) 헬라이어: 동사. 정의: 자비를 베푸다, 고통 받거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 주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다. 예: 마가복음 5:19.
5. *Metriopatheo*(메트리오아테오, met-ree-op-ath-eh-o) 헬라이어: 동사. 정의: 적절하게 영향을 받다; 감정, 특히 분노나 슬픔 속에서 중용을 유지하다; 그러므로 잘못, 실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심하게 방해 받지 않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수용함. 예: 히브리서 5:2.
6. *Sumpatheo*(숨파테오, soom-path-eh-o) 헬라이어: 동사. 정의: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다, 혹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다. 예: 히브리서 10:34(헬라이어 및 히브리어 판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자비는 얼마나 신성한 자질입니까! 자비는 법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스러운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부여 받은 특별한 은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더 크고 넓은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합니다 ...

“우리가 자비로우면 자비를 얻게 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강한 동정심과 높은 자비심을 베풀 것을 간청합니다 ...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정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그분의 제자임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태복음 5:39)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태복음 5:40)

“또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마태복음 5:41)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42)고 하셨습니다.

“죄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0~11)고 하셨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비의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성역은 불쌍하고 병들고 핍박 받고 불의와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의 희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자비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흔히 자비는 은밀하며 겸손한 것입니다. 자비는 신문 기사에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복수와 증오, 그리고 욕심과 공격적인 이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이제 저는 자제심, 친절, 관대함, 동정심을 포함하는 자비가 너무도 필요한 다른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모든 아이는 선하든 나쁜든 혹은 무관심하든 가정의 소산입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해를 통해 자라면서 가정 교육이 그들의 생활에 연장되고 반영됩니다. 가정에 가혹함과 학대와 자제치 못하는 분노와 불충실이 있다면 그 결과는 확실하게 식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나쁜 영향은 그 뒤를 잇는 세대에도 반복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제와 용서, 존경과 배려, 친절과 자비,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열매 역시 식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며 사랑스럽고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부모에 의해 주어지고 가르쳐짐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활과 행위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혹한 비평이나 행동을 금하고 노함을 자제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 서로 자비와 사랑과 존경을 표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77~80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 주신 권세와 은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는 눈과 상한 심령의 말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마음과 마음으로까지 통할 수 있는 동정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60쪽)

일의 원리

창세기 3:17~19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니파이후서 5:17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근면하게 하였고,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하였느니라.”

모사이야서 10:4~5

“또 나는 남자들로 하여금 땅을 갈고, 온갖 곡식과 각종 온갖 과일을 재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또 여자들로 하여금 길쌈을 하며, 수고하며, 일하며, 온갖 세마포와, 또한 각종 옷감을 짜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별거벗음을 가릴 수 있게 하였나니, 이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하였고—이리하여 우리는 이십이 년 동안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느니라.”

교리와 성약 42:42

“너는 게으르지 말라. 이는 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68:30~31

“... 게으른 자는 주 앞에 기억될 것임이니라.

“이제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음이니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세상에서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화시키고 불투명한 비전을 역동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천성적으로 게으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놀고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해 음식과 의복과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번영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능숙한 손과, 교육을 통해 닦여진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3년 3월호, 5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네 얼굴에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19)라는 말씀은 진부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복지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쳐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의견이나 권고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봉사나 적절한 집안 일들을 통해 자신이 쓸 돈을 직접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다른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주는 일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 매주 혹은 매월 자동적으로 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가족 재정 지침, 8쪽)

엘 톰 페리 장로

“자녀에게 성실한 노동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책임을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책임이 가져다주는 도전을 즐기도록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통해 가정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가져 오려는 소망을 딸들에게 심어 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79쪽)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성공은 지고지선의 과제로서 다른 어떠한 성공도 그것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할 줄 모른다면 결혼은 지옥 같은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평생을 같이 살지 못하고 조급하게 이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1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매스 미디어 제작자들이나 작가가 행복하고 유익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묘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혼 부부들이 매일, 매주, 매년, 25년 혹은 반세기 내내 영원히 노력하고, 보호하고, 기르고, 갈고, 닦을 만큼 결혼 생활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18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훈육을 하고 책임감을 지닌 자녀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그들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은 저를 매료시킵니다. 저는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Jerome Klapka Jerome,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oughts*, comp. John P. Bradley, Leo F. Daniels, Leo F. Daniels, and Thomas C. Jones 편[시카고: 제이 지 퍼거슨 출판사.,

1969년, 782쪽) 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제게는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종종 방해가 되었지만 그 추억은 아주 값진 것이며 그 일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리하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니파이후서 2:26)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들은 몸소 시간을 내어 시범을 보여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위대한 원예가인 루터 버뱅크는 ‘우리가 자녀에게 기울이는 관심만큼 식물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잡초가 우거진 정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앨버트 합바드의 스크랩북, 227쪽)(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8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정부가 무상 배급을 주었던 대공황과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 중에는 아직도 나라에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36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호, 3쪽)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이 영원한 원리가 각자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여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131쪽)

조셉 비 워스틴 장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인내로 대하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발생하는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일치하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33쪽)

“부모는 일의 원리(노동의 가치를 인식하는 관점)의 씨앗을 자녀의 마음과 습관에 깊게 심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도시 구조로 바뀔 때 따라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의 기쁨과 필요성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정에 있는 동안 일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후에 그러한 교훈을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9쪽)

딘 엘 라슨 장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은 모험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한 번만 주어지는 일로서 부부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저 올바른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 완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환상에 몇 번이고 마주칩니다. 저는 오늘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환상, 즉 올바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의 성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들은 꾸준히 그렇게 합니다.”(“Enriching Marriage”, *Ensign*, Mar. 1985, 20쪽)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책임은 일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책임은 가족이 일하고 결혼 생활에 질서를 세우는 체계를 가져옵니다. 책임을 규정짓고 다시 보고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가족의 불화를 막고 개인적인 수련을 함양하는 의미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어깨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7~39쪽

돼지를 키움으로써 일하는 것을 배움

형제 여러분, 저는 아론 신권 시절에 돼지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때를 돌이켜보니, 저는 순종 두록 돼지와 관련된 4-H 클럽 활동을 통해 일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부풀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벨슨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제 돼지들이 우승하여 받은 100여 개의 리본으로 꾸며 놓은 이 담요를 여기서 잠시 보여 드리하고자 합니다.

벨슨 장로님의 손쪽에 분홍색 리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60년 전에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받았던 리본입니다. 제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생각에는 심사 위원께서 시력이 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돼지가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계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셨던지 4등상으로 이 분홍 리본을 주신 것입니다. 자주색 리본들은 그 후에 받은 최우수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벨슨 장로님.

형제 여러분, 저는 지역의 축산물 포장 공장에서 돈육 가격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불행한 경험도 했습니다. 손익에 대한 기록은 부기 계원이셨던 부친의 도움으로 꼼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매사에 다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시던 저의 부모님은 때로 일을 마칠 때까지 땀범벅이 되며 도와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95년 전에 태어나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일하는 법을 보여 주셨고 저를 고쳐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염가로 돼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3일이 지난 빵을 한 덩어리에 일 전씩, 수십 개를 구입했습니다. 더욱이, 어느 지역의 낙농장에서는 때만 잘 맞추면, 탈지 우유 70갤론을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갤론에 2달러 50센트를 지불해야 하니 정말 미묘하고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적은 돈으로 필요한 돼지 사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새끼를 밴 암돼지가 한 밤중에 새끼를 낳는 수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지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제 나이 또래의 소년들은 거의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두 가난했지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돼지 사육을 한다고 하면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실로 오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닐, 너의 어머니가 부르신다. 돼지들이 밖으로 나갔단다.” 하고 큰소리로 외치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집으로 달려가 돼지들을 잡아 들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함

제 부친은 정이 많지만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친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길 하는데, 대체로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종종 지적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일이 서툴렀습니다. 어느 여름 날

저는 필요한 여러 개의 울타리 막대를 단단하고 가지런하게 박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며, 부친이 귀가하시는 길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부친은 도착하신 뒤, 잔뜩 마음을 졸이고 있는 저를 뒤로 하시고는 수평 막대까지 동원하여 주의 깊게 울타리 막대를 검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한 뒤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으니, 마음이 훈훈하게 녹아 내렸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린 나이에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럴지라도 제가 언제나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깨와 수레바퀴에 대해 배웠으며, 이것은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막중하고 큰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훌륭한 젊은이들 중에는 어깨로 수레바퀴를 미는 것과 같은 고된 일을 운전대에 손 하나 얹고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에 관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광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주님께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신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과 구속의 정신으로 행하신 일들도 사실 그분에게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룸”, “추수의 법칙”, “이마에 땀을 흘림”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모세서 5:1, 조성, 창세기 4:1 참조) 이는 무의미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일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나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청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저녁, 제 일곱 명의 손자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은 선교사이고 셋은 최근에 집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일에 관한 복음은 “충만한 복음”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무리 기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선교 사업도 하나의 일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성전 사업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소수의 느슨해진 청소년들은 일을 하길 하지만, 대부분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 노력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에 대한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불행히도, 또다른 훌륭한 청소년들은 거의 무임 승차권을 가지고 다녀 긴장이 풀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돈으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종합 보험까지 든 자동차를 포함한 온갖 특전을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어도 몇 마디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숙제와 집안 일, 교회 일, 아르바이트, 봉사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사이에 개인적인 일들까지 뒤섞여 있지만, 모든 형태의 일은 여러분의 재능을 발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경고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간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임금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소비합니까? 십일조는 냅니까? 선교 사업을 위해 얼마나 저축합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분명히 권고해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기심의 영이 그와 함께 무덤까지 동행할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1982], 560쪽)

학교 숙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정신 노동이 영적인 일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 봉사 성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반사 능력을 키워 주며, 이러한 형태의 일에 대한 필요성은 결코 끝이 없을 것이지만, 아무런 생각이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밀고 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집안 일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방을 치우고 자신의 옷을 개어 놓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이 아무리 뒤섞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행하게 될 제일 어려운 일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을 고양시켜 주는 일입니다.

일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들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어떤 형태의 일은 다른 형태의 일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에게 “금관 악기부에 격려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시는 현악기의 음을 듣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는 스펜서 콘디 장로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일들이 더 잘 되길 바랄 때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자녀들이 타당성 있는 일에 대해 경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러한 요인을 다 제거해 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현재의 상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시인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로서는, 소젖을 짜거나 돼지 먹이를 줄 일이 없습니다. 현대의 일은 전반적으로 인위적이며 부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남 여러분, 타당하고, 의미있는 일을 마련해 주고자 애쓰시는 부모님을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아들이 비록 가끔씩이라도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다음 석 달 동안 한 가지 보람된 일을 택해서 함께 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의 윤리에 대해 알아 둬

청남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키우십시오. 쓰레기 치우기, 낙엽 쓸기,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병을 앓는 이웃의 집 앞에 쌓인 눈 치우기 등을 통해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며, 더욱이 탁월하게 해낼 때는 특별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달성한 일에 대해서, 특히 그 일을 잘했을 때, 서슴없이 그리고 후하게 칭찬해 주도록 합시다.

후기 성도들이 계속해서 근면한 사람들로 알려질지의 여부는 자라나는 세대가 좌우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들이 고결성으로 가득하여 그들의 일이 호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대로 실천하여 그 이름에 합당하게 된다면... 후기 성도인 우리들은 어느 기업체에서나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을 생활화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1954], 232~233쪽)

땀 흘리지 않는 지름길은 없음

청남 여러분, 때가 되면 직업을 선택하시되, 신경 외과위가 되건, 산림 감시원이 되건, 정비사가 되건, 농부가 되건, 선생님이 되건, 그러한 것들은 선호의 문제이지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직업 선택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직업의 길을 특징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본향으로 인도되는 길을 걸으라는 권유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것입니다. 본향에 가면, 장의사들이 하늘 나라에서는 자신의 직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현명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탐 흘리지 않고 해외 왕국에 이르는 지름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편안한 에스컬레이터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도록 파송된 특별한 영

이론 신권 소유자이건, 맬기세택 신권 소유자이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결코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적부터 여러분은 각자 계속되어 온 위대한 드라마의 한 부분을 맡아 왔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 전세의 천국 회의에 참석하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더욱 많은 중요한 일들이 충실한 자의 앞에 펼쳐져 있으니,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굽혀질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백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공의와 자비에서 온전하신 분임을 만인이 알게 될 때가 이를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7:31; 16:1; 엘마서 12:15 참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주님의 해외 왕국을 물려받을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9 참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곳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영성의 역사와 여러분의 가능성 있는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의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이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9쪽)

저는 여러분의 장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일을 하도록 파송된 특별한 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본향으로 인도되는 길만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건전한 오락 활동의 원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자녀들이 너무 많은 여가를 갖게 되면 지루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오락을 위해 더욱더 비싼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정과 뜰에서 책임을 나누어 하면서 노동의 존엄성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3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건전한 오락은 우리 종교의 일부로서, 생활의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신은 고양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43쪽)

“가족들은 일하고 오락을 즐기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오락, 일 계획, 존극, 피아노 주위에 모여 노래 부르기, 게임, 특별 다과 그리고 가족 기도를 위한 시간으로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가족은 식사들의 고리들처럼 사랑과 긍지와 전통과 힘과 충성심으로 함께 결속될 것입니다.”(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90쪽)

“성공적인 가족은 가족 공동 작업, 일, 휴가, 오락 및 친목회 등과 같은 일들을 함께 합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7쪽)

“시온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은 여러분 자신의 승영뿐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과 승영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시간을 내어 자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십시오 ...

“...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시간을 가지십시오 ...

“... 가족 단위로 함께 일할 시간을 내십시오.”(시온의 어머니들에게, 8~10쪽)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열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

“4. 자녀와 함께, 아빠와 딸이 함께 하는 데이트, 아버지와 아들의 외출 등을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가족들은 일하고 오락을 즐기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야영이나 소풍, 운동 경기나 연주회, 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아빠가 함께 하면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5. 가족 휴가, 여행 및 야유회 등에 대한 전통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추억은 어린이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4쪽)

휴 비 브라운 회장

“이 말씀의 제목은 ‘성공을 실패라고 보는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에도 그만큼 노력하지 않을 때,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더 깨끗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만 모을 때, 성공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갑에 있는 부보다 인격에 있는 부가 모자랄 때,

여러분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열망을 깨뜨리고 희망을 짓밟게 될 때

더 많은 돈과, 땅과, 더 많은 집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의 지배적인 열정이 되었을 때,

직업이 신체적인 재해를 가져왔을 때, 즉 ‘신경’과 기분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일에 대한 전념이 실제로 여러분을 가족에게 낯선 사람으로 만들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아내의 삶을 어둡게 하고 속박하며, 그녀의 감정, 휴식과 오락 및 여러 가지 즐거움을 빼앗을 때,

직업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 인해 동정심과 우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졌을 때,

직업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변호사, 상인, 의사 또는 과학자보다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우정을 쌓고, 예의 바르거나 좋은 매너를 갖추기 위한 시간이 너무 없다고 변명할 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서 자기 존중, 용기, 자기 통제, 또는 다른 자질을 잃었을 때, 성공은 실패가 되고 맙니다.”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113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를 말없이 호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자녀들이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부의 축적, 즉 재산의 증식은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19~21]”(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2쪽)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매주 월요일에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훈계와 오락을 통해 가족에게 깨끗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101쪽)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우리의 집은 질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도서 3:1)라고 전도서의 설교자가 충고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일할 시간, 공부할 시간, 봉사할 시간, 오락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25쪽)

엘 톰 페리 장로

“내가 다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 된다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

“... 토요일은 특별 활동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일하는 데서 얻는 축복과, 집안이나 마당, 정원, 밭 등을 보살피고 가꾸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가족이 함께하며, 즐겁게 일하는 습관을 기르는 가족 활동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10~11쪽)

“네브래스카 대학교의 닉 스티넛 박사는 가족 관계 국립 평의회와의 연례 모임에서 흥미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엔 ‘훌륭한 가정의 특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족은 놀고, 일하며, 먹고, 오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가족이 모두 바깥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함께 보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찾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25쪽)

“가족의 전통을 세워 여러분이 함께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지지를 보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각 구성원을 위한 이러한 행사에는 유아 축복, 침례, 성전 의식, 졸업, 선교사 환송회, 선교사 귀환 모인, 또한 결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해 개인적으로 모이기가 힘든 때에는 특별한 편지를 써서 가족 역사에 소중히 보관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때에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25쪽)

“가족 활동을 통해 관계를 강화시키십시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36쪽)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리하이의 꿈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 들려 오는 소리는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차가 세 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딸린 큰 집에, 그 옆에는 여행용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명 디자이너의 옷, VTR 겸용 텔레비전 세트 여러 대,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새 차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려는 계획 없이 이러한 것들을 할부나 외상으로 구입합니다. 이 순간적인 만족감의 결과는 파산 소송을 다루는 법정에 과다한 일을 부담시키며, 가족들은 재정적인 부담으로부터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35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가족의 전통을 살려 나가십시오. 가족의 큰 힘의 일부는 그 집안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 축복, 침례, 신권 성임, 생일, 낚시 여행, 성탄절 촛극, 가정의 밤 등과 같은 것을 특별한 행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각 가족의 전통은 독특한 것이며, 대개는 어머니의 영향과 모범에 의해 행해집니다.”(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67쪽)

러셀 엠 넬슨 장로

“결혼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관계라면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23쪽)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그룹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인정 받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만한 부모와 가족을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그러한 가족의 존재 여부와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훌륭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작자 미상의 기록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친구 돈이 작은 배를 해안에 끌어올리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년 여름 다시 배를 타게 될 때까지 무척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스키를 타 보시면 일년 내내 즐기실 수가 있을 텐데요.”라고 돈이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우린 낡은 욕조가 있는 구식 집에 살고 있어요. 욕실을 새롭게 개조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매년 겨울이 되면 그 돈의 일부를 갖고 가족이 한두 차례 스키 여행을 갑니다. 우리 큰 아들이 군에 있습니다만 그는 편지에서 스키를 타며 즐겼던 그 때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 애가 집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멋진 욕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Conference Report, 1968년 4월, 57쪽)

“몇 주 전에 한 스테이크 회장이 회원들에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 기쁨을 누리라고 권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네 살짜리 아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자고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꼬마가 마치 눈을 치우는 녀가래처럼 느리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령의 아이에게 스키는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부축하며 언덕을 내려오려 했지만 열 살 된 형이 옆에서 거들어 주며 동생을 도왔습니다. 그의 그러한 희생적인 봉사는 온 가족의 모임을 즐겁게 했고, 사랑과 형제애와 우의를 보여 준 것이 되었습니다.”(성도의 빛, 1972년 2월호, 20쪽)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애정 표현을 계속하십시오.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듯이 둘만의 시간을 매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이를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를 위해 헌신과 계획과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5쪽)

딘 엘 라슨 장로

“결혼의 성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들은 꾸준히 그렇게 합니다 ...

“... 함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런 후에 정기적으로 즐기십시오.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키워 주십시오.

“한 현명한 감독은 최근에 제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는 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큰 자녀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아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Enriching Marriage”, *Ensign*, Mar. 1985, 20, 23쪽)

본 제이 페더스토운 감독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 오래도록 좋은 인상을 남겨 주는 재미있는 오락을 계획하십시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111쪽)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

“우리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보내는 데에는 분별력이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가 시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시간은 예배, 가족을 위한 시간, 봉사, 공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조화를 가져다줍니다.”(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124쪽)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외출을 계획하고 소위 '가장 값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을 그들과 더불어 오락을 하면서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잘못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과 놀이에 필요한 균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 정해져 있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을 때 특별한 행사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7년 1월,
64~67쪽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

영원한 가족과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에 관해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니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가르쳐 온 영원한 복음 원리를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교리는 하늘의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히브리서 12:9 참조) 그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선언문은 되풀이하여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쪽)이라고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가족을 제정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으로 인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모든 일들이 아담에게 거룩한 의식으로써 확인되었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으리라고 선포되었느니라. 과연 그러하였느니라. ...”(모세서 5:59)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라.”(모세서 5:2)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맺은 성약을 하늘에서도 맺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을 때 이 거룩한 결혼 성약과 약속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이 후일에 영원한 가족에 관한 약속이 벨기세택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었던 1829년에 회복되었습니다. 칠 년 후 커틀랜드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열쇠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대로 회복되었습니다.

“...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

“...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

(교리와 성약 110:13, 14, 16)

이 열쇠들과 신권의 권능이 회복됨에 따라 영원한 가족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교리와 성약 110:9)

인봉의 약속과 조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인봉들은 무엇을 약속해 주니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거룩한 구절을 통해 그 약속과 필요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할지니라—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2:19)

이 성구에서 가르치듯이 영원한 결혼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인봉 성약의 결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갖는 가족 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세와 영원을 통해 대대로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사랑하는 배우자

성스러운 계명에 의해 부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교리와 성약 83:2~4; 디모데전서 5:8 참조)[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거룩한 계획에 따라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과 부모로서의 책임에 있어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에 의하면 “부모는 ... [자녀들이]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모사이야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가족을 멀하려는 사탄의 노력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사탄은 가족의 거룩한 본질을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을 저하시키고, 부도덕을 조장하여 성스러운 순결의 법을 어기고,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도록 하는 데 주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가족 단위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될 것이다.] ...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우리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구함

개개인의 구원은 각자의 순종에 달려 있지만, 우리 각자는 가족을 이루는 데 절대 필요한 존재이며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가족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수립된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가족의 사랑과 동반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모두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의롭게 견디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성원 하나하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고무시키고 강화시키는 큰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구원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 가족으로 구원 받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나머지 가족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영원한 본질은 가족의 영원한 본질이 됩니다.

가족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게 함

우리의 육신과 영의 영원한 본질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상고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가족의 구성원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을 맞은 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과 계명에 순종한 것에 따라 영생의 축복,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되돌아가서 영원토록 증식하며 살게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개개인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과 영원히 재결합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양육 받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또한 죽은 후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 때문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음과 불멸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친구의 신앙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삶과 가정에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보면서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복음 원리를 가장 훌륭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저는 역경의 시기에도 영원한 가족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받들었던 사람들이 즐거운 축복을 얻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가족을 이루는 데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불치병에 걸린 한 사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신권 지도자인 그는 죽음의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기도문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9~10)라고 하였던 구주의 모범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 친구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희생을 이루시는 동안 겐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견뎌야 했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태복음 26:42)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친구는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구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그는 몇 가지 진지한 걱정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질문들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했는가? 죽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가족들은 충실하게 견디고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구주께서 가르치셨던 교리에 그 답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며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하고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고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고 난 직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와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낙원의 상태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 및 손자 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함께 모으고 모두가 부활하게 될 속죄의 교리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시 동안 작별하는 것은 슬프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 14:13; 교리와 성약 42:46 참조) 그 친구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이 잘되고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준비시킬 여분의 시간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을 마칠 시간까지도 알게 되리라는 위안과 확신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제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후에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위안입니다.

복음 교리는 젊은 미망인을 위로함

제가 이십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때 제게 일어난 사건과 이 사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군에 있을 때 제 편대 소속의 파일럿 한 명이 훈련 비행 중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추락한 동료의 시신을 그의 고향인 브루클린으로 이송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고인과의 상면 시간과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의 가족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특권과, 슬픔에 잠긴 그의 부인에게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기를 전달하는 명예를 가졌습니다. 장례식은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그 동료의 선함이나 업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전혀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 그의 부인은 제게로 몸을 돌려 “뵘, 단은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에게 침례 받고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 받는다면 남편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감미로운 부활의 교리를 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목사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리로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은 삶의 어려운 시기에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주고 혼란스러울 때는 평안을 주며 절망에 잠길 때는 영원한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교리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진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영원한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가족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최근에 한 젊은이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를 감동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병으로 인해 처음에는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 후 병이 더욱 진행되면 말도 못하게 되며, 마침내는 호흡 기능이 중단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이 영원하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는 비디오 녹화를 통해 그가 죽은 후에 사용하도록 각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인생에서 침례식, 신권 성임, 결혼식과 같이 중요하고 거룩한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 비디오를 미리 녹화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과 육체적으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상냥하고 애정어린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잃고 나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미망인들과 남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보여 주는 신앙의 본보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이 다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생활하며 남아 있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과 순종심에서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빛과 희망을 가져다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살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비극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어둡고 황량할 수 있는 세상에 밝은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르치고 실행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속죄를 통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축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과 가족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며, 앞으로 올 영원한 내세에서 함께 지내며, 우리가 그 기쁨을 이해하며, 또한 이 교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이 교리에 따라 참되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12~23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래 1995년 9월 25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단 네 차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언문은 이 앞의 선언문이 발표된 지 15년만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가 이룩해 온 발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선언문의 주제의 중요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행복을 불러오거나 무관심이 슬픔을 야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의 추측에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영감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외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단지 귀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진리를 들어 왔으며 경고를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에 관한 선언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참조)

이 제목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둘째는 그 대상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언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및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느것보다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선언문이 말하는 내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언문이 주님께서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에 적합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선언문의 제목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만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가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처음에 “이는 표준이 너무 높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그러한 가족을 희망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쉽게 압도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의지가 담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씀을 통해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지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보다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주님의 도움에 의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선언문이 모든 세상—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정부—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힘써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든지,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영생의 축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젊은이가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과제에 직면했을 때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은 진정 참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난 후에는 순종할 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방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언문에서 언급된 가족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마음에 찾아오는 특별한 느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느낌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 스스로를 그와 같은 말씀을 처음 듣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취할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8:17)

어린아이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는, 서로 다르지만 완전한 보완 관계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모형, 곧 행복의 계획에 따른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아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앞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노력할 때에만 그러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도와 주시도록 간구하는 전세계의 어린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들과 같은 태도로 선언문의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선언문을 읽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더 쉽게 어린 아이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하늘의 가정에서 지냈던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영원히 결속된 아들과 딸로서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손자와 손녀로서 다시 하늘의 부모와 함께하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성별로 인해 전세에서 특별한 재능을 지닌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기회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머리에 그려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유혹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나는 영생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사후에 다른 장소에서도 행복해 할지 모르지. 왜냐하면 가장 낮은 등급의 왕국조차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말아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쉽게 잘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영생에 근접하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영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을 우리의 결연한 결심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희망으로만 갖고 있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한 건물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며, 저는 아내인 캐슬린을 처음 만났을 때 살았던 예전의 그 하숙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숙집이 아주 초라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하숙집은 새롭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고 안팎으로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하숙집을 운영했던 소파 가족으로부터 그 집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건물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때 제가 사용했던 꼭대기 층의 뒷방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숙비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소파 가족은 제게 좋은 조건으로 그 집에 있게 했습니다. 저는 욕실이 딸린 큰 방을 혼자 사용하였는데, 가구며 이불이 제공되었고 청소와 세탁 그리고 1주일에 여섯 차례의 맛있는 아침 식사와 다섯 차례의 멋진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 식사는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고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당 21불의 비용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숙집 주인인 아주머니를 “소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열두 명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소파 아주머니와 아저씨 내외분, 그리고 따님에게 자주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하숙집의 묘사에 현혹되지는 않으며, 저도 그러합니다. 이 오래된 하숙집에 널찍한 방들이 있고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숙생들 또한 모범생들이지라도, 대부분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운명인 가족에 관한 기억이나 생각들을 어렵듯하게나마 갖고 있다면, 그 하숙집이 멋진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곳에서 독신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을 곳은 오직 한 곳, 즉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곳입니다.

선언문의 말씀들을 듣고 믿는 어린 아이는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지속시켜 줄 의식과 성약을 받기 위해 거룩한 성전을 갈망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또한 합당하게 되고자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 미래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선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 줍니다. 어린 아이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결심을 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단지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죄 의식을 가져오는 어떠한 일을 행하라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죄 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보이는 완전함을 향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완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형제요 자매였다는 사실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미래의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회회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언문의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영생에 관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와 같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성인들이 저지르는 이론적인 잘못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식이 있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이나 기아의 원인을 전세계의 어떤 특정 지역에 분포된 많은 인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아 제한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큰소리로 주장합니다. 선언문의 말씀을 믿는 어린 아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다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그러하도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어 자기 스스로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04:17)

만약, 부모들에 의해 이 필멸의 세상으로 오는 자녀들이 이 지구상의 자원들을 완전하게 고갈시킨다면, 우리의 어린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하여 이 지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충분한 자원과 여유가 있으므로, 가난과 기아의 원인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결코 아이들의 출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지를 가졌으므로, 설령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땅을 다루는 데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하라는 계명과 출산의 능력은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계명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고취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지상 생활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영생은 이생에서 얻은 후손들을 영원히 가질 뿐 아니라, 영원한 증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집행하는 종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봉사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교리와 성약 132:19~20)

이제 여러분은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높은 표준을 정해 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출산의 능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영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며 출산의 능력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 생활 동안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세에서의 가족 생활은 내세에서의 가족 생활을 준비하는 교실과 같습니다. 내세에서의 가족 생활에 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의 목적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방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조셉 스미스-역사 1:39)

이 필멸의 세상에서의 시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자녀를 가질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늦게 자녀를 갖게 되거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슬픈 경우조차도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위해 온전한 신앙과 소망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와 신앙으로써 견딘 후에 찾아오는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감사함은 또 얼마나 클 것입니까!

선언문에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가족 생활을 위해 현세에서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두 단락의 말씀들은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영적이며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 사항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들은 선언문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랑 받고 가르침 받으며 보살핌 받는 자녀들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이미 멸종되어 버린 공룡처럼 점차 사라져 간다는 그럴싸한 논리로 우리들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들도 때때로 자신들의 능력 밖의 상황에 의해 가족 내에 불행한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 여러분이 강압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일을 위해 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은 용기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위한 계획은 그 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고, 이상도 축소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와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두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 어떤 젊은이는 아내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족과 머물지 못하는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미 최선의 것을 희망할 수 없게 결정할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주된 책임에 상반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갖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들을 혼자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교육을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을 양육시키는 데 필요한 복음과 세상의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는 데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남성과 여성은 최선이 아닌 것을 계획함으로 해서 그들이 가족에게서 최선의 것을 얻을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젊은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미래의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에 관해 걱정하는 데에는 분명 모두가 현명합니다. 평균적인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집값은 오른 것 같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미래의 가족을 위한 준비에 관해 다른 방법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그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부족함으로 인해 곤궁함을 느껴 자신들의 가족 소득을 늘리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만, 곧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는 남편과 아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5달러를 벌어서 6달러를 소비하는 것은 비극이고, 4달러를 벌어서 3달러를 소비한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젊은 남성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 일이 끝난 후에 적당한 시간에 귀가하든지, 젊은 여성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 있든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배우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됩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버는 것을 저축하십시오. 바보는 돈을 버는 것만을 알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돈을 저축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자, 일하러 나갑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보닛(햇빛으로부터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모자)과 옷을 만듭시다.”(*Journal of Discourses*, 11:301)

브리검 영 회장은 오늘날의 젊은 부부에게 보닛을 집에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자동차, 의류, 오락, 주택, 휴가,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비용 차이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고 직업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 깊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성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우리가 부양하고 양육하는 책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앞으로써 생겨나는 화평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계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 잘 나와 있는 선언문에는 우리를 위한 높은 표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계명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훌륭한 가족이었지만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해 생각하거나, 어느 정도의 실패도 없이 한두 세대에 걸쳐 그것을 성취한 가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에 이르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힘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열쇠는 선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앙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의 성품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은 그러한 변화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개의 첫 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와서 계명을

이름에 이르며, 계명을 이름은 죄 사함을 가져오니라.

“또 죄 사함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을 가져오며,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인하여 성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라. 이 보혜사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나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곧 끝이 이르기까지 견디느니라.”(모로나이사 8:25~26)

우리가 자녀에게 침례를 잘 준비시키는 것은 자녀의 삶에 속죄가 효력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 줄 성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물론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 대해 했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약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 그리고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권능 있는 자의 침례에 의한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는 성신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자신의 경험과 가족의 경험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스무 시간을 비행한 후에 어린이의 손에 의해 색색의 글로 쓰여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침대 덮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피곤하시죠. 누워서 편히 쉬세요. 집에 오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돌볼게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비행기가 잠시 정착한 곳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딸이 “전 지금 청소를 하는 중이에요.”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양을 횡단해 본 적이 없는 열한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한 제트기 피로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열 다섯 살짜리 아이가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 청소할 생각을 합니까?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까? 조카 딸이 숙모에게 침대를 내어 주고 집과 식탁을 함께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미 분주한 그들의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죄 사함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을 가져오며,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인하여 성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라. 이 보혜사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나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곧 끝이 이르기까지 견디느니라.”(26절) 저는 이 구절에 “가족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선언문은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족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방편이 미리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은사를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나 주가 이를 말하였고, 영은 증언하느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59:23~24)

그러한 평화는 속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왔다는 확신과 그러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영생에 관한 소망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선언문은 그것에 담긴 진리에 따르기를 게을리 한 사람들에게, 단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과 우리에게 행동에 옮기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가족 단위는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기초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사회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보다 작은 단위인 가족 내에서 실행해 보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 실행한 것들은 성약과 충실함에 의해 영원히 함께 결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을 ...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하늘의 힘에 의한 도움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영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으며, 우리가 이 다음에 올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살든지 외로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과, 그의 영의 형제와 자매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영생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여러분과 제 안에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성신이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앙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신다면,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고, 지금은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지니신 인봉의 권세가 우리를 가족으로서 묶어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결혼 생활에 충실함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스러운
성약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에즈라 데프트 벤슨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충실함에 관한 교리

출애굽기 20:14

“간음하지 말라”

엘마서 39:5

“나의 아들이야, 네가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제 저는 수많은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결혼을 파괴하는 또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의 계명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4, 17) 미국 ABC 방송국의 ‘나이트라인’ 뉴스 사회자인 테드 코펠은 듀크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마약과 부도덕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슬로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표어나 표제 따위가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 하지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이 참신하거나 재치가 있지 않아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거나 아니면 에이즈 병동에서 죽어가는 신세이기 때문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의를 찾아냄으로써 우리 자신을 원시적 진흙탕 속으로부터 끄집어 내고자 이미 오천여 년 동안 힘써 노력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리는 어깨를 그저 살짝 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부짖는 포효와 같은 심한 질책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결코 열 가지의 계언이 아니었습니다.’(듀크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1987년 5월 10일) 그의 말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것은 열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물론 나아가 모든 세대의 행복과 안녕, 구원과 안전을 위해 여호와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거의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침에 아내를 두고 집을 나서서 직장으로 가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잘 차려 입고 화장을 한 매력적인 여성들과 어울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 역시 젊고 미남이어서 남들의 피할 수 없는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는 이제 이십 년 전 결혼할 때의 모습과는 같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십 년이나 함께 살고서도 똑같은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약점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전에 들어가 성신권의 권능으로써 인봉한 가장 성스럽고도 엄숙한 성약을 바람결에 날려 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깊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아내를, 마치 부유해졌을 때에 버리기로 예정이라도 한 것처럼 내어 던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아닌 자식으로 만들고, 법정에서 선고 받은 자녀 양육비 및 부양 보조비를 무슨 수를 써서건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

18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다섯 자녀를 둔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그의 불평은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성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치졸한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58~59쪽)

제일회장단-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이 교회의 교리는 성적인 죄, 즉 남녀간의 불법적인 성 관계를 그 심각성에 있어서 살인 다음 가는 중한 범법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은 사통, 간음 및 윤락 행위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순결에 관한 엄숙한 약속을 하고서도 다른 사람과의 불법적인 성 관계로 신성한 맹세를 깨뜨린 남편과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부도덕하고 추악한 간음의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인봉을 위해 거룩한 제단으로 가기 전에 주님과 맺은 성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과 맺은 성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위해 제정하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42년 10월, 11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스러운 성약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약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 믿음 그리고 평안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계십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9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을 용납하시기 위해 계명을 바꾸셔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화되면 곧 영적인 어둠이 따르게 됩니다. 복음의 빛은 사라질 뿐입니다. 간음의 죄를 지은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고 훈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이지 계명이 아닙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37쪽)

불충실함에 대한 대가

잠언 5:3~4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썩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말라기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 속히 증언하리라”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리와 성약 42:23~24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요,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외설물이나 남녀의 희롱이나 건전치 못한 공상들은 인간의 인격을 부식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의 단합과 신뢰가 파괴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과 그의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단지 로맨스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종종 가정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요인인 금전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이기심은 간음의 근원이 되며, 이기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숙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파괴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기심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기심은 파괴적인 탐욕을 나타내는 것이고 절제심을 파괴하는 것이며, 충성심을 말살하고 성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남녀 모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숫자가 집에서 귀하게 자라 버릇이 없으며 만사가 항상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은 즐거움의 연속이고, 원리에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부정적이 따르지 않는 간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이란 ‘기만’을 뜻합니다. 기만은 덕과 충성과 성스러운 약속과 자기 존중과 진리를 빼앗습니다. 이것에는 사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최악의 부정직입니다. 이는 기만이란 가장 성스러운 인간 관계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야비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구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단지 로맨스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것이며, 다른 부정직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슬픔과 비판과 상처를 받은 배우자와 배신당한 자녀입니다.”(“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 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59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성 관계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혼 후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결혼 전에도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고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순결의 법을 어긴 뒤에는 항상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따라옵니다. 형제 여러분,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54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간음이나 간통, 동성에 및 그 밖의 탈선 행위는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육체적, 성적인 학대는 중대한 죄입니다. 그러한 중한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김블 회장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따른다. 상처만큼 봉대도 커야 한다. 금식, 기도, 겸손이 죄값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315쪽) 하나님께서 중대한 죄를 몇 차례 간구로 용서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래 지속되는 회개가 있기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85)”(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7쪽)

불충실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주의 사항

고린도전서 7:2~3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는 성적인 부정은 탐닉을 통해 참된 인성을 잃은 결과입니다. 불순결한 생각은 불순결한 말을 낳고, 불순결한 말은 불순결한 행동을 낳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살인 죄 다음에 오는 것은 간음과 성적인 불순결입니다. 순결에 대한 신앙에 충실하고 자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참된 인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밝은 빛이 되어 죄에 물든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그리스도, 겸손으로부터 오는 빛”, *Improvement Era*, 1968년 6월호, 5쪽)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간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성스럽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결혼하기 전 구애를 하면서 느끼던 감정과 존경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신권으로 인봉하십시오 즉 저편까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성실히 애정을 기울여 지속되는 일상 생활에서의 예절과 친절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일부입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8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자신의 생각을 통제함. 어떤 사람도 한 순간에 부도덕으로 빠져 들지는 않습니다. 부도덕의 첫 번째 씨앗은 언제나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에서 머뭇거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부도덕을 향한 길의 첫걸음을 이미 내딛은 것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특히 춘화의 악에 대해 경고합니다. 구주께서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 욕정을 품고 쳐다보거나 또는 그의 생각이 걸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28; 교리와 성약 63:16 참조)

“... 결혼한 경우 어떤 형태의 희롱도 하지 마십시오.

“... 결혼한 경우 가능한 한 이성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함. 부도덕이라는 비극 가운데 많은 것은 남자나 여자가 사무실이나 교회나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단 둘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의도도 없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유혹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 유혹이 발전할 기회를 갖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순결의 법”, 성도의 빛, 1988년 10월호, 39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추잡함과 불결함과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유혹에 대항하십시오.

“독신 자매 여러분, 혹은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직업장에 계시는 여러분은 남성들과 나란히 일을 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또는 표면상 사업에 관해 얘기하자는 등의 권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같은 호텔에 묵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는 피하기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은 하시되 거리를 두십시오. 다른 여성의 가정을 깨지게 하는 여성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유혹적인 곳에서 멀어지십시오. 사악함은 그 비슷한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야호나, 1999년 1월호, 99쪽)

재정

재물의 소유나 많은 수입이
하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표시는
아니며,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한 것이
하늘의 은총을 받지 못함의
증거는 아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부로 인해 생기는 악은 여러 면에서 복음의 열매를 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잃고 비참해지고 증오심을 갖게 된 사람 또한 부로 인해 생기는 악의 희생자이다.

“또다른 희생자는 간악한 자들의 재물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악한 자의 길이 험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이니까 (예레미야 12:1) 간악한 사람이 누리는 번성이나 의견상의 행복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너무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우선 순위가 세상적인 재물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에 빠질 수도 있다.

“부로 인한 또다른 희생자는 세상에서 성공의 척도라고 여겨지는 재산이나 명성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성공의 복음 그리고 번영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부로 인해 생기는 악’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디모데전서 6:5) 생각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다. 재물의 소유나 많은 수입이 하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표시는 아니며,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한 것이 하늘의 은총을 받지 못함의 증거는 아니다. 부가 십일조를 내는 것(말라기 3:9~12)과 같은 의로운 행위에 따르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부는 금을 찾는 사람에게 오는 요행이나 부정직의 열매로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Pure in Heart, 75~76쪽)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가족 재정 지침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소책자

1975년 4월 연차 대회 회의 복지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 소책자에 실린 말씀을 전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같은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애쉬튼 장로의 말씀을 지지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온 이후로 저는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애쉬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만일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애쉬튼 형제님께서 설명하신 12가지 사항을 내 스스로 분명히 실천하고 또 내 자녀들과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의 온 생애 동안, 총관리 직원들께서 “부채에서 벗어나고 결코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애쉬튼 형제님께서 가정에서의 가족 재정 관리에 관해 ... 하신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모든 가족은 예산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 교회나 우리 업무가 단 하루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을 대략적으로 알고, 우리가 앞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관리 직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교회의 성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저는 한 훌륭한 젊은 남녀와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주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 중요한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서로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교육, 좋은 가정과 문화적 경험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개성, 계획, 잠재력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구애는 이미 영원한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접견을 하는 동안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저의 걱정과 제언으로 그들이 압박한 협력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 누가 금전을 관리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녀는 “남편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놀랐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및 가족 생활에서 금전 관리와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엄청납니다.”라고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국 변호사 협회는 이혼의 89퍼센트가 금전에 관한 다툼과 고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이혼의 75퍼센트가 재정에 관한 상호 충돌에서 야기된다고 합니다. 몇몇 전문 상담자들은 다섯 가족 가운데 네 가족이 심각한 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이런 비극들이 단지 금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인 재정의 잘못된 관리에 기인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비 아내는 예비 남편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액수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손에 쥐게 될 금전을 두 사람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금전 관리가 금전을 버는 능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매력 만점인 연인과 약혼을 한 예비 남편은 또다른 면을 눈여겨 보면서 그녀가 금전 관리 감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금전 관리는 두 사람 모두가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자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게 되면, 그들 또한 제한된 협력자 관계에서 금전 문제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재정적인 염려와 연쟁이 있을 때 가정에서의 화평, 만족, 사랑, 안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든지 간에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펴보고 배우며, 필요한 만큼의 금전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금전 관리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함이 오늘날 세상에서 필수적이 됨에 따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개인 및 가족 재정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의 열 가지 사항이 우리 각자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낸다

모든 후기 성도 가정에서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십일조와 금식 헌금이 우리가

봉급을 받은 후에 맨 먼저 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면, 이 중요한 복음 원리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강화되고, 또 잘못된 재정 관리의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매달 확인하러 오지 않는 그분께 즉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 주위의 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정직해야 함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금전이 여러분을 관리하기 전에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다

에비 신부는 이렇게 자문하곤 합니다. “내 남편이 금전을 관리할 수 있을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버는 액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의 액수를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재정을 관리하는 태도와 관계를 한결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협력 관계가 완전하고 또 영원해야 합니다. 가족 재정의 관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개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한 배우자에 의한 금전 통제와 힘과 권위로 행해진다면 결혼 생활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며,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역으로 결혼 생활의 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가족 재정 관리 문제에서 손을 떼면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금전 문제에서 자기 통제와 자제심을 배우다

금전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회계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그들이 부모 슬하에 있을 때 익숙해져 있던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그들 자신의 소비 충동에 앞서 배우자 및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해 먼저 생각할 때 참된 성숙함을 보이게 됩니다. 금전 관리 기술은 협동과 사랑의 정신 속에서 지속적으로 습득되어야 합니다. 화가 난 한 남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돈을 손에 쥐더니 고작 하는 말이 ‘이제 그럼 헤어집시다’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금전 관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저는 “거울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교사요 훈련자를 만나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방종하며, 자기 중심적이며, 물질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는 원하는 시각에 얼마나 쉽게 외상으로 구입할 수

부채 상환 계획표

	신용 카드	백화점	치과의사	피아노 대출금	자동차 대출금
3월	110	70	50	75	235
4월	110	70	50	75	235
5월	110	70	50	75	235
6월	110	70	50	75	235
7월		180	50	75	235
8월		180	50	75	235
9월		180	50	75	235
10월			230	75	235
11월			230	75	235
12월				305	235
1월				305	235
2월					540
3월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광고들은 돈을 다시 갚는 마법에 초점을 맞추거나, 갚는 데 얼마나 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피할 수 없는 이자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갚을 일정이 적힌 계획서가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여러 개의 란을 만들어 보십시오. 왼쪽의 첫 번째 세로 란에 다가오는 달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달을 적으십시오. 다음 란의 맨 위에 여러분이 맨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자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것은 이율이 가장 높은 부채나 가장 빨리 갚아야 할 부채가 될 것입니다. 위 그림에 설명된 대로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채권자에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적으십시오. 다음 란의 맨 위에는 여러분이 두 번째로 갚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매달 기한 내에 갚아야 할 금액을 적으십시오. 첫 번째 채권자의 채무를 다 갚은 후에 그 채권자에게 매달 갚던 금액을 두 번째 채권자에게

더하십시오.(위의 예에서 그 가족은 신용 카드에 지불하던 금액을 끝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110달러를 백화점에 내던 70달러에 더하여 도합 180달러를 매달 새로이 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채를 해결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십시오.

예산을 세워 활용한다

모든 가족은 매달 얼마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예산의 각 부문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표책이 가족의 현금 관리와 기록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 금액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은행에서 오는 잔고 증명서를 통해 수표책에 잔고를 적으십시오.

주택 구입, 교육비 지출, 또는 기타 필수적인 투자 이외에는 부채와 그에 따른 재정 책임을 피하십시오. 내구 소비재와 휴가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십시오. 신용 할부 구입을 피하고 신용 카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주로 편리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부주의하게 또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될 위험성을 높입니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 물건을 살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는 중고품을 사용하십시오.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거의 대부분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단기 저축은 온 가족이 최소한 3개월 동안 가정의 필수적인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모든 후기 성도 가족은 제때에 정기하게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_____년 _____월을 위한 예산		
수입	예상	실제
급여/봉급(세금 공제 후)		
기타 수입		
총 수입		
지출		
예상		
실제		
교회 헌금		
저축		
식비		
주택 대출금 또는 집세		
공공 요금		
교통비		
부채 상환금		
보험료		
의료비		
피복비		
기타		
총 지출		
지출 후 남은 수입		

이 충고를 유의하여 들으시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 드렸다면, 의도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를 소홀히 하거나 피하는 후기 성도는 그러한 행동에

따르는 내적인 좌절을 당연히 느낄 것이며, 그들은 후기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을 피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법률 전문가의 재정 상담을 통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여러분이 지출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급여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주간, 2주간, 월간)의 예산을 세우십시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일과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을 조기에 가르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복지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에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용돈에 관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의견들과 권고들이 참으로 크게 달랐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일과 적절한 집안일을 도움으로써 필요한 용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어떤 금전적 보상이 또한 교육적 목적과 다른 가치 있는 목표의 성취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 돈 나무가 있어 그 곳에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자동적으로 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 주는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돈을 버는 결정을 하도록 가르친다

적절한 가르침과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자녀들은 자신들의 돈에 영향을 주는 재정적 결정을 할 책임이 있으며 또 현명하지 못한 씀씀이에 대한 결과를 겪어야 합니다. “돈을 저축하라” 이런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공허한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의 선교 사업, 자전거, 인형의 집, 바지 또는 차를 위해 돈을 저축하라”는 말이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저축할 때 가족의 단합이 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계획을 위해 한 자녀에게 저축을 하게 하는 것이 단합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금액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사전에 정해 놓은 비율로 금액을 보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격려는 바람직한 행동 달성 및 동기 부여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각 가족이 가족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가르친다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가족의 재정 상태, 예산 및 투자 목표, 가족 안에서의 그들의 개별적인 책임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흥미롭고 또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의 목표나 기쁨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장려하십시오. 몇몇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특히 가정의 밤 시간에, 현재 선교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들이나 딸, 형제나 자매에게 매월 보내 주어야 할 비용에서 각자가 담당할 액수를 분담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적 및 영적으로 훌륭한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례 활동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한다면, 각 선교사가 “우리의” 선교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이 지속적인 과정이 되게 한다

직업 학교와 기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이 정식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투자입니다. 잠재적 평생 수입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을 더 받기 위해 쏟는 시간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더 준비하기 위해 야간 학교와 통신 과정을 활용하십시오.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에 대비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십시오. 기본적인 가정 용품 수리와 자동차 수리 기술이 가족 저축의 원천으로서뿐만 아니라 요긴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업 상태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거리가 없을 때, 임시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은 상태로 앉아서 “내게 맞는 일”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을 갖기 위해 일한다

집을 갖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입하십시오. 그 집에 사는 동안 집을 잘 손질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러다가 그 집을 매각한다면 그 동안 누적된 자산 가치와 잠재적인 자본 이득을 활용하여 가족의 필요 사항에 맞는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한다

의료 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주택 보험과 생명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 사고 및 사망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크게 들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은 여러 해

동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가족 재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을 이해한다

물가 상승은 평균 임금 인상의 상당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게 됩니다. 인상된 급여가 더 큰 구매력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에 넘친 물건 구입이나 추가로 빚을 지는 것에 대한 어떤 구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상용 유동성 저축 이외에도 가족들은 재정 안정, 잠재적 신체 장애, 퇴직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명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활용해야 합니다. 고위험 투자 및 일확천금을 노리는 계획에 대한 어떠한 제의도 거절하십시오.

식량 비축 및 비상 대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본 식량 비축 및 비상 용품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위해 빚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식량 비축에 관한 현명하지 못한 상업용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년 말에 무엇인가를 심어 경작하는 일은 식량 구입에 드는 예산 절감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여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언에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금전 관리를 위한 이 기본 지침들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 관리가 개인의 복리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즐기치게 일해야 합니다. 시간과 이자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이 되는 바로 그 때가 재정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후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돈은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모하고 이기적으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재정적인 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전 관리에 개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12쪽

사람들은 복음이 고통 받는 자들에게는 위안을 주고 안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들 가운데 안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자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너희의 부가 너희의 영혼을 썩게 할 것임이라.”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은 통회하지 아니하며 … 눈에는 탐욕이 가득[한] …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화 있도다.”¹

누군가가 쓴 이 짧은 기도를 들어 본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는 그럭저럭 잘해 왔습니다. 험담하거나 성내거나 탐욕스럽거나 통명하거나 비열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방종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조금 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훨씬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의 극복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훨씬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여느 때와 같은 솔직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에게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주님과 그의 백성을 잊으며 나태해져서 교회에서 스스로를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그들이 풍요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²

우리의 번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면서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의 결과로 나태해져서 영을 잃으며, 문자 그대로 교회에서 스스로를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물질주의

돈과 재물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리스 켈펀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질문은

‘어떻게 부를 획득할 것인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 정신을 … 이것보다 더 크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³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⁴ 부자들 중에는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왕국을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훌륭하게 활용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질주의에 대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욕구는 필요가 아님

첫째, 욕구와 필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 아버지는 해마다 차를 새로 바꾸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곡물가가 치솟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보다 비싼 차를 몰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 차는 예전 차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요?”

아버지가 대답하시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차를 타고도 언제나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차액을 우리보다 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아버지는 보다 값싼 차를 타고 돌아오셨고 계속해서 남에게 베푸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욕구가 필요로 변하기 쉽습니다. 다음 시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작은 사치야, 울지 말아라. 얼마 안 있어 필요가 되잖니?”

자녀를 버릇없게 만드는 일을 피함

둘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베풀어 버릇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지나친 방임으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복하든, 혹은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하든 간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갖지 못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대라는 축복을 자녀들에게서 빼앗고 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극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고군분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맥스웰 장로는 염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 내의 훌륭한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 일부는 기지개도 펴보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무료 통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망한 것임에도, 듣기 좋은 말이나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 차값은 물론 연료비에서 보험료까지 부모가 일체 지불하는 등의 여러 가지 특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기심과 권리 의식과 계약을 맺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⁵

젊고 현명한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미루어 둡니다.”

프레드 고스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언제나 얻는 아이들은 살아가는 동안 원하기만 할 것입니다.”⁶ 따라서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지, 자신들의 주위를 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자녀들의 성격 발달에 중요합니다.⁷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충천연색의 빠른 액션으로 전개되는 유흥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은 ‘재미없어, 심심해, 시시해’라고 생각하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족 활동을 할 때에도 일과 놀이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자랄 때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붕을 이고 담장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정원에서 함께 일하던 가족 활동들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아이들은 일만 하고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놀기만 하고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방종의 결과로 많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집을 떠납니다. 싱클레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종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젊은 남자들은 자신의 동반자와 태어날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맡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요리나 바느질, 그 밖의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전혀 배우지도 않고 결혼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기술에 대한 무지와 함께 재정 관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서 수많은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경우를 통해 보듯이 우리가 값비싼 유행과 패션에 노예가 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⁹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돈과 생각을 투자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과 소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행하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옷장을 가득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아름답고 단정한 용모와 정숙한 태도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면 옷에 지나친 낭비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열 번도 넘게 우리가 입는 옷과 관련된 교만의 문제에 대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백성들이 ... 심히 큰 부와 그들의 상품 비단과 그들의 세마포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많은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의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것들로 인하여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대단히 값비싼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음이라.”¹⁰

우리와 자녀들이 이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개척자 선조들이 지켰던 다음과 같은 신조에 따른다면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쳐서 사용하라. 닳을 때까지 사용하라. 그런 대로 때우든지 없는 대로 지내라.”

검소하게 생활하고 부채를 피함

셋째, 이미 빈번히 들으셨지만 검소하게 살고 전염병을 피하듯이 부채를 피하십시오.

싱클레 회장은 최근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말씀을

**지나친 방종의 결과로
많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집을 떠납니다.**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과 만족을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Gospel Standards, comp. G. Homer Durham [1941], 111쪽)”¹¹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채란 그저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길들이지 마십시오. 부채가 곧 재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안락하게 사는 데 진실로 필요한 집은 몇 채나 됩니까? 대궐처럼 으리으리하고 허영심을 부추기며 필요와는 거리가 먼 집을 구입하느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립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위해서는 물론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고 부채를 피한다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수입이지만 평생을 통해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단지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여 복리 이자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재정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에 대해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란 수입이 아닙니다. 매년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써 버린다면 더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호화로운 생활일 뿐입니다. 부란 소비한 것이 아니라 저축한 것입니다.”¹²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푸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돌릴수록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영적인 부패 현상을 더욱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원은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나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지자 야곱은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훌륭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벗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구하라.”¹³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것 외에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관대해야 합니다. 얼마나 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시 에스 루이스 장로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유일한 안전 규칙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 우리가 베푸는 자선이 조금도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자선을 베푸느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¹⁴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합당한 사람들과 대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금식 기금과 인도주의적 기금을 후하게 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족이 의미 있고 심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갖고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검토하여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에서 오는 함정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 첫째, 욕구와 필요를 혼동하지 맙시다.
- 둘째, 자녀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일을 피하십시오.
- 셋째, 검소하게 살고 부채를 피하십시오.
-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푸십시오.

베푸는 행위는 진실로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또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¹⁵ 기념합니다. 이 독생자이신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라도 소유하실 수 있었지만,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는 검소한 삶의 모범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뜻 깊고 심오한 삶의 궁극적인 모범이신 주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합시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선지자들에게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분의 무덤은 문자 그대로 삼 일째 되던 날에 비어 있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56:16~17.
2. James S. Brown, *Life of a Pioneer*(1900), 122~123쪽에서 보고됨; Preston Nibley, *Brigham Young: The Man and His Work*(1936), 128쪽 참조.
3. Morris Chalfant, "The Sin of the Church", Wesleyan Methodist, John H. Vandenberg가 Conference Report, 1965년 10월, 131쪽에서 인용; *Improvement Era*, 1965년 12월, 1154쪽.
4. 디모데전서 6:10 참조.
5.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1999년 1월 12일.
6. *Spoiled Rotten: American Children and How to Change Them*(1992), 37쪽.
7. *Spoiled Rotten*, 앞표지 안쪽, 11쪽.
8. "탐내지 말라", *성도의 벗*, 1991년 2월호, 4쪽.
9. 마태복음 6:21.
10. 엘마서 4:6.
11. *성도의 벗*, 1999년 1월호, 53쪽.
12. Thomas J. Stanley and William D. Danko, *The Millionaire Next Door*(1996), 1쪽.
13. 야곱서 2:18~19.
14. *Mere Christianity*(1952), 67쪽.
15. 요한복음 3:16.

영원한 결혼의 기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맞을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에 두십시오. 삶 그 자체보다, 또 지상의 사랑하는 동반자나 자녀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르겠다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4쪽)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 수칙



해롤드 비 리 회장

교회 회장

Stand Ye in Holy Places: Selected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Harold B. Lee, 341~348쪽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합당한 시민 곧 “성도”가 되게 해 주는 충분한 생활 양식을 지니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대답은 경전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가르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초상화”(Dean Inge.)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표준을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완전하신 자신의 성품, 즉 “그분께서 행동으로 몸소 적어 내려간 하나의 자서전”이라 할 만한 것에 관해 얼마간의 계시를 주셨으며, 또 그렇게 행함에 있어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참된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교회 회원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합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왕국에 속하지 못하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참된 기쁨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충만하고 풍요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파이후서 2:2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는 정서적 황홀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기한 것에서 옵니까, 아니면 흔한 것에서 옵니까? 신기한 것에 의해서만 감동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미각을 파괴하는 강한 양념과 조미료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과 같습니다. 삶의 기쁨이라는 깊은 느낌이 치솟는 순간을 지나쳐 정서적 흥분을 야기할 때,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평온함과 아름다운 삶의 전개, 신성한 지혜의 계시, 또는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것에 대한 사랑에서 강한 감동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오직 풍요하고 충만한 삶을 살 때 올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길 데 없는 것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종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덟 가지 독특한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선언 각각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 정의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또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기쁨의 내적 원천이며 어떠한 외적 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Dummelow's Commentary) 주님의 이러한 선언은 기독교 세계의 문학에서 진보판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 주해자들은 이를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을 위해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것 이상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법이 됩니다. 잠시 그것들을 살펴봅시다. 그 중 네 가지는 우리가 완전해지고 내적인 기쁨의 축복을 얻고자 할 경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이고 개인적인 생활 양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의복, 식량, 공기, 건강, 생명 등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루도 감사와 인도와 용서와 충분한 힘을 얻기 위한 진지한 기도가 빠지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장소에 있을 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진리의 근원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그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영의 속삭임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과 학식과 세상적인 지위로 인해 자신이 이러한 영적인 필요 사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자만이나 자부심의 반대의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부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지녀야” 하며, 그 사람이 급작스런 재정난에 다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기 1:21)라고 기꺼이 말해야 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영적인 필요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장자의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애통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또한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가 돌이킨 행동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마서 5:3~4)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해야]”(모사이사서 18:8)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모사이사서 18:8 참조) 어머니가 빛나간 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외로움 속에서 애통해 할 때, 여러분은 연민의 마음을 갖고 누구보다도 먼저 결점을 찾는 일에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자신의 동료가 죽자 “그 날 밤 참호 속에 누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었던 사이판 주둔의 한 해병대원이 느낀

깊은 감정에 나타나 있는 애통함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미망인과 고아와 더불어 슬퍼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누가복음 18:13)라고 말한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받는 보상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위로를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딱딱해진 빵 부스러기와 미지근한 물이 허기와 갈증을 해소해 주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느낄 만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랐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린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의에 주리고 갈증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림과 갈증 때문에 사람들은 성찬식에서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열렬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며 그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활동에 빠져서 얻는 덧없는 쾌락보다 더 지속적인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권세로써 여러분이 “모든 것의 참됨을 알(모로나이서 10:4~5)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자유롭게 될 때까지 … 가장 마지막에 지은 것보다 더 고귀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교리와 성약 88:67)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은 청결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멀리서 한 물체를 보았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그것이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체가 가까이 오자 그는 그것이 사람임을 감지했고, 그것이 더 가까이 왔을 때에야 자신의 친구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를 단지 목수 조셉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가 하는 말 때문에 그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주정뱅이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들만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청결이 덜한 정도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선함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그에게서 보는 선함으로 인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헐뜯는 사람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하며 어떤 것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완전하고 충만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법에 있는 나머지 네 개의 조항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쉽게 성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해를 당하거나 곤혹스러운 일이 생겨도 참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온유함은 연약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하고 굳세고 완전히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나 무리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언행이 요란스럽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잠언 16:32)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고난 지도자이며 육군과 해군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을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잔인한 언어, 남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은 그가 세상에서나 하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날 자비를 필요로 할 때 자비를 요구할 자격을 없게 만듭니다.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의 모략에 의해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 기억이 있습니까? 공홀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공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 폭도를 이끄는 사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악한 동기로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신성한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의문을 야기시키는 자와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그는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목적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근본 원리를 어기는 사람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의 노래는 평강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노래였습니다.

진리와 덕과 명예가 위기에 처해 있는 위대한 대업 안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존엄한 일입니다. 모든 위대한 대업에는 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핍박으로부터 올 수 있는 커다란 손해는 박해 그 자체가 아니라 박해 받는 사람들이 받는 영향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그들은 대업이 지닌 의로움에 대한 열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박해는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박해는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오든, 박해는 의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보편적인 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누가복음 6:26)

세상 곳곳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군중의 칭찬을 받기 위해 절제와 정직을 포기하거나 도덕의 표준을 낮추지 않았다고 아유를 받고 조롱당할 때 그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물리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 굳건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으로 축복을 받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성도들이나 혹은 옛 사도들처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요구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가 이 모든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지니고 있던 높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에서 보여 주신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법”에 따른 우리의 삶과 선행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한 기본법으로 삼고 그 안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남편과 아내를 위한 노년의 모임 인공
위성 중계, 1984년 1월 29일

반세기 이상이 지나갔지만 저는 제 부친께서 어머니를 부드럽게 대하신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신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계셨던 여러 달 동안 부친께서는 어머니가 안락하게 지내도록 항상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어머니께서 병석에 계신 이후에만 보여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그분들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을 통해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는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의 명예를 지켜 주었음을 알았으며, 또 그것이 어떠한 선언이 아니라 느낌에서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모범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반자와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정확히 47년으로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갑니다. 그녀 또한 동반자 정신, 사랑, 그리고 신뢰가 있는 환경을 지닌 가정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대부분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받는 결혼 생활

저는 고통 받는 결혼 생활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학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재적인 횡포에 관한 이야기와 가정에서 폭군처럼 행동하는 몇몇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성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혼과 눈물과 심적 고통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자신의 고통에 관해 적은 한 통의 긴 편지가 제 책상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여성이 인류의 최상위 계층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차도르를 쓴 노예 같은 생활을

여성이 계속해야만 합니까?”(차도르는 인도에서 여성들이 쓰는 간단한 쇼올임)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딸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애기를 낳고 집에 갇혀 있는 것 이외의 어떤 것에 관해 영원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 점에 대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에는 참혹한 비극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지극히 달랐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편지 이면에서 저는 실망에 빠진, 인정을 갈망하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한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자신의 감각에 무뎌지고, 통찰력이 비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에 따른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한 남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남편의 잘못이 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동등성

어디에 계시든지 저의 음성을 듣는 남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내에 대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가책을 받고 있다면, 아내에 대해 독재적이고 권위를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가혹하다면, 그것을 멈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행할 기회가 있는 바로 지금 회개하십시오.

끊임없이 불평하고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또 사랑 받지 못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일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십시오. 밝은 인생관을 가지십시오.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고 비참함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권리와 특전에 관해 논쟁하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딸이 갖는 은은한 품위를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정신 속에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헌신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는 남편과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설 때입니다.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마태복음 19:4~6 참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반자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고 문제도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이기적인 관심을 협력 관계의 유익으로 승화시킬 때 오는 보다 큰 기회와 보다 큰 만족에 부수되는 것들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켄진 로이드 존스가 쓴 데저렛 뉴스의 칼럼을 오려 두었는데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며, 자동차 전용 극장에 … 가는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이 영원히 지지 않는 접시꽃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언제나 젊고 잘생긴 남편이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아내에게 심금을 울려 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접시꽃이 시들고 권태기가 찾아올 때면 이혼 범정은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은 낡은 철도 여행과 같은 것으로, 연착되기도 하고, 측선으로 빠지기도 하며, 연기와 먼지와 석탄재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고, 가끔씩 아름다운 풍경과 신나는 속도를 즐기는 여행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기차에 태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손을 손을 잡고 햇살과 폭풍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동반자로서 여행하며 그 여정을 즐기는 것이 비결입니다.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 127:1)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개의 초석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를 반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키우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네 개의 초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고 아주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저 없이 드립니다.

1. 상호 존중

이 초석의 첫째되는 것을 저는 상호 존중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한 개인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존중해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그런 차이점을 해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이점이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오히려 동반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서의 행복은 낭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반자의 안녕과 행복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느껴 왔습니다. 거기에는 약점과 실수를 관대히 보여주는 관용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을 보는 것이며, 더욱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더 적게 보려고 하는 것이다.”(Julius Gordon, *Treasure Chest*, ed. Charles L. Wallis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168쪽)

많은 사람들이 결점 찾기를 그치고 장점 찾기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스 타킹턴은 “이상적인 아내는 이상적인 남편이 있는 여성이다”(Looking Forward and Others [Garden City, N.Y.: Page and Co., 1926], 97쪽)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남편을 개조하고 싶어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표준에 아내들을 억지로 맞추어 넣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시도는 단지 불화와 오해, 그리고 슬픔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재능의 발전과 표현에 대한 기회와 격려도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재능을 발전시킬 시간과 격려를 거부하는 남성은 그들의 가정을 영광되게 하고 또 후손에게 복을 주는 축복을 자신과 자녀들에게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열등이나 우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열등이나 우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들보다 그 딸들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남성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딸인 그의 아내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후기 성도 여성의 운명은 집에 갇혀서 아기를 낳는 것이라는 궤변에 저는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럴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후손을 통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훌륭한 가족의 행복한 자녀에게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녀의 숫자를 정하지는 않으셨는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부들과 주님에게 남겨진 신성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한다. 아내는, 자녀를 낳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 건강과 힘을 얻도록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 영감을 구해야 한다.”(General Handbook of Instructions [1983], 77쪽)

남편과 아내 여러분, 서로를 존경하십시오. 서로를 존경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친절, 관용, 인내, 용서, 참된 애정 가운데,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고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표현되는 그와 같은 존경을 키워 나가십시오.

2. 유순한 대답

두 번째 초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서 저는 그것을 유순한 대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래 전에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저는 너무도 많은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그들이 배우자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도 제가 고지식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의사 소통은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일입니다. 구애를 하는 동안 그들은 분명 의사 소통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 후에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터놓고 솔직하고 숨김없이 행복한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사 소통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용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조용한 대화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이 커다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음성을 높일 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들과 벌였던 대결의 이야기에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이 표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하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가정에서의 평화의 소리는 조용한 소리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많은 자제가 필요한데, 동반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잠언 16:32)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유순한 대답의 기법을 발전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동반자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3. 재정적인 정직

세 번째 초석은 재정적인 정직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의 많은 근심의 근원이 다른 복합적인 이유들보다도 금전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닌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제나 더 풍성한 축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다른 동료들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나아가 십일조와 금식 헌금에 대해 예산을 세우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룸에 있어서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소력 있는 광고와 숙련된 판매 기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낭비벽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어떠한 결혼 생활이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필요한 지출은 각자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커다란 지출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하고 상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일에서 서로 상의하고 한마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서 권고를 구한다면 무분별한 결정, 현명하지 못한 투자, 그에 따른 손실, 파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생활하십시오. 동반자로서 배우자에 대해 정직하게 생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생활하십시오. 제때에 돈을 지불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생활의 필수 원리입니다. 서로 상의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4. 가족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마지막 초석은 가족 기도입니다.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보다도 여러분의 생활에 그토록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습관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겠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진지하게 그러한 말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괴롭히는 어려움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과 딸로서 간구할 때 줄어들 것입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매일 나누는 대화는 다른 근원으로부터 올 수 없는 화평을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의 생활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는 해가 갈수록 감미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강화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정에서 성장할 때 안정감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부모를 알고 사랑할 것이며, 존경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에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오가는 친절한 말이 갖는 안정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정직하게 생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보호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기도를 통해 크고 작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관계는 해가 갈수록 감미롭게 되고 강화될 것이며 또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도 커질 것입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성스러운 결혼 성약 안에서 동반자로서 서로 감사하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신성한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위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25~28쪽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⁶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어떤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구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구주와 같은 성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⁷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뿌리내려 어떤 행동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모로나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⁸ 사랑은 신앙과 소망의 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찾고 얻으면, 해의 영광의 성품의 기초가 되는 이 세 요소가 이생과 장막 너머 다음 세상에서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⁹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성품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는 일을 단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덕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¹⁰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 없고 점 없는”¹¹ 상태로 자신 있게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상고할 때마다, 우리 내부에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키우는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행해야 할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소망을 낳고, 이 둘은 사랑을 키웁니다. 모로나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니라.”¹² 이 세 가지 덕성은 처음에는 차례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얻기만 하면 상호 의존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나라도 다른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 받지 못할 것이요 소망이 없어도 구원 받지 못하느니라.”¹³ 이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특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¹⁴고 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활에서 영적으로 시들지 않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함을 보이리라”¹⁵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우리를 구주께 인도하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거룩한 성품들을 키우고, 배양하며,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사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격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지니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느니라.”¹⁶

모로나이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¹⁷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구하는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든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첫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¹⁸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¹⁹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²⁰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강한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한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신앙이 커집니다. “아주 작은 신앙”만을 갖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또 “비록 [우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²¹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 신앙의 작은 씨앗이 자라서 튼튼하고 충실한 간증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해 가능케 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점과 잘못을 용서 받음으로써 오는 고요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주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생을 먼저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다시 만나고 께안을 수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소망

물론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²² 이더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이 되어”²³

역경의 바람이 몰아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²⁴고 약속하셨으며,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²⁵입니다. 시련이 너무 버거운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²⁶고 하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에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일단 신앙이 자라서 확고하고 굳건한 간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도록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²⁷ 우리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²⁸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며] …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²⁹임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가족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는 가족의 성스러움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³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성전의 성스러움에 관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고 계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목표의 모든 면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며, 자녀들은 결국 때가 되면 그것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통해 교회를 감리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 그분의 거룩한 성품들을 키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6. 신앙개조 제13조.
7. 고린도전서 13:13.
8. 모로나이서 7:46~47.
9. 엘마서 34:34.
10. 교리와 성약 121:45.
11. 베드로전서 1:19.
12. 모로나이서 10:20.
13. 모로나이서 10:21.
14. 고린도전서 13:8.
15. 이터서 12:28.
16. 교리와 성약 12:8.
17. 모로나이서 7:47~48.
18. 신앙개조 제4조.
19. 히브리서 11:1.
20. 엘마서 32:21.
21. 엘마서 32:27; 28~43절 참조.
22. 모로나이서 7:41.
23. 이터서 12:4.
24. 요한복음 14:18.
25. 니파이후서 2:2.
26. 역대하 20:15.
27. 엘마서 5:14 참조.
28. 엘마서 5:26.
29. 니파이전서 11:22~23.
30.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쪽.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

결혼 생활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열에 찬 황홀경을 맞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결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에서, 가족은 한 개인 및 사회의 발전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어떠한 불평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 그들의 사랑은 마지막날까지도 소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합당한 부부가 거룩한 신권의 권능에 의해 영원히 인봉될 때 그것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봉될 때 결혼 의식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6년 4월, 108쪽)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배우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주는 어떤 것, 또는 친밀한 관계(애정의 느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랑이 항상 참된 지침은 아니지만, ... 확실한 것은 사랑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Gospel Ideals, 459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직접적인 행복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은 모든 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

“... 결혼 생활에서 ...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열에 찬 황홀경을 맞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78년 6월호, 1~3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51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결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어떤 결혼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비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오고 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곧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아무도 그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는 그릇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 건의 자동차 사고 기사는 신문 제 일면에 게재되어도, 안전하게 통행하는 수백만 대의 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작가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에는 극적인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책이나 연극 혹은 영화에서 인기를 끌려면 갈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만 듣게 됨으로써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간 생활의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시기 중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므로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갖고 있는 문제가 결혼 생활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혼의 쓰라림을 겪지 않았다 해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청산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17쪽)

브리스 알 맥콩키 장로

“이 세상에 ... 가족의 완전함과 창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구원은 가족 단위로”, 성도의 벗, 1970년 11월호, 29쪽)

“참으로 복음의 주된 목적은 남성과 여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영원을 두고 영원한 가족 단위를 스스로 창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기쁨과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켜 줍니다.”(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81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결혼과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어느 것을 통해 느끼는 행복보다 수천 배나 더 큰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4쪽)

경전 학습

결혼에서의 행복에 관해 통찰력을 밝혀 주는 원리를 다음 성구에서 찾아 본다.

욥기 6:25

잠언 15:1

마태복음 12:34~37

니파이전서 1:20

엘마서 41:10

교리와 성약 42:22~23; 50:28

사탄은 행복을 파괴하려 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아마도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족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끈들이 도처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에도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으로 이끌어 주었던 사랑이 증기처럼 사라지고, 중요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더 잘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동반자의 행복을 보살피 주려는 정성이 있다면, 사랑은 크게 자라 꽃을 활짝 피울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족에 대한 열성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약과 술이 인간을 끔찍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폭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학대도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자 학대도 많습니다. 노인 학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 즉 가족이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에 관해 강하고 불 같은 확신이 없는 한 이 모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가족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사회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나 훌륭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진 가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처방은 단순하면서도 효과 만점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평범하고 간단하고 일상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9쪽)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고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역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의와 화평과 진리의 반대자의 일이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보이드 케이 팩거 장로

“루시퍼의 유일한 목적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방해하여,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의 경험들, 즉 낭만과 사랑과 결혼 생활과 신권 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통과 최악의 망령들이 그의 주위를 따릅니다.[엘마서 39:5; 모로나이서 9:9 참조] 사탄이 낸 상처는 회개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1쪽)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요한계시록 12:12] 저 대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과 가족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며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방항기와 나침반을 잃은 선박처럼, 과거에 우리를 안전하게 정박시켜 주었던 가족의

가치에서 이탈하여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강한 해류에 휩싸여 있어 항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분명히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19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우리는 루시퍼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죄와 악행과 사악함의 면에서 우리는 현 시대를 홍수 전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정서적 또는 영적인 면에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도덕, 폭력, 이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슬픔이 온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5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선지자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5쪽)

약속의 성령

인봉한다는 것은 인가하고, 정당화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약속의 성령은 성도에게 약속된 성령 즉 성신이다. 이 이름과 칭호는 성령의 권세를 인봉하고 인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그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인가하고 승인하여 그러한 행동이 땅과 하늘에서 묶이도록 그에게 주어진 권세이다. ‘죽은 자가 부활한 후에 곧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가 …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을 맺기(교리와 성약 132:7) 때문이다.

“인봉한다는 것은 인가하고, 정당화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된다는 것은 성신에 의해 인가되는 것이며, 주님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며,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이 영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인한다는 뜻을 지닌 인가하는 인봉은 오직 신성한 인정을 받기 위한 개인적인 의로움의 결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경우에만 주어진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 (교리와 성약 76:53)된다. 만일 그들이 의롭고 참되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 인가하는 인봉은 보류되는 것이다.

“어떤 의식 또는 계약이 영에 의해 인봉될 때, 그 이후로 불의에 의해 그 인봉을 깨뜨리지 않고, 인가하는 승인을 없애지 않고, 약속된 축복을 잃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상의 약속으로 승인된다.(구원의 교리, 제1권, 52쪽; 제2권, 83~88쪽) 인봉은 의로움을 통해 공고해진다.

“약속의 성령의 작용과 권세는 침례 의식과 계약에 의해 잘 설명된다. 침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들을 속이고 의식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어느 누구도 성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합당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침례는 영에 의해 인봉되지 않을 것이며 성신에 의해 인가되지 않을 것이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행동이 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그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합당하게 된다면, 그 인봉은 그제서야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람이 성신의 승인을 받아 침례를 받으면, 그 인봉은 그 후에 일어나는 죄에서만 의해 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의식과 집행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당사자가 ‘의롭고 참되다면’, 그들이 합당하다면, 인가하는 인봉이 그들의 성전 결혼 위에 있게 된다. 만일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면, 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며 성신의 인가가 보류될 것이다. 그 후의 합당성으로 그 인봉이 유효하게 될 것이며 불의는 어떠한 인봉이라도 깨뜨릴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거의 완전한 상태, 곧 그의 부름과 택하심이 확실하고, 그가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교리와 성약 131:5; 132:18~26) 되며, 그가 ‘영광의 약속(교리와 성약 88:3~4)을 받고, ‘구속의 날까지 인봉’(교리와 성약 124:124; 에베소서 1:13) 된다면, ‘집행’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위대한 약속들이 확보된다.”(Mormon Doctrine, 361~362쪽)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된다는 것은 …
주님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다.

독립

모든 개인은 독립과 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부부는 양가로부터 독립해서 즉시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은 보잘것없고 수수할 수도 있으나 독립적인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부모를 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들의 권고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애정 행위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를 주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고를 들은 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Oneness in Marriage”, *Ensign*, 1977년 3월호, 5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이 성구[교리와 성약 29:34~35]에서는 속세에 관한 계명과 같은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은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심과 자립심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심을 잃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도 잃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성을 키우게 되면, 행동의 자유가 이내 줄어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143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남성다움과 자립심을 키워 주는 또다른 훌륭한 덕은 검소함과 절약입니다. ‘낭비가 없으면 부족함도 없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격언은 ‘적자 재정 지출’이라고 부르는 말에 자리를 내주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한 개인의 독립, 자립,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적인 이 나라의 존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o Shall Ye Reap, 165쪽)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첫째, 모든 개인은 독립과 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최초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준엄한 계명을 주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부과하신 계명입니다. ‘네가 …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세기 3:19)”(Conference Report, 1943년 4월, 27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자립 또는 독립의 원리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와 동일한 원리, 즉 자립은 영적 및 정서적인 일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정서적인 자립의 원리와 개인 독립의 원리를 동시에 강조하지 않고 상담 시간을 늘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및 정서적인 독립과 자립을 잃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보다 더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

“영적인 독립과 자립은 교회의 지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원들에게서 그와 같은 능력을 찾아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계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겠습니까?”(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42~143쪽)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

“예배의 완전한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다.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크건 작건 간에 그 지원 세력의 의지 또는 지배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Mormon Doctrine*, 378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교리와 성약 78:14)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회원들도 역시 자립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립이란 많은 것을 뜻합니다. 자립이란 습관성 마약 또는 버릇이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립이란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하고 이자와 각종 할부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21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마지막으로 이기심의 가장 교활한 성격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유’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개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 오기로 결심한 사람은 곧 그가 자신을 ‘소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및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헌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고하게 자신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과 겸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아에 얽매이는 일은 독립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닉에 빠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18쪽)

결혼 생활에서의 애정 행위

온화함과 존경-결코 이기적이지
않음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7:2~5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육체적 애정 행위

존 테일러 회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고 올바른 많은 원리를 갖고 있으나 그것들은 성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28) 이에 따라서 그분은 남자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를 여자 안에, 그리고 남자에 대한 욕구를 여자 안에 심어 주셨으며, 따라서 이성간에는 애정, 경의, 그리고 연민이 존재한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것을 지니고 왔으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느낌과 연민에 대한 불법적인 만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며,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반면, 우리 기능을 적절히 행사하면 생명, 행복, 그리고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높이 올려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많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Gospel Kingdom*, 61쪽)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이성간의 합법적인 성적 결합은 종족 보존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보다 높은 기능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으로 영감 받은 동반자 관계만이 보증하여 줄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보다 고귀한 특성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Unchastity the Dominant Evil of the Age*”, *Improvement Era*, 1917년 6월호, 739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연합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운명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에 관련해서 성적인 애정 행위는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것입니다. 성 그 자체가 성스럽지 않거나 속된 것일 이유는 없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고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2쪽)

“성적인 결합, 곧 오직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오는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단순한 놀이 또는 단순히 육정과 육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경험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성 경험은 자녀를 낳는 일에만 국한한다는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난잡한 성 관계를 허용하는 어떤 조항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인류를 위한 주님의 계획”, *성도의 벗*, 1976년 4월호, 3쪽)

팔리 피 프렛 장로

“우리의 자연스런 애정은 현명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삶과 행복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그것은 유덕한 모든 것과 천국 사회의 것을 공고하게 굳혀 줍니다. -그것은 자애 또는 사랑의 정수입니다. ...

“자신의 동반자에 대해 한 유덕한 남자의 가슴에서 살아 숨쉬는 애정보다도 더 순수하고 거룩한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나님께서 인간,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들의 행복과 단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정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Writings of Parley Parker Pratt*, 52~53쪽)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141~144쪽의 인용문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이 출산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결혼 관계 내에서만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4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이는 결혼 계약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은밀한 행위, 즉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다른 사람의 신성하며 은밀한 육체의 부분에 어떤 의도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8쪽)

애정 행위의 목적

로렌조 스노우 회장

“성전에서 맺는 결혼 성약에 있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후기 성도가 결혼으로 하나가 될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연결될 그들의 자손을 위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후손의 세계에 끝도 없이 영광과 승영과 구원을 베풀고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자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다음 세상에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밖에 인간이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계에서, 해의 왕국의 육신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형용할 수 없이 훌륭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안고서 후손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다스리며 생명과 승영과 영광, 끝없는 세상을 관리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Teachings of Lorenzo Snow, 138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여러분의 사랑에도 꽃과 같이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의 사랑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는 커다란 사랑과 상호 존중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깊고, 포괄적이고, 이해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잘못 불리어지는 교제와는 다르다. 그러한 교제는 대부분 육체적 이끌림이다. 결혼이 오직 이것에 기초할 때 당사자들은 곧 싫증을 느낀다. 단절과 이혼이 따르고, 새롭고 보다 신선한 육체적 이끌림이 또다른 결혼 생활과 함께 찾아오며, 이 또한 싫증이 날 때까지만

지속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육체적 이끌림뿐 아니라 영적인 이끌림도 있다. 그것은 또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이며, 그에 대한 이해이다. 그것은 완전한 협력 관계이다. 그것은 공통의 이상과 표준을 갖고 있는 동반자 관계이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비이기심과 희생이다. 그것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프로그램을 믿는 신앙의 순수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는 일, 창조하는 일, 그리고 영의 부모가 되는 일을 고대하며 필멸의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방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결코 지루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질병과 슬픔 속에서도, 가난과 빈곤 속에서도, 성취와 실망 속에서도, 현재와 영원 속에서 살아 숨신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30~131쪽)

오용된 육체적 애정 행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여성들이 그들의 신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젊은 형제들이 알도록 가르칩시다. 결혼 성약은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시키거나 여자를 학대하거나 단지 자신의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를 이용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은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Conference Report, 1952년 4월, 86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이며, 모든 가족 생활은 깨끗하고 합당하게 그리고 매우 높은 표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침실 문 뒤에서는 어떤 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주님께서 눈감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12쪽)

“베드로의 말을 빌어 우리는 ‘...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베드로전서 2:11)고 권고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을 더럽히는 불결한 노출이나 외설 잡지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애무하거나,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과 성 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를 언제 어디서나 금하셨으며, 우리 역시 이를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결혼한 사이라도 지나치거나 이를 잘못 행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실망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성도의 빛, 1974년 8월호, 36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압제적이거나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예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몸이 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모세서 2:28; 3:24 참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5~31 참조)

“은화함과 존경-결코 이기적이지 않음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각 배우자는 서로의 필요 사랑과 소망에 대해 사려 깊고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압제적이고 무례하고 절제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1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결혼 생활에서 성이 중요하고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인생이 성에만 국한되도록 계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적인 면에만 탐닉해도 원만한 결혼 생활이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혼 생활의 예절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에베소서 5:28) 결혼한 사람이 은밀히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순결하지 아니하면서 순결하다 말한 자들은 멸당당하리라.’(교리와 성약 132:52)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73~74쪽)

생활의 기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Things of the Soul,
105~117쪽

태초의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들께서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하고 땅을 정복하”(아브라함서 4:27~28)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주기가 시작되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였으며) …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땅에서 돌씩 나뉘며 땅을 경작하며 양 떼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들도 또한 아들과 딸들을 낳았”(모세서 5:2~3)습니다.

계명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은 결코 취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인류 행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권세의 의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또 충만한 기쁨, 나아가 신의 경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권세는 행복의 계획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성장하여 성숙해져서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여자가 어머니가 될 힘을 갖게 될 때 생명을 발생시키는 권세가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나옵니다.

인류에게 한결같은 것임

인류에게 있어 짝을 찾겠다는 소망은 한결같고 또 매우 강한 것입니다. 필멸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과 승영은 강하고 또 지속적인 신체적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산의 능력이 청소년기에 성숙되어 가면서 다른 신체적 경험과는 다른, 매우 개인적인 느낌이 자연스런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에는 깊고도 이끌리는 감정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느낌들을 반복하여 구하게 합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짝짓기는 로맨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관습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로맨스는 흥분과 기대 때로는 거부감 등과 동화와 같이 익숙한 느낌과 함께 꽃을 피웁니다. 달빛과 장미, 사랑의 편지, 사랑의 노래, 시, 손 잡기, 그리고 젊은 남녀 사이의 합당한 다른 애정 표현이 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들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랑에 빠진 모든 남녀들은 아담과 이브 이래로 어떤 남녀도 자신들이 느끼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도 현명하고, 조용하고, 단조롭게 보이는 로맨스의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깊은 애정과 로맨틱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진지하고, 거의 어리석은 정도로 지각 없거나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성숙해질 때이나 경험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젊은 시절의 로맨틱한 사랑의 정서적 및 신체적 욕구가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사랑 안에 있는 헌신과 위안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유혹과 오해, 헤어짐,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위기, 질병으로 인한 시험을 겪으며, 그러는 동안 내내 사랑이 더 커짐으로써 갖 결혼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더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사랑에는 상호 존경이 요구되며, 또한 남녀는 생명의 원천에 있는 신성한 힘을 분출하는 애정을 나누는 일을 결혼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체적 욕구가 자신을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을 결혼 전에는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애 기간은 고결성, 도덕적인 힘, 그리고 합당성을 가늠하는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요구를 받아주어야 해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격상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단언히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제게 계명을 어기라는 요구는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순수한 사랑은 그러한 출산의 권세를 오로지 영원한 정절을 서약한 후에, 합법적이고 적법한 의식을 받은 후에, 이상적으로는 성전에서의 인봉 의식 이후에 사랑의 충만한 표현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오로지 결혼을 통해 동반자가 된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생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합당하게 행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가장 우아하고 차원 높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느낌과 결합됩니다. 그러한 느낌과 평생에 걸친 서로에 대한 필요는 남편과 아내를 결혼 관계에서 서로 묶어 주며, 그 관계에서는 여성이 갖는 귀중한 여성으로서의 덕성이 성인 남자가 갖는 모든 속성들을 보완해 줍니다.

인류의 온갖 경험에서 인생의 그 부분에 필적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는 그 안에 너희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할 거룩한 신권의 열쇠가 성임되어 있음”(교리와 성약 124:34)이기 때문이며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교리와 성약 132:19)입니다.

그러나 로맨틱한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진주곡일 뿐입니다. 결혼에 의해 부부에게 맡겨진 권세를 통해 생겨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사랑은 더 커져 갑니다. 임신은 결혼을 통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몸체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따라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 보고 듣고 느끼고 육체적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탄생의 기적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필멸의 육신 안에는 영적인 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필멸의 육신에는 그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교리와 성약 88:15)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따라야 하는 율법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 율법 및 자연적 율법

생명을 주는 이러한 권세에 관계된 율법들을 포함하여 영원한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교리와 성약 130:20)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도덕적 표준을 정의하고 있는 영적인 율법이 있습니다.(조성, 로마서 7:14~15; 니파이후서 2:5; 교리와 성약 29:34; 교리와 성약 134:6 참조) 묶어 주고, 인봉하고, 보호하여 주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는 성약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끌리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육체적 율법 곧 자연적 율법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결혼 관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관계없이 신체적 상황이 충족될 때마다 임신은 발생할 것입니다. 일단 생명이 잉태되면, 그 생명을 없애는 것은 출생 이전일지라도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 어머니의 생명이 임신으로 인해 위험에 빠졌거나 태아의 생명이 가망이 없음이 확실시될 때는 예외입니다. 우리는 언제 영이 그 육신으로 들어오는가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그 생명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발생시킬 권세가 주어지고 또 그렇게 하라는 명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없애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 이를 금하셨습니다”(이더서 8:19)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이 이 경륜의 시대에도 다시 주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13; 니파이후서 9:35 참조) 또한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6)

통제되어야 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율법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짝짓는 본능에 대해 금하지는 않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걱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엘마서 38:12)고 훈계했습니다. *다스림(bridle)*다는 것은 인도하고 방향을 지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만 해충을 박멸하듯이 근절시키는 방식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대하듯이 뿌리를 뽑는 방식으로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마치 전기를 다스리듯이 하여 힘과 생명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때 출산의 권세는 축복을 주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Gospel Doctrin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77], 309쪽 참조)

복음은 이러한 성스러운 권세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와 대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전은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루는 상세한 계명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보다는 일반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자유로이 적용하여 생활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다양성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의 권고와 명령을 무시할 자유도 있으나, “말리”와 같은 단호한 말로 계시가 주어졌을 때는 그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결혼 성약 안에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결같을 수 있고, 또 성취와 만족을 그들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창조로 인해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 다르다는 이러한 고귀한 진리보다도 더 큰 이상이 계시된 적은 없습니다.(모세서 6:8~10, 22, 59 참조) 경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고린도전서 15:39)

남자와 여자는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경전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며”(니파이후서 2:5)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 나아가 우리의 생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엘마서 12:14 참조)

동물의 왕국에서 생명체들은 어쩔 수 없는 짝짓기 본능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일단 수정이 되면 그들은 헤어지고, 보통으로는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암컷에게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그것이 동물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가운데서 가족 생활은 드문 일이며 그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류 가운데서의 드문 예를 제외하면 동물 암컷과 수컷들 사이의 결합은 일시적이며 또 아버지와 새끼 사이에서의 관계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인류가 심판을 받는 도덕적 표준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율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동물들은 대체로 그들의 짝짓기 본능에 따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짝짓기 의식은 정해진 형태를 따르며 엄격한 제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동성간에 짝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짝짓기 본능이 그들 새끼에게 외설스런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육적인 본성에 의도적으로 몸을 맡기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도덕에 관한 율법을 무시하고 또한 짐승보다도 못하게 자신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혹자

필멸의 생에서 유혹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사탄은 생명을 낳는 권세를 지닌 모든 이들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하늘에서 내쫓겼으며 필멸의 육신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육신을 차지하고는 그것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사자들은 돼지의 육신이라도 거하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마태복음 8:31 참조) 그는 우리가 지닌 출산의 권세의 고귀한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닌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질투에 찬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는 “악마가 …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니파이후서 2:27)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더럽히고 또 우리가 합당할 경우 영원한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인 이 은사를 멀하려 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2:28~31 참조)

망상

사회에서 급속하게 휘몰아치는 가치관의 급속한 쇠퇴는 현재 출산 행위에 대한 선입견, 심지어는 망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은 공공연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져 조롱거리가 되며, 결혼과 부모가 되는 것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으로서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품위 있는 사회의 덕성이었던 정숙함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덕성은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이상인 정치가, 운동 선수, 연예인들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성 행위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이에 대한 검열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든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공식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밀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중앙 무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무대 뒤의 그늘 속에는 탐닉, 외설, 변태, 불륜, 낙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추악한 것인 근친 상간과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성경에서 언급된 역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도 있어서 인류, 사실상 전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는 철학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암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선언에 의해서든 그들은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로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악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은 우리를 고상하게 해 주며, 나아가 승화시켜 주는 진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진화된 동물이라는 생각보다 더욱 파멸적인 생각은 없었으며, 어떤 철학도 이보다 더 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악영향을 가져다준 적이 없었고, 어떤 생각도 이보다 가족을 더욱 병들게 하는 데 기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교묘한 것이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고, 도덕적인 율법이 아니라 육체적인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쉽게 갖게 합니다.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이론이 일반적인 통념의 토대 위에서 마치 참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어떤 일들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명의 비밀에 대한 해답으로 널리 가르쳐지고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이론은 전적으로 지적이거나 학문적인 표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그것은 도덕적 내지는 영적 또는 교리적 표준에 위배된다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동물의 후손이라는 이론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질 때, 신앙이 충분히 뿌리 내릴 때까지는 그것을 마음 한쪽에 따로 치워 두라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서 신앙의 묘목을 시들게 하고, 쓰디쓴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한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릇된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리하이는 인간은 자유로우며, 또 자유롭게 되어야 하며,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니파이후서 2:26)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임신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 인간 탄생의 신체적 과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임신과 질병에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여겨지는 방지책을 십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만연된 성적 부도덕 현상의 책임에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관도 아닌, 문명 사회의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이러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려고만 해도, “당신은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군요.”라는 항의가 제기될 것입니다.

하나의 미덕을 지나치게 또는 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미덕을 거리낌없이 공격할 수 있고, 또 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라는 미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모든 도덕적 제한 사항들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할 생각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어떠한 도덕적 내지는 법적인 간섭 없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하여 면책을 받으려 합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각 개인은 스스로 얼마만큼 위험에 가까이 갈 것인지 선택할 도덕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부주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교통 신호와 방책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은 우리를 고상하게 해 주며, 나아가 승화시켜 주는 진리입니다.

높은 율법이 있음

구원의 계획에 관해 배운 사람은 누구나 모든 도덕적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선택의지”라는 표현은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에 관해 언급된 유일한 것은 도덕적 의지로 주님은 “이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과거의 문명 사회는 도덕에 관한 율법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파멸되었습니다. “이는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이르[기]”(니파이후서

26:11; 창세기 6:3; 이더서 2:15; 교리와 성약 1:33; 모세서 8:17 참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더럽히거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범법을 하도록 인도하면, 모든 육체적 쾌락이 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격렬”하고 “견디기 … 힘든”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9:15 참조) 엘마는 자신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내 아들이,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죄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한 결과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입니다. 이외의 다른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엘마는 “너희가 이를 거스려 말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니라.”(엘마서 5:58)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기쁨을 알고 또 가족 생활에 따르는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십시오. 이 소중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인생에서 배우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여십시오. 결혼한 부부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들의 관계 속에 가지고 오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경고하였듯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로마서 1:26)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유혹자는 여러분 사이에 썩기를 박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관계의 일부가 되었다면 현명하게 판단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외 사항

결혼, 가족 생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예외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라는 말이 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일부 죄 없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은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아버지보다도 더욱 사랑이 많으시고 또 관대하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공정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분의 권세는 지상에서는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필멸의 생애는 극히 짧은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 곧 부당하고 불평등한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되고, 외로움과 모든 손실이 보상 받으며,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모든 합당성이 보상 받을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고린도전서 15:19) 것입니다. 필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

원수가 그의 비법한 권세를 활용하여 출산의 신성한 권세를 사악하게 사용하라고 온 인류를 유혹할 것이라는 점을 저는 이미 경고드렸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을!”(마태복음 5:26) 때까지 범법의 모든 빛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알지”(교리와 성약 19:15)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악마는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망칠 방도를 몰라 강압적으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죄와 죄책감이라는 수용소에 갇힌 모든 영혼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회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악마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두 원리는 그 힘에 있어 악마의 엄청난 권세를 능가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실수를 범했다면 현재의 세상에서는 그 일이 분명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것이 묵과될 수는 없으나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도덕한 행위를 그쳐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에 멈추어야 합니다!

회개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과 자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우리 구속주께서 행하신 속죄의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권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9:16) 도덕적 율법에 대한 범법과 관련되어, 충만하고 완전한 회개를 하였을 때, 용서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낙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어떤 계시를 찾아 보더라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백과 감독

회개의 공식은 우리에게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기도를 통해 주님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오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요구되는 것은 고백 뿐입니다.

만일 범법에 상대방의 출산 능력을 부당하게 간섭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도 이상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권으로부터 주님은 감독이 보통 판사가 되도록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범법이 심각하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감독을 찾아가야 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말해 줄 것입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할 때 감독은 주님을 대표합니다. 때때로 감독은 독한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형벌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엘마서 42:16)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며, 형벌이 회개의 조건이라면, 저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염서를 쓰듯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답장으로 충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즉시 선교 사업을 가거나 성전 결혼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려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감독이 잘못 인도하는 친절함 속에서 위로만을 전하며,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노력만 하고 회개와 관련된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훌륭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용서는 커다란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범법의 현실을 직면하고, 어떠한 벌이라도 받아들이며,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따르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이 행해졌을 때, 여러분은 다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3:25)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임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0:16~17)

젊은 시절에 반항하는 영을 지녔던 엘마는 자신의 경험에서 회개가 가져다주는 커다란 위안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엘마서 36:18~20)

때때로 고백을 하고 벌을 받은 이후에도 회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부도덕한 행위를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던 한 여인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회장님께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매에게 구약전서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리고 롯과, 돌아가려다 소금 기둥이 된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라고 했습니다.(창세기 19:26 참조) 그리고 나서 회장님은 그 구절들이 그 자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라고 스미스 회장님은 이 회개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을 위한 교훈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저는 지금 성전이라는 단어를 경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5) 저는 마음속으로 인봉실 그리고 젊은 부부 내지는 일 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기혼 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제단을 그려 봅니다. 이 성스러운 성전 의식은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결혼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상태에 머문다면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 상속”(교리와 성약 132:19)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인봉 의식의 의식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2000년 1월 1일

이전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고, 그 때문에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 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3~4)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일회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틴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넓혀야 합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86~88쪽

이 교회의 훌륭하고 의로운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영감과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결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에 함께해 주신 많은 우리의 친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으로 생활에 축복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

최근 남미의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저희가 구주에 대해 잘 알고 그분의 모범을 끊임없이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심오한 질문과, 그와 유사한 다른 여러 질문들을 통해 저는 “영적인 지식을 얻음”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들려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경전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경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껏 취하십시오. 그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

“여러분은 경전 탐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신 짐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이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1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초가 없는 세상적인 지식은 곧 우유 위에 뜬 거품이나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둘 다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 390쪽)

영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원리들을 탐구하십시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적인 내용들로부터 그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추려내십시오. 원리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축된 진리입니다. 참된 원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격심한 상황 아래에서도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들을 단순한 원리의 말씀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저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얻은 원리들이 경전을 탐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 지혜롭게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겸손하게 주님의 빛을 구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
- 주님의 권고에 귀기울인다.
- 주님의 제명을 지킨다.

영적인 지식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넓혀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과,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어렵게 얻은 고귀한 결과에 비추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언들이 평생 동안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머지 않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서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거룩한 진리를 철저히 완전하게 익혀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의 모범이나 행동도 그 진리로부터 등을 돌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느 누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 저의 기초는 ... 제가 배운 ...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의 원리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복음 교리, 3~4쪽)

스미스 회장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삶을 의로움에 중심을 두게 하고 거친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을 피하게 해 줄 그러한 안전한 닻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다음 성구들은 우리가 왜 주님의 빛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나 주 하늘의 왕이 그들의 왕이 ...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니라.”(니파이후서 10:14)

“말하는 자가 바로 나임이니, ...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 나의 권능으로써 이 말을 내게 주노라.

“...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걷도록,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그리고 ... 내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1~14)

물리적인 빛의 비유는 우리가 영적인 빛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깜깜한 방안에서 전구를 켜면 그 빛은 어둠을 무력케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둠이 너무 짙으면 마치 전구가 벽물 통 속에 빠진 것처럼 어둠이 빛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빛은 무지와 불신앙의 어둠을 이겨 냅니다. 범법이 우리의 인생을 심히 어둡게 할 때, 회개라는 영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치 레이저 광선이 짙은 벽물을 관통하듯 어두움을 걷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여러분은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경전과 같이 주님의 영감이 담긴 자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이해라는 씨앗은 겸손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싹을 틔우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영적인 지식이 그 열매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1, 14)

인생의 모든 매혹적인 분야에서는 끝없이 무언가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지식을 얻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나누기 위해 기운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신중하게 택해야 합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이고 영적인 지식의 보화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탐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 영적인 지식은 단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 모든 지식의 보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89~390쪽)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말과 모범과 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브리검 영은 더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었으며, 조셉 스미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의 권고에 귀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행사가 기꺼이 그분의 권고를 귀기울여 듣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과 어우러질 때 커다란 개인적인 발전과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나아오느니라.”(교리와 성약 84:43~47)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순종의 역할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지금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가 빛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결코 뽑힐 수 없는 지식과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성약과 의무에 참되고 충실할 때 약속된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58년 10월, 22쪽)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계명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한 가지 자료는 경전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러한 훈계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회원들의 간증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하는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므로써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 부지런하고 …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 배우라고 명하셨습니다. … 모든 침례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간증을 가질 수 [있으나], … 연구와 순종과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간증은 점차 약해지고 결국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63년 10월, 22쪽; 또는 *Improvement Era*, 1963년 12월호, 1062쪽)

심오한 영적인 진리는 한 사람의 정신과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간단히 옮겨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부지런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귀한 진리는 신앙과 노력과 때로는 힘든 고투를 통해 한 번에 조금씩 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로나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이더서 12:6)고 말했습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해롤드 비 리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주의 피, 곧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복음의 모든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한 약속의 원리입니다.”(Stand Ye in Holy Places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74], 246쪽)

영적인 지식을 적용하십시오

지식의 꾸러미를 펼쳤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 **이해:** 각 진리의 요소를 대할 때 우리는 이전의 지식에 비추어 주의 깊게 비교하여 그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안팎으로 점검하십시오. 모든 관점에서 그 진리의 요소를 연구하여 숨은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올바른 시각으로 그것을 검증하여 여러분이 성급하게 그릇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할 때 더 많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진리가 영의 감화를 통해 주어질 때 특히 중요합니다.

- **존중:** 지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에 대해 감사를 포함으로써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 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 **순종:** 순종을 통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그 진리를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는 값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 **기억:**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는 강한 영적인 지식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압도되거나 망각될 수 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41], 1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기록된 지식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거룩한 곳에 보관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확대:**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얻는 풍요로운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지식을 나누고자 노력할 때 더 많은 빛이 정신과 마음에 들어오듯 여러분은 더 많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대회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십시오

이제 훌륭한 연차 대회가 끝나갑니다. 대회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수고를 하지 않고도 영감에 가득 찬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신중하게 적용하고 연차 대회가 끝날 무렵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이 가르쳐 주신 다음 말씀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들은 진리들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오늘 밤 이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삶에서 제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머릿속에 간추려 보았으며,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러한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110쪽)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놀랄 만한 특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것들을 배우십시오. 영적인 지식은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 바탕을 둔 거룩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감에 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거룩한 빛을 구하십시오.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분의 권고에 귀기울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순종하며 생활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함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파멸하게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관련 성구

잠언 6:27~33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모든 것을 묵인하는 이 세상의 온갖 죄가 다 청소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최근에 영화 잡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계약으로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제도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에 관한 사회적 압력만 없다면 이 사회는 유토피아(이상향)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어느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이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제도가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러한 사실에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회원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혼한 정상적인 부부라면 모두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34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께서 인정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수천 년 간 문명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경전 어디에서도 결혼이 무엇인가를 재정의해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권리가 아닙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68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현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 생활과 연관되는 모든 의무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관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해도, 그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파멸하게 되며 미덕, 자존심, 인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은 일단 잃게 되면, 쉽게 되찾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냉정하게 그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결혼을 조롱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냈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을 즉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지도 않을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날, 그들은 실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즉 소년, 소녀, 남성, 여성,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기, 자녀, 가족, 가정과 같은 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의 품격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비이기심이나 희생과 같은 말이 무시되면 자존심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 그 자체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를 맺기로 유혹을 받아 왔거나 현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 상태를 계속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결혼하도록 하십시오.”(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16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결혼은 “완전한 결합으로서, 우리는 이것이 지닌 영원한 약속을

전하기 위해 인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서로에게 ‘굳게 연결’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됨으로써 그러한 거룩한 접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결합, 즉 남자와 여자 간의 굳은 헌신은 결혼 성약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친밀함과 영속성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즉 마음과 생각, 모든 날들과 모든 꿈들을 나누겠다는 거룩한 약속과 맹세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한 척하며, 거짓 결합으로 육적인 상징과 육적인 애정 행위를 나누지만, 완전한 의무를 의미하는 다른 모든 면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 도덕적인 모순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애정 행위에 관한 한,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며,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짐’을 기억하십시오.)을 부정하게 주고,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없는 때에 일부를 주는 것은 러시아인 룰렛 게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승낙 없이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정성어린 애정 능력과 애정 행위에 대한 열의 모두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영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각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6~77쪽)

사랑

만일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관련 성구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35, 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에베소서 5:2, 25, 33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리와 성약 42:22~23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요,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니라.”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훗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조지 큐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 앞에서 무언가 성취하기를 바라게 되고, 최선을 다하도록 고무되고,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고무된다면, 그러한 여자는 사랑할 만하고 내 마음에 사랑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된 지침으로 ...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비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 앞에서 여러분은 그녀를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녀 앞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여인들에게도 똑같은 지침을 주고 싶습니다.”(“As Youth Contemplates an Eternal Partnership”, *Improvement Era*, 1938년 3월호, 139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우리가 진실로 좀더 우리 구주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75쪽)

존 에이 윌소 장로

“사랑은 결혼 생활의 기초이지만 사랑 그 자체는 율법과 그 율법에 따른 삶의 산물이다. 참된 사랑은 율법에 따르는 것인데,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이 율법에 따른 삶에서 오기 때문이다. ...

“... 지상 생활 동안에만 지속되는 결혼은 슬픈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가족을 키우면서 형성된 사랑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해가 갈수록 풍요롭게 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끝없이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한다. 서로에게 영원히 인봉되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은

따뜻하고, 좀더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을 만하고, 용기에 차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더 기쁨에 찬 생활을 한다. 그들에게 행복과 행복을 만드는 일은 끝이 없다. ...

“신체적 매력을 넘어, 사랑은 마음과 영의 자질들, 종종 미묘한 자질들에 의해 생긴다. 아름다운 얼굴은 빈 마음을 감출 수도 있고, 감미로운 음성이 거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며, 사랑스러운 자세가 버릇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여인과 왕과 같은 모습을 한 남자라도 오래 사귀다 보면 지겨워질 수도 있다. 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결점이 없고 지식과 예절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으나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이 초기에 시들어 버린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항상 밖에서부터 오지 않고 안에서부터 온다. 다시 말해, 후기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 참된 사랑을 낳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것을 영원토록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매력이 정신적 및 영적인 조화로써 강화되어야 한다.”(*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297, 299, 302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지 신체적인 매력으로 생각하고는 별뜻 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헐리웃의 영화에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노래와 사랑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재료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즉시 다른 한 사람에게 이끌릴 수도 있으나 사랑은 신체적인 매력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깊고 포괄적이고 이해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체인 매력은 오직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신앙과 신뢰 그리고 이해와 협력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통된 이상과 표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대한 헌신과 동반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깨끗함이며, 발전과 희생, 그리고 비이기심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결코 지루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으며 다만 아픔과 슬픔, 가난과 궁핍, 성취와 실망, 현세와 영원 속에서 살아 숨쉬니다”(*Love versus Lust*, 18쪽)

“만일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279쪽)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이러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네 개의 초석을 제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나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초석은 상호간의 존중입니다. 물론 이 존중이란 상대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는 존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우격다짐으로 몰아 세우거나 이기적인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펼 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요구하거나 원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The Treasure Chest*, 165쪽)

“이러한 존중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며,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의 재능을 표현하고 개발할 권리를 가지며, 상대방에 대한 인내와 이해와 예절과 사려깊은 배려를 하고자 할 때 시작됩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낭만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에 더 관심을 둡니다.”(*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8~29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142쪽의 인용문 참조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세상에는 입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사랑이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편지, 매력, 자극, 충동 또는 정욕 등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표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지속되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 이상의 깊은 것이 아니라면, 이 얼마나 헛되며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

“우리는 정기적으로 적당한 기간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재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증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된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대하신 목사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요한복음 21:16)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발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방편이나 편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치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사랑을 ‘먹이는 것’과 ‘지키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반려자를 사랑하는 데에도, 구애 기간의 사랑에도 시간이 요구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도 시간이 요구됩니다.”(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107, 110쪽)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13:4~5 참조) 우리가 성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을 살펴본다면, 그 속에서 근시안적인 ‘자기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희생하는 요소를 찾아보게 됩니다. 구애 기간이나 결혼 생활에서의 참된 사랑과 행복은 정직과 자기 존중, 희생과 관심, 예의와 친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33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완전한 사랑은 완전하게 참는 것입니다”(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69쪽)

“우리의 사랑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랑은 간절한 격려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제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과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현재 상태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그분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Even As I Am, 18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고, 존경하고, 풍요롭게 해 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34쪽)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신속히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말하기 힘들더라도,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을 신속히 하도록 하십시오. 진실된 사랑은 개인적인 실수나 반감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발전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4쪽)

무엇이 참된 사랑의 모조품인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죄를 짓는 순간에 순수한 사랑은 한 쪽 문으로 내몰리면서 다른 문으로는 욕욕이 조용히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 욕욕과 절제되지 않은 열정이 애정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악마가 너무도 퍼뜨리고 싶어하는 교리인 불법적인 성관계가 정당하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279쪽)

“만일 누군가가 애무나 기타 성도착이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육신이 갑자기 흥하게 변해 버리거나 마비되어 버린다 해도, 내 반응은 변함없을 것인가? 만일 이 사랑스러운 얼굴이 화상으로 흉터가 생기거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이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이 총명한 머리가 갑자기 멍해진다면, 그래도 나는 헌신적인 연인이 될 것인가? 노화 내지는 그와 유사한 어떤 일이 내 배우자에게 일어난다면 내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조장하는 신체적인 매력에만 몰두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용 또는 남용과, 자신 또는 모든 사람에게서 오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 자신의 연인을 보호하는 젊은이는 참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반자를 자신에게 일시적인 만족 곧 쾌락을 주기 위한 생물학적 장난감으로 이용하는 젊은이는, 바로 그것이 욕욕이라는 것인데, 사랑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게 처신해야 하지만 말이나 옷차림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옆에 있는 동반자를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신체적인 반응을 자극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지고 자극하고 애무하고 유혹하고 이용하는 젊은 여성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욕욕이며 이용하는 것입니다”(Love versus Lust, 18~19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우리 시대에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속임수는 육체적인 만족이 마치 로맨틱한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과거 모든 세대에 주어졌던, 동일한 착각의 반복일 뿐입니다. 육체적 만족은 사랑에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사랑 그 자체의 강력한 힘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적 만족에 관심이 끌리게 되면, 여러분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사랑이 없이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이것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Eternal Love*, 15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사탄은 그릇된 사랑, 즉 욕정을 부추겨서 개인의 욕정을 달래기 위한 굶주림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고통과 파멸에 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유창한 말로 상대를 기만하는 이면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순결하고 의롭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34쪽)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인간의 애정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를 위해 제정하신 신성한 육체적 결합이며, 특별한 신성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러한 사랑의 행위는, 완전한 결합의 상징, 즉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삶, 그들의 사랑,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 그들의 모든 것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봉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성전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굳게 연결’ 됨으로써 그러한 신성한 접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결혼 관계와 영원한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함께 ‘굳게 연결’ 되어, 그렇게 원하지만 한다면, 서로 헤어질 수 없게 되고 악마의 유혹과 필멸의 세상에서의 고통을 이겨 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결합, 즉 남자와 여자간의 굳은 헌신은 결혼 성약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친밀함과 영속성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즉 마음과 생각, 모든 나날들과 모든 꿈들을 나누겠다는 거룩한 약속과 맹약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한척하며, 거짓 결합으로 육적인 상징과 육적인 애정 행위를 나누지만, 완전한 의무를 의미하는 다른 모든 면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제가 얼마나 냉소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모순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Speaking out on Moral Issue*, 158~159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올슨 프렛 장로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자질을 더욱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악한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에 있어서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이 천국에 속하는 품성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사랑과 기쁨과 선의를 말하며, 볼 때마다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가슴속에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보답으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사랑을 낳고 행복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롯된 감정은 계속해서 더욱더 커져서 마침내 완전해지며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 그 자체 내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Celestial Marriage*, *The Seer*, 1853년 10월호, 156쪽)

존 에이 윌소 장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참된 사랑은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포함합니다”(*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297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주님에 대한 강한 결심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성약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영원한 성약에 대한 결심이 약하면 영생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72쪽)

어떤 행동이 결혼 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만일 어떤 남자와 그 아내가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의 모든 의식과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면, 이혼의 어떤 원인도 발생될 리 없고, 결혼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더욱 감미롭고 커질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사랑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각 사람의 사랑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이들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속에 더욱더 굳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5년 4월, 11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주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

“아내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즉 직장이나 오락이나 취미도 아내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러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말로써 나무라거나 침울한 행동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

“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와 늘 가깝게 있고, 충실하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녀의 감정과 필요 사항에 민감한 것을 뜻합니다. …

“남편 여러분, … 권고해 주는 아내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

“그녀에게 지적, 정서적, 사교적,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사랑은 작은 표시로써 나타나고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때에 꽃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기꺼이 도와 주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보아 주고, 저녁 준비를 할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는 것을 미뤄 놓고 가서 도와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용히 행위로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작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3~53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부부가 자신들의 생활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의 생활보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그들 부부 생활의 근본되는 요소인 복음에 따라 함께 일할 때, 그들은 분명코 이 위대한 행복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주 성스러운 성전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여 모든 생각과 소망과 사랑이 반려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협력할 때, 행복은 갖게 됩니다.”(“결혼으로 하나가 됨”, 성도의 빛, 1978년 1월호, 5쪽)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브리검 영 대학교

1999~2000년 말씀,

158~162쪽

저는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우정과 데이트, 진지한 구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의미가 있는, 또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갓 약혼한 젊은 여성이 지난 달에 제게 “밖에 나가면 그런 충고가 널려 있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흔한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맨스에 관해 불필요한 수사를 덧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회원됨에 버금가는 “결혼 생활에서의 관계”가 현세와 영원에서 갖게 될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충실한 이들에게는 현세에서 오지 않았던 것이 영원에서는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몇 말씀을 더 드리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경전에 있는 조언 내지는 복음의 권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것은 인생의 기본이 되듯이 사랑에도 기본이 되며, 그러한 권고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조류나 시대의 유행 또는 술수와는 관계가 없지만 진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의 우정 관계와 데이트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결혼을 경전과 관련해 생각해 보고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이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길고도 놀라운 설교를 행한 후에, 이 높은 그리스도인다운 덕성을 모로나이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좀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견딜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그러즉 …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 [모로나이서 7:47~48]

참된 사랑,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로 오셨을 때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이 얼마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를 위해 묘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신약 시대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묘사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참된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실천하셨으며,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신성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또 달성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 목표이며, 분명히 우리가 계속 감사드려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물론이 분명히 가르쳤던 것처럼, 이 사랑, 이 능력, 이 재능,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보답이 하나의 은사라는 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물론의 표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 없이는 오지 않으며, 또 인내 없이도 오지 않으나, 구원 그 자체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복음에 따른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해답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답을 주고 받는 권세, 은사, 부여, 기적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 일에서, 어떤 교리도 이보다 우리를 더 고무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제 말씀의 제목을 브라우닝 여사의 훌륭한 시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Elizabeth Barrett Browning, *Sonnets from the Portuguese* [1850], no. 43.)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아침에 “그 방법들을 일일이 상고해” 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녀가 선택한 부사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요도 아니고, 어디서 또는 왜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요도 아니며, 어떻게라는 말을 사용한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여러분에 대한 저의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브라우닝 여사가 옳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떻게”에 잘 나타나 있으며, 물론과 바울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이 “어떻게”에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가르친 신성한 사랑 곧 순수한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그것이 지닌 친절함, 비이기적인 특성과 더불어 자아 및

허영, 그리고 쓸데없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모로나이서 7:45)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언급한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헝클리 회장이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결혼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비이기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모범을 보이셨던 이상적인 사랑을 살펴볼 때, 경전상의 이런 설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동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우정이나 진지한 데이트에서 찾고 싶어하는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 중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에는 분명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세심함, 그리고 동정심과 예절이 명백히 깃들게 하는 자기 억제일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는 “선한 사람의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은 그의 ... 친절함이다”(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1798], lines 33~35)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인이 못 본 척 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약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그가 원하는 만큼 멋있거나 아름답지는 않으며, 또 우리가 되고 싶은 만큼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연설에서 재치가 있다거나 또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재능과 운명을 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성품들은 곧 사려 깊은, 인내심, 친절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정으로 같이 기뻐하는 마음과 같은 성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푼의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물론과 바울의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교만하지 마시다!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너무도 자부심이 대단하고 위세가 당당하여 하늘을 찌를 듯하게 보이는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까? 프레드 앨런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홀로 연인의 거리를 걸어 가고 있는 한 이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보살필 때 그 뜻을 피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속죄의 모범이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친절에서, 우리가 행하는 존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행하는 비이기심과 호의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깨지기 쉬운 것이며, 인생의 어떤 요소들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손이나 보살핌의 손길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복음에 따른
해결책입니다.

있지 않는다면, 많은 것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주는 것은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것은 신앙, 즉 우리 모두가 가까이 행사해야 하는 신앙의 참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게 한다면 결국 모든 것, 즉 우리의 모든 소망, 두려움, 꿈, 약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어떤 구애나 약혼 또는 결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지 않거나 또 그렇게 행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우리의 한 쪽 다리를 강둑에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본질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꼭 잡고서 함께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안전이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듯이 배우자의 장래의 흥망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며 또 이러한 것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그러한 정신 속에서, 그리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물문의 호소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홀런드 자매와 저는 거의 3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미혼으로 있었던 기간의 두 배에서 6년 정도 빠지는 기간입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37년 간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아내도 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며, 아내도 저의 그런 것들을 압니다. 저는 아내의 기호와 관심사, 소망과 꿈을 알고 있으며, 아내 또한 저의 그런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우리의 관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점차로 커져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아내를 도와 주는 방법을 더욱더 분명하게 많이 알게 되었으며, 마음만 먹는다면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완전한 헌신이 없었다면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그토록 믿고 있고, 또 경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창세기 2:24)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자기 방위도 오래 전에 내던져 버렸는데도 제가 아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치게 하여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의 이익이나 허영심, 또는 아내를 지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내를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순간에 남편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리하이가 “헛된 망상”과 “세상의 교만”(니파이전서 11:36, 12:18)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의 감옥이라고 말한 크고 넓은

건물에 저의 비참한 영혼을 유폐시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명 나무가 있는 들의 다른 끝에 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그분은 질투하거나 우쭐하지도 않으셨으며 결코 본인이 필요하여 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행복, 곧 그분이 그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행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친절하셨습니다.

데이트와 구애 관계에서 여러분을 과소 평가하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즐거워 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유머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단 5분도 함께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 여러분의 품위, 자신감, 여러분의 기쁨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인생은 힘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 속에서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을 느껴야 합니다.

제일회장단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학대하는 것은 어떤 신권 소유자에게도 합당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거나] ... [어떤] 여인을 천시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거기에는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친구, 데이트 상대, 연인, 약혼자도 포함 됩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장 영예로운 자리”,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42쪽; 고든 비 힐클리,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자”,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120쪽)

여러분이 피자를 먹으러 밖으로 나가거나 테니스를 즐기러 간다면, 좋고 깨끗한 흥미거리를 제공할 다른 사람과 같이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한 관계에 있거나 진지한 관계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훌륭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같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 같이 고통스러워 하고 여러분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모로니아서 7장 45절에 있는 사랑에 관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참된 사랑, 곧 진정한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서로에 대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작은 실수조차도 즐거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논쟁을 피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 받은 감정이 치유될 수 있을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별거와 이혼을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폭발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귀엽지 않습니다. 어른들, 특별히 서로를 사랑해야 할 어른들에게 그것은 천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내고 있으며, 또한 배우자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심지어 우리를 악하게 대하려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들 가운데 잘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즐거워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자제심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성숙하게 행동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입을 굳게 다물도록 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잠언 16:32) 참아나가는 결혼 생활과 훌륭한 결혼 생활 사이에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말참견과 반응이 없이도 어떤 일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전에 셰익스피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사랑과 로맨스에 관한 말씀이니 로미오와 줄리엣을 언급할 것임을 여러분은 쉽사리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덜 정숙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결말은 빛나간 무지의 결과로서, 보다 더 사태를 잘 알아야 할 두 가문의 슬프고도 비통한, 일종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렐로와 테스테모나의 이야기에서는 슬픔과 파멸이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아니 아마도 모든 문학 작품에 나오는 악당들 가운데서 제가 이라고 만큼이나 엄청나게 혐오하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제게는 좋게 들리지 않는데, 적어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의 악행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오렐로의 비극적이고도 거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민성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모로나이서 7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곳에서 악을 찾았으며 가상의 악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악한 인물들은 “진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테스테모나에 관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정절에 흠칠을 하고 친절을 이용해서 그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모두를 잡아들여야지”(William Shakespeare, Othello, 2막, 3장, 366~378줄) 의심과 악의에 찬 암시를 심어 놓고, 질투하고 속임수를 부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일 듯한 분노에까지 이른 이야기는 오렐로를 화나게 하여 테스테모나의 생명을 앗아가게 함으로써, 정절에 흠칠을 하고 친절을 악용하여 치명적인 그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이건 상상이건 간에 충실하지 못한 것, 또는 살인에 관해 말하고 있는 이 아침에 여기 행복의 계곡에서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정신 속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훈을 배우도록 합시다. 서로의,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을 생각하십시오. 선한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의심하십시오. 에이브러햄 링컨이 “우리 본성에 깃든 보다 선량한 천사”(첫 번째 취임 연설, 1861년 3월 4일)라고 말했던 것을 자신에게 권장하십시오. 오렐로는 그가 테스테모나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순결이 명백해지는 마지막 순간에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입김. 정의의 사도가 이 냄새를 맡는다면, 칼을 부러뜨리고 싶을 것을”(제5막, 제2장, 16~17줄) 만일 오렐로가 그 순간에 정의의 겁이라고 여겼던 것을, 그녀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러뜨렸다면 아내의 목숨을 구하고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행을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였다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선지자들은 참된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고린도전서 13:7) 견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고, 믿고, 소망하고, 견디셨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애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최선의 능력을 다해 이같은 일을 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견디시고 강해지십시오. 소망과 신앙을 지니십시오. 인생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견디어야 합니다. 어떤 실망들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지니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생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때때로 그런 일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올 때, 그것들을 견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끝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들이 잘 풀릴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참된 사랑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에 서로 돕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시련을 혼자 맞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부담을 덜어 주고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우리 편에 있을 경우 어떠한 일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있는 제 친구 브렌드 발로우 교수는 몇 년 전에 배의 최대 선적 용량을 알리는 플림술 마크에 관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 플림술은 젊었을 때 영국에서 배에 화물을 내리고 싶은 광경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는 곧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가능한 공간에 관계없이 각 배는 나름대로의 최대 선적 용량이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배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바다에 가라앉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1868년에 플림술은 의회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양을

산출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상품 선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는 각 선체마다 어떤 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물이 적재됨에 따라, 화물선은 점점 더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면이 플림슬 마크에 이르게 되면, 더 실을 수 있는 공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배는 최대 용량만큼 적재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인들이 바다에서 죽는 비율은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시기에 그들의 생애에서 각자 다른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플림슬 마크를 세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그 표시를 찾으려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실려 있는 짐의 무게를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연인이나 아내가 가라앉고 있다면 짐을 줄이거나 적어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배가 안정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일, 다른 시기까지 연기할 일, 그리고 영구히 연기되어야 할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배우자들은 서로의 스트레스를 지켜보고 또 삶의 변화의 과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 용량을 말해 주고 그러다가 정서적 건강과 사랑하는 관계의 힘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도움을 주어 일부 짐을 내던지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수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같이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과 바울은 자신들의 마지막 간증에서 “사랑(순수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모로나아서 7:46; 고린도전서 13:8)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은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맑을 때나 흐릴 때나 견디며, 암울한 슬픔을 헤치고 광명으로 나아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방법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물론 데이트와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의 힘은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어떤 힘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사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랑, 곧 우리 각자가 동경하고 매달리는 사랑은 “참되게 따르는 자”에게 “내려주소”는 물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데이트와 로맨스에서, 결혼 생활과 영원한 세상에서 능력과 안전과 보호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순수하고, 단호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낭만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트와 제자됨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보다 좋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인을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길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는 그 방법은 “결코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이해의 결합



말린 케이 켄센 장로

칠십인 정원회

Ensign, 1994년 10월호,
46~51쪽

제 부름에 따르는 많은 봉사의 기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집행하는 특권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가장 성스러운 서약을 맺으려 하는 건전하고 열망에 찬 젊은이들을 앞에 놓고 아름다운 인봉실에 있을 때마다 저는 저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그들의 생애에서 그 일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한 경우마다 거의 26년 전의 제 결혼식 날과 제가 아내에 대해 가졌던 강한 사랑의 느낌을 자주 회상해 봅니다. 저는 또한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높은 기대도 기억합니다. 케시와 저는 다른 사람들도 가졌던 그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구 문명의 로맨스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반자 관계를 함께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상은 짧고도 수수했던 신혼 기간이 끝난 직후에 현실 세계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케시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곧 조그만 환멸감, 즉 결혼 생활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 있었던 한 작은 예가 우리가 직면했던 난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살면서 저는 법과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케시는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시, 각자의 학교, 그리고 상대방 등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시간 즈음에 우리는 언쟁을 벌였는데, 그 때 저는 이제는 집에서 밥

언어 먹기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평범한 아파트를 떠나 한 구역 떨어져 있는, 패스트 푸드를 파는 가까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건물의 북쪽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무척이나 놀랍게도 케시가 남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반대 방향의 계산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계속해서 무시하며 식당의 정반대 방향에 각자 따로 자리를 잡고는 말도 안 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을 떠나서 서로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화해를 하고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서로 웃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 초기에는 그러한 작은 언쟁이 흔하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흔히 인식되지 않는 잠재력, 즉 영원한 결혼에 존재하는 성취와 행복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자주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조직 이후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선택적이었습니다. 13년 전에 결혼했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1839년 필라델피아에서 선지자로부터 영원한 결혼의 개념에 관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반응은 성전에서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기대하면서 성장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프랫 장로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그 개념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조셉]에게서 영원한 가족 조직, 그리고 오직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소중함을 아는 관계, 그리고 행복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관계로, 형언할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성들간의 영원한 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다.

“그 때까지는 혈족간의 애정과 동정이라는 것을 오로지 이 필멸의 세상에만 국한된 것으로, 그리고 천국의 상태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단절시켜야 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배웠었다.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도록 해 주는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도 바로 조셉으로부터이다. 우리가 이 애정을 가꾸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토록 증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결합의 결과가 하늘의 별만큼이나 또는 해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후손들이 될 것이라고 배운 것도 그에게서였다.

“전에도 나는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를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천박한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들어올려 마치 태양과도 같이 넓게 펼쳐 주는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시며, 내 사랑하는 아내는 불멸의 영원한 동반자며, 위안자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서 내게 주어진 친절한 구원의 친사임을 느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었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79년, 297~298쪽*)

모든 후기 성도 출판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갖게 되는 성취와 행복의 잠재력에 관해 이보다 더 아름답거나 강력한 말씀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동반자 관계에 대한 그러한 기회는 결국 그것에 대해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영으로 또 이해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후기 성도들이야말로 참다운 로맨틱한 사랑에 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속되는 결혼 생활을 달성할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에 담긴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백성이라는 것과 대가족으로서만 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뛰어난 결혼 생활로 잘 알려지는 때가 온다면 기억될 만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구애를 하고 또 결국에는 행복하고, 성취하며, 영속되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영원한 복음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 진리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복음의 계획에서 맡고 있는 중심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고도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면, 사실상 주님의 흔들림 없는 제자가 되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발전시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는 필요성보다는 사랑을 주는 우리의 능력에 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알려 줍니다. 구주에 관해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1서 4:19)라고 적었습니다.

참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 받을 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저수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동반자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보다 커질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우리의 능력을 관찰해 볼 수 있는 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텅 빈 선반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줄 식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빈 지갑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145쪽)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조그마한 사랑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노스가 배웠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살릴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결혼 생활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는 회개, 배움, 신앙을 가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잠재력에 관한 비전을 가질 때 오는, 보호를 발전시키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태복음 22:34~40 참조) 영원히 우리의 동반자에게 순수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덕은 덕을 사랑함

큰 사랑을 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매우 자연스럽고 놀라운 결과가 다음 구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지는 예지와 결합하며, 지혜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진리는 진리를 안으며,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며”(교리와 성약 88:40)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정신으로 영원한 결혼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최소한 우리와 영적으로 같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예지와 빛과 결합하며,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진리를 품는 것처럼 그것을 품으며, 우리가 덕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랑할 동반자를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조그마한
사랑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함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동반자와 영원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영혼을 가장 크게 만족시키는 경험이자 진정으로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선하고 발전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히 같은 가치관과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최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한 젊은 부부를 인봉하면서 저는 이 원리에 대한 강력한 예를 목격했습니다. 인봉 의식을 집행하고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포옹을 한 후에, 저는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느낌과 주님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순결하려고 소망해 왔고 또 자신의 가치관과 의로운 소원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기 원했었는지를 짧게 전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망했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남편이 지니고 있음을 증거하며 남편의 선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또한 누가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되든지 간에 그녀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열네 살때부터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 자신의 각오를 다졌는지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기도로 이같은 아내를 만날 수 있음에 큰 기쁨을 표시하였으며 참으로 특별한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의 높은 소망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관계입니다.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영생에 대해 동등하게 준비된 사람과 영원한 결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덕은 덕을 사랑합니다. 진리는 진리를 품습니다.

걱정을 다스림

로맨틱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씨앗은 구애 기간 동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엘마가 아들 시블론에게 준 시대를 초월한 권고에 담겨진 진리와 이해의 수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걱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엘마서 38:12)

여러분 가운데서 말과 안장, 재갈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엘마가 아들에게 그의 열정을 뿌리째 뽑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열정을 제어하거나 통로를 만들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애 기간 동안에 이러한 통제는 그들이 결혼으로 합당하게 결실을 맺을 때까지 육체적 관계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도 제약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져 있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8:38)라고 복음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기 성도들은 로맨틱한 사랑의 표현에서 세상이 너그럽게 인정하고 장려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결혼 관계에서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류에게 떠맡겨진 가장 커다란 속임수는 육체적인 만족이 마치 로맨틱한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과거 시대의 모든 세대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 동일한 착각의 반복일 뿐이다. 육체적인 만족이 사랑에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사랑 그 자체의 강력한 힘은 아니라는 점을 배울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이다.”(Eternal Lov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73, 15쪽)

이로운 부부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들의 영적 및 육체적 관계의 적절한 조화가 그들의 영원한 결합의 굳건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 우선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짐을 회복된 복음이 밝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생에서 보람 있는 결혼 관계 그리고 효과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결혼에 관한 선지자들의 영감 받은 권고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다면, 우리는 생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선지자들은, 기회를 지닌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결혼을 행하고 또 영원한 가족 단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력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가 그와 다르게 행하게 하려고 애쓸 것이며, 또 유혹의 음성은 세상적인 성취와 연음에 관해 우리에게 속삭일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돌아오려면 커다란 노력을 해야만 하는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해 주는 커다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법과 대학원 1학년으로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는 처음으로 교사로 부임하여 힘들어 하던 결혼 초기에 아내와 저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나가고

들어오며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서로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눈에 띄게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교회 부름을 수행하고 공부를 따라가고 학습 준비를 하느라 일요일조차도 짐스러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저녁 함께 의견을 나누고는, 결혼 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포함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보다 강한 결혼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헌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느낌이 즉시 좋아지고 또 제 성적과 교사로서의 케시의 일을 포함하여 다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26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많은 선택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함으로써 그것들을 풀어 나가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완전함은 점진적임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교리와 성약 93:13)

구주의 완전함이 점진적으로 왔음을 인식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완전한 두 사람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대담하게 “내가 요즘 잘하고 있어?”하고 매우 위험한 질문을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그럼요, 그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대답에 저는 으쓱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비 동반자가 갖기를 바라는 완전한 성품들의 목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구애를 할 때는 시작 단계에 있을 것이며,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신

영원한 결혼 관계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또다른 복음 원리는 다음 성구에 묘사된 것처럼 우리 동반자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22)

분명하게 이것은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혼할 때 건강 문제, 재정적 실패, 또는 범법 등의 측면에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될지 모릅니다.

영원한 결혼에서 다른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주는 것은 온전한 여정을 위해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를 잃은 한 형제를 방문했는데, 그는 잘생기고 건장한 아들이 둘러싸고 있는 아내의 관 곁에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분과 그의 아내는 53년 간을 함께 살아왔는데, 마지막 6년 동안은 아내가 말기 신장 질환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24시간 동안 아내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내에게 보여 주셨던 큰 사랑과 간호에 대해 극구 칭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라고 여쭙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53년 전에 성전의 제단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신부에게 성약을 맺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 일이 쉬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는 그 성약을 지키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결혼에서 하나님과 각 당사자 사이에 맺었던 성약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그저 간단하게 끝난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개인적인 약점들이 드러날 때, 그 치료 방법은 회개하고, 향상하고, 사과하는 것이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와 성약을 맺을 때, 그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힘 닿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친절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가 그 질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복음 진리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관계에 구주를 관여시키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대로, 결혼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성약 관계, 그 다음에는 서로와의 성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이 부부 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께 더 근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또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이 주는 감미로운 영향을 개인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실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쉬웠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케시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교사가 구주에 관한 니파이의 감동적인 설명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니파이전서 19:9)

저는 “사랑의 친절”이 자애 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혼 관계에서 절대적인 요소로서, 낭만적인 사랑이 그것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 꽃을 피울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친절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탁월한 결혼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며, 그것은 거의 모든 결혼 관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제가 택한 주제의 표면만을 고작 건드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회생과 용서, 선택의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실마리를 드렸을 뿐으로, 이 모든 것들은 성공적인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그 곳에 자리를 정하신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우리] 머리에 결봉된 대로 각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 곧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2:19) 영광을 누리게 해 주는 교리와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드렸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원한 결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니파이후서 32:5)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영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깊어질 것이며,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할 행복과 만족을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 또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누렸던 결혼 생활의 질이 어떠하였는지 간에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에 건강한 결혼 생활과 돈독한 유대 관계에 놓인, 영적으로 강한 가족이 포함된다면, 놓여져 있는 토대 위에 더 쌓고, 나아가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산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이 더욱 풍성한 유산을 받게 하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보통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겠다고 결코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의 어린 자녀 한 명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입맞춤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내와 제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또 서로에게 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손자녀들이 알기 바랍니다.

영원한 결혼은 신성한 결혼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그 시간의 지속성 만큼이나 결혼 생활의 훌륭한 질을 묘사합니다.

영원을 위한 결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영원히 인봉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영원한 증진

제일회장단 - 히버 제이 그랜트, 앤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찰즈 더블류 니블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한 속성을 물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상의 어린 아이가 자라 아버지와 어머니같은 성인이 되는 것처럼, 하늘 부모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도 측량할 수 없는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을 통해 하나님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Clark,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5:244)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끝없는 증진, 곧 영원한 증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자와 여자가 의로움과 충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하고 높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해의 왕국의 지체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준비를 통해 그들에게는 영적인 자녀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은 그 존재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본질에 의해 생성됩니다. 피가 그 존재의 혈관을 흐를 때, 그 생성된 것은 피가 만드는 것, 곧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물질, 곧 피보다도 더욱 정제되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물질이 혈관을 흐를 때, 그것은 영적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것들이 부모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안에 항상 존재했던 영원하고 신성한 어떤 성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Melvin J. Ballard—Crusader for Righteousness, 211쪽)

브리스 알 맥콩키 장로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승영을 얻은 필멸의 인간은 가족 단위로 영원히 살면서 영적 자녀를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2:19~32 참조) 참으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교회의 공식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진 영원한 진보의 단계와 성취에 관한 한 우리는 오직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자들만이 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Man: His Origin and Destiny, 129쪽)”(Mormon Doctrine, 517쪽)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브리검 영 회장

우리는 하나님의 왕과 제사가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가족의 왕과 입법자가 된다면, 그리고 제게 많은 아들이 있다면, 저는 많은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많은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 아들이 계속해서 많은 아들을 갖게 됨으로써 세대를 통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많은 아버지들의 아버지 내지는 많은 왕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합당한 남자가 왕자, 왕, 주인 또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만이 우리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아버지들의 아버지 내지는 왕자들의 왕자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왕국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195쪽)

“결혼 관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거니와 이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에 관한 몇 가지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지를 지닌 인간이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되도록 우주를 위해, 천사들을 위해, 신들을 위해 기초를 놓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구원의 거룩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주는 끈입니다. 그 연륜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195쪽)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영원히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결봉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쪽)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

“만일 의로운 남자가 복음을 통해 그리고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는 최고의 의식을 통해 권세를 지니고 왕과 제사가 되어 승영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면, 그 곁에 있는 여자는(이들이 없다면 승영에 이를 수 없음) 왕후와 여제사가 될 것이다.(요한계시록 1:6; 5:10) 승영은 남자와 그 아내의 영원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들에 관해 주님은 ‘그 때에 저들은 … 신이 될 것’(교리와 성약 132:20)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그들 각자, 곧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일 것이다. 신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Mormon Doctrine, 613쪽)

“엘리아를 통해 회복된 인봉의 열쇠에 의해,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집행되는 결혼은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고 불린다. 거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 필멸의 생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결혼 생활 동안 이 신권의 반차에 있는 조항들과 조건들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도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지속된다.

“만일 가족 단위가 지속된다면, 그 때에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은사인 영생(승영)을 얻게 된다. 이는, 그 정의에 따르면, 승영은 가족 단위의 영원한 지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생을 상속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 가족의 구성원, 자신의 부름과 택함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며,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아 그분들의 우편에서 하나님이 된다.(교리와 성약 132편: 구원의 교리 제2권, 52~88쪽)”(Mormon Doctrine, 117쪽)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로렌조 스노우 회장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은 뒤에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만일 한 젊은 남녀가 결혼할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면, 다른 남녀들이 이러한 기회를 받아 그것을 향상시켜서 얻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Teachings of Lorenzo Snow, 138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만일 여러분이 독신이고 해의 왕국의 결혼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하십시오. 장막의 이편이나 저편에서 주어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표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생활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1쪽)

결혼과 이혼



스펜서 터블류 김블 회장

교회 회장

1976년 올해의 말씀에서,
142~155쪽

시온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와 악행, 성적인 부도덕과 그것이 지닌 추악한 많은 접근에 관해 경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루시퍼가 서서히 접근하는 과정의 하나로 복장과 행동에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고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것들을 소홀히 한 분들께는 다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를 비롯하여 젊은 남녀들이 때때로 빠져 드는 왜곡된 행동들의 함정에 관해 젊은이들에게 경고하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한 합당성의 울타리를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들에게 용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완전한 회개의 길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간의 결혼이 갖는 많은 위험성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경고해 왔으며 제가 지닌 온 힘을 다해 교회 밖에서 결혼할 때, 오는 슬픔과 환멸, 그리고 믿음을 지닌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결혼 후에 그리고 가족이 생길 때 공고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에는 자연적으로 불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이유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공통된 배경, 공통된 이상과 표준, 공통된 신앙과 소망과 목적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결혼은 의로운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맺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가족 생활에 대해서도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목이 집중될 만한 것도 아니지만, 묵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모든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 생활은 우리 존재의 근간입니다.

결혼의 행복과 불행

이혼이라는 추악한 악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께서는 거의 모르고 계셨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흔하지 않았던 이 암적인 상황이 우리 시대에 너무도 흔하게 되어 거의 모든 가족이 이 파멸적인 책동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행복한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생의 좌절과 생각의 왜곡을 통해 신앙을 파괴하는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예롭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임에 틀림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나 부주의하게 그것에 포함된 진지한 의미를 회피하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풀이로 결혼하거나 재산을 위해 결혼하거나 실연에 대한 반발로 결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뼈뿔어진 것입니까!

결혼은 아마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그것이 직접적인 행복뿐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련된 두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 여러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 없이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설사 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 가운데 현세와 영원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만큼은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참된 결혼은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진지한 사고에 의해 강화된 마음과 가슴이야말로 결혼 생활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이 나타내듯 그것은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음 숫자는 [1976년 이전에]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832쌍이 결혼을 했으며 414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 숫자의 반에 해당합니다. 364쌍이 성전 결혼을 했으며, 그 성전 결혼 가운데서 약 10퍼센트만이 이혼으로 헤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그나마 평균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성전 결혼 후에 이혼한다는 점에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성전 결혼의 약 90퍼센트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러한 것이 절대적 필요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과 결혼할 것을 우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여전히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며 가정 파괴와 좌절에 찬 삶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가장 근접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의 불일치”라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혼과 재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너무도 많은 쇼와 소설과 너무도 많은 사회 스캔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혼 그 자체가 전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책으로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대의 심각한 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형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쉬울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생, 나눔, 그리고 커다란 비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텔레비전 방송극과 소설이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결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의 우리 모두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이혼을 보았기 때문에, 이혼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탈출이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혼 의식의 집행이 행복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전등처럼 단지 버튼만 누르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며 마음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대가 없이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편안하고, 화려하고, 항상 흥분되고 매력적인 생활로 생각하지만 참된 결혼 생활은 그것 이상의

행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고, 봉사하며, 나누고, 희생하고, 비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데서 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 온 두 사람은 결혼 의식이 끝나면 곧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환상이나 공상에 젖은 삶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환상의 구름 속에서 빠져 나와 현실의 땅에 발을 굳건히 디뎌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가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약점들을 결혼 후에 곧바로 알게 됩니다. 구애 기간에는 한결같이 크게 보였던 덕성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고, 아주 하찮게 보였던 약점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 때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평가하며, 올바른 상식과 이성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갖고 있던 습관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인색한 사람이거나 나비벽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거나 근면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신앙이 깊은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친절하고 협조적인 사람이거나, 조금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척 문제가 점차 표면화 되고 배우자와 그들의 관계가 다시 확대됩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지 않고, 결혼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은 생각도 종종 듭니다. 절약하느라 넉넉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며, 젊은이들은 종종 “최신 유행”을 너무도 따르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젊은 아내들은 성공한 아버지 슬하의 가정에서 누렸던 과거의 모든 사치들을 그들의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종종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여 그 넉넉한 삶을 위한 수입에 일조하기를 너무도 바랍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의무가 있는 가정을 떠나 직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일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재정 상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배우자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협조보다는 경쟁이 가족 안에 발생합니다. 피곤에 지친 두 근로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보다 커진 독립의 기회가 있다 보니 오해가 일어납니다. 작은 마찰이 피라미드를 쌓듯이 쌓여 기념탑처럼 커집니다. 빈번하게 배우자들은 죄스런 마음으로 새로운 연애나 과거의 연애로 돌아가 결국에는 피할 수 없게 보이는 단절이

이혼과 함께, 마음의 고통과 함께, 괴로움과 함께, 환멸감과 함께 항상 상처를 남기며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고, 사이가 나쁘거나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긴 하지만,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며, 사람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좋은 환희와 큰 기쁨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든 부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짝”은 허구이며 환상입니다. 모든 젊은 남자와 여자는 부지런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호흡이 잘 맞고 아름다운 짝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두 사람이 기꺼이 그 값을 치르지만 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확실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식이 그러하듯, 주요한 요소가 빠지거나, 줄어들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애 이전의 선택만큼이나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애가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의 성공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합리적인 표준을 기초로 하여 시작된 결혼 생활에서는 어느 배우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결혼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및 다른 상황들 역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만, 결혼 생활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 두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이 결심을 하고 비이기적이고 의롭기만 하다면 항상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관련 요소들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서로를 극대화시킵니다.

첫째로 결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게 중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전이라고 하는 정상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이른 배우자를 심사숙고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당사자는 성공적인 공동의 삶을 위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전의 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커다란 비이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잊고 낮추어 가족 생활과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족의 유익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속적인 구애와 애정 표현, 친절, 그리고 사랑을 살아

있게 하고 키우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의된 대로 주님의 계명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섞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할 때, 불행이 닥치거나 오해가 계속되거나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다른 분야로 그 일을 바꾸고 이혼 법정도 폐쇄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비이기심

결혼 제단으로 다가서는 두 사람은 그들이 바라는 결혼 생활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법적인 행위만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희생, 나눔, 나아가 어떤 개인적인 자유의 감소와 길고도 어려운 절약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들로 인한 재정적인 짐, 봉사의 짐, 돌보고 걱정하는 집인 동시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길고도 달콤한 정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 이전에 각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오가며,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연인들은 서약을 맺기 전에 작고 새로운 가족의 유익이 유익에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문자 그대로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나” 그리고 “나의”라는 말을 버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그 결정으로 인해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아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그 결정이 부모, 자녀, 가정,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직업 선택, 그의 사회 생활, 친구들, 그의 모든 관심사는 그가 단지 가족의 일부임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이혼은 결혼 서약에 대한 일방 또는 쌍방의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 편리함, 자유, 사치, 혹은 안락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 불행, 불만, 이기적인 배우자에 대해 끝도 없이 늘어놓는 불평은 결국 심각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정당성을 느낄 정도까지 벗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아내 또는 남편이 무시되고 학대 받고 또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 나머지 거들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한 배우자가 완전함과 황금률의 잣대로 자주 자신을 분석해 보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측정해 본다면, 그리고 각 배우자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차이점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기보다 그러한 분석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든 차이점들에서 자신을 고쳐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때에는 변화와 행복이라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구주의 비유를 기억해야 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덕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지닌 장점에 대해 과장하고 그것들을 배우자가 지닌 약점들과 대비시켜 저울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하고 내가 지닌 것의 십일조를 내고 있어”라고 말합니다.(누가복음 18:12 참조)

모든 마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이 있는 곳에서 각자는 원인 또는 그 원인의 일부가 자신에게서 비롯되지는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평탄하고 순조로울 수는 없지만 커다란 평화일 수는 있습니다. 부부가 빈곤하고, 병을 앓고, 실망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서 그 평화를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기심이 들어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비이기심을 지닌다면, 어려움과 문제들은 부부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단합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이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빈곤, 실패, 실망 등 이러한 것들이 부부를 서로 묶어 주었습니다. 변영이 파괴시킬 수 있는 관계를 역경은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 기초를 둔 결혼 생활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나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결혼한 사람은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허영심과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과시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주고받기 위해, 봉사를 주고받기 위해, 두 사람의 이익은 물론 자연히 오게 되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 될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혼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그들의 결혼을 끝내지는 않더라도, 결혼을 활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또 값싸게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배와 예배의 보좌에서 떨어져서 단지 가정에 함께 거하며, 식탁에 함께 앉고, 쉽게 나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함께 소유하는 정도의 낮은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이르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다시 아름답고, 달콤하고, 커질 수 있도록 그들의 구애를 다시 평가해 보고 새롭게 하며, 자신들의 애정을 표현하고, 친절함에 감사로

표하고, 자신들의 배려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랑은 꽃과 같으며, 신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육신에게 자주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곧 약하게 되어 죽을 것입니다. 영양분과 물이 없다면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 죽습니다. 또한 사랑도 마찬가지여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 칭찬, 감사의 표현, 그리고 비이기적인 배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먹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비이기성은 분명히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또다른 요인을 만듭니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편안함, 그리고 행복을 영원히 구한다면, 그 구에 관계에서 존재하고 또 결혼 관계에서 단단히 굳어진 사랑은 강력한 관계로 성장할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활기 없게 내버려두고 또 그들의 사랑을 오래된 빵처럼 차갑게 놓아 두거나, 흔해 빠진 농담이나 식은 국물처럼 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배려, 친절함, 사려 깊음, 관심, 애정 표현, 감사로 껴안음, 칭찬, 자부심, 동반자 정신, 신뢰, 신앙, 협력 관계, 동등함, 그리고 상호 의존 등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독신이면 결혼했건 간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의롭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순간적으로 위장된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항구적이고 완전한 행복은 오직 깨끗함과 함당함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깊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일정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은 저활동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양심이 다 타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그런 경우에 결혼 생활은 이미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찢림을 받은 양심은 생활을 거의 참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활동 상태, 특히 양당사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활동일 경우 결혼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종교적 차이는 모든 차이 중에서도 가장 큰 시련을 가져다주고 또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혼 제도의 신성함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의 풍습이 아닙니다. 함당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승영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고 함당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참되고 사려 깊고 명석한 후기 성도가 되겠다는 결심이, 그 길에 방해물들이 놓여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실수를 하는 순간 그 길에 장애물을 놓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길을 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삶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들의 삶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자신들의 기초적인 구조물인 복음에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면, 그들은 분명 위대한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주 기록한 성전에 가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손을 잡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정신적 및 신체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삶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킨다면, 그들의 온전한 생각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오직 한 사람, 그 동반자에게 모든 중심을 두게 되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행복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결혼 생활에는 다른 결합이 있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22]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남자와도 결합하지 말라.”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자주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결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들은 과거에 자녀들에게 갖고 있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조언과 권고를 얻기 위해,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가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일에서 결합은 남편과 아내와 해야 하며 모든 애정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은밀한 비밀로 그리고 사생활로 지켜야 합니다.

부부들은 양가 집안의 가정과 별도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자신들만의 가정을 즉시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은 매우 수수하고 소박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독립적인 거처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아내나 남편의 일가 친척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권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은 그들과의 관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마땅히 권고를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권고를 받은 후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결정과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통한 고려에 의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합한다는 것이 단지 같은 가정에 같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결합하며,

사랑은 꽃과 같으며,
신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 둘이 한 몸을 이룸은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의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6~17]

우리 자신의 기록도 우리를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록은 31,037건의 결혼 가운데서, 단지 14,169건의 결혼만이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6퍼센트입니다. 7,556명의 회원들이 교회 밖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를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4퍼센트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것은 약 9,000명 또는 30퍼센트가 명백하게 자신들과 그 후손에 대해 별 생각도 없이, 그들에게 영생의 열쇠를 주는 성전 밖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및 성전 밖에서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조사 결과는 일곱 명의 비회원 배우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온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손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침례 받지 않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일 뿐더러 그들의 자녀들과 나아가 때로는 다른 배우자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몇몇 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찬사를 드리며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형제는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거의 6,500건에 이르는 새로운 결혼에서 결국엔 두 당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족을 온전하게 결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동등하지 않은 명예를 좇아진다면 가족을 위한 주님의 프로그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성전 결혼을 위해 진지하고도 강한 결심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결심은 기쁨과 행복이 수반되는 영원한 결혼이라는 풍성한 약속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계획하신 길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몇가지 성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는 흰 돌 하나가 주어지니,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 있으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새 이름은 열쇠가 되는 말이니라.”[교리와 성약 130:11]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어떤 사람도(해의 왕국의 결혼에 관한) 이 성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곧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1~4]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교리와 성약 132:4]

정죄 받는다는 말은 발전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는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니, 그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니라. …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계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는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커질 수 없고 모든 영원에 걸쳐 승영함이 없이 구원 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 이후로는 신이 아니요, 다만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천사니라.”[교리와 성약 132:6, 16~17]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계시와 계명에 의해, 나의 말에 의하여 받았고 자기의 승영에 들어가 자기 보좌에 앉았느니라.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 너희는 나의 율법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2:29, 32]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해 주님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며, 우리는 이 중요한 일들에 관해 그분과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적이거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옳고 참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이 올바르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이 올바르게 확인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합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혼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 안에서 조그만 위기가 있거나 조그만 말다툼이 있자마자,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변호사에게 달려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조정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계속되게 하고 달콤하고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결혼 이전이나 결혼 이후에 어떤 결정에 직면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드리며, 이 교회가 참되고 신성하다는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70~73쪽

손녀의 결혼식

열흘 전에 저는 이 곳 태버내클의 동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두 명의 아름다운 쌍둥이 자매가 그들이 택한 청년들에게 각기 인봉되는 두 의식을 집행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날 저녁에 합동 피로연이 열렸는데 그 곳에는 많은 친구들이 사랑을 전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결혼식에서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자매들도 그런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아버지들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조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저의 손녀딸들이었으며, 이 늙은 할아버지도 감정이 격하여 말을 못하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쁜 행사였고 우리가 꿈꾸고 간구해 왔던 것이 성취된 것인데 말입니다. 아마 사랑스런 신부들과 멋진 신랑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통해서 그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

결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 및 인류의 존속을 위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지혜로 마련하신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로서 태초부터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3~24)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의 계시에서도 주님은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자도 여자 없이는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 받을 수 없고 승영에 이를 수도 없으며, 어떤 여자도 혼자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온전함과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은 태초에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녀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유대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짝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13, 118쪽)

고대 경전과 현대 경전을 읽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혼의 성스러움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과 고결하고 만족스런 감정을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결혼 생활에서 찾게 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야말로 온 세상의 남녀들이 간구하고 소망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신 형제 및 자매

얼마 전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뉴욕 매거진이라는 잡지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159명의 외로운 남녀들이 배우자를 찾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들 중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듯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치있고 빈틈없게 묘사된 그들의 광고에서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으려는 강한 열망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 중 결혼하기를 갈망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 특히 독신 자매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약속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회의 관례에 따라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갈 특권을 쥐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훨씬 덜 갑니다. 과거에 교회 회장님들은 청년들에게 강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행복

결혼은 일반적으로 자녀와 가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아기를 낳은 젊은 어머니가 출산의 신성함과 기이함과 그런 모든 기적에 대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바라보는 젊은 아버지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켈빈 로이드 존스가 쓴 데저렛 뉴스의 칼럼을 오려 두었는데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며, 드라이브-인 극장 안에서 입을 맞추는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이 영원히 지지 않는 접시꽃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언제나 젊고 잘생긴 남편이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아내에게 심금을 울려 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접시꽃이 시들고 권태기가 찾아오고, 지볼해야 할 청구서들이 나타나면 이혼 법정이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

“완전한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속았다고 불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Big Rock Candy Mountains”, *Deseret News*, 1973년 6월 12일, A4쪽)

고통은 과정의 일부임

어느 가정이든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는 반드시 육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는 많은 긴장과 다툼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계속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기에는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병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고도 일어납니다. 우리 중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가족들과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그래 왔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다툼 후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마음은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거역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

압살롬은 다윗의 총애를 받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름 하나를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분노와 야망과 슬픔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였으며 아버지를 거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악한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왕위를 노렸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는 바람에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고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은 왕을 배반한 이 반역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며, 결국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왕에게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그 아들이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반역했을지라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하였더라 ...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 부르되”(사무엘하 18:33; 19:4)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반항적인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슬픔과 비탄이 끊일 날이 없었으나, 그들이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도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정은 그들에게 손을 뻗어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아들이 자신이 상속 받을 몫을 요구해 상속 받고 나서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커다란 채찍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가족이 슬픔을 겪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이면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비극은 이혼입니다. 이혼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World Almanac(세계 연감)*의 최근호를 보면 미국에서 1990년 3월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결혼한 부부 수는 2,423,007쌍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1,177,000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91* [New York: World Almanac, 1990], 834쪽 참조)

미국에서 결혼하는 부부 중 거의 반이 이혼하게 된 셈입니다.

이것은 단지 통계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 무관심, 가난 및 갈등 등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이혼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외롭고, 좌절에 빠지며, 불안하고, 불행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홀로된 부모들이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자녀들이 부족한 살림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하는 어머니와 생활하며 결혼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열쇠를 지니고 다니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음식도 변변치 않은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유일한 친구인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스스로 초래한 환경으로 인해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며, 그 중 많은 숫자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중 많은 수가 직업을 갖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관심과 악습과 좌절로 자신의 몸을 망친 채 사회의 부랑자가 되어 왔습니다. 뉴욕시의 문제를 다룬 타임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60퍼센트에 해당되는 60만 명 정도가 편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대도시와 세계의 대부분의 대도시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한다 해도 비슷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감옥을 지어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가정을 버려 어머니 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결혼 가정이 놀랄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이혼의 주요 원인임

왜 이렇게 결혼 가정이 많습니까?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게 충실하고 성실하겠다는 소망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간단한 대답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다루면서 얻은 제 경험에 따르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단지 로맨스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종종 가정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요인인 금전 문제의 근원이 되고, 간음의 근원이 되며, 이기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숙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파괴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기심은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기심은 파괴적인 탐욕을 나타내는 것이고 절제심을 파괴하는 것이며, 충성심을 말살하고 성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남녀 모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숫자가 집에서 귀하게 자라 버릇이 없으며 만사가 항상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은 즐거움의 연속이고, 그들의 행위가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홀어머니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며, 보호해 주고, 모범과 훈계로써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아버지가 필요함에도, 그런 아버지가 없는 자녀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비참한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약 2년 전에 태버넬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인 훌륭한 모임이었으며, 매리는 디 행크스 장로가 공개 토론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당시 5세부터 16세까지의 일곱 자녀를 거느린 매우 매력적이고 유순하게 생긴 이혼한 주부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 자매님이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느 날 저녁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는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섰을 때, 저희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분 전에 집을 나서면서 들었던 아이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무엇을 먹을 거예요? ‘오늘 밤에 포스터 종이 몇 장 있어야 되는데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집을 바라보니 각 방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오늘 밤에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너무 피곤하여 이에 맞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홀로 자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지요?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귀로는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 된다 내 딸아, 너는 지금 나에게 올 수 없어. 다시는 이 곳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갈 수 있단다.’”

세상에는 이 젊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성스러운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도움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자녀들이 마약과 범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이 처방약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혼을 통해서만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가운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즉 이제 돌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자신의 어깨에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률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갈 때 아름다운 것이며, 반면에 서로가 결점만을 들추어 내고 유덕함을 보지 못할 때에는 추하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에이 게스트는 언젠가 “가정이 강해지고 하나로 단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좋거나 나쁜 여러 경험들을 겪어야 합니다.” (“Home”, in *Collected Verse of Edgar A. Guest* [Chicago: Reilly and Lee Co., 1934], 12쪽)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과 화평과 규율과 정직과 관심 및 헌신을 통해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회원 가족이 수천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는 결혼의 엄숙함과 신성함 및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들은 눈감아 주고 용서해 주며, 잊어 주는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불만을 자제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을 내는 행위는 애정에 금이 가게 하고 사랑을 식게 하는 악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자기 수련이 필요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각자에게 타고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실들을 거스리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저항함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고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악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의와 화평과 진리의 적이 행하는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연단에서 전하지 못했으나 핑클리 회장은 이 부분을 대회 보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여러분은 이혼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혼의 간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오락물과 사악한 욕구와 비난 받을 행동으로 이끄는 외설물을 추방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귀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현세와 영원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위험과 영광을 통해 햇빛과 폭풍우를 거치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존중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을 맡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대하십시오. 그들의 후견인으로, 보호자로, 안내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구의 역할로서 그들과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족의 설계자이심

국가의 힘은 국민들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을 아버지와 어머니 및 자녀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진실한 아버지와 선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그리고 순종심과 큰 뜻을 지닌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이노스서 1:1) 양육되는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왜 성전에서 결혼하는가?



존 에이 윌소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297~301쪽

결혼, 그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일로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큰 보살핌 가운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사랑과, 말과 행동에 의한 존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 성약은 본질적으로 일상의 행복을 창조하고,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일 그런 일이 있게 됨으로써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비교하여 볼 때 부, 권세, 그리고 명예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행복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회는 성전에서 결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으로서 모든 예비 신랑 신부는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조건은 모든 사람이 이 특권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를 참된 후기 성도들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왜 성전에서 결혼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1. 그것은 주님의 소망이고 뜻입니다. 성전은 결혼이 집행되어야 하는 장소로 신성한 명령에 의해 존재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순종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결혼의 기초이지만 사랑 그 자체는 율법과 그에 따른 생활의 산물입니다. 참된 사랑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만족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참된 사랑은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는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외에도 삶은 문제들이 가득하므로 결혼한 부부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한결같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안전과 위안의 느낌이 성전에서 결혼한 모든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신성한 도움, 축복, 그리고 보호를 주장할 특별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순응할 때 인생에서 항상 행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의해 올바르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2. 그것은 결혼 성약의 신성한 본질과의 조화입니다. 성전 결혼은 결혼의 본질 및 중요성과 더욱 큰 조화를 이룹니다. 그 결혼은 아름다운 인봉실에서 집행되는데, 이 방은 특별히 그런 목적을 위해 헌납된 공간입니다. 의식 자체는 단순하고,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며, 정숙과 질서가 그 곳에 있습니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외부 장식도 없습니다. 온 정신을 신성한 성약과 그에 따르는 축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그러한 것들은 영원이라는 광대한 기간 동안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결혼 의식의 의미에 집중함으로써, 화려한 사교적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결혼이나 있는 외부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약에 정신을 집중하여 결혼을 행하고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추억이 되어, 성전 밖에서 행하는 결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한 광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감미롭습니다. 이처럼 성전 결혼은 그 단순한 아름다움과 심오함 속에서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성전 의식 후에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피로연을 가질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할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3. 성전 결혼은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전 결혼이 일반적으로 가장 행복합니다. 성전의 제단 위에서 인봉된 부부들 가운데에는 비교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적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을 만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현대의 견해가 상당히 느슨해지고 있으나, 인생에 관해 고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시험 삼아 결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혼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을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 놓지 못합니다.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경솔한 결혼과 그 뒤에 따르는 이혼은 개인과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합니다. 사회 조직으로서의 가족의 고결성이 사라지고 또 가족 관계가 존중 받지 못할 때, 사회는 재앙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결혼 이전의 심사숙고, 그에 따르는 엄숙함, 그리고 그것을 인봉하고 축복하는 권세가 시대의 많은 악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줍니다. 성전 결혼은 결혼 상태에 대한 권리로서 따라오는 행복을 보호하고 또 더럽혀지지 않게 합니다.

4. 성전 결혼은 현세 및 영원을 위한 남편과 아내의 교제를 허용해 줍니다. 성전 결혼과 다른

모든 결혼 사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오직 그 곳에서 결혼하는 남녀만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서도 그들은 사랑하는 동반자 관계 속에서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은사는 이생 이후의 삶이 활동적이고, 유용하며, 발전적이라는 후기 성도의 믿음에 부합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랑은 부서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지상 생활 동안에만 지속되는 결혼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그 가족을 양육하면서 갖게 된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 풍요롭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영원히 서로에게 인봉된 사람들에게, 사랑은 항상 따뜻하고, 보다 희망적이며, 믿음과 용기를 주고 또 두려움을 없애 줍니다. 그러들은 보다 풍성하게, 보다 기쁘게 생활합니다. 그들에게 행복과 행복 만들기는 끝이 없는 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을 바라보는 것은 우울하고, 음침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일입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영원한 결혼의 은사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5. 성전 결혼은 자녀 및 가족 관계를 영원히 존속시켜 줍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 성약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현세 및 영원을 통해 그들 부모에게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상에서의 가족 관계가 영원히, 그리고 이 곳과 다음 세상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다음 세상까지 지속된 가족은 영원한 생활에서 하나의 단위 조직이 됩니다. 기나긴 영원 속에서 우리는 외로운 방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따라올 사람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끝없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영원히 지니는 것에 대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진리에 충실해 왔고 또 신권의 인봉 권세에 순응하여 왔다면 어떠한 슬픔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결혼은 끝없는 기쁨의 약속이 됩니다.

6. 성전 결혼은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인류를 악의 길로 몰아넣기 위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일을 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가족 안에서 작은 일들이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조성하는 것이 의의 원수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성전 결혼이 갖는 가장 훌륭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인봉된 사람들은 그들의 시야를 영원에

**참된 사랑은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고정시킴이 됩니다. 그들은 약속된 축복을 박탈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족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이 영원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성약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성전 결혼은 유혹에 맞서는 억제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기대 속에서 모든 가족의 행동이 좀더 다듬어지게 됩니다. 성전 의식에 대한 기억의 영향 아래에서 가족이 갖고 있는 차이점들이 평화롭게 흡수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또한 두려움이 용기로 변합니다. 악이 꾸밈을 당하고 내쫓기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영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서 발산됩니다.

7. 성전 결혼은 끝없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의 계시는 영원한 동반자 관계로 인봉된 사람들의 고귀한 운명에 대해 밝혀 줍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권세를 보다 크게 사용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위치에 좀더 신속하게 도달할 것이며, 모든 신성한 권세 속에서 좀더 빨리 증식할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좀더 근접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좀더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죽음 이후의 삶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낮추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발전이 없다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모든 의미와 함께 영원한 결혼은 끝없는 진보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증진”은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8. 성전 결혼은 가족을 신권의 권세의 보호 아래 둡니다. 성전 결혼을 달성한 사람들은 거룩한 신권의 권세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지고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과 빛을 줍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인간의 삶은 여기에 신성한 권세가 수반되고 또 그것에 의해 축복 받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경험과 모험으로 탈바꿈합니다. 신성한 권능 아래서 생활하고, 그것을 지니며,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는 남자와 여자는 신성한 보호에 의해 주위에 올타리를 두르고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 땅의 궁극적인 정복자가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지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들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들을 지킨다면 그들 모두에게 영적인 권세가 동반하게 됩니다.

9. 성전 결혼은 인류에게 하나님과 같은 운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할지니라—하는 말을 듣게 되면, ...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교리와 성약 132:19, 20; The Improvement Era, 17:1064; 30:1098; 34:704; 39:214; 41:136, 220, 268, 330; 43:586 참조)

결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16~19쪽

선지자 야곱은 백성들이 “정도를 지나쳐 눈이 어두워진지라” (야곱서 4:14)라는 말로, 그들이 평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분명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아 헤매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달 동안 그 말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의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결혼

그 말은 바로 결혼입니다.

나는 정교하게 조각한 상자를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은 다음 그것을 조심스럽게 벗겨, 경건하게 결혼이라는 글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므로, 다른 평범한 말을 사용해 설명하겠습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권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껏해야 다소 필요한 것으로, 더러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거추장스러운 제도라고 확신시키려 드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가짜 결혼

현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 생활과 연관되는 모든 의무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관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해도, 그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파멸하게 되며 미덕, 자존심, 인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은 일단 잃게 되면, 쉽사리 되찾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냉정하게 그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결혼을 조롱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냈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을 즉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있지도 않을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날, 그들은 실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즉 *소년, 소녀, 남성, 여성,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기, 자녀, 가족, 가정*과 같은 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의 품격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비이기심이나 희생과 같은 말을 내던져 버리게 되면 자존심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 그 자체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유혹을 받아 왔거나 현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 상태를 계속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즉시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다

문제가 많은 결혼 생활이라도 두 사람이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훌륭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참으로 큰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볍게 지나쳐질 수 없을 것이며, 사물의 영원한 계획에서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 생활을 위협하거나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느끼는 어떤 환멸이나,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어떤 행위에 대한 합리화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중대한 범 죄는 어린이들에게도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천진스런 자녀들을 회생시켜 가며 자신의 만족만을 채우려 드는 불행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 곧 생명을 낳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결혼 생활 안에서만 합당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가족이 태어나는 보금자리입니다. 결혼 생활의 가치 기준이 낮은 사회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호세아 8:7)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관심이 쏠리게 된다

혹자는 결혼 생활을 불행과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희망과 꿈은 끝내 슬픈 파멸로 이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오고 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곧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아무도 그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는 그릇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 건의 자동차 사고 기사는 신문 제 일면에 게재되어도, 안전하게 통행하는 수백만 대의 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작가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에는 극적인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책이나 연극 혹은 영화에서 인기를 끌려면 갈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만 듣게 됨으로써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간 생활의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을 지닌다

나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시기 중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므로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갖고 있는 문제가 결혼 생활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혼의 쓰라림을 직접 겪지 않았다 해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청산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약을 지켰는데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도덕적이며 성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쪽에서는 결혼 생활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양쪽 다 잘못이 있다 해도, 나는 결혼 생활을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무죄한 자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니와,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망으로 인해 속을 태우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또는 합당치 못한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은 계속 간직하십시오.

몇 해 전에 내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떼자 그는 희망을 잃은 채 고통 속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가 죽으면 곧 재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으니 여생을 혼자서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아왔는데도, 당신이 혼자 지내겠다는 걸 보면 제가 내조를 잘못된 모양이군요.”

결국 적당한 시기에 다시 재혼하여 그들의 생활은 결혼 생활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사랑한 첫번째 아내의 자신이 계속 지킬 수 없었던 자리를 대신 매워 준 두 번째 부인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시험

결혼 생활은 안정감과 훌륭한 충족감과 즐거움과 사랑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합당한 것과 육체적, 감정적 및 정신적인 모든 것이 결혼 생활 속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미덕과 힘을 길러 줍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얻는 힘은 남자와 여자를 승영에 이르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라는 보금자리 속에서 인생이 시작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사랑의 표현은 반드시 희생이 수반된 깊은 사랑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신혼 여행을 즐기는 신혼 부부, 어린 아기를 낳아 기르는 모 등 모든 인생 과정에서 그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런 뒤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 둘씩 각자의 가정을 꾸려 나갈 때, 결혼 생활의 황금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러한 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결혼 생활, 영원한 증진

교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생활의 또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로운 하늘의 진리는 결혼 생활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성약을 맺을 수 있고, 우리가 합당하다면 인봉될 수 있기에, 죽음의 장막 저 너머에서도 결혼 생활은 안전하고 조금도 흠없이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가족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시는 인간의 영원한 진보 과정에서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길이 있으니,
 그것은 불을 붙여 줄
 성스러운 생명의 불길이라.
 그 불길이 잘못 붙여지면
 슬픔과 절망의 구름으로
 질식하게 되고
 합당하게 사용되면
 생명을, 가족을, 행복을
 가져오는 힘이 되리.
 암흑 속에서 나온 유혹자가
 악하고 무질서한 행위로
 이 힘을 악용하려 드네.
 심판과 보상의 때가 이르면,
 한때는 생명을 가졌으나
 이제는 죽어 사라진 능력에 대하여
 쓰디쓴 눈물을 흘리리라.
 이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바로 그 열쇠임을 나는 알고 있네.
 그것은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네.
 결혼 생활은 고된 시련의 장소,
 그 속에서 생의 요소가 결합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육신이 잉태되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육신을 갖고 태어나
 선택하고, 시험 받게 되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이라네.
 이 지상에서 우리는 선택의 주인공이 되네.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이 놓여 있네.
 의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장막을 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
 하나님이 내려 주신 계획으로
 평범한 인간에게
 권능, 즉 하늘의 권능이 주어지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생명이 있는 아이, 생명이 있는 인간,
 인간의 형상, 신의 형상이 창조되네.
 이 성스런 은사를 대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진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리!

영원한 사랑, 영원한 결혼 생활, 영원한 증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이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사려깊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상은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도 남자와 여자를 결혼 성약보다 더 높이 승영시킬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나 교회내에서의 어떠한 일도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능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인봉 권능으로 우리가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스러운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을 통한 결혼 생활

우리는 변함없는 우정과 신임과
고결성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고
돌봄으로써 결혼 생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브리검 영 회장

“첫번째 부활 곧 해의 영광의 부활의 축복에 이르는 자들은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남녀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서 있는 천사들과 같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충실함을 통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남편이 아내를 불만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죄의 결과와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Future State of Existence”, Contributor, 1890년 5월호, 241쪽)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2~14쪽

나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어느 부인과 상담한 일이 있는데, 그녀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부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거리에서 그 부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랫동안 외로움과 낙담 가운데서 보낸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뒤에, 그 부인은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인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혼이란 나쁜 것이예요.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아시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어요. 이혼은 훨씬 더 나쁜 것이예요.”

이혼

통계상으로 볼 때, 미국에서 100명의 기혼 부부 중 50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혼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세계 연감, 1976) 현재와 같은 증가 일로의 이혼율이 감소하지 않는 한, 1980년대 초에 이르면 결혼한 부부 100명당 70명이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인간의 삶을 망치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혼하는 당사자들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이혼으로 겪는 충격적인 경험은 별로 이해되지도 충분히 알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큰 비극을 겪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삶을 보낸 사람들을 우리는 좀더 큰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의 행복이 덧없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혼으로 인한 가슴을 에이는 고통이 오랫동안 자국을 남기며 무죄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큰 행복과 큰 희망으로 첫 출발하는 결혼 생활에 어떤 요소가 빠졌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오랫동안 취급해 온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니, 이혼이니, 가정 파탄이니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사랑하는 아내인 듯 자매 덕택에 참된 행복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한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한 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기심, 미숙함, 약속 불이행, 의사 소통의 문제, 불충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들과 얽혀 있는 또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혼 생활이 때로 고되고, 힘들고, 지루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 생활을 소중하고, 특별하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브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리”(창세기 2:23)

우리는 변함없는 우정과 신임과 고결성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고 돌봄으로써 결혼 생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한몸”이 되기 위해 솔직하게 아래와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는가?

둘째, 나는 배우자에게 한 약속을, 어느 약속보다도 충실하게 지키는가?

셋째, 배우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가?

넷째, 나는 배우자를 훌륭한 인간으로 존중하는가?

다섯째, 우리는 돈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가? 돈 그 자체는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이기심의 상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섯째, 우리 사이에는 영적으로 성결케 하는 유대가 있는가? 나는 김볼 회장님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저서에서 “두 배우자 중 둘 다 또는 어느 한 쪽이 갖고 있는 힘을 제외하고서는,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결혼과 이혼, 데저렛 출판사, 17쪽)라고 하신 훌륭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 드립니다.

기도

결혼 관계는 훌륭한 의사 소통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많은 의견 차이가 해소될 것입니다. 나는 의견 차이를 강조할 생각은 없으나, 그것은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더 달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짓는다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어루만져 주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지만, 매일 “사랑합니다” 라든가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등의 말을 해 주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도 훌륭한 의사 소통이 됩니다.

신뢰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상호간의 신뢰를 파괴시키는 것에는 불충실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간음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가증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그대로 지속되며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받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용서해 줄 만한 큰 사랑과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잘못을 범한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려자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면에서만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충실해야 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녀 교제나 질투심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악의 비슷한 모양까지도 피해야 합니다.

정절

정절이란 흔들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 중에는, 남성과 여성을 진실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면에서 함께 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헨리 5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키시느니라”(헨리 5세, 5:2) 하나님만이 결혼 생활을 가장 잘 지켜 주십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겉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분의 동반과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닻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성스러운 요소가 하나씩 없어질 때 종종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누리게 되는 축복과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십일조

나는 거의 20여 년 동안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일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훌륭한 보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영적인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발전기가 계속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랑의 화음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것보다 훌륭한 음악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음악은 두 사람의 음성이 합쳐서 하나의 영적인 솔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상호간의 존경과 성숙과 예의와 약속과 정직을 토대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보다 수천 배나 더 큰 것입니다.

부모가 됨

부부가 부모가 될 때 결혼 생활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영적인 성장 과정도 더욱 강화됩니다. 부모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성장하여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딸은 성장하여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써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지상의 모든 성소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 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인 모든 결혼 생활과 가정에,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어 모두 풍성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힝클리 부부의 결혼 60주년에 즈음하여

델 반 오텐

Church News, 1997년 4월 19일, 3쪽

힝클리 회장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몇 가지 필수 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을 의미합니다. 노여움과 말을 자제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권고한다.

“여러분은 매사에 밝은 쪽을 보아야 하며 낙천적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그 존경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목소리를 낮추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평정을 잃지 마십시오. 조용히 말하십시오.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서로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힝클리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혼 생활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행복과 편안함을 첫 번째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기심은 너무나도 많은 결혼 생활에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와 다툼을 야기시킵니다.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결혼 생활]은 상당한 자기 수양을 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늘 로맨스만은 아닙니다. 결혼은 일이고, 노력입니다. 서로를 수용해야 합니다. 서로를 보살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능과 자원과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힝클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개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차이점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매우 유익하고 고무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씀했다.

힝클리 회장은 남편과 아내에게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했다. “부채는 끔찍한 것입니다.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은 빚이라는 것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빚을 지지 말고 청구서들을 즉시 지불하십시오.

“또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척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월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받았습니 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십일조를 냈습니 다. 그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무척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 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함께 노력하여 상황을 향상시켰습니 다.”

“우리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씀했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힝클리 회장은 힝클리 자매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 자매가 부모로서 했던 일을 지금은 할머니로서, 증조 할머니로서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전처럼 크지 않으며 약간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도 느려졌습니다.”라고 힝클리 자매는 덧붙인다.

“우리는 거동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씀했다.

힝클리 회장 부부와의 인터뷰

행복한 결혼을 위한 필수 사항

- 복음대로 생활한다.
- 서로 사랑하고 감사한다.
- 자기 훈련을 쌓는다.
- 노여움과 말을 자제한다.
- 사물의 밝은 면을 본다.
-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고 유지한다.
- 유순한 대답을 한다.
- 조용히 말한다.
-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
- 서로를 보살핀다.
- 배우자의 재능과 기회를 발전시킨다.
- 차이점을 인식한다.
- 십일조를 바치고 빚을 지지 않는다.
-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배우자 선택

‘개성과 취향이 자기와 똑같은 배우자’는
소설과 같은 허구요, 환상입니다. ... 선량한
남녀 두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

“명예롭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결혼은 현재의 행복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특히 그들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결혼으로 하나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6월호, 1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시기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쪽)

브르스 알 맥쿱기 장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어떤 회원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과 같다:

1. 합당한 권능으로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결혼한다;
2. 이 거룩하고 완전한 결혼의 반차와 관련하여 맺는 성약을 지킨다.”(*Mormon Doctrine*, 118쪽)

배경 요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생을 함께 보낼 사람의 성격, 유산 그리고 훈련 받은 것에 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Gospel Ideals*, 459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배경이 다를 때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위험은 크게 증가됩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02쪽)

“나는 젊은이들에게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 오는 많은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온 힘을 다해 교회 밖에서 결혼할 때 오는 슬픔과 환멸을 피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불가피하게 오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도록 경고해 왔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에게 시간과 능력과 기금에 관해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가족을 강화하는 영적인 유대의 깊이와 적절치 않은 배우자 선택에 따라 자연적으로 오는 적대감, 이러한 이유와 다른 많은 이유로 인해 교회 내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남편과 아내가 공통적인 배경과 이상과 표준, 공통적인 믿음과 소망과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전에서의 결혼을 통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우리는 사람들이 ...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여건이 비슷하며(이상의 여건은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것을 권장합니다.”(“Marriage and Divorce”, 142~144쪽)

합당한 사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이 선택하는 배우자를 맞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자를 존경하십시오. 배우자를 격려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하는 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하늘 아래에서 영원을 위해 결혼이 집행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반려자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인생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고는 만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시기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 반려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존중할 수 있고, 항상 존경할 수 있는 반려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사람, 온 마음과 사랑과 헌신과 충실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

“... 저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

“영원의 세계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사랑하는 반려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직관과 기도의 인도를 통해 내릴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쪽)

브르스 알 맥쿱기 장로

“합당한 사람이란 자연스럽고 유익하고 정상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생활하고 그 곳에서 성약을 맺는 사람입니다.”(Conference Report, 1955년 9~10월호, 13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아름다운 얼굴이나 매력적인 용모보다 영원한 결혼의 기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기나 권위보다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구할 때는 행복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속성을 계발시키는 사람, 즉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려 깊고, 남을 용서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 받는 가족을 갖기를 소망하고, 가정 안에서 진리의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결의를 한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예비 신부의 우선적인 필수 요건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들에게 뛰어난 아내요

어머니가 되라고 주신 신성한 자질들, 곧 인내, 친절, 자녀에 대한 사랑, 전문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소망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비 신랑 역시 자신의 신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신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광스런 선교 사업은 그러한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생활의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남자를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속성들을 완벽하게 가진 자를 추구하되 이것들을 계속 계발시키고 있는 많은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며, 찾는다 해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때 가장 잘 계발됩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9쪽)

외모와 내적인 아름다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쉽고, 수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세상에는 그들의 감각을 기쁘게 하고 열정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찾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오직 외모에 의해서만 만족을 느끼고 외모만이 이들의 주의를 끕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나면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피상적인 것’이며 외적인 동경이 소녀들이 소유한 모든 것일 때 그들이 바라는 동경은 아름다움보다도 더 피상적인 것이 됩니다.

...

“그러나 모든 소녀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햇빛처럼 빛나고 생명처럼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남성이 사랑하는 아름다움이며, 모든 남자의 영혼을 사로잡는 덕성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은 피부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남자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순결이 없는 피부의 아름다움은 오직 눈에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참된 여성의 틀 안에 간직되어 있는 순결은 영원토록 참된 사랑을 지닐 것입니다.”(Gospel Ideals, 450쪽)

영원한 동반자를
구할 때는 행복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속성을 계발시키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독신 자매들에게 주는 권고

윌포드 우드럽 회장

“시온의 딸들이 젊은이들로부터 결혼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멋진 벽돌 집을 갖고 있는가, 멋진 한 쌍의 말과 마차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는 후기 성도인가?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자격을 갖추게 하는 영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마차나 집 같은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와 함께 결합하십시오.”(*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271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결코 이 거룩한 목표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결혼하십시오. 성전 결혼은 승영을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딸이 모두 이 영원한 축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합당하게 성전으로 데려갈 수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분의 행복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곳이 여러분이 결혼할 장소라는 결심을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의 로맨스가 발전될 때까지 이러한 결정을 미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도록 명령 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매력 있게 가꾸며, 높은 표준과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이성 관계는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합당한 사람과 만나고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십시오.

그렇지만, 또한 배우자의 선택에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의 신체적인 용모와 은행 계좌에 너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중요한 자질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는 여러분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며,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며 신권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활동적입니까?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며 충실한 남편과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자질입니다.

“나는 또한 독신 자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이 되어 결혼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학업을 마치거나 어떤 일을 추구할 때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독신 자매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현재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신 자매들이 비록 학위나 직장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에서 영예롭게 합당한 형제와 결혼을 하고 의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현모양처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선 순위를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109~110쪽)

독신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육에 관해 또 자신의 직업에 관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할 방안을 마련하시지 않고 계명을 주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니파이전서 3:7 참조)

“또한 우리 시대의 정말 큰 전염병인 물질주의, 즉 독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을 획득하고, 빠른 템포의 생활을 하고, 직업상의 성공을 확보하는 사고 방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명예로운 결혼이 부와 직위와 지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함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그의 왕국에서의 여러분의 봉사가 강화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유별나고 까다롭게 되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강한 간증을 갖는 것과,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과,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 신권 책임을 수행할 때 남편을 지지하는 그런 자질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녀가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어야 하지만 영원한 동반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단지 데이트의 즐거움만을 위해 상대를 자주 바꾸며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자로서 알맞은가 하는 것에 관한 한 가지 좋은 기준은 그녀가 있을 때 자신이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가장 좋은 행동을 하도록 고취되는가,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하고 바라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 순위가 올바르게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밤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우선 순위를 제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너무 오랫동안 결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주도해야 할 특권과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조한 만큼 여성들에게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솔하게 데이트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할 수 있는 훌륭한 배우자를 찾아 결정을 하십시오.”(“탐내지 말라” 성도의 벗, 1991년 2월호, 8쪽)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의 역할

브르스 알 맥쿱기 장로

“선택의지와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지상 생활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시험 받게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이곳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기도로서 주님과 상의하고 우리의 결정에 대해 영적인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주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이유”,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어떤 계시가 자신의 구체적인 책임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며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젊은 여성에게 그녀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된 계시라면 그녀가 알고 할 때 직접 그녀에게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여성이 귀기울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여성은 스스로 인도를 간구하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녀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합당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여성은 그의 청지기 직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이 외견상 뚜렷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생활에 정말로 큰 차이를 가져오고, 우리가 성령에 일치하여 생활하고 그의 인도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를 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40~41쪽)

“주님에 의해 인도 받으려는 욕구는 장점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을 위해 많은 결정 사항을 남겨 놓으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경험하도록 정해진 성장을 위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떠맡기고 모든 선택에서 계시를 간구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인도를 구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선택할 사항이 사소한 것이거나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 내부에 주신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인도를 간구하고 만일 응답을 받게 되면, 인도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최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려고 선정하지 않으신 주제에 대해 계시적인 인도를 고집하여 구하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환상이나 편견에서 답을 만들어내거나, 거짓 계시의 매체를 통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성스러운 실체이지만 그것은 다른 성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장점이 쓸모 없는 약점이 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5월호, 15쪽)

합당한 사람을 찾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결혼 생활이 어렵고, 결혼 생활에 불협화음과 좌절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참으로 영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다 큰 환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모든 사람, 모든 부부가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개성과 취향이 자기와 똑같은 배우자’는 소설과 같은 허구요, 환상입니다. 모든 젊은 남자와 여자는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함께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남녀 두 사람이 모두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면, 거의 대부분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성도의 벗, 1978년 6월호, 3쪽)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

“그러나, 우리가 전세에서 부모와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전적으로 입증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주장되었으며 어떤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믿기에는 상당한 상상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러한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기로 결정한 곳에서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지는 부모와 후손을 선택하는 데까지 행사되지는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Way to Perfection, 44쪽)

선교 사업이나, 결혼이나?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일부 젊은 여성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강력한 권유를 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젊은 여성에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있을 경우 선교 사업이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공보, 1993년, 2호, 2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제 선교 사업에 관해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청년뿐 아니라 청년도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젊은 자매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훌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가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손녀 두 명도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독님 및 부모님과 상의해서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름장을 받기 전까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결정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일회장님과 심이사도 평의회 모두 한결같이 청년들에게는 선교 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과 같은 정도로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몹시 하고 싶어하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부모님 및 감독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관되면, 감독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선교 사업은 필수적인 신권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년들은 그 큰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선교 사업을 고려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자매 선교사의 수를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 연령 기준을 계속 높여 왔습니다. 다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존경 받을 것이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될 것이며, 주님과 교회에 여러분의 노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로부터 왜 자매 선교사들의 연령 기준이 장로들과 동일하지 않느냐고 묻는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실망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소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여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봉사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선교 사업은 자매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권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할지를 몰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문제를 판단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2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선교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여러분의 사회 진출이나 결혼을 지연시킨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모든 후기 성도 젊은이들은 선교사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66쪽)

적절한 시기에 결정함

해럴드 비 리 회장

“저는 젊은 남성들에게 너무 일찍 결혼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너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일들로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자립하기 위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여성을 찾아야 하며,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결점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사귀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선교부 회장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이 귀환해서 6개월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코 그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6개월 이내에 아내 될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결혼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후기 성도가 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능에 의해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형제 여러분, 결혼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적령기에 있을 때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혼의 책임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은 사람만이 해의 왕국의 승영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호, 120쪽; *Ensign*, 1974년, 100쪽)

제일회장단 - 에스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전임 선교사들이 귀환하게 되면 그들은 학업이나 직업을 계속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내고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일에 관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귀환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결혼에 관한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한 후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선교부 회장 지침서*(35311), 1990년, 23쪽] 공보, 1993년 2호, 2쪽)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78년 5월호,
31~38쪽

최근에 나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인해, 가족으로 인해, 후일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음의 회복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된 수많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내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토론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나요?” 즉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1937년 10월 13일, 오전11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을 내 영원한 동반자로 맞았을 때였소.” “그 시험에는 합격했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후기 성도가 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능에 의해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지자 엘리야가 회복하신 권세와 권능으로 인봉된 후에, 모든 후기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맺은 성약대로 생활하여 현세뿐 아니라 영원히 결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언은 잘 인도되지만 하면 모든 면, 적어도 모든 중요한 활동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영원한 결혼 문제에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즉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 그에게도 같은 권세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도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여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감각과 판단력과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의 영을 구하며 계시와 영감의 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합법적인 의식 집행자는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성신의 은사란 충실하게 생활할 때 신회의 구성원인 성신의 끊임 없는 동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명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감의 영 즉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의지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과정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전세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펴보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모든 가르침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그 율법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 행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고 그의 면전을 떠나 그분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권고가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연구로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규정지어져야 할 실질적이고 건전한 결론을 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서 찾곤 합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사례 연구 1: 올리버 카우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선지자의 일을 도운 서기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동안 그는 선지자가 번역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물론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음) 그 당시 카우드리 형제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역량 이상의 것을 해보고 싶어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졸라댔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고대의 것이며 나의 영의 나타냄으로 이야기된 내 경전의 그 부분이 들어 있는 새겨진 옛 기록, 즉 고대 기록에 관한 지식을 내가 받게 되리라 믿으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한 지식을 네 하나님이요 네 구속주인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확실히, 참으로 그와 같이 분명히 너는 받게 될 것이니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일과 이와 비슷한 상황에 해당되는 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1~3)

올리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법한 것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것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번역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는, 표면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실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신앙을 보이고,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구했으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혀 번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와 그는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주님께 여쭙어 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는 왜 그가 번역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교리와 성약 9:7)

신앙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구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지 행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선택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란 물론경 번역일 수도 있고, 아내를 택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직업 선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수많은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져 그른 것을 잊어버리게 되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네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스러운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8~9)

여러분은 어떻게 아내를 택합니까? 브리검 영 대학교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나는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영감을 느껴야 합니다. 계시를 받아야지요. 금식하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지를 보여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한 번도 주님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를 간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 여쭙어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가서 내가 원하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맞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평가하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100%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완전하게 행했다면 주님께 상의해야 했을 터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주님께 기도으로써 내가 내린 결정과 관련된 지침과 인도를 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좀더

완전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도 주님께 상의해야 했을 테고, 내가 나의 선택의지와 능력으로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얻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내게 청함이 어쩡이나?”

사례 연구 2: 고대 기록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단지 야렛의 형제이라고만 불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그의 이름이 모리엔쿠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야렛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으로부터 약속된 미래로 오기 시작할 때 그는 그들 민족에 필요한 지시와 영적인 인도를 주님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건너야 할 바다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은 배를 짓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렛의 형제는 과거에 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계시가 없어도 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좀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주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그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러이러하게 하면 공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된 야렛의 형제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배 안에 빛이 없나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와 같습니다. “왜 나에게 구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신 다음 질문의 요점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삼키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5) 다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모리엔쿠머야, 이것은 네 문제이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너에게 선택의지를 주었고 너는 행할 능력을 부여 받았다. 나가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라.”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셀렘이라 하는 산에 올라 가서,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내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이더서 3:1)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렛의 형제는 열여섯 개의 작고 투명한 돌을(전부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시여 이러이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지 않고 다만 영감을 받아 스스로의 판단력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주님께 그것에 대해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리엔쿠머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리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이더서 3:4)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가 구하는 대로 행하셨으며, 야렛의 형제가 주님의 손가락을 본 것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때까지의 어느 선지자가 받았던 계시보다 더욱 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 때까지 밝혀졌던 것보다 더 많이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밝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모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스스로 행했고 주님께 상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의지와 영감 사이에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주님으로부터의 응답 즉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진리와 지식을 더 얻게 됩니다.

“저들은 나와 의논하여야 할지니”

사례 연구 3: 교회사 초기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미주리 주의 특정한 곳으로 모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이리”는 이 명령은 특히 “감리 감독은 나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 관하여 말한 대로 이 땅은 그와 또 그가 자기 보좌로 임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요, 또한 나의 창고를 관리하도록 내가 임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니라.

“그러즉 그들은 그들과 나 사이에서 상의하는 대로 자기 가족을 이 땅으로 데려올지니라.”(교리와 성약 58:24~25)

주님께서 시온으로 “모이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모이는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이도록 명령 받은 자들의 선택의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맡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과 의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의논할 때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 문제도 무엇에 대해 의논할 때는 아이들을 불러 의논을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해야 할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네 생각은 어떠한? 너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겠니?”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저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 저도 지혜와 판단이 서게 되면, 제 의견을 말해 줍니다. 주님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완전한 율법으로 통치하고 제어하며 지시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해 주시지만 그에 대해 그분과 의논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를 교회 감리 감독에게 말씀하신 후,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는 원리를 주셨으며, 이 원리는 모든 상황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계시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58:26~29)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많은 후기 성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어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법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가 채택하여 사용해야 할 운영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후에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려 그분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지금 살펴본 것이 세 가지 사례 연구였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마라 하는 힘세고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힐라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모범을 따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마는 힐라맨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참으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네 모든 도움을 구하라.”(엘마서 37:35~36) 만일 여러분이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기도로써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사막 한 가운데나 높은 산 꼭대기로 나아가 온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밭에 나가 곡식을 뿌리고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네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엘마서 37:36) 다음 구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엘마서 37:37)

올리버 카우드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였 … 도다. …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9:7~8)

여러분은 아내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옳고 바른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여러분의 선택의지와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그 문제에 집중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린 다음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신에게서만 올 수 있는 고요하고 따뜻한 확신이 마음에 느껴지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그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교회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엘마서 37:37)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택의지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노력하며, 올바르게 건전한 결론에 도달한 후 하나님과 의논하여

여러분이 내린 결론에 대해 재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것이며, 또한 영생이라는 위대한 상을 받고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다른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한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언젠가 조지 워싱턴 탄생일인 월요일에 저는 뒤뜰에 나가 통나무를 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제게 몇 가지 지시를 하시고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통나무를 켜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조금 있다가 동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뒤뜰에 나가서 형을 좀 도와 주고 형이 제대로 잘하는지 살펴보려구나.”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르스는 아무래도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재 처한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지닌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제 삶에 적용시키지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처하건 복음은 저를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 생에서 저를 기쁨있게 하고 성결케 하며 또 향상시키어 마침내 내세에서 영광과 영예와 존귀를 주게 될 축복들이 제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을 지니고 있음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선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라. 너희는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엘마서 5:45)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사례 연구로 준 것이고 계시를 인용한 것이며, 그 후에 그는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만일 성신에게서만 올 수
있는 고요하고 따뜻한
확신이 마음에 느껴지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마칠 때 우리가 한 말이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며, 사업의 신성과 진실성은 물론 우리가 반포하는 교리와 우리가 설명하는 영원한 진리가 옳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이라는 간증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과 이 교리에 대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은 그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상하고 있는 사업이 진실한 것이며, 주님의 영향력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는 것에 비교할 만한 진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 간증의 영,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에 있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셉 스미스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이사도에게 알리실 것을 제외하고는 조셉에게 아무 것도 밝혀 주시지 않았습디다. 아무리 미미한 성도라 할지라도 조셉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쪽)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방법과 절차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의논한 다음,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성령의 재가를 얻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재가가 곧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의지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겸손하고 영에 따름으로써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굽히고, 그분의 재가 곧 승인을 확인하시는 인을 받고, 계시의 영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우리가 그와 같이 할진대, 결과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란 이 생에서의 화평이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인 것입니다.

성숙함

개인적인 행위가 유일하고 참된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2년 간의 생활은 젊은이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나갈 때는 소년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어른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숙한 모습으로 떠나지만 올 때는 성숙하고 강하고, 품위 있고,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일꾼이 되어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 복학하여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이는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목적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또 새로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590~591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는 모두 훈련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의 한 부분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8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얼마 전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특별한 친구인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와 십대의 딸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서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를 함께하고 보니, 모든 대화의 통로가 편견과 위협과 비난과 반감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 곧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한 언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듣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상담역, 판사, 중재인, 혹은 이런 말을 써도 좋다면 심판으로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동의했지만, 저는 제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들어 줄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대립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그 십대 소녀는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저를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더 이상 저의 생활을 지배하실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그녀가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흠칫했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의 정의를 보면 완전히 성장한 성숙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성인의 위치는 행동과 태도에 의해 획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임을 선언할 권리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선언을 할 자격이 가장 부족한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일 때가 흔히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숙해 있다면 그것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행위가 유일하고 참된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행동에 관해서는 성인 여부를 분류하는 것은 연령, 주름살, 흰머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의 행위를 과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빗나가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행위는 극기, 탄력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됩니다.

비록 저는 그녀가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라고 하는 말에서 그다지 좋은 느낌을 받지 않았으나, 공평하게 말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동안 그녀가 실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우리가, 어떤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효과적이거나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나이 차이로써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는 것보다 합당한 부모로서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처럼 여러분도 자신이 성숙했다는 것을 발표하거나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업적에 의해, 여러분은 본연의 모습 그대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맺은 열매로써 알려지고 분류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표독한 논쟁과 성급하고 기분 나쁜 태도와 상대를 깎아 내리고 상처를 주는 비판과 무익한 반발과 불평과 무시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파괴시키는 사소한 악의와 반감과 보복적인 행동을 버리고, 선한 목자께서 몸소 나타내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말싸움을 피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성인의 생활이 정착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1~32)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진정한 성인이 되지 못한 채 이 생을 거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웃고 욕하는 성난 폭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고 보복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선언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성품을 지닌 합당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습니다. 이런 말을 써도 좋다면 그분의 성숙함은 저절로 나타났습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69~70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의 진정한 표시인 것 같이,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리는 것은 어느 때나 참 신앙과 신뢰의 표적이 됩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77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에 직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가 행복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38쪽)

매리온 디 헵크스 장로

“우리는 도덕적인 율법이 지배하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 대가는 나중에 치러야 합니다. 아니면 선을 택하고 그것을 얻기 전에 먼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 그것은 또한 정직과 책임, 성적인 순결, 성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바울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가 정직과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을 위한 비이기적인 관심에 대해 말했다고 믿습니다. … 참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된 성숙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호, 59~60쪽)

남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아버지라는 칭호는 신성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존중과 공경과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선된 가르침들

해롤드 비 리 회장

“모든 여성은 반려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이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적령기를 넘기면서, 가장 큰 소망인 남편과 가족과 가정을 갖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사랑스러운 여성들과의 결혼을 보류하는 것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호, 119~120쪽; *Ensign*, 1974년 1월호, 100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주님께서는 태초에 아버지가 자녀를 갖게 하고, 부양하며, 사랑하고 이끌도록 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자녀들을 서로 훈련하고 훈육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책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고안하시고 조직하신 위대한 삶의 계획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4월호, 151쪽; *Ensign*, 1973년 7월호, 15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1쪽)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책자

형제 여러분, 성공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의로움 가운데서 키우고 아내와 단합하고 가정에서 끊임없는 사랑과 조화를 이루려면 많은 노력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성공적이고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것처럼 중요한 과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필멸의 세상에 사는 동안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의 과정은 아버지가 될 때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실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표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 더 넓은 견해를 갖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그분 앞에서의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느낌을 갖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 여러분은 영의 자녀로 그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기뻐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실수를 범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행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러한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어 여러분이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그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청지기 직분과 책임은 자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법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에 계신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은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신성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존중과 공경과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감리하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경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인내로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아내와 더불어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형에 따라 이러한 일을 하고 끝까지 견딜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영원토록 영광이 더해질 것입니다. 의로운 가족은 영원한 단위입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의 신권 정원화와 다른 모든 조직은 아버지인 여러분과 아내와 가족이 이러한 영원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충만하고 번성케 하는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창조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고 그들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칠 기회와 책임을 위임 받았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의 중요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교훈과 모범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겸손하게 됩니다. 의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신의 동반을 위해 여러분은 자신을 순결케 하고 생활을 정돈하여 여러분의 모범과 지도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반영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하루를 계획하고, 다른 걱정거리가 이 첫째 되는 책임을 소홀히 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진지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선지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테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64년 4월호, 5쪽) “여러분이 하게 될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해롤드 비 리, *Strengthening the Home*, 1973년, 7쪽)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항상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쁜 가족은 여러분의 방법과 믿음, 마음, 생각 그리고 관심사를 배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은 자녀들 앞에 들어 보이는 가장 큰 빛이며 여러분은 그 빛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번은 한 젊은 아버지가 아내에게 약간 불친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3일 후에 이 아버지는 세 살 된 딸이 엄마에게 자신이 한 것과 똑같은 말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녀와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 와야 하지 않겠는가?”

합당한 아버지가 되는 의무, 부담, 책임은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아무런 권고와 도움도 없이 감리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반자이자 상담자이고 파트너이자 배필이고 친구인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매일 아내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녀와 더불어,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결하도록 노력합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하나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내는 여러분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끊임 없는 구애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규적으로 아내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그 때 그녀와의 동반 관계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확인하는 표현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입니까? 아내와 함께 의로운 지도력을 행사합니까? 결혼의 목표, 즉 사랑에 의해 결속되고 신권의 권세와 의식에 의해 하나가 된 영원한 단위의 탄생에 항상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행한 것과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미래에 여러분은 분명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 어떤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매일 가족 기도와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금식의 집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밤과 다른 시간에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쳤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배움을 격려하고, 질서와 순종과 희생을 가르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주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실체와 회복된 복음의 진실함을 나누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선지자를 따랐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이 자녀들이 보호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여러분과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따뜻함을 느꼈던 가정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의 물질적인 복지에 대해 어떤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직업은 영예롭고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의무와 일을 수행합니까?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검소와 절약을 실천하고 십일조를 바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함으로써 부채를 피합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확실치 않은 이유로 가정이 갑자기 이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통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 각자의 영원한 복지에 대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과 더불어 일하고 사랑하고 노력합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즉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의 도움과 권고와 격려와 더불어 여러분은 가정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과 임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에 그리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감리를 합니다. 가정의 밤을 감리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가 가르쳐지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의 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가장의 축복을 주십시오. 가족의 규칙과 기강을 정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지도자로서 단합되고 행복한 가족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희생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가족 중심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시련과 경험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영원을 위해 동반자와 인봉을 받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과 아내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은 자녀를 데려옵니다.

여러분은 가족 각자가 그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들의 물질적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은 의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자녀에게는 개별적으로 왕국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서 지상에서 아버지로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요약

1.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 실습을 하는 것이다.
2. 지상 생활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게 해 주는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4. 의로운 가정은 영원한 조직이다.
5. 여러분은 가정에서 감리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
6.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7. 여러분은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8. 여러분은 모범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9.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10.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을 구해야 한다.
11.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지하고 내조자와 상담자가 된다.
12. 여러분은 목적에 있어서 아내와 하나이다.
13. 여러분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인 복지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다.
14.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가족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 가. 의의 원리에 대한 온유함, 부드러움 및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꾸짖고 양육하고 축복한다.(교리와 성약 121편 참조)
 - 나. 가정에서 질서, 기도, 예배, 배움, 금식, 행복 및 주님의 영에 이바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뎌,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
 - 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2~54쪽; 소책자
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참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모인 이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동안 주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곳에 모여 있거나 교회 전역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도 장차 교회 내에서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부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름은 영원한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그 직분에서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부름은 중요하지만 바로 그 중요함의 본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부름을 받고 적절한 때에 해임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름은 영원한 것이며 그 중요성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현재와 영원을 위한 부름입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께서 다음과 같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가장)이 행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업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감독의 일, 기타 교회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가정을 강화함, 소책자, 1937년, 7쪽)

그렇다면 신성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가장의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제공함

첫째, 여러분은 가족에게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양해야 하는 역할과 의로운 후손을 길러 내야 하는 일에 관해 분명히 정의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회복된 교회 초기에 주님께서서는 남자들에게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832년 1월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부양할지이다. 그리하면 그는 결단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하리니.”(교리와 성약 75:28) 3개월 후에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데려감을 입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83:2) 이것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동안 남편은 이러한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건강한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직을 한 남편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남편에게 그는 계속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가 구한 일자리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과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필요에서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갖는 일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볼 회장의 권고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께서 결혼한 학생들에게 준 권고를 기억합니다. “나는 결혼을 한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재정적인 것들이 달성될 때까지 자녀 갖는 일을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해 왔습니다. … 그들은 정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부인들이 남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가족을 버려 두고 돈을 벌라고 한 경전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학비를 벌며 학업을 마쳤고 동시에 가족을 부양했습니다.”(“결혼은 영예로운 것”, 율해의 말씀, 1973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름은 영원한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그 직분에서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타,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 출판사, 1974년, 263쪽)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고, 돌보며, 의의 원리를 가르치며, 훈련시키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교회를 여행해 보면 대부분의 후기 성도 어머니들이 진지하게 이 권고에 따르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남편의 격려와 권유로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 일을 합니다. 부수입이 있을 때 편리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막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아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남편에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더욱 긴박해진 가족 예비 프로그램

아버지 여러분,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오래 전에 마련된 복지 원리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 년간의 식량, 의복, 연료 등을 비축해 두셨습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비축하라는 계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배에 탔던 것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복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저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일조를 내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 정직합니까? 이 신성한 율법에 따라 생활하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고 비상시를 위해 비축을 해야 할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함

둘째, 여러분은 가족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해야 할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발행한 소책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그래 왔으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의 권고와 격려를 받아 여러분은 가정을 다스립니다.”(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책자, 1973년, 4~5쪽)

그러나, 관리하는 일에는 중요한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조차, 가장이 된다는 것을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으로, 또한 가족에게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에베소서 5:23)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칠거나 불친절하게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무시하고 게으른 태도로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주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쓰거나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교화하고 고무하며 위로하고 높이 이끌어 주실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우리가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 본보기가 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문제를 아름답고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에베소서 5:25)

주님께서는 후일의 계시에서 이 책임에 관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내가 알기로 경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즉 직장이나 오락이나 취미도 아내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영원하고 값진 배필이요, 동반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말로써 학대하거나 침울한 행동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와 늘 가깝게

있고, 충실하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녀의 감정과 필요 사항에 민감한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아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아내의 복지와 자존심을 여러분의 생활보다 우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임과 가정의 여왕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며, 뛰어난 가정 주부요, 어머니, 즉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훈련하는 가장 고귀한 부름을 받은 여인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가족이 할 일을 계획하고, 활동하고 가족의 예산을 짤 때, 진정한 파트너로서 권고해 주는 아내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시간이나 돈에 있어 아내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지적, 정서적, 사교적,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사랑은 작은 표시로써 나타나고 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때에 꽃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기꺼이 도와 주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보아 주고, 저녁 준비를 할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는 것을 미뤄 놓고 가서 도와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용히 행위로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작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갖든 신권의 지도력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축복사로서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중요한 지도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모든 가족의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규칙과 기강을 세우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의 화평과 기쁨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가운데 아버지들, 특별히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들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의무는 가정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 언쟁이나 분쟁, 불의한 행동이 있다면 이러한 행복은

없어집니다. 기강을 세우고 훈육하고 사랑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의로운 아버지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자녀의 영적인 복지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열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1. 자녀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침례와 확인 안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에게 신권을 성임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자녀의 삶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2. 가족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몸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녀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 아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의 영적인 복지에 중요한 것입니다.
4. 자녀와 함께, 아빠와 딸이 하는 데이트, 아버지와 아들의 외출 등을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야영이나 소풍, 운동 경기나 연주회, 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아빠가 함께 하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5. 가족 휴가, 여행 및 야유회 등에 대한 전통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추억은 자녀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6. 정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일 대 일로 갖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참된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7.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합당한 목표를 정해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십시오. 선교 기금과 교육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자녀에게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8. 가정에서 좋은 음악, 미술, 문학에 관심을 갖게 하십시오. 예술과 아름다움의 정신이 있는 가정은 자녀의 삶을 영원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9.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성전 결혼과 성전 성약 그리고 영원한 가족 단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10.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이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왕국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름

오,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신성한 부름이자,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름, 곧 결코 해임되지 않을 부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와 나란히 발을 맞추어서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49~51쪽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이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신권은 지상에서 형제됨을 가장 훌륭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충실함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나 고문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많은 아론 신권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은 신성한 특권과 책임임

오늘 밤 저는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에게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들은 모두 머지 않아 결혼하여서 아버지가 될 연령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가 아내와 자녀들과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신권 소유자는 결혼을 성스러운 특권과 임무로 간주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짝이 없이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모세서 3:18 참조)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9:15~17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통해서만 그들은 영원한 축복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5~19 참조) 신권의 책임과 관련지어 볼 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필요하게 결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와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거룩하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께서는 이 생에서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렌스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은 뒤에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만일 한 젊은 남자가 결혼할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면, 다른 남녀들이 이러한 기회를 받아 향상시켜서 얻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로렌스 스노우의 가르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4년, 138쪽)

저는 스노우 회장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함을 보여 주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그의 아내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순결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22~26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아내보다 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배우자의 삶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며,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기타 다른 어떤 이해 관계나 사람이나 사물 등이 배우자를 우선할 수 없게 된다.”(용서가 낳는 기적 228쪽)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 외의 어떠한 성관계도 금하시며 그분의 교회도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의 부정은 그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는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야곱서 2:35 참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음화나 유희나 건전치 못한 상상들은 인간의 인격을

부식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로 인해 결혼 생활에서의 융화와 신뢰가 파괴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과 그의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

어머니 직분에 존경을 표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어머니 직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사람의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일이 계속되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32:63)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직분은 신성에 가깝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가장 성스럽고 높은 봉사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제일회장단 메시지, 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1975년, 6:178) 동반자 없이는 신권의 사명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신권 소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사에 대해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가진 유일하고 거룩한 역할과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자녀와 손자들을 이 지상에 빛과 진리 가운데 양육하라는 신성한 계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모세서 2:28; 교리와 성약 93:40 참조) 여러분은 사랑하는 반려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아내를 도우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시키는 일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은 정규적으로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정된 것으로 여깁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력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책임입니다. 가족은 현재와 영원을 두고 가장 중요한 단위이며, 따라서 세상의 어떤 관심사보다 우선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는 [인생의] 어떠한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제이 이 맥콜로의 글을 인용함, “가정, 문명의 구주”, 대회 보고, 1935년 4월, 116쪽) 또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해롤드 비 리, 거룩한 곳에 서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225쪽) 형제 여러분, 가족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의 아내에게만 맡기거나 사회, 학교, 심지어 교회에까지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가정과 가족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완전히 알고 그 결정에 완전히 참여하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와 가정에는 관리 역원이 있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1 참조) 하나님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모세서 4:22 참조) 주님은 아내가 남자를 위한 내조자(내조자라는 말에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반려자 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고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 그 문제를 알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 행해야 합니다. 남자가 아내의 조언과 느낌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것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압제적이거나 함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몸이 되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모세서 2:28; 3:24 참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5~31 참조)

온화함과 존경—결코 이기적이 아님—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각 배우자는 서로의 필요 사항과 소망에 대해 사려 깊고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압제적이고

무례하고 절제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학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며 심각하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는 사랑과 친절과 상호 화해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의 아내를 최상의 존경과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결혼 생활은 부드러운 꽃과 같은 것이며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계시에서 주어진 신권 통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교리와 성약 93:40; 121:34~36, 41~45 참조)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거나 서로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영을 지녔을 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대회 보고, 1950년 10월, 8쪽)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 받은 사람 가운데 자신의 아내나 자녀를 학대하고자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성적인 학대는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파문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은 오로지 의로운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십시오. 의로운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회적, 교육적, 영적인 활동과 책임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온유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은 신체 장애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도 그 책임의 짐을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라도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그들을 부양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3편; 디모데전서 5:8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남편이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아내에게 집 밖에 나가 일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남편]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막히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3쪽)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내내 집에 남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남성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교회에서의 입지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는 남성들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교회의 원리에 따른 의무 사항인 가족 부양금을 지불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성약과 의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질서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권과 성전 성약을 굳게 지키고 영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십시오.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침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 기도를 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교육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강조하십시오. 가정의 축복사로서, 가족들을 위해 적절한 의식을 행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신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구원 다음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서의 여러분의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기도로서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드린 것이 모두 참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형클리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9~51쪽

일주일 전에 이 태버나클에서 파우스트 회장님과 본부 청녀회 회장단이 교회 청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모인 아름다운 청녀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저들에게 어울리는 청남들을 육성하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생기발랄한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름답고, 영민하며, 유능하고, 충실하며, 유덕하고 진실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쾌활하며 훌륭한 젊은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이 거룩한 신권 총회에서 저는 그 청녀들의 상대가 되는 청남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의 주제는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결혼할 그 여성은 여러분에게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 젊은이로 말미암아 그녀의 남은 여생이 대체로 결정지어집니다. 심지어(서양에서는) 자신의 성을 포기하고 그 남자의 성을 따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3~2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로서, 여러분은 장차 결혼하게 될 그 여성에 대한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현재 그것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그리 멀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아내이며 주님 앞에 동등한 동반자를 맞이할 그 가장 귀중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충실하십시오

그 같은 의무감은 절대적인 충절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회의 전통적인 결혼 의식에 따르면, 여러분은 자신의 배우자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환난 중이나 행복한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서약을 맺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만의 배우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 또한 오직 그녀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여인에게 한눈 팔거나 다른 여인과 결혼했었다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한눈 팔지 않고 서로에게 절대적인 충절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신권의 권능 아래 영원히 그녀와 함께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생애 동안 언제나 서로에게 북극성과 같이 변함없는 진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순결한 젊은이가 되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결혼할 그 여성은 여러분이 온전히 순결한 상태에서 결혼 제단으로 나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고결한 젊은이하기를 기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청남 여러분에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음란한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외설물을 찾고자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기웃대지 마십시오. 추잡스런 외설을 듣고자 장거리 전화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외설을 담은 어떠한 비디오크도 빌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결코 외설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질병처럼 파괴적입니다. 습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에 탐닉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서 그것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독성을 가진 해약입니다.

외설물 제작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사용하여 감각적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것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는 청남 여러분에게 결코 그런 것들에 탐닉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런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그 여성은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이 추악한 것들에

더럽혀지지 않은 남편과 결혼하기에 합당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케케묵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가장 뛰어난 건강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1833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음식물에 대한 학술적인 사실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학술적인 연구가 깊어질수록, 지혜의 말씀의 원리들이 더욱 옳은 것으로 실증되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의 폐해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많아 넘쳐 날 지경인데도, 청소년들의 흡연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술의 폐해에 대한 증거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주유소에서 맥주를 판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맥주에 취할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단지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에 급유를 하는 곳에서 “취중에” 운전하게 하여 고속도로 상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맥주를 판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멀리하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마약을 멀리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철저히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처참하고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뜨려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여러분의 내면에 키워갈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면 마약에 빠지고, 술의 노예가 되고, 외설물에 중독된 젊은이와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신성 모독을 피하십시오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을 삼가십시오. 이러한 언행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주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부르고 욕설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저속하고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마치 자부심을 느끼는 듯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 탐닉했던 그 언어가 해로운 습관이 되어 평생토록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저속하고 더러운 욕설로 가득 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분노를 통제하는 것을 배움

또 다른 심각한 것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울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것처럼 나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가여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성을 완전히 잃고 나중에 더욱 크게 후회하게 될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운전 울화증(운전 중에 경험하는 좌절감이나 극단적인 분노의 상태)이라 일컬어지는 형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버럭 화를 내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후회가 따릅니다.

잠언의 저자가 말했듯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잠언 16:32)

만일 여러분이 쉽게 화를 낸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어려서 자주 화를 내면 낼수록,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너무나 쉽게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어떠한 회원도 것처럼 불필요하고 해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차분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했다가, 후에 이혼을 하고 성전 인봉의 취소를 신청하러 오는 교회 회원들의 경우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결혼할 때 행복에 겨워 온갖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꽃은 저속한 말과 무절제한 분노에서 뿜어 나오는 비평과 잔소리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시들고 맙니다. 분쟁이 자리 잡으면 사랑은 달아납니다.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신의 화를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언젠가 이를 가정에 눈물과 슬픔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물론경에서 야곱은 자신의 결혼에 충실하지 않고 죄를 범한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보다 더한 죄를 범하였고 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 저희들의 호느낌이 하나님께 우러러 너희를 고발하니, 너희를 치실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하심으로 많은 처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야곱서 2:35)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교육을 받고자 노력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훈련을 받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된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운데 아내가 집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녀는 두 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열쇠입니다. 주님께서는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교리와 성약 109:14) 배우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두뇌와 손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훈련될 때 여러분은 가족을 보다 잘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소한 사람이 되십시오

검소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혼 산림을 시작하는 데 감당하기 어려운 담보 대출을 얻어 큰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채권자의 노예가 되게 하는 빚보다 더 큰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빚을 내어 너무 비싼 집을 장만함으로써 밤낮으로 그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지혜로운 부친께서 이러한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알맞은 집을 장만하여 주택 용자를 갚아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한다면, 비록 경제 위기가 닥친다 해도 네 아내와 아이들이 언제나 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여성은 구두쇠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씹씹이가 헤론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이해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보다 큰 문제로 이끌 수 있는 적정거리를 유발시킬 오해와 의심을 낳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에서 결혼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걸으며, 가장 훌륭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사회에 보다 큰 기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교회 활동과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교회를 비롯한 여러 훌륭한 일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따라서, 청남을 비롯한 모든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에 나아가,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의 일부를 십일조로 바치며, 세상 어느 곳으로 보내지든지 이기심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훌륭한 선교사라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하리라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귀환할 것입니다. 그 같은 태도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한 곳에서만 결혼하겠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에게 영원한 결혼 인봉 성약의 안전한 날개 아래 이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의 결혼보다 더 거룩한 선물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외의 다른 어떠한 결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할 그 여성은 영원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굶을 때나 깎을 때나, 여러분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이의 필멸의 삶을 돌볼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 받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기가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족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버지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화목과 조화 가운데 살며, 자녀를 낳아

교육은 경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열쇠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방법에 따라 양육하도록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이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차지하며, 여러분의 꿈은 그러한 것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 여인에게 합당하게 되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서로 선하게 대하여 친절하십시오. ... 세상에는 너무도 비참한 것들이 많습니다. 분에 못 이겨 내뿜는 거친 표현이 빚어내는 고통과 슬픔도 너무나 많습니다. 불충실함의 결과로 빚어진 눈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반자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려는 간절한 열망과 기쁘게 해 주려는 노력이 함께 한다면 너무나도 큰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되고 행해진다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자 가르침입니다.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이란 기본적인 창조입니다. 나라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백성들의 가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서 장점을 찾고, 결점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가정에 보다 큰 행복이 깃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혼율이 훨씬 낮아지며, 부정이 훨씬 줄어들며, 분노와 악감정과 다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목과 행복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임

청남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장래를 위해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미래에 여러분과 영원하고도 영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면하게 될 의무보다 더 중대한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참된 성공의 지표는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를 자랑스러워 하고, 합당하며, 그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이 이 생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를 받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 선택은 여러분이 이 생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5~48쪽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온 많은 청남들을 보니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이 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어머니는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누구도 어머니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아들과 사위와 손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 부엌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맛있게 먹을 도넛을 잔뜩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매들과 딸들은 우리가 도넛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배우고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훌륭한 가족의 전통입니다.¹

우리는 합당하고 훌륭한 자매님들, 특히 우리의 어머니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젊은이의 죄는 그의 어머니를 욕되게 함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같은 과 친구가 우리 후기 성도 친구들에게 출혈이 심한 그의 어머니를 위해 수혈을 좀 해 달라고 다급하게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혈액형과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증 대상자 중 한 친구가 성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감염된 피는 바로 그 친구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살아났지만, 그 친구가 슬퍼하던 모습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도덕함으로 어머니께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우리가 어머니를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²

모성애를 공경함

의학 박사로서 전문 직종에 종사해 오면서, 저는 때때로 왜 그처럼 힘든 일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일은 어머니의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될 수 없었으므로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나마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돌보시듯 저도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자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일회장단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제게 오랫동안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직분은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봉사입니다. 그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에 버금가게 됩니다.”³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가족을 파멸시키고 여성의 가치를 손상시키려는 사탄은 그들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청남 여러분은 훌륭한 여성, 특히 여러분의 어머니와 몇 년 후에 맞이할 훌륭한 아내의 영향력 없이는 여러분의 훌륭한 잠재 능력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가 지지만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과 희망, 암시를 여러분이 존중해야 할 방향 제시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을 표하십시오,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며 애쓰시는 경우, 두 배는 더 효도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편지가 그녀의 자녀를 구함

어머니의 영향력은 전 생애에 특히 선교사로 봉사할 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프랭크 크로프트 장로가 엘라베마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던 중에, 그는 사악한 갱들에게 강제로 납치당해 폭행을 당하고 묶였습니다. 크로프트 장로는 나무에 매달리기 전에 외투와 셔츠를 벗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옷을 벗는데 그가 최근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가 우연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열한 갱단의 두목이 그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크로프트 장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폭도는 크로프트 장로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 구주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거라 …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우리가
어머니를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하였느니라’ 구주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러한 불멸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거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들이, 너를 해치는 자들은 저들이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들은 알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의 행위를 뉘우치고 네가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로 너를 영예롭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 아들이, 끝까지 참고 너를 학대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 또한 내 아들이, 그 날과 그 밤에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크로프트 장로는 증오에 찬 그 폭도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두 줄 읽다가는 앉아서 생각에 잠겨곤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의 포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훌륭하구나. 내게도 한때 그런 어머니가 있었지.” 그리고는 폭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물론 친구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고 나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달아났네. 그를 풀어 주면 안 되겠는가?” 크로프트 장로는 상처 하나 없이 풀려 났습니다.⁴

우리는 훌륭한 선교사들의 충실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자녀들에 대해 품은 사랑은 숭고합니다.

자매들을 존중함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자매들을 존중해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쯤은 알 만큼 충분히 컸고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계 가족의 자매들만이 아니라 모든 훌륭한 자매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딸인 그들은 거룩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귀한 목적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외설물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것은 여성을 비하시키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으며 파괴적이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상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심으로써 생기는 독은 깨끗이 씻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설물의 독을 토해 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입력되고 나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수시로 음란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생활에서 건전한 것들을 몰아내고 말 것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 그것을 피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함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장래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잘 선택하십시오.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사람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⁵

주님의 집에서의 가장 높은 의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사랑하는 아내
덴첼과 제가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했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없다면 저는 신권의 가장 높고 가장 영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우리의 훌륭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도, 귀한 우리 손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어머니인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감사와 존경과
칭찬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되살리고, 애정이 가득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배려하고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로 확신과
신뢰를 키우십시오. 언행을 바르게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인생에서 일이나 오락이나 취미, 그 어떤 것도
아내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참된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보완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음

가족은 사회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⁶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바른 원리를
배우고, 영생을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키려고 가족을
제정하셨습니다.⁷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자매들을 존중해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족을 감리함

부모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⁸ 교회는 부모의 책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후기 성도 가정이란 신권을
지닌 합당한 남자가 관리하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축복사의 권능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존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 결혼은 합당한 권능으로
인봉된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이러한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은 가정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기를 요구합니다.⁹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은 설거지를 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요일에
자녀들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이 거들어 주고,
여러분의 아내는 차에 앉아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¹⁰ 그러한 사랑을 지닐 때,
형제들인 우리는 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사랑과 영성이
가득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할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¹¹ 우리의
책임은 가족 기도와 경전 연구와 가정의 밤을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의식을 받고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고 위안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는 신권의 축복을 베풀 특권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은 위대한 사랑의 실험실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생화학
요소들이 협동의 도가니 속에 용해되어 애정 어린 관심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낳게 됩니다.¹²

아내와 어머니,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특별한 자매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들이 보여
주는 참을성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장래의 우리도 사랑해 주는 이들 자매님들에게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저의 어머니와 많은 자매, 딸, 손녀,
그리고 저의 특별한 애인이요, 동반자이자 친구인 아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유덕한 재매님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23:3 참조.
2.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많은 경전 구절,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마태복음 15:4; 19:19; 마가복음 7:10; 10:19; 누가복음 18:20; 에베소서 6:2; 니파이전서 17:55; 모사이아서 13:20; 조성, 마태복음 19:19, 조성, 마가복음 7:12 참조.
3. 제임스 알 클라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메시지*, 6권.(6:178. 1935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참된 정신은 여성들에게 인간 생활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제일회장단 메시지*, 6:5)
4. 아더 엠 리차드슨, *존 모간의 삶과 성역*(1965년), 267~268쪽.
5. 교리와 성약 131:1~3.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7. *가족 지침서* [소책자, 1992년], iv.
8.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9. 교리와 성약 121:41~45 참조.
10. 에베소서 5:25.
11. *성도의 빛*, 1988년 10월호, 24쪽 참조.
12. 모사이아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31 참조.

아버지의 손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6~19쪽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

이 부활절 주일에 저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론이고 예수의 참 아버지, 곧 대속과 구속이 이루어지던 그 시간에 그분의 장자이며 온전하신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여시는

것으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우리 영의 아버지이자 하나님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받은 제자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찬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¹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이 부활절 절기만큼 강하게 다가오는 때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아버지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심한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짐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내 그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신 갚고 구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참아 내셨습니다. 저는, 그 쓴 잔에 위축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또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너무 자주 목표를 놓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완전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에게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첫 부활절 절기에 이루어진 대속(하나가 되는 것)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구주의 성역을 통해 흐르는 가장 감미롭고 가장 감동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의 절대적 이유, 곧 자신의 모든 목적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며, 항상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위해 위기나 낙담의 전환점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능적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도 그리스도는 한 순간도 허영에 빠지거나 사욕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주님을 “신한 분”이라 칭하려 하자, 그러한 칭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고 하시며 그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성역 초기에 그분은 겸손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²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쳐,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가르침에 놀라게 하시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³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다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친히 듣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⁵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단합이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예수께서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로 드시며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⁶

더욱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려 잡혀 가시면서도 그분은 말리고자 하는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모진 시련이 끝나갈 즈음, 그분은 자신의 필멸의 성역 가운데서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⁸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은 끝나고 귀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순간과 얼마 후에 일어난 부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재회를 궁금하게 여겨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된 이 두 분에게 있어서 만남의 포용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성스러운 동반자 관계가 지금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저 놀라워 하며 칭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 절기에 그러한 관계의 작은 한 부분만이라도 갖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함

저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들이 이 지상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과 좀더 감미롭고 돈독한 관계를 쌓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거룩하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느꼈던 느낌의 작은 일부라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염치없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인 그 사랑을 갖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이라도 젊은이들은 현세의 부모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키워 나갑니다.⁹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달 사이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미국”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준 책입니다. 저자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을 “이 세대에서 가장 해로운 인구 통계학적인 경향”으로 지적하며, 어린이들에게 해를 미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빈곤에서부터 범죄, 청소년기의 임신, 아동 학대, 그리고 가정 폭력 등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자는 확신하고 있었으며, 가장 주된 사회적 문제에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하고 가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¹⁰

실제로 일부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위적 죄보다 더 파괴적인 아버지의 부작위의 죄(태만죄)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환경의 2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하자, 그들이 한결같이 “아버지가 저하고 시간을 보낼 때요.”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¹¹

얼마 전에 지명을 받고 참석했던 대회에서 만난 로렐이라는 청년이 제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라도 해 주고 친근하게 대해 주셨으면 해요. 아빠가 제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또 제게 축복을 주시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빠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말을 해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단지 알고만 있는 것보다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서운하게 들릴까봐 걱정이예요. 한번은 아빠가 저에게 공책 한 권을 주시며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적어 주셨어요. 저는 그 공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¹²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홀로함

이 청년이 걱정했듯이 저도 이 말씀이 마치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말로 느껴지거나 아버지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홀로하십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짧은 동시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곤한 얼굴을 한 하나뿐인 아빠
일상의 경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네.
매일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어떠한 일에도 당당히 맞서며,

집에 돌아온 아빠 목소리에
반가워 하는 가족 생각하며
마냥 즐거워 하시네.
하나뿐인 아빠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주시네.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길을 평탄케 하고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위해 하셨던 것들을
단호하고 굳센 용기로 행하시네.
이것이 내가 적을 수 있는 아빠를 위한 시라네.
하나뿐인 아빠,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네.¹³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아버지의 모범을 따름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의 한계와 부족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신성한 아버지께서 보여 주시고 또 신성한 아들이 보여 주신 격려의 가르침 덕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훌륭하게 부모로서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때로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대로 닦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서 면도하시면 저도 옆에서 플라스틱 면도기와 면도 크림을 가지고 따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여름에 잔디를 깎으실 때 잔디밭을 오가며 그들의 앞뒤를 따라 걷던 때도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도 따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고, 위안하시는 그 방식대로 위안하고, 보호하시는 그 방식대로 보호하고픈 열망인 ‘하늘 향수병’을 느낍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느꼈던 모든 두려움의 해결책은 언제나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였습니다. 이제 제게 돌봐야 할 아이가 있으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¹⁴

아버지의 사랑이 미치는 영향

대학 시절의 친구 하나가 최근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어린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했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던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었네. 그 사실은 젊은 시절의 나를 지탱해 준 닻이었네. 난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네. 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거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네.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에 써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라네. 또 아버지가 내게 십일조를 내는 것은 특권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렇게 했네.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항상 내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 왔네. 비록 아버지도 [한때는]

교회에서 멀어지셨으나, 인생의 말년에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충실하게 일하셨다네. 그분은 자발적으로 [가죽을] 돌보고 남는 돈은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셨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네.”¹⁵

확실히 그것은 로드 바이런의 짧은 시, “그들은 나의 얼굴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있네”라는 시를 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¹⁶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경전상의 예

유혹 받기 쉬운 유년기에 니파이가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¹⁷라고 말했을 때 미래의 선지자가 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지자 이노스는 인생의 한 전환점에서 물몬경에 기록된 위대한 계시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 것은, “나의 부친이 … 하시던 말씀”¹⁸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마 이세는 그 자신의 많은 죄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직면하여 슬픔에 잠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¹⁹했습니다. 그 간단한 기억, 즉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 아버지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로했던 개인적인 간증이, 고통의 순간 결국 그 아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물몬경에 나오는 백성들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²⁰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큰 일이 그들의 아버지의 손에”²¹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이 부활절 주일에 간중 드립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양육해야 할 자녀들의 행복과 영적인 안전을 위해 아버지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는 고뇌의 외침이 나오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훌륭하게 부모로서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힘겨운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늘 찾으셨던 그분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빠”²²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는 것조차 신성 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들과 그 아들의 참되고 유일한 힘의 근원인 아버지, 그 두 분이 함께 구속의 길에 머물며 함께 밤을 견뎌 내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부활 절기에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으로 강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요한복음 3:16.
2. 요한복음 5:30.
3. 요한복음 7:16, 28.
4. 요한복음 12:49.
5. 요한복음 14:7, 9.
6. 요한복음 17:11.
7. 요한복음 18:11.

8. 요한복음 19:30; 누가복음 23:46.
9. “부모-자녀 관계와 어린이의 신에 대한 관념”,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5~43쪽 참조.
10. 데이비드 블랭컨혼, *Fatherless America: 가장 긴급한 사회 문제*, [1995년], 1쪽.
11. “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Ensign*, 1983년 1월호, 27쪽.
12. 개인 서신.
13. Edgar A. Guest, “Only a Dad”,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Jack M. Lyon과 기타(1996), 90~91쪽.
14. 개인 서신.
15. 로버트 에이 리스로부터 온 개인 서신.
16. *Parisina*, stanza 13, lines 285~286.
17. 니파이전서 2:16.
18. 이노스서 1:3.
19. 앨마서 36:17.
20. 창세기 18:19.
21. 교리와 성약 29:48.
22. 마가복음 14:36.

도덕과 정숙함

정숙함은 겸손, 점잖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엔 엘돈 태너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부도덕은 간음이나 성도착에 빠짐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에 관한 생각이나 토론, 열정적인 키스, 애무 등과 같은 무분별한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그마하고 무분별한 행위는 첫 유혹에 빠지는 젊은이의 튼튼한 몸과 강한 마음과 감미로운 영에 비교할 때에는 무력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곧 강한 자는 약하게 되고 주인은 노예가 되며 영적인 성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의롭지 못한 행위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청소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수많은 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간음, 부정, 음란, 불의, 무절제, 저속한 대화, 불순결, 무절제한 애정, 사통 등 성적인 죄들입니다. 거기에는 혼외 성교, 애무, 성도착, 수음, 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모든 숨겨진 죄와 은밀한 죄, 성스럽지 못하고 순결치 못한 생각과 행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금지된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양심은 자신의 의지나 죄의 반복에 의해 마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도대체 그러한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불경한 행위는 어떻게 불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고 표현되든지, 모두 주님과 그의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가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는 체 하는 자들의 거짓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것들이 옳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과 교회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세상 사람들은 혼전 성교를 허용하지만 주님과 그의 교회는 결혼 이외의 어떠한 성관계도 모두 명백히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애는 결혼의 전주곡이며, 보다 가까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애정 행위는 합당한 구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삐를 풀고 느슨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애정의 표시 대신에 지나친 접촉과 열정적인 키스로서 ‘네킹’이라는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네킹은 이 성스럽지 못한 가족의 어린 자녀와 같습니다. 이 자녀의 큰 언니는 ‘애무’라고 불립니다. 애정 행위가 이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이들은 확실히 구주가 정죄하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무하는 남자와 여자가 음욕을 품지 않게 되고 열정적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대의 계시에서 십계명을 반복하시는 가운데 꾸짖으신 가장 가증한 행위가 아닙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6)

“애무가 간음과 비슷한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여기에 속합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가증한 죄는 간음 또는 사통의 최종적인 행위로 나가기 이전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전에 비추어 명백한 양심을 갖고 애무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것은 심한 죄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한 바를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합니다. 사통과 그의 형과 동생과 자매들은 모두 사악한 것이며, 아담의 시대, 모세의 시대,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통해 주님께서 전적으로 정죄하신 죄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성도착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래의 말씀에서 더 참으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

“경전이 이렇게 명백한데 누가 부도덕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사랑의 행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검은 것이 희게 보입니까? 정결한 것이 추악한 것입니까?

“우리는 도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케케묵고, 퇴색되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낡아 떨어진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분의 교리와 성약은 변경될 수 없으며, 태양은 식어지고 별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주님의 교회에서는 언제나 순결의 법이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래된 가치관은 교회에서 높이 들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런 가치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를 통해 그 가치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법칙이 될 것입니다.”(“김볼 회장께서 도덕에 관해 강조하심”, *성도의 벗*, 1984년 4월호, 156~159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과수꾼 여러분, 밤새 이상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우리는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엘마서 60:23 참조) 우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

“이 세대에 흥미하고 있는 최악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선지자 조셉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혹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Journal of Discourses*, 8:55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성적인 부정이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복음 교리*, 282쪽 참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침투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15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는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세상, 사악함이 악취를 풍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더러운 독이 여러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속한 것을 묘사한 비디오를 빌려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신권을 더러운 것과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는 외설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 부자가 됩니다.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망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각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욕구를 갖게 할 것이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채팅을 통해 교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슬픔과 비통의 심연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

“선교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는 젊은이 여러분은 성적인 죄로 인해 선교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실을 숨길 때 주님의 영은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이전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갈라하드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은 열 사람의 힘을 합친 것과 같다네. 이는 내 마음이 순결하기 때문이지.’(알프레드 로드 테니스, *갈라하드 경*[1842], 제1편)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의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대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잘못되며 범법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쉬운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멀어지기 쉬운 죄의 벼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물러서십시오.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사악하고 어두운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오는 평화의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이미 범법을 함으로써 그 선을 넘어가신 분에게도 희망이 있느냐구요? 물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여러분의 짐을 부모님과 나누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가 고백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청소년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6~37, 39쪽)

“만약 외설물을 접하고 싶다면, 아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잘 알고 있는 번호를 돌릴 수도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사이버 공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추잡하며 더럽습니다. 이것은 유희적이며 습관을 형성하여, 젊은 남녀를 영락없이 파멸로 끌어 내립니다. 이것은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고 그 희생자들은 빈곤으로 이끄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럽지만, 많은 아버지들마저도 더러움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유혹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들 중에는 추잡하고 음란한 인터넷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을

죄의 벼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물러서십시오.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이러한 것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곳에서 즉시 빠져 나올 것을 간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몰아내고 추악함과 의심을 가져 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청년 여러분, 이러한 추악하고 음란한 것에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자극시켜 인터넷에 매료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며, 어둡고 추한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2쪽)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과

야곱서 2:28~29, 33

니파이인들은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경우, 그 땅에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순결의 법을 어기게 되면 “혹심한 저주로 그들을 벌하여, 필경 멸망하게” 된다.

힐라맨서 13:38

죄를 짓는 것은 행복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엘마서 41장 10절에 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는 말씀과 비교한다.

제3니파이 6:16~18

니파이인들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에 끌려 다니되, 어디든지 그가 끌고 가기 원하는 데로 끌려 다니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121:45

덕은 사랑과 신앙과 합쳐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신임을 주며 신권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혼을 적실”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흔한 성적인 죄로는 애무가 있다. 이것은 흔히 사통, 임신, 낙태 등 모두 추악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극히 악한 것이어서 흔히 젊은이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마련이다. 그들은 육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한 생각과 성적인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죄와 무분별한 행동에 빠진 사람들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 죄(동성애)가 지니는 심각성 때문에 이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중벌을 받게 된다. 범법자들은 심한 애무, 간음, 사통, 기타 이에 견줄 만한 죄를 범하고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이나 파문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가 한 동성애의 행위는 이성과 범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성애의 죄는 사통이나 간음과 같거나 더한 중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주님의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사통자나 간음자에게는 물론 동성애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이나 파문 조치를 취하게 된다.”(용서가 낳는 기적, 66, 80~181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비롯한 사람들은 듀란트의 다음과 같은 역사적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왜 그들에게 성적 욕구의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관습과 도덕 및 법률 등으로 억제되지 않으면, 성이 무질서 속에서 개인과 집단을 불태워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제한으로 독을 쏟고 식혀야만 하는 불의 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닐 듀란트와 에리얼 듀란트, *The Lessons of History*, 사이몬 앤드 슈스터, 1968년, 35~36쪽)

성적 욕구는 사고하는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게 하여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각기 다른 세 경륜의 시대에 세 분의 선지자들이 마음이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로 인해 몹시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7:45; 에베소서 4:19; 모로나이서 9:20) ... 끔찍한 죄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7쪽)

정속함

디모데전서 4:12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의 장단점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최근에 USA

Today지에 실린 어느 여성의 말씀에 동의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혼전 순결과 일부일처제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는 한 성 혁명에서 오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 ... (토리에 엘리스, "자녀에 대한 성교육의 위험", USA Today, 1987년 3월 16일)(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8쪽)

앤 엘돈 테너 회장

"정숙한 복장은 생각과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속함은 겸손, 점잖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모, 교사, 및 청소년들은 이러한 원리에 일관되게 복장과 개인적인 외모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토론하고 선택의지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의를 선택하도록 합시다."("친구가 친구에게", Friend, 1971년 6월호, 3쪽)

엘 톰 페리 장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께서는 여러 해 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우리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훌륭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품위없는 유행에 따르지 말고 우리의 표준대로,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 받는 방법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복장은 우리가 의도하는 생활 방식, 즉 구주의 복음 원리에 입각한 삶을 반영해 줄 것입니다. 유행에 따라 정속하지 못한 옷을 입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녀가 교회 대학이나 선교사 훈련원, 또는 성전 결혼이나 안식일 모임을 위해 옷을 입을 때 하룻밤 사이에 전혀 다른 옷을 입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속하고 단정한 스타일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83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정속함의 위대한 원리를 저버리면서, 사회는 그와 관련된 더욱 큰 원리, 즉 순결의 원리를 범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무책임한 성관계를 조장하여 사람들을 격하시키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이 신성한 은사의 목적을 거것으로 가르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1년 4월호, 8쪽; Ensign, 1981년 5월호, 9쪽)

정속한 생각

모사이야서 4:29~30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즉 이제 오 사람이,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

교리와 성약 121:45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정속한 언어

잠언 15:26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리라"

마태복음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정속한 복장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극도로 지나친 스타일은 비난을 면치 못하나, 겸손함과 우아함이 결여되어 부정하게 보임으로써 성적이거나 혹은 다른 만족을 느끼지 않나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노출이 극심한 수영복은 스타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는 사람을 충동하거나 동요를 일으키거나 유혹하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것에 순수함과 겸손이 깰 수 있는가? ..."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깨끗이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함정이 단정하지 못한 태도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용서가 낳는 기적, 207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이제 몸에 문신을 새기는 광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젊은이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살갓에 사람, 동물 및 다양각색의 상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피부를 손상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신을 하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한번 고통스럽고

값비싼 작업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몸에 문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여러분의 말에 반항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신을 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성전에 낙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와 코와 심지어 혀에까지 여러 개의 고리를 달기 위해 몸을 뚫는 일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으나 그 결과는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문신과 의학적인 이외의 목적으로 몸을 뚫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쌍의 귀고리를 위해 여성이 귀를 뚫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8, 70~71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입고 다니는 복장에서 자기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눈길을 끌기 위해서 혹은 편하고 캐주얼하다는 미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숙치 못할 뿐 아니라 외모에 부주의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1년 8월호)

정속한 행동

니파이후서 15:20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신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대신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신앙개조 제13조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웃차림, 언어 그리고 몸가짐에서 정속한 것은 유덕한 후기 성도의 징표이며 품위를 나타내는 올바른 표시인 것입니다. 유치하고 저속하고 추잡한 것을 피하십시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09쪽)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해롤드 비 리 회장

교회 회장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설교와
저서와 발췌문, 330~339쪽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교사로서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를 인간의 신체 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갑주를 입은 무사로 묘사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물론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의 적들은 인간의 영혼에 접근하여 침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영감 받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에베소서 6:14~15, 17)

여러분은 보호해야 할 신체의 네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1. 허리에 띠를 띠다.
2. 가슴에 호심경(가슴판)을 붙인다.
3. 발에 신을 신는다.
4. 머리에 투구를 쓴다.

허리는 갈비의 아래 부분과 엉덩이 사이에 있어 중요한 생식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경전과 다른 영감 받은 기록에서 허리가 덕과 도덕적인 순결 그리고 활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가르침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슴(마음)은 일상 생활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태복음 12:34~35)

발은 인생의 여정에서 가야 할 길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물론 지성을 나타냅니다.

갑주의 여러 부분들을 만드는 재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덕성과 활력을 보호하려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 띠를 매어야 합니다. 진리가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죄 중의 하나인 불순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진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진리는 지식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교리와 성약 93:24) 젊은이들의 영원한 적인

부도덕을 피하게 할 절대적인 지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후손이며 그의 형상에 따라 필멸의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신의 첫 번째 부모에게 주어진 첫 계명 중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신성한 가르침으로서 충실하고 참된 모든 후기 성도 부부에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조주께서는 모든 진실한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주셨으며, 서로 알게 되면 우정이 싹트고, 그런 다음에는 구애의 로맨스를 통해 결국은 결혼으로 성숙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러한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으로써 그것을 살인 다음으로 중하게 다루셨습니다.(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간음과 사통이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성적인 불순결을 정의하셨으며, 그것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권능을 갖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정죄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영원히 계속되는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가족을 위한 최초의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믿을 경우 이 영원한 진리는 여러분이 생명을 보호하듯 덕을 보호하기 위해 허리에 두르는 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에서 인용한 진리의 정의를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저 사악한 자의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93:25)

여러분이 복장을 단정하게 입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또는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구애를 함부로 하도록 유혹 받을 때 여러분은 사탄의 놀이를 하는 것이며, 그의 거짓된 혐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의 신성한 목적,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견해를 의심하게 하는 인간의 헛된 논리를 허용할 경우 여러분은 거짓의 아버지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 주는 진리에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생에서 마음이나 행동을 보호하는 호심경(가슴판)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슴판이 의라고 불리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롭지 아니한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만 겸손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벗은 것을 감추듯이 덕을 감춥니다. 의로운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걱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루를 끝낼 때에는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께, 그가 그 날 행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했노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몸은 방탕한 삶이 가하는 짐으로 인해 낭비되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의 판단은 젊음의 어리석음으로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비전과 예리한 지성과 튼튼한 몸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함하기 때문에 의의 가슴판은 그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갑주에 대해 계속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발은 신을 신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신을 신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도는 실제 경험—“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준비가 승리하는 길ियो 영원한 경계가 안전의 열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준비하지 않고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말씀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신체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전쟁을 하든 최종적인 승리는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고 말한 것을 보면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준비를 인생의 초기에 시작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옛 속담은 같은 진리를 말해 줍니다. “강을 따라가면 바다에 이른다.” 또 다른 것은 이러한 경고를 해 줍니다. “쉬운 길을 따라가면 사람과 강이 굽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율법자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너희는 … 말라”는 분명하고도 금지를 나타내는 계명으로서, 나중에 산상수훈에서는 “… 하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선포된 바, 이는 여러분의 삶의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복음의 계획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게으름을 그치라고 말해 줍니다. 악한 날에 견딜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가르침의 준비로 신을 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극복함으로써” 평안을 얻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마태복음 7:24~25 참조)

그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갑작스런 공격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비상시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갑주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리는 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하는 지체입니다. 이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이라는 말과 같이 원수로부터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투구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의의 적과의 영원한 전쟁에서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구원의 투구”여야 합니다. 구원이란 필멸의 세상에서 선한 생활을 한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구원의 목표와 더불어,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과 결정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항상 도전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없이 지적인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지식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며 무덤은 생명에 대한 승리요, 희망과 포부와 인생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 이 나라를 휩쓸었던 “학생 자살” 풍조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명한 성직자로 이루어진 한 위원회가 도달한 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밝혀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숨을 끊은 학생들은 종교에 대해 결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매달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모습과 반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필멸의 상태에서 자신이 바친 노력에 대해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고대하는 사람은 깊은 시련을 통해 꾸준히 자신을 지탱해 나갑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파괴가 미래를 앗아갔을 때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살며 구원에 대한 목표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호되는 우리의 지성인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복음의 기준에 의해 학문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가? 그것은 고무적인 일인가? 그것은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가? 인생의 모든

선택, 즉 친구, 교육, 직업, 배우자 등을 선택하는 모든 일과 그 이상의 것들은 영생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영감을 주고 고무적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고무적이고 순수해야 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화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도덕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도죄로 감옥에 가는 형벌을 피하려면 탐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하신 교사요 구주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21~28 참조)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학식을 얻으매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니파이후서 9:28)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 성약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갑옷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후방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갑옷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원한 전쟁에 필수적인 또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게 아닐까요? 적으로부터 도망을 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마주 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세계 대전 때 제일회장단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분명하게 권고해 주었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깨끗하게 죽는 것이 더럽게 되어 귀향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용기와 결의와 끊임 없는 적극성은 인생의 전쟁에서 필요한 특성이며, 그 외에 우리의 보호를 위해 세상에서 제언하는 모든 갑옷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것처럼 안팎으로 무장을 하고 나면 우리는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살펴 봅시다. 우리는 싸워야 할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적의 공격 목표일 뿐입니까? 위대한 사도이자 교사인 바울이 우리가 지녀야 할 무기에 대해 말한 것을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성인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복음의 기준에 의해 학문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가? 그것은 고무적인 일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베소서 6:16~17)

믿음의 방패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이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둡더라도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등불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업적인 위기와 관련하여 위대한 산업 분야의 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생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적의 협공 작전과 같이 아무런 쓸모 없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옳고 그름 간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해 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험 받고 검증된 검소와 자기 희생, 그리고 절약의 미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모한 소비와 이기심을 비롯해 일반적인 사회의 덕성과 도덕의 표준을 무시하는 등의 악덕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기 위해 임시 막사를 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노력에 대해 축복을 간구한 것은 개척자 조상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작물이 자라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해지며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호하심에 대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죽음과 슬픔 속에서, 홍수와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 성공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창조주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똑같은 표시로써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전쟁시에 증오를 몰아내고 그 대신 원수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는 질투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단지 어린이가 고통 가운데 성장하듯 터나온 이해의 과정으로 성숙해 가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으로써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의 장애와 실망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 경험과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며, 우리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능력은 기대하지 않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에 의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개척자가 되며, 이웃을 위한 봉사의 대가가 순교자의 면류관이라 하더라도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어떻게 “의의 무기를” 가진 사람의 손에서 완벽하게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백병전에서 칼도 없이 오직 방패만 갖고 싸우는 사람은 곧 싸움에서 지듯이, 경전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신앙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현대적 파괴주의자들 앞에서 약해지게 됩니다. 신앙을 방패로 삼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으로 알려진 계명은 단순한 철학자의 말씀에서 위에서 임하는 우뢰 같은 권능의 음성이 되며, 경전의 가르침은 우리를 해의 왕국의 집으로 인도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로마서 13:1~2)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국법에 순종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인생의 전쟁과 고단함으로 인해 사라진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이 우리를 비통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져 “오, 무엇 때문에 애를 쓰는가?”라고 부르짖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영혼의 훈련을 위한 위대한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관하심 아래, 우리는 “우리가 겪는 것”을 통해 배우고,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힘을 얻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고 하신 예수님의 높은 표준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라 하더라도 우리의 유익과 영원한 혜택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히브리서 12:6)

그처럼 암흑의 세력과 영적인 사악함에 맞서도록 훈련 받고 단련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신앙으로써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의 장애와 실망을 극복합니다.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고린도후서 4:8~9)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로마서 13:12~13)

시온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순결의 법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벗, 1988년 10월호, 36~40쪽

사탄의 거짓말에 이끌려 가지 마십시오. 부도덕에 영구한 행복은 없습니다. 순결의 법을 깨뜨리는 일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순간적인 쾌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동안은 모든 것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관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식과 수치가 들어서게 됩니다.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합니다. 살금살금 도망쳐서 숨고, 거짓말하고 속여야 합니다. 사랑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감정, 질투, 분노, 심지어는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범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 우리가 순결의 법에 순종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킨다면 더 큰 사랑과 평화, 결혼 상대자에 대한 더 큰 신뢰와 존경, 서로에 대한 더 깊은 결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깊고 의미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는 사소한 것이며 그 결과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잘못 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에 대한 가장 엄숙한 말씀의 하나로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 우리 가운데 살인이나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의 법은 흔히 깨뜨려집니다. 그런데도 이 법은 주님 보시기에 그 두 가지 죄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전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법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덕과 순결에는 한 가지 표준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것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름지기 내 앞에서 끊임없이 덕과 거룩함을 실천하여야 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교리와 성약 46:33)

준비하고 예방하는 여섯 단계

고치고 뉘우치기보다는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결의 법에 비추어서도 참으로 진실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는 데 있어 첫 번째 방어선은 우리 자신이 유혹에 저항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 준비와 예방의 여섯 단계, 즉 절대로 이러한 범법에 빠져 들지 않도록 해 줄 여섯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순결하도록 지금 결정함.** 순결하고 덕스럽겠다는 결정은 단 한 번만 결심하면 됩니다. 지금 그 결심을 하십시오. 또 그 결심을 극히 굳건하고, 깊이 있게, 단호하게 함으로써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타협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2. **자신의 생각을 통제함.** 어떤 사람도 한 순간에 부도덕으로 빠져 들지는 않습니다. 부도덕의 첫 번째 씨앗은 언제나 마음 속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에서 머뭇거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부도덕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내딛은 것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특히 준화의 악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깊은 죄에 빠져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범법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은 외설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 욕정을 품고 쳐다보거나 또는 그의 생각이 걸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28; 교리와 성약

63:16 참조)

3. 언제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함. 유혹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올 것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며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반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끊임없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유혹은 순결의 법에 관련된 유혹을 말합니다.
4. 결혼한 경우 어떤 형태의 성 희롱도 피함. 어떤 문화권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남녀가 때때로 성 희롱하는 것이 용납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해한 모임이 준비되기도 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것은 우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함으로써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장난을 치거나 단순히 조금 재미있게 노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 쉽사리 심각한 관계로 빠지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충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볼 훌륭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 기뻐할 것인가? 남편이 비서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면 아내가 기뻐할 것인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희롱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기뻐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5:22)
5. 결혼한 경우 가능한 한 이성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함. 부도덕이라는 비극 가운데 많은 것은 남자나 여자 사무실이나 교회나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단 둘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의도도 없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유혹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이끌려 가며 너무나 빨리 비극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발전할 기회를 갖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6. 독신으로서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애정을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황에 버려지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주의 깊게 계획하십시오. 이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원리입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계획된 활동도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 빈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애무나 네킹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복구하고 회개하는 다섯 단계

그러나 대비하여 예방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미 너무 늦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각한 죄에 빠져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생활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것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1. 죄를 짓도록 인도하거나 또 죄를 짓도록 인도할지 모르는 상황으로부터 즉각 벗어나십시오. 애굽의 조셉이 보디발의 부인과 집안에서 단 둘만 있는 상황에 빠졌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합리화하기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가 그 여자를 충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녀의 하인이었습니다. 만일 거절하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조셉이 그 곳에 머물렀다가 자신을 합리화하였다면 그는 쉽사리 죄에 빠져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때 대응한 방법은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조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창세기 39:12) 그는 도망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자신의 도덕적인 순결이 이렇게 타협될 만한 상황에 있다면 조셉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그 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2.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함.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람들에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한 가지는 그들의 귀에 대고 그들은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기도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며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큼니다. 만약에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특히 심각한 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께 가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수치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도와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와 주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3. **범법을 회개하고 주님과 완전한 우정 관계로 돌아가도록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을 구함.** 어떤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의 회원 자격 자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성적인 죄는 그러한 심각한 죄 중의 하나입니다.(교리와 성약 42:24 참조) 그러한 죄를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해결할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신권 지도자를 통해 행해집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계시에 의해 교회를 살펴보는 파수꾼이자 이스라엘의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신권 지도자들은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파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는 발걸음이며, 이 과정을 더 빨리 시작할수록 더 빨리 용서가 나는 기적을 통해 얻게 되는 감미로운 화평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저룩하신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권세의 원천으로 가득 채움.** 악에 저항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생활에 죄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또한 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다 주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전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고 연구할 때 다른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의 생활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큰 권세의 또 하나의 원천입니다. 구체적인 힘이나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기독교인다운 봉사, 교회 참석,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힘과 권세의 창고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힘과 결단으로 가득 채워 주는 의로운 활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5. **적절한 회개를 통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 모로나이는 “절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도다.”(모로나이서 10:22)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망의 치참한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용서의 감미로운 화평이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기쁨을 찾음

이사야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 1:18)

또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똑같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다시 말씀드리자면 순결의 법에 관해서는 고치고 회개하는 것 보다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것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찾아내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원리 중의 하나가 순결의 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킬 때 따르는 기쁜 결과를, 또한 이것을 위반할 때 따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엄숙하게 깊이 생각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일회장단 사무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84150

1991년 11월 14일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덕과 정절의 표준

우리는 회원들이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주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식 능력의 거룩한 본질과, 그들이 생각과 행동에서 순결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성하게 부여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죄가 되는 모든 행동에

대해 그들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주님의 율법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며, 결혼 생활 내에서의 충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오직 결혼의 결속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통, 간음, 동성애를 포함하여 일체의 어떤 성적인 접촉도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는 사람은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경전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마태복음 15:19; 모사이야서 4:29~30; 엘마서 12:14; 제3니파이 12:28;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부도덕한 생각과 느낌 그리고 부도덕한 이성 관계나 다른 동성애에 관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관계없이 그러한 생각과 느낌은 극복되어야 하며 죄가 되는 행동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진지한 회개,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적절한 생각과 느낌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러한 행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버리도록 간청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와 적절한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에 오는 화평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바라는 개인이나 그들의 가족은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사랑과 이해로써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구주의 구속과 치유의 권세를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영감 받은 권고에 응답할 것입니다.(이사야 53:4~5; 모사이야서 4:2~3 참조)

여러분의 진실한,

제일회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66~68쪽

저는 30년 이상 총관리 역원으로 지내 왔으며 22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을 접견했으며 그들의 합당성과 슬픔과 행복에 대해 함께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우리가 심히 염려해 온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환경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 환경 보호론자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을 검사해 보면 오염 지수가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문경은 “어둠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어두움을 “악마의 유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니파이전서 8:23; 12:17) 이 도덕적인 오염이 어찌나 심하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따라가다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들어”(니파이전서 8:23~32)갔습니다

생명의 원천에 대한 의도적인 오염이 이제는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을 흐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사와 다른 생명의 불을 켜는 능력은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환경

급속하고 광범위한 가치관의 부패는 성에 대한 탐닉, 심지어는 강박 관념으로까지 보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은 공공연하게 조롱거리가 되며, 결혼과 부모가 되는 것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져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나 품위 있는 사회의 덕성이었던 정숙함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마

악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그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즉 그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쫓겨났으며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악마의 사자들은 심지어 돼지 몸 속이라도 거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마태복음 8:31 참조) 그리고 계시는 우리에게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알려 줍니다.(니파이후서 2:27)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성 행위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이에 대한 검열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공식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밀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 옷을 벗고 중앙 무대에서 연기를 합니다. 무대 뒤의 그늘 속에는 탐닉, 외설, 변태, 불륜, 낙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추악한 근친 상간과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성경에서 언급된 역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사회는 임신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육체적인 생식 과정을 가르쳐 주고 십대들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막아 주리라고 생각되는 기구를 제공해 주는 것 이외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여 교회뿐 아니라 문명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라는 항의가 일어납니다.

선택의 자유

지구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은 통과시키면서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은 어떠한 것이라도 선택의지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목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나의 미덕을 지나치게 또는 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미덕을 거리낌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즉 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라는 미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자신들의 선택의지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그것들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지각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쾌락에 탐닉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는 인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순된 주장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이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각 개인은 스스로 얼마만큼 위험에 가까이 갈 것인지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모든 교통 신호와 방책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 의지가 아님

“자유 의지”라는 단어는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의지는 도덕적 의지인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에 유의함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내가 정하여 준 것이, 나의 이름을 좇아 스스로를 일컫는 자들의 동의에 의해 나의 원수들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게 할지어다. 이는 이것이 나와 나의 백성에 대한 심히 크고 무거운 죄임이니,”(교리와 성약 101:97~98)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인간의 법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지키도록 배우고(신앙개조 제1조 참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58:21)라고 배웁니다.

담대히 말해야 할 권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은 분명 도덕적 문제입니다. 생명도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덕이 관여되면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높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 됩니다. 교회는 도덕이 관여되지 않는 한 정치 문제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을 접견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회원들에게 어느 정당이 속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이며 도덕적인 율법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교리와 성약 130:20) 도덕적이며 물리적인 하늘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력의 법칙을 폐지하려는 투표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할 수 없는 것

모든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빼앗아 국가가 양육하도록 하는 법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법은 사악하지만 강제로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일 이내에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를 모두 끊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이 그 법률에 들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규정은 절대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형벌이 아무리 중하고 법 집행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규정은 자연 법칙과 도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코 집행될 수 없습니다.

15주가 아니라 15개월이나 1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법은 결코 집행될 수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전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고전도전서 15:39)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법을 인간의 어머니에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끊어 버리는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연에 위배되는 인간의 법률을 옹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힘 때문에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다르다는 하늘의 진리보다 더 위대한 것이 계시된 적은 없습니다.(모세서 6:8~10, 22, 59 참조)

악마의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소산이 아니라 단지 진화된 짐승에 불과하여 모든 육욕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보다 더 행복을 파괴시킨 개념이 없으며, 이보다 더 많은 슬픔과 상실과 비참함을 만들어낸 철학도 없으며 이보다 더 많이 가정을 파괴시킨 사상도 없었습니다.

동물은 도덕률의 지배를 받지 않으나, 그것들의 교미 본능에서 보이는 반응이 대체로 난잡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동물들의 교미 의식은 정형화되어 있고,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은 교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성과 짝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본능이 자신의 새끼에 대한 성적 학대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생명의 근원이 결혼과 관계없는 쾌락과 매춘의 수준으로 전락되었으며 심지어는 악마적인 의식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육욕에 빠질 수도 있고, 도덕률을 깨뜨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동물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증한 일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더럽히면 모든 육체적 쾌락이 줄 가치보다 더 “격렬”하고 “건디기 … 힘든”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9:15) 엘마는 자신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내 아들이야,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라고 말했습니다.

도덕률의 규범이 경전에서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라고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되므로 우리는 무한히 다양한 삶에 복음의 원리를 자유롭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될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입니다. 이외의 다른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엘마는 “설혹 너희가 이를 거스려 말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엘마서 5:58)고 하였습니다.

회개

인간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악마는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망칠 방도를 몰라 강압적으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죄와 죄책감이라는 수용소에 갇힌 모든 영혼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회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악마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두 원리는 그 힘에 있어 악마의 엄청난 권세를 능가합니다.

도덕적 표준과 관계된 죄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낙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처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의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0:16~17)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명 사회들은 도덕률에 불순중함으로써 자멸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이르나니,”(니파이후서 26:11; 창세기 6:3; 이터서 2:15; 교리와 성약 1:33; 모세서 8:17 참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심화되는 어둠의 안개로부터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것의 균형에 불확실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속주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순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5~78쪽

개인적인 순결

우리들 주변에 부모도의 유희가 늘어나면서 저는 개인적인 순결의 원리에 관해서나 결혼 전의 온전한 순결의 의무, 또는 결혼 후의 충실함에 대해서 혼동하는 젊은이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항하여 도덕적인 순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높은 표준을 가르치도록

부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의 경건성 때문에 저는 제가 좀더 확실하게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는 물문경에 있는 야곱이 같은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겠습니다. “이토록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여 말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¹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실망스러운 통계 자료나 놀라운 소문들을 보여 주는 사회의 병폐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들이 데이트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까? 왜 이 문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교회는 이것에 관해 그렇게 엄격해야 할까요? 세상에 개방되어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어떻게 경건해지고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불의 강

저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긴 문명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월과 에리얼 듀란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역사에서 배운 교훈의 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왜 그들에게 성적 욕구의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관습과 도덕 및 법률 등으로 억제되지 않으면, 성이 무질서 속에서 개인과 집단을 불태워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제한으로 독을 쏟고 식혀야만 하는 불의 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²

잠언의 저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 간음하는 자는 …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³

왜 성적인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성적인 문제가 항상 불에 비유되고, 성욕은 거센 불꽃에 비유될 만큼 심각할까요? 그 곳에는 사람의 영혼을 떠나게 할 만한 고통스러운 열기가 있습니다. 그 욕망의 불꽃을 자제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 온 세상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안톤에게 성적인 죄에 대해 “주가 보시기에 기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기 성도의 교리에서는, 성적인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 다음가는 죄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주님은 그분의 계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그 인생의 계획 자체에 관해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필멸의 삶에 관한 그분의 가장 큰 걱정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문제들에 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거의 범죄에 가까우리만큼 무책임한 면을 보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관한 교리

첫째로, 인간의 영혼에 관한 교리는 계시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⁵이며,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⁶다는 사실은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간절하고 귀중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얻는 것이 왜 그토록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속하는지, 어떤 형태든 그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즉 그 죄는 궁극적으로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모두 초래하는 죄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한 승리에서 왜 중심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됩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일부입니다. 이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후기 성도의 교리는 성적인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지를 부각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육신을, 즉 주님의 영혼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며,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열쇠”,⁷ 즉 생명의 주요 목적과 절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은사를 누릴 수 있게 해 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욕되게 함으로써 더 지독한 불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곳에서는 불에 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유를 줌 누리면 안 되죠? 지금 잘못을 저질러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리석고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죄의 값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못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⁸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⁹고 하였으며 교리와 성약은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¹⁰고 덧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아릴 수 없는 영과 육의 고통은 이 세상의 구주에 의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¹¹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그것에 대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¹²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영과 육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한 결합의 궁극적인 상징

둘째로, 인간의 애정 행위는 부부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결합의 궁극적인 상징,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규정 지으신 완전한 상태이며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시대부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마음과 소망과 삶과 사랑과 가족과 미래와 모든 것에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을 의미해 왔습니다. 아담은 이브에 대해, 그녀가 그의 뼈 중의 뼈이며, 살 중의 살이라고 했으며, 그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¹³ 이것은 완전한 결합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성약으로 인도되는 “인봉”¹⁴ 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결합됨으로써 그러한 거룩한 뼈를 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결합, 즉 남녀간의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은 결혼 성약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친밀함과 영원성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즉 마음과 생각, 모든 날들과 모든 꿈들을 나누겠다는 거룩한 약속과 맹세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인 척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한 척 하고, 거짓 결합으로 육적인 상징과 육적인 애정 행위를 나누지만, 완전한 의무를 의미하는 다른 모든 면은 회피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 도덕적인 모순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애정 행위에 관한 한,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을 부정하게 주고,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없을 때에

일부를 주는 것은 러시아 룰렛 게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늘의 승낙 없이 정성어린 애정 능력과 애정 행위에 대한 열의 모두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과 진정한 결합의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고이 간직했어야 할 것을 허비해 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조금씩 던져 버린 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날,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며 순수함의 가치를 되돌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

셋째,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징적인 결합, 즉 영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공유된 관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멸의 몸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몸이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필멸의 상태에서도 그분과 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분의 권세에서 비롯된 은총과 권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순간에는 주님의 집 안에서 결혼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것,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것, 교회의 새로운 회원을 침례주고 확인하는 것, 주님의 만찬의 상징물들을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가 바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결합하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하여, 장막을 통한 교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의 일부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신성의 한 가지 면은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는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우며, 유전적으로나 영적으로 인간 역사상 그 전례가 없었고, 영원을 두고 결코 모방해 낼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눈과 귀, 손가락, 발가락,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장엄한 미래를 가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권세인 것입니다.

아마 신생아를 안아 본 부모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이로움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호칭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일을 그분은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신성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하고 거룩한 제한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통제는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권세를 존중함에서 비롯된 자기 통제인 것입니다.

신성한 생식 능력을 통제함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왜 개인적인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으며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¹⁵고 선포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아서 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권세를 통제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생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범법을 한 바로 그 날에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한, 또 어디에선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¹⁶라고 기도했던 부자처럼 기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회개로 인한 평화와 새로워짐

저는 이 자리에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육신이 무덤에서 일어나 영과 결합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지키고 의를 위해 싸우다가 생길 수 있는 상처를 겁내지 마십시오. 다만 영적으로 흥하게 만드는 상처와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가서 생기는 상처만큼은 조심하십시오. 그릇된 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¹⁷

여러분 중에 그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회개로써 평화를 얻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회개의 길이 쉽게 시작되거나,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라면 기꺼이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그런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것 같은 때에 여러분에게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희망이 여러분 곁을 떠나 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완전한 용서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모든 사람에게, 청결케 하고 치유해 주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연민과 사랑이 한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위대한 생의 계획과, 경건의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와 속죄 및 도덕적인 청결과 관련하여 심오한 의미를 갖는 모든 것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순결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1. 야곱서 2:7; 야곱서 2장과 3장은 그가 순결에 관해 설교한 내용임.
2. *The Lesson of History*(1968), 35~36쪽.
3. 잠언 6:27~28, 32~33.

4. 엘마서 39:5.
5. 교리와 성약 88:15
6. 교리와 성약 93:34.
7. Conference Report, 1972년 4월호, 139쪽; *Ensign*, 1972년 7월호, 113쪽.
8. 히브리서 6:6.
9. 고린도전서 6:18.
10. 교리와 성약 59:6.
11. 교리와 성약 19:15~20 참조.
12. 고린도전서 6:19~20.
13. 창세기 2:23~24.
14.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1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16. 누가복음 16:24.
17. 제임스 이 탈매지, Conference Report, 1913년 10월호, 117쪽.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주부의 일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아내는 오직 긴급한 상황에서만 가정 밖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을 쾌적한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내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수입은 생활 수준을 정상 이상으로 높여 줍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되면 완전하고 합당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 기도의 습관이 깨어지고, 협조가 아닌 독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고통을 하게 되고, 가족을 제한하고, 이미 태어난 자녀에게 실망을 안겨 줍니다. ...

“... 가족을 낳고 양육할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는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아내 여러분, 타자기 앞에서, 세탁하는 일에서, 간호하는 일에서 탈피하여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공장으로부터, 식당으로부터 나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직업도 자신의 소중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접시를 닦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아내와 주부, 어머니라는 직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아내 여러분, 출생했든 출생하지 않았든 자녀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어머니라는 외투를 걸치고, 애타게 기다리는 불멸의 영들에게 육신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에 도움을 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신앙과 성실함, 책임과 선함으로 양육해야 하는 일을 완전히 이행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것이며, 현세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fireside address in San Antonio, Texas, 27, 32~33쪽)

“자녀를 피아노나 텔레비전, 가구나 자동차 등과 바꾸려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실제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29쪽)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이 성스러운 봉사는 오직 어머니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아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특정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아버지나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줄 수 있습니다.”(“The Blessings and Responsibilities of Womanhood”, Ensign, 1976년 3월호, 73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여러분의 자녀가 올 때든지 갈 때든지—즉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데이트하러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또는 자녀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올 때,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 언제나 그들이 여러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가 여섯 살이든 열 여섯 살이든 그 장소에 있으십시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 오늘날 무수한 자녀들이 부모가 직장에 가고 없는 사이,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시온의 어머니들에게, 8)

“건강한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직하게 된 남편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남편에게 그는 계속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비록 남편의 일자리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은 일을 해야 합니다. ...

“때로 남편의 격려와 권유로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 일을 합니다. 부수입이 있을 때 편리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막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아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남편에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 운동이 미치는 한 가지 분명한 영향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생겨난 불만입니다. 그들은 종종 주부로서, 기저귀나 갈아 채우고 보채는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무엇인가 가슴 설레고 자기 성취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도록 여성을 택하셨으며, 승영은 영원한 부성애와 영원한 모성애라는 영원한 안목을 잃게 합니다. [‘To the Elect Women of the Kingdom of God’, 일리노이 나부 상호부조회 헌정사, 1978년 6월 30일]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06~507, 548~549쪽)

“우리들 가운데도 이 가정 중심의 진리를 우리의 현대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중요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미혹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음성들은 여성에 대한 ‘대안의 생활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일부 여성들에게는 결혼이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직장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사보다는 자기 성취를 위해 보다 흥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선전으로 자신의 불만을 퍼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물론 여성의 전통적인 개념’ 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과감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산아 제한을 하여 개인적인 목표와 자기 성취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The Honored Place of Woman”, *Ensign*, 1981년 11월호, 105쪽)

“결혼을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여성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자신의 성스럽고 영원한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준비로서 관련도 없는 분야의 교육을 받느라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성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부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남편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지 혹은 사용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돈 벌기 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영원히 임명된 사명에 대한 준비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In His Steps”, 64쪽)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내가 가정 밖에서 일할 때 종종 이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녀를 갖는 축복이 지연됩니다.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벗, 1971년 5월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208쪽에 있는 인용문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자매 여러분,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그들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의 군대는 그들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 아들 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세상적인 길로 빠져드는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로서 여러분에게 자녀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현재나 이 다음 세상에서 갖게 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대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데려온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에서 의롭고 유덕한 생활과 온전한 행위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고 보살피는 일은 그저 일부 시간을 할애하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 중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좀더 사치스런 삶을 위해, 또한 좀더 좋은 장난감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만일 일을 하셔야 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짐은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돌보기를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부할 때나 가정 안팎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적절한 사랑과 축복과 용기와 어머니의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현재 사방에서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여성들이 두 가지의 일에서 오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 잘하려 할 때 무리가 따릅니다.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거리의 갱들, 어린이가 어린이를 살해하는 일, 결국은 감옥이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야 마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개탄하는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편 없이 미혼모에게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놀랄 만큼 많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들의 장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태어난 날부터 거의 황폐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그러한 필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서둘러 감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들이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른 어떤 단체보다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결혼 가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밤 저의 동료이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메시지와 간구는 이렇습니다. 부디 가정을 강화시키는 일에 다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9~100쪽)

“몇 년 전, 벤슨 회장님께서 교회 여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직업을 갖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바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느끼셨듯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필요 사항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차, 다른 사치품을 사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녀를 의와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고양시키고 격려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주부의 일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복지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과 상담해 주고 여러분을 도와 주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해심 많은 자매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상호부조회 회장님을 만나십시오.

“이 교회의 어머니, 곧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의롭고 선하며 고결하고 신앙심 깊은 쪽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9쪽)

“가정에 있고자 하나 사회에서 일해야 하는 자매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미망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달려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실하고도 자립심을 지닌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커다란 능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과 가정 주부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실망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인도와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재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같은 여러 곳에서 오는 도움이 여러분의 어깨에서 짐을 어느 정도 덜어 주어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엄습해 오는 고독감과 좌절감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식탁에 음식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마련하신 위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식량과 물품을 가지고 감독님이 여러분에게 가시어 도움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해와 인정과 이웃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성을 발전시키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매들에게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매들을 더욱 큰 관심으로 대하도록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는데도 직장에 나가 일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단지 보트나 멋진 자동차 혹은 갖고 싶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고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잃는 경우, 부수적인 것은 손에 찢지 모르나 본질적인 것은 잃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117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제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길들을 걸어온 경험을 기억합니다. 저는 의료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약에 관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마음을 바꾸어 금융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번엔 법률 쪽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결정은 진지하게 내려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저는 준비를 하여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에 학교에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노력하고자 할 때 대개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때 저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과 격려, 절약을 통해 동반 관계에 준 것은 직업을 갖고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힘든 일에 대해 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내보다 더 힘들여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은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반드시 직업을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하게 되어 일을 해야 한다면 품위 있고 보람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재능과 은사를 극대시켜 줄 직업에 종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위해 적절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Prepare for Honorable Employment”, *Ensign*, 1975년 11월호, 123~124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제일회장단은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 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와 경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1942년]보다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떠한 조직의 관리자의 음성도 제일회장단의 음성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3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벤슨 회장님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자매님들 중에는 미망인이 되셨거나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며, 생활비 때문에 당분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것일 뿐, 결코 규칙은 아닙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시온의 어머니들께*, 소책자, 1987년, 5~6쪽)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힘을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집을 비우시는 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4쪽)

부모의 역할: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룸

여러분의 가정을 배움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의 밤을 충실하게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부모로서의 성공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나는 가끔 훌륭한 집안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반항하며 의의 길을 이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예를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범을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수년간을 방황하고 헤매다가는 마침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사람의 예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온갖 역풍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은 그들이 자라온 가정이라는 생활의 해류에 의해서 그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분위기를 그들의 가정에 다시 재현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들은 부모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신앙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4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충고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르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수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부모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열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 받고 있으며, 필요하며,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모들이 채워 주어야 할 부분이며 주로 어머니가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인도를 구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도와 준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옳고 그릇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으며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흠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집에서 일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정직과 자존심이 발전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일 자체의 즐거움과 일을 잘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여가 시간은 건설적이고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은 해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매체에 있는 외설스러운 것은 묵인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장기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가정을 도와 건전한 오락을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가 용납하는 것이 곧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일하고 오락을 즐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오락, 일할 계획, 촌극, 피아노 주위에 모여 노래 부르기, 게임, 특별 다과, 그리고 가족 기도를 위한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계획되어야 합니다.

“가족 경전 공부는 매주 안식일에 집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

“가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 두 번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시해 보십시오. ... 식사를 들 때마다 축복을 구하십시오.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정도씩 읽도록 하십시오. ... 사랑, 화평, 주님의 영, 친절, 자선, 희생 등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거친 말을 삼가고 ...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과 권능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 만일 가정 환경과 모범과 훈련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된다면 백 명의 자녀 중 한 명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272쪽)(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9~91쪽)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에게 영원히 인봉되는 것과 진리의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약속은 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어떤 교리도 가르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양들이 해매고 있을지라도 목자의 눈길은 항상 그 양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양들은 조만간 목자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들에게 다가와 자신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넣으려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치르게 되며 가시밭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경우처럼 그 고통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준다면 결코 헛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방종과 불순종에 빠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끝까지 붙들고 희망을 갖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29년 4월, 110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도 자녀가 여전히 빛나가고, 세상적이고, 골치거리가 된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다루기 힘든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96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가족의 가치는 분명 우리 개인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 줍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돌이켜 볼 때, 부모님들이 밖에서 하는 일을 한 가지만 포기하고 그 시간과 재능을 가족에게 내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 인생에서 더욱더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 계획표와

우선 순위를 신중히 생각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을 바쳐 헌신하던 브리검 영조차도 한때 주님으로부터,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이다.’(교리와 성약 126:3)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가장 철저한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90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여러분 가운데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여 부모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지를 하나님의 권고와 반대되게 사용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들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4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자신의 가족에서 강화시켜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가족과 그 가족들의 각 구성원이 모두 독특한 개체임을 알기 때문에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

“• 활동이나 대화의 주제를 자녀들이 선택하게 하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장애물들은 배제시키십시오. ...

“• 자녀와 함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 자녀와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모님이 경전을 읽고 우리 형제들은 바닥에 앉아서 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때때로 부모님은 ‘이 성구의 뜻이 뭐지?’, ‘너희는 이 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대답하면 귀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회 잡지에 실린 영적인 기사를 읽으십시오. ...

“•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서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간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평생 죄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느낌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 가족 평의회를 열어 가족의 계획과 관심 사항을 토론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가족 평의회 방법은 1대 1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녀의 말에 귀기울이고 배우십시오. ...

- “•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면서 뜻 깊은 토론을 하십시오.
- “• 가족 단위로 함께 일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빠르고 손쉽더라도 가족이 함께 일하십시오. 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저는 매주 토요일에 아버지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자녀들이 훌륭한 우정을 맺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자녀의 친구들이 가정에 올 때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 친구의 부모들을 알고 지내십시오.
- “•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립과 장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 “• 조상과 가족의 역사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 “• 가족 전통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의 필요 사항과 재능 및 능력을 고려하여 뜻 깊은 가족 휴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재능을 키우며 자존심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최적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자비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친절과 사랑을 보였을 때 우리는 힘이 솟구침을 느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이 격해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34~235쪽)”(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8~39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사랑이 많으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한때 훌륭한 부모가 되길 소망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부모의 갈망이자 모든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두려워했던 선조들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격려를 받고 결국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36쪽)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세심한 가르침을 받은 자녀라도 성인이 되면 여러 이유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생의 경험이 복음대로 살려는 소망과 능력을 다시 얻는 데 도움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의 문도 마음의 문도 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자신은 교회 부름을 받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겠지만, 겸손, 신앙, 기도 및 연구를 통해 각자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가족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전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시편 32:8)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제3니파이 18:20)”(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10쪽)

가정의 밤

제일회장단 - 조셉 에프 스미스, 안톤 에이치 런던, 찰스 더블류 펜로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이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모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이 권고에 따를 때 커다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향력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Home Evening”, *Improvement Era*, 1915년 6월호, 733~734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시간을 내어 의미 있는 주례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남편을 감리자로 하여, 매주 영적이고 고무적인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을 가족의 훌륭한 전통으로 만드십시오.”(“*To the Mothers in Zion*”, 9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여러분의 가정을 배움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의 밤을 충실하게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월요일 저녁을 가정의 밤을 위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1915년, 제일회장단은 지역 지도자들과 부모들에게 가정의 밤을 시작하여 부모가 가족들에게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를 때 커다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향력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65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으며, 덧붙여 젊은이들은 ‘의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히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67년에 제일회장단은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가질 때 개인적인 가치관이 확립되며 가족의 유대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71쪽)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매주 가정의 밤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이 시간은 자녀들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느낌을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성신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정의 밤은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2쪽)

가족 평의회 절차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어느 고지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서 평의회, 곧 가족 평의회, 워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그리고 지역 및 교회 전체 평의회를 강조한 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이 모든 발전이 우리를 한 곳으로 지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신 일을 보다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5쪽)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예산을 세우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함께 세워 보고, 그 과정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십대의 아들이 여름 방학 동안 일을 하여 낡은 냉장고를 바꾸는 일을 돕겠다고 나설 때,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8~119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어느 가정이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가족은 비판이나 다툼을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의논하며, 격려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가족들은 가족 중 어떤 사람을 위해 함께 금식하기도 합니다.

“강한 가족은 서로를 지지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은 함께 가족 공동 작업, 휴가, 오락 및 친목회를 갖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악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전한 영향력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합니다. 도덕적인 원리도 가르칩니다. 양서를 구입해서 읽게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합니다. 훌륭하고 영성을 높여 주는 음악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7쪽)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의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 평의회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가족 평의회를 가정으로써 가정에서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34쪽)

스티븐 엘 리차드 회장

“우리 교회 체제의 진수는 평의회를 통한 체제입니다. ... 저는 평의회를 가치를 충분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평의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깨닫습니다.”(Conference Report, 1953년 10월, 86쪽)

엘 톰 페리 장로

“월요일 밤에 갖는 가정의 밤 시간을 가족 평의회로 하여 자녀들이 가족으로서, 그리고 장차 부모로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이 함께 저녁을 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평의회를 가진 다음,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 준비, 선교사 준비, 가정 관리, 가족 재정, 직업 개선 문제, 교육, 사회 참여, 문화적인 면의 향상,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 및 관리, 가족 활동 계획, 여가 선용 및 과제 지명 등입니다. 가정의 밤 시간은 특별한 후식을 나누면서, 부모가 각 자녀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1쪽)

“모든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평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족의 기본적인 책임을 가르칠 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가족의 기본적인 책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또 그러한 결정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결혼 직령기에 이른 성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책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행동 규범과 자립심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옛 격언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아이는 우둔해 진다. 그러나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아이가 되고 만다.”(해롤드 비 리, ‘참된 사랑을 베풀’, 복지 농장 모임에서 행한 말씀, 1968년 10월 5일)(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135쪽)

99쪽에 있는 인용문 참조

엠 러셀 벨라드 장로

“교회의 기본이 되는 평의회는 가족 평의회임을 함께 기억합니다. 부모들은 제가 말씀드린 원리들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26쪽)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영적인 문제에서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단합은 우리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단계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인 단합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과 토론으로서 평의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결정은 타협으로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일치된 영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각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자들이 아니라 단합된 단체의 일원들입니다.”(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134쪽)

훌륭한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를 축복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여러분은 정규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내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0쪽)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만일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경멸적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매우 위태로워져서, 성장해 가면서 그저 불행한 가정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45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부모는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자녀와도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냥함과 사랑을 지니고 서로 이야기할 때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은 이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성도의 빛,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1976년 8월호, 51~52쪽)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이야기할 때에 두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13쪽)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그것은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 차는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조용히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활에서 견해 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9쪽)

부모가 되는 것: 영원한 관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토대가 이 땅의 기초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놓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 생활이 없는 사회는 기초가 없는 사회로서,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4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과거의 선지자들께서는 이 생에서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은 뒤에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만일 한 젊은 남녀가 결혼할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면, 다른 남녀들이 이러한 기회를 받아 향상시켜서 얻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84], 138쪽)

“저는 스노우 회장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49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우리는 이 거룩한 성회의 자리에서 대제사, 회장, 사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등과 같은 근엄한 직분들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 형제, 자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도, 심지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늘은 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고 충실하고 순종심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주의 주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도록 명하셨는지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경전에서 말하는 값진 진주를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려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행복에 관한 위대한 계획(앨마서 42:8,16)은 바로 행복한 가족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며,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새로워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9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 즉 모성은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임무로서, 이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 다음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Conference Report, 1942년 10월, 12~13쪽)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와 경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보다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떠한 조직의 관리자의 음성도 제일회장단의 음성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23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경전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후기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리를 알게 되면 부모가 되는 것이 성스러운 의무라는 것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거룩한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낙태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약점과 문제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26쪽)

브리스 알 맥쿱기 장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해의 왕국의 결혼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원이 가족의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 이처럼 가족 단위는 현재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모든 일, 즉 구애, 교육, 친구의 선택, 취직, 취미, 거주지, 사회 생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인류를 위해 우리가 하는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된 진리의 표준에 대한 순종,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등은 가족 단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가족 단위를 이루게 하고 완전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성도의 벗, 1970년 11월호, 29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의 자녀를 갖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 영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성하게 임명된 분들의 인도와 지시를 얻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이 말씀은 지상의 부모가 가족 각자의 인생에서 영원하고 거룩한 계획을 갖게 한다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01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하나님은 부모라는 직분에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두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36쪽)

제이 리처드 클라크 장로

“수 세대에 걸쳐 악의 힘은 가정을 위협해 왔습니다. 왜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 그토록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은 그가 가장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현재나

영원토록 자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 낸 자들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국이나 유산도 가질 수 없습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2쪽)

부모가 되는 기쁨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우리는 ... 페스탈로치가 한 말에 참으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부모가 자녀로 인해 갖는 기쁨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기쁨이다. 그 기쁨은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고 선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한다.’

“결혼 생활과 가족의 임무를 합당하게 이행하며,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이상을 높은 곳에 둔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위대하고 고귀한 기쁨이 자리잡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100, 102쪽)

앤 엘든 테너 회장

“남편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신권을 성실히 이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사랑과 조화가 꽃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데리고 갈 자녀를 의롭게 키우는 가정, 이러한 가정보다 더 행복한 상태를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꿈을 누리고 있는 가족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이며, 또한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성도의 벗, 1974년 6월호, 41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족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18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목표가 없으며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신앙심 깊고, 행복하고, 존경할 만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갖게 되는 영광입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3서 1:4)라고 간증했습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7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성스러운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가족이 이 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유지하는 경우 서로에게 천국에서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이나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15쪽)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가정이 더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고, 영성과 의로움이 증가하게 된다는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몰몬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7쪽)

“지금까지 우리는 몰몬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데 몰몬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강화될 수 없습니다.”(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41쪽)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인 기본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부모들에게 권고합니다.”(“Righteousness Exalteth a Nation”, 5쪽)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특별한 교육 과정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할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모세서 6:57)

“이 계시의 내용을 더 읽어 보면 그 근본 교리는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사명과 속죄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거룩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성신의 은사 등으로 구성됩니다.(모세서 6:58~59 참조)”(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51~52쪽)

엔 엘돈 테너 회장

“부모는 또한 자녀가 어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개념과 사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만이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사탄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과 그가 지닌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인간이 그릇된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빛나가도록 이끌고 포로로 만들며, 그들이 누리게 될 지고한 행복과 승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4월, 58쪽; Ensign, 1973년 7월호, 8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우리가 몰몬경을 읽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한복음 4:14)이 우리 안에 있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로 우리의 정신을 채우고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거부하고 거듭남의 축복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

“저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에 있는 영이 우리 가정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경건의 영이 증가되고, 상호 존중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자라날 것입니다. 다툼의 영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을 권고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고에 더욱 순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의로움이 증가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삶에 신앙,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자비로운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95~97쪽)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이 어린 자녀들, 의의 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이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호 142; 또는 Ensign, 1974년 1월호, 111쪽)

엘 톰 페리 장로

“내가 처음 아버지가 되었을 당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계시던 때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그분은 늘 명백하고 직접적인 충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녀는 한 남자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은사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영적인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원리에 주의를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사랑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23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인격과 가족의 가치를 배우거나 삶의 방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을 얻기 위해 마음대로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엘마서 39:12 참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76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훈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순종심을 키우지 못한다면,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친절함 마음과 동정 및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순종심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정이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회가 가하는 난폭하고 무자비한 징계에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3쪽)”(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38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우리는 자녀들을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로 인도해야 하며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교리와 성약 121:41~43)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명예롭게 여길 것이며, 가정은 단합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1쪽)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주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태만히 한 지도적인 위치의 형제들과 실제로 시온에 있는 모든 부모들을 꾸짖으셨지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옮기워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3:41~50 참조)

“경전에는 우리가 언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지(교리와 성약 68:25~32; 신명기 8:5~9 참조)와,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배워서 안 되는지(모로나이서 7:14~19; 니파이후서 9:28~29 참조)와, 또한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지(니파이후서 28:14, 31; 모사이어서 23:14 참조) 까지도 지시되어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94쪽)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아버지는 제게 신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아론 신권 직분에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스테인리스 성찬기로 성찬을 전달했었는데, 성찬기가 넘친 물로 인해 얼룩이 져서 보기 흉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저는 성찬 준비를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 성찬기들을 집에 갖고 오게 하셨으며 저희는 성찬기가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철수세미로 닦았습니다. 성찬을 전달할 때 저는 우리가 성찬 의식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희 누이와 고모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모습을 통해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탁에서 맨 먼저 일어나 식탁을 치우셨습니다. 제 누이와 저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매일 밤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부엌을 치우시곤 하셨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8~9쪽)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침

고리와 성약 68:31~32

“이제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 또한 사악함 속에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니, 그런즉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말씀을 시온의 땅으로 가지고 갈지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함께 일하십시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게으른 마음은 악마를 숭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일하고 설거지하고 마루를 닦고 잔디를 깎고 나뭇가지와 덩굴을 치우고, …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8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전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는 말씀은 진부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복지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의견이나 권고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봉사나 적절한 집안 일 등을 통해 자신이 쓸 돈을 직접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다른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주는 일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 매주 혹은 매월 자동적으로 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가족 재정 지침”,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45~46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자제력과 순종심과 책임감을 지닌 자녀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장한 사람은 ‘저는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에 매혹되어 몇 시간이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처럼 됩니다.(*재림 클레프카제롬, 제국 사상 사전, 782쪽*) 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종종 방해가 되었지만 그 추억은 아주 값진 것이며, 그 일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리하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니파이후서 2:26)없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들은 모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8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56년 전에 주어진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성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일과 준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은 영원하고 피할 수 없는 율법입니다.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대회 보고, 1933년 4월, 103쪽) 좀더 최근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로 기록된 가르침은 일에 대한 영원한 원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19)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쉽게 사는 생활보다 근면한 생활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달성하고, 봉사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십니다.’(*Ensign, 1975년 11월호, 122쪽*)(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9쪽)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특히 도시의 수많은 자녀들은 충분히 일할 만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온종일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열세 살짜리 소년과 같습니다.

“그 소년은 ‘글쎄요, 아침 열 시나 열한 시쯤 일어나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그런 다음 애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자 애들도 보고, 뭐, 그렇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

“저는 김볼 회장님이 이 주제에 관해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부모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12쪽)

아버지의 의무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206~208쪽에 있는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참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학대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너무나 많으며 이들로부터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서둘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 문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자녀의 생애에서 자상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가정과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동안, 사회 문제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비행의 상당 부분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포기한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빈곤, 범죄, 마약 복용 및 가정 붕괴의 원인을 남자로서의 보살핌을 주어야 하는 아버지가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의 많은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점일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아버지라는 위치가 선택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자는 자기 남편이 데려감을 입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83:2)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남편의 몫임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모든 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복지도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과 성약으로 인해 (교리와 성약 84:99) 받게 되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 관해 주님은 ‘큰 일이 그들의 아버지의 손에 요구되도록’(교리와 성약 29:48)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입니다. 신생아와 갓난 아기의 생활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준비를 하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어머니는 주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가정 바깥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준비를 하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가 자존심을 갖게 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이 도덕적인 절제와 한계를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의 역할 확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가 관여하게 되면 자녀들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모두 다 성에 대한 인식이나 인격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가정 생활에 적극적인 때 아들은 남성다움을, 그리고 딸은 여성다움을 더 잘 표출하게 된다.’(칼 진 스마이스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가?” Crisis, 1992년 10월)

“어떤 부부 관계에 있는 부모든지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자녀 개개인의 차이를 구별하여 서로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도록 복돋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에 의해 부여된 이 권세를 거룩한 장소에서 집행되는 공식적인 의식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될 때에만 힘이 있고 생산적인 것이 됩니다. 말라기는 엘리야의 권세가 아비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란 곧 감정이 자리잡는 곳이며 계시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말라기 4:5~6 참조) 이러한 인봉의 권세는 가족 관계나 좋은 환경에서 잘 개발된 성품 및 덕성에서나 또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봉사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족을

함께 묶어 주는 끈이며, 신권을 통해 촉진됩니다. 감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적실 [교리와 성약 121:45]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지가 존중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경외하는 신권의 축복을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암을 진정 치유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께 가정으로 돌아가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족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5, 37쪽)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옛날에는, 적군이 이용할 만한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새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몰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파수대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도시가 요새화 되었으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요새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가정에 침입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 우리 가족 요새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용하려 하는 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에 있는 파수대의 한 가지는 아버지가 각 가족의 일원들을 정기적으로 접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접견은 우리 요새의 온전함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견을 통해, 우리는 자녀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점과 관심사를 배우며, 어떤 위험도 미리 볼 수 있게 해 주고, 그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도우며, 시련의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는 열린 대화와 신뢰를 구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니니다. 이것은 위임할 수도 없고 위임해서도 안 되는 책임입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39절과 4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

“영으로 인도되는 사랑스런 접견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절이나 변화를 가져오며, 심지어는 기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23~24쪽)

어머니의 의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모성은 세 가지 주요한 특성 즉 (1) 잉태할 권리, (2) 양육할 능력, (3) 사랑할 은사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능력과 의욕, 사랑의 은사,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의 열망, 혹은 염원으로 인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직분이나 부름을 갖게 됩니다.”(*Gospel Ideals*, 453쪽)

237쪽에 있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말씀 참조

352~357쪽에 있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참조

77쪽에 있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말씀 참조

357~360쪽에 있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교회의 여성” 참조

259~263쪽에 있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 참조

347~349쪽에 있는 “여성의 신성한 의무” 참조

사랑으로 훈육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랑은 가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종 거친 말의 표적이 됩니까? 왜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칼날처럼 날카로운 독설을 퍼붓습니까?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찬송가, 174장)에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82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훌륭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며,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표준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지원해 주는 사회는 드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도덕적 가치와 표준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덕을 가볍게 여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

“...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모든 자녀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한 자녀에게 통했던 방법이 다른 자녀에게는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은 그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고 어떤 방법은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기도로서 분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에는 처벌보다는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지도와 훈육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들을 훈육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규율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7~38쪽)

벤 비뱅크스 장로

“사랑으로 훈육함. “훈육”과 “벌”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벌은 마음을 상하게 하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훈육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윌리엄 이 노만, *리더스 다이제스트*, 1969년 10월호, 187~191쪽) 훈계에는 항상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29쪽)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부모가 되는 것을 준비함

브리검 영 회장

“어느 누구도 자신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다스린 후에야 그는 자녀들이 복되다고 부르는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265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와 또한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조화와 사랑을 가져다줍니다.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매일 매일의 가족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며, 모든 가족이 승영의 의식을 받고 영원히 인봉되는 것이며, 가족이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 무거운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52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9쪽)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낄 것이며 그 가정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 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가족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해질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9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점의 가장 민감한 면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다시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잠시 그들을 그대로 한편으로 제쳐놓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에 열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개조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 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과오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행동에서는 그런 과오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남들이 감히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빗나간 자녀들을 우려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책망할지언정 부모들을 언짢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즉각적인 경계를 요하는 편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도움이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도움의 방법이 여러분의 문제에

비견될 만큼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부를 당장에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은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종교나 복음의 원리를 무시한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종교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경전을 인용한다면 그 이야기가 부드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벗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지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할 때 한 쪽은 전혀 무시하고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부모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와 같은 문제에 당면하더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기력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나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나 그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겠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성도의 벗, 1971년 5월호, 26~27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부모에게 약간의 불신앙이 있을 경우, 자녀들이 큰 불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65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현대에 주어진 계시 가운데, ‘자녀에게 기도할 ...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는 먼저 기도할 때 사용할 만한 특별한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기도에도 사용되는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배우기 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매일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듣게 함으로써 기도에서 사용되는 이 언어를 배우는 특권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18쪽)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가족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의 아내에게만 맡기거나 사회, 학교, 심지어 교회에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0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를 말없이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이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부의 축적, 즉 재산의 증식은 주님의 가르침 안에 놓여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2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사랑, 신앙, 훈육, 희생, 인내 및 일 등과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가정이 강화되므로 작은 것이 곧 큰 것이 됩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39쪽)

엘 톰 페리 장로

“그러한 특권이 제게 주어져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면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더 잘 성취하기 위해 배우고, 대화하고, 계획하고, 조직하는 가족 집행 위원회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더욱 많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37쪽)

“가족의 전통을 세워 여러분이 함께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지지를 보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각 구성원을 위한 이러한 행사에는 유아 축복, 침례, 성전 의식, 졸업, 선교사 환송회, 선교사 귀환 모임, 또한 결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모이기가 힘들 때에는 특별한 편지를 써서 가족 역사에 소중히 보관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때에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 25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247쪽에 있는 인용문 참조

에이 디어더어 터틀 장로

“바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즐거운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가족 전통을 세우고 유지하십시오.”(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43쪽)

벤 비 뱅크스 장로

“일을 함께 함. 함께하는 방학과 오락 활동 또는 가족끼리 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일하는 습관과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일을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9쪽)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제 -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37~39쪽

부모가 되는 것은 신성한 부르임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가장 큰 목표라고 정한 주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특권 및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많은 부모들의 각기 다른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모든 답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 회원 중에 참으로 훌륭한 청년 청년이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실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 저의 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나?”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교리와 성약 93:40)고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훌륭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부르임 동시에,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소책자], 1쪽)

훌륭한 가정을 만들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목표가 없으며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신앙심 깊고, 행복하고, 존경할 만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갖게 되는 영광입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3서 1:4)라고 간증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예지와 직관적인 이해, 겸손, 의지, 지혜, 인내력 및 부지런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특히 명예와 예절의 도덕적 기초가 우리 주위에서 침식당하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며,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표준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지원해 주는 사회는 드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도덕적 가치와 표준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덕을 가볍게 여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는 부패해져서 도덕적인 표준을 잃어가고 있으며 가정 파탄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가장 큰 희망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와 가족이며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우리 주위에 스며드는 해로운 도덕적 부패에 대항해 설 수 있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조화, 행복, 평화 및 사랑은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에 도전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몇 달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부시 여사는 웰레슬리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갖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껴안아 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워싱턴 포스트, 1990년 6월 2일, 2쪽)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 성실한 부모는 훌륭한 성품을 지니게 되며, 구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인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가족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며 희생하시는 편부모 여러분에게 크나큰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우리는 존경을 표해야 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임무는 가정에 부모가 다 있을 때 훨씬 쉬워집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힘과 지혜를 몹시 필요로 합니다. ...

부모는 모범을 보여야 함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험을 피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세상 경험이 많고 세상 일에 현명하기 때문에 벼랑에 너희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부모의 위선적 행위는 자녀들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금지한 영화를 본다면, 부모로서의 신뢰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정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덕성스럽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성 중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다른 사람의 신앙과 애국심에 대한 존중,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존중 등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디모데전서 5:4)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훈육함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를 적절하게 잘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모든 자녀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한 자녀에게 통했던 방법이 다른 자녀에게는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은 그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고 어떤 방법은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기도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에는 처벌보다는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징계한 후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랑과 도움의 능력 이상으로 징계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했습니다.(설교집, 9:124~125) 그러나, 지도와 훈육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들을 훈육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규율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순종심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친절함 마음과 동정 및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순종심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정이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회가 가하는 난폭하고 무자비한 징계에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3쪽)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침

자제력과 순종심과 책임감을 지닌 자녀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장한 사람은 “저는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에 매혹되어 몇 시간이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처럼 됩니다.(제롬 클레프카제롬, 제국 사상 사전, 782쪽) 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종종 방해가 되었지만 그 추억은 아주 값진 것이며, 그 일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리하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니파이후서 2:26) 않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들은 모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원예가인 루터 버뱅크는 “우리가 자녀에게 기울이는 관심만큼 식물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잡초가 우거진 정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엘버트 합바드의 스크랩북, 227쪽)

부모를 위한 특별 과제

우리 자녀들도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덕적 선택의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지로 자녀들이 이기심, 낭비, 방종 또는 자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선택의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염려와 관심을 가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의의 원리대로 살아온 부모는 일부 자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알고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좋은 행실을 보증할 수 없듯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항상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나 옴의 인내까지 요구하는 자녀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물질을 준 부모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일부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 줄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이 베푸는 사람은 곧 그들이 자녀를 더 이상 훈육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 주어서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 150쪽; *Ensign*, 1975년 5월호, 101쪽) 우리는 애써서 별지 않고 얻게 된 물질에 감사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져 인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녀가 친구들이 하는 잘못을

그대로 저지를까봐 염려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자녀들이 가치를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도록 도움

일반적으로 마약, 알코올,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살아오면서 가르쳐 온 훌륭한 가치관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들 동료의 행동이나 알코올, 부도덕한 행위, 간음, 부정직, 기타 사악한 것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송 매체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으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앨마서 56:47~48)라고 한 힐라랜의 이친 용사와 같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가치를 자녀들의 생활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은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조가 자녀들의 영혼에 심어질 때 그들은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경전은 자녀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의 교리”를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8:25) 이러한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나 정부 또는 사회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수많은 사랑의 실

부모가 가르치는 때가 언제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에서 배웠습니다. 찰스 헨리 파크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완성된 아름다움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젊은 관원에게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야망을 알리신 이야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이야기, 불을 지피 생선을 구워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시던 이야기,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춥고 지치고 실망한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던 이야기 등의 사소한 행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모든 것들은 매우 특별하고, 가장 작은 것에 깊은 염려를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나타난 진정한 특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매우 쉽게 이해시켜 줍니다. (“친절과 사랑”, 금으로 된 잎,

펜실베이니아 주 혼스테일 코슬 출판사, 1938년, 177쪽)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신앙, 훈육, 희생, 인내 및 일 등과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위들을 통해 가정이 강화되므로 작은 것이 곧 큰 것이 됩니다.

성약의 자녀들

복음에 충실한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영원한 인봉을 받은 자녀들은 성약을 충실히 지킨 그들의 용감한 선조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은 이러한 위대한 성약과 약속의 상속자가 되며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올슨 에프 휘트니,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111쪽 참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며, 존경 받는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충실한 부모가 지키는 성약을 특별히 영화롭게 해 주시며 성약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구원의 계획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우리들은 명백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2~75쪽

구원의 계획, 영원으로 가는 도로의 지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구원의 계획 또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이 영원으로 가는 도로의 지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생에서의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부모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영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제일회장단 말씀, *Improvement Era*, 1912년 3월, 417쪽; 예레미야 1:5 참조) 우리는 영생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생은 단지 어떤 임의의 과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특별한 안목을 제시해 줍니다.

천국 회의

인생에 관한 이해는 천국 회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에 관한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육신과 필멸의 경험이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발전했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세에 관한 기억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겠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야 했습니다.

필멸의 생 동안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죄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구주를 보내 주시기로 계획하셨으며,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사망으로부터 구속되며, 그분께서 명하신 조건대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케 되는 데 필요한 대가가 치루어질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29~24 참조)

사탄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서 선택의 능력을 빼앗아 죄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모두를 다 구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거부되자 사탄은 그를 따르던 영들과 함께 아버지의 계획을 반대하였으며, 결국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했던 행동들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상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하려 함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비록 육신을 가질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그들의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험하는 데 필수적인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방해하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사탄은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방해하며, 속죄로 인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며, 계시를 흉내내어 혼동시키며,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끌어 내며,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게 하며, 성의 구별을 혼란시키며, 결혼을 중요치 않게 여기게 하고(특히 자녀를 의롭게 양육하게 될 부모들에게서) 산아 제한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성, 결혼, 자녀의 출산 등은 계획에 있어 필수적임

남성다움, 여성다움, 결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모두 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현대의 계시는 성의 차이가 전세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교리와 성약 20:18; 모세서 2:27; 창세기 1:27)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비교적 짧은 필멸의 인생에서만 나타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세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특성이었습니다.”(*Millennial Star*,

1922년 8월 24일, 539쪽)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상의 첫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모세서 2:28; 창세기 1:18; 아브라함서 4:28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순서적으로도 첫째이고 중요성으로 봐서도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에게 있어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필요성

아담과 이브가 이 첫째 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영의 세계를 떠나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죽음에 예속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출산의 능력도 갖지 못한 과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행복과 필멸의 인생의 엄청난 시험 및 그와 더불어 오는 훌륭한 기회들을 분리하는 벽을 없애기 위해 범법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그 첫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게시되지 않은 이유들을 위한 이 전환, 곧 “타락”은 범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의지를 행사하여 고의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모세서 6:59 참조) 이것은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범법이었으며,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니파이후서 2:22)고 태초에 창조되었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며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였”(23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락이 계획되어졌고, 리하이는 그 이유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24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브의 지혜와 용기

필멸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에덴의 한계를 깨뜨린 사람은 이브였습니다.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이브의 행동은 엄밀히 말하면 범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영생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아담 역시 똑같이 행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브와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25절)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브의 행위를 비난하여 이브와 그녀의 딸들이 그 때문에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후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브의 행위를 찬미하며 타락으로 불리는 그 위대한 사건에서 보인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합니다.(브르스 알 맥콩키, “이브와 타락”, 여성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67~68쪽 참조)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조셉 스미스의 말씀, 앤드류 에프 옛과 린든 더블류 쿡 편,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종교 연구 센터, 1980년, 63쪽 참조) 브리검 영은 “우리는 결코 이브를 추호라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설교집, 13:145)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나는 이 타락에서 이브가 맡은 역할을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며, 죄를 지었다고 아담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 이것은 범법이었으나 ... 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구원의 교리, 1권, 108쪽)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범법의 차이

이 죄와 범법의 차이점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개조 제2조의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의 신중한 표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법에서 보면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또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 등의 기타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타락을 초래했던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금지되어졌기 때문에 범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언제나 어떤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이가 타락의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최초의 부모는 타락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부모가 타락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을 것임이니라.”(모세서 5:10)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목적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이브의 독특한 안목과 뛰어난 지혜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니라.”(11절)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나기 위해 모인 “위대하고 뛰어난 자”를 보셨으며 그 중에 있는

“영화로운 어머니인 이브”(교리와 성약 138:38~39)도 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과 결과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통제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의 선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을 혼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압력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안목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의무와 특권을 변경시키려는 것들에 반대합니다. 관습이나 법적인 면에서의 변화 중에는 단지 영원한 원리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것들도 있는 까닭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대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출산 능력의 사용과 오용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권능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오용을 금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순결의 법을 강조하는가는 출산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함으로써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산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혼 관계 내에서만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내에서의 애정 행위는 올바른 것이며 허가되어진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고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스럽지 않거나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311쪽)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어느 정도라도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물론경은 불순결을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앨마서 39:5)이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의 교회 제일회장은 “남성과 여성의 불법적인 성 관계인 성적인 죄는 살인 다음으로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 교회의 교리로 선포해 왔습니다.(제일회장단 메시지, 1942년 10월 3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 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1975년, 6:176에서 인용)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난잡한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기 성도들에게서는 그러한 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파괴하거나 오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숙한 책임을 집니다.

낙태

가장 심각한 파괴 행위는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태가 그토록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낙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법적인 취지로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관해 알려진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야 하며 우리 개개인의 존재는 잉태하기 오래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을 두고 계속된다는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낙태하는 행위가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6)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회 지침서 1989년 판에 대한 1991년 보충 자료, 1쪽)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므로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독특한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역시 관습과 법률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몇몇 유력한 세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함

결혼 생활을 경시하는 부부가 계속 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 가운데에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거나 자녀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인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는 한 가정당 한 사람이 일하여 가족을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통념이 바뀌어 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일하는 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낙태, 이혼, 어린이 경시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합법적인 출생의 환경을 제공하며 명생을 위해 가족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결혼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의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1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에 관한 개념은 세상의 사회학에서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라고 가르쳤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합당하고 성공적인 결혼 없이는 결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결혼과 이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2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습에 따라 남자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남성들에게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결혼 연령에 이른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복음 교리*, 247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30대의 합당한 후기 성도 형제가 재산을 모으는 데 바쁘고 가족을 갖는 데서 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즐기며 결혼에 관해 긴박함을 못 느끼고 사는 예들을 봅니다. 형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후기 성도들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관해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자녀들은 가정 경제 조직에 있어서 단순히 일꾼이나 그들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압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안락이나 편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해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6:19~21 참조)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땅과 하늘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김볼 회장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질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대회 보고, 1979년 5월, 6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물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룬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진전시키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결코 자녀를 세상이 “자기

성취”로 부르는 것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희생을 기대하는 그 어린 자녀들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양할 수 있는 만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부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주거를 제공하며 또 그들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후기 성도 부모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대가족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원하는 수만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젊은 후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권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과 의미 및 신성함, 영원한 여행에 있어서의 우리 지체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필멸의 인생을 경험할 필요성, 가정에서 자녀가 있음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기쁨 및 훌륭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이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것을 볼 때 저는 가까이 자녀수에 관한 문제를 그 사람들 자신과 주님께로 맡깁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Brigham Young University*

1983~1984년,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Provo: University Publications, 1984], 11쪽)

어떤 축복도 거부되지 아니함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 모릅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합당한 많은 후기 성도들이 자신의 진보에 꼭 필요한 조건과 이상적인 기회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독신, 자녀가 없음, 사망 그리고 이혼 등이 우리의 이상을 좌절시키고 약속된 축복을 지연시킵니다. 게다가 집에서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싶어 하면서도 문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은 단지 순간적인 뿐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고 성약에 충실하며 옳은 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후기 성도들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관해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거부될 축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받지 못한 아주 중요한 많은 축복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합당한 자녀를 위한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불완전한 모든 것이 성취될 복천년 기간에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들 역시 그렇게 될 것임을 압니다. 저는 가족 관계나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와 순리대로 행함

저는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순간적인 변화 때문에 성약을 잊거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우리들은 명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해서 행하기를 소망해야 하며,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처한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모사이야서 4:27)고 한 베냐민 왕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낙담할 때마다 이 영감에 찬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과 고통”까지 떠맡으시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엘마서 7:11~12)고 하신 구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외설물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외설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외설물이 데이트, 결혼 생활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베드로의 말을 빌어 우리는 ‘...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베드로전서 2:11)고 권고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을 더럽히는 불결한 노출이나 외설물 혹은 탈선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성도의 벗, 1974년 8월호, 36쪽)

“우리는 부모와 지도자들이 외설물에 대해 관용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만 오늘날 정상적이고 만족을 주는 음식물처럼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그것으로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외설물과 저속한 욕구와 도착 사이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르가즘, 스트리킹, 파트너 교환하기 등 이와 비슷한 광적인 일을 사모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세상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젊음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오염된 더러운 지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들에게 온갖 힘을 다해 이 부도덕한 일을 그만두도록 권고합니다.

“외설물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와 직결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윤락 행위, 상업화된 죄악의 씨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부도덕의 온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죄와 외설물 사이의 관계를 성 범죄 통계 자료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의 가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온갖 노력을 다 해서라도 그들의 자녀를 이러한 것로부터 보호하도록 당부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허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오늘날의 추세가 이 시대의 도덕의 근간을 썩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의 동성애도 모두 죄입니다. 외설물은 바로 이러한 죄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엔 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2~33쪽)

“외설물은 성과 인간성을 타락시킨다. 성이란 인간 관계의 매우 미묘한 부분이다. 성을 남용하여 타락시키면, 스스로가 동물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인간성마저 타락시키고 만다.

“그와 같이 퍼져나갈 때, 모든 인류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음란은 문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음란은 우리의 기본되는 신앙을 해치며, 가정의 윤리를 해친다.’(래리 패리쉬, 미국 변호사, “외설물 퇴치 투쟁”, 76쪽) ...

“외설물로 인해 야기되는 죄는 불행하게도 낙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서운 불법 행위로 번져가게 됩니다.”(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4쪽)

“우리는 계속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여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혼, 별거, 야만적 행위나 욕설과 같은 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적든 간에 가족의 순결을 파괴시키는 부도덕과 외설물 및 성적인 문란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5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덕은 거룩함과 같은 종류의 특성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덕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을 열심히 찾아야 하며 저속하거나 추한 것을 추구해선 안 됩니다. 덕이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장식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외설물, 신성 모독, 저속한 것에 탐닉하면서도 자신이 전적으로 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0쪽)

해롤드 비 리 회장

“우리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또한 우리의 젊은 남녀들, 특히 세상에 방심하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을 덮어 걸리게 하려 애쓰고 있는 교활한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술 판매, 도박, 매춘, 외설물 등에 대한 투쟁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우려는 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4월, 54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음화나 유희나 건전치 못한 상상들은 인간의 인격을 부식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로 인해 결혼 생활에서의 융화와 신뢰가 파괴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과 그의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0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미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악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추악한 음란물과 외설스럽고 사악한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사람의 표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60쪽)

“오늘날 우리 주위에 외설물의 병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멸시키고, 자존심을 잃고,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음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정글의 숨겨진 폭탄이 외설물을 보고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

“그러한 유혹에 빠진 자들은 성 도착증, 폭력, 이수성 등을 묘사한 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종교 활동은 빛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혼합될 수 없듯이, 양자는 서로 혼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70~71쪽)

“여러분은 이혼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혼의 간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오락물과 사악한 욕구와 비난 받을 행동으로 이끄는 외설물을 추방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귀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외설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거나 성에 대한 자제의 빗장을 풀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소년들에게는 소녀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소녀들에게는 소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여러분 내부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억제하고 가라앉히며 잘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을 파멸시키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많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1쪽)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어떤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5세의 남성이며 개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외설물에 탐닉하며 보냈습니다. 고백하기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마치 술과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그러한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처음 그러한 것들을 접하였습니다. 사촌 형이 저를 성적으로 희롱하였으며 저는 외설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과 외설물에 접한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에 빠져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외설물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전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뜻이며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교회의 형제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모든 외설물을 피하고 없애버리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힝클리 회장님, 저와 또 저와 같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이 무서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품위를 떨어뜨리고 멸망을 자초하는 이러한 외설물에 탐닉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그러한 것들이 상영되면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우유부단하게 그 앞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비디오 테이프를 피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같은 종류입니다. 외설적인 잡지를 비롯한 해로운 서적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한 파괴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여 성품과 자제력을 망치는 경험에 비해, 보고 읽어야 할 훌륭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되십시오-옳은 것을 강하게 지키십시오. 우리는 타협과 묵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만 동료들의 압력과 우리를 설득하는 기만적인 메시지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굴복당하고 나서는 스스로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자신의 신념에 따른 힘을 길러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51~52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무엇을 읽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외설물은 특히 위험하며 습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한 외설물이 어쩔 수 없는 습관에

젖어들게 하여 점점 더 노골적인 쪽으로 빠져들게 하며, 결국은 성적인 범죄로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영화관을 나오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책이나 다른 형태의 오락물이 합당한지 아닌지 의문이 생길 때는, 무엇이든 보거나 읽지 말고 참여하지도 마십시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53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심지어는 삶 자체가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0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사탄이 후일에 가족의 단위를 파괴하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법이 외설물을 용납하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성도의 벗, 1971년 5월호, 21쪽)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외설물이라고 부르는 좀벌레는 치명적이어서,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면역을 떨어뜨리며, 항상해 나가려는 의도를 막습니다.”(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97쪽)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감각을 둔화시키는 폭력이나 외설물은 앞으로 보다 거칠고 보다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곧 그는 무감각해져서 특히 자신의 가정과 가족에게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행동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에 피임을 받아 놀랍고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08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작은 외설물 하나가 아동 및 배우자 학대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자존심마저 서서히 파괴해 버릴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67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우리는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살인자가 대중 매체에 나오는 외설물과 폭력물이 그의 생애 미친 영향에 대해 고백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에베소서 4:19) 행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폭력과 부도덕한 것에 접하게 될 때 그러한 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98쪽)

영화와 비디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우리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것처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이 불순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거쳐 가면 결코 원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나 저속한 비디오를 보지 마시고 부도덕하고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어떠한 오락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악은 듣지 마십시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9쪽)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대중 매체의 부도덕한 것들을 피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대중 매체의 폐해를 통해 많은 후기 성도들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성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로 인도될 수 있는 길에다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감독은 와드 청소년 신권 소유자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감독은 청소년과의 개인 접견을 통해 많은 수가 연소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영화를 보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는 가지 않아요. 집에서 보니까요. 유선 TV가 있어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죠.’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 특히 자녀들 침실에 유선 TV나 일반 수상기를 무분별하게 놓아두는 일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경스런 말, 나체, 섹스, 폭력에 노출된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진흙에서 구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수의 젊은 후기 성도는 물론 그들의 부모 역시 정기적으로 연소자 관람 불가인 영화와 비디오, 기타 불건전한 영화나 비디오를 관람하는 것은 정말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악마가 웃으며 그의 사사들이 기뻐함’ (제3니파이 9:2)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주님의 선지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청소년과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권고하셨습니다.

“깨끗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깨끗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령의 청소년에게는 항상 유혹이 따릅니다. TV, 책, 잡지, 비디오 등이 그런 유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보지도 마십시오. 누가 밤새 앉아서 부도덕한 것들을 같이 보자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콜로라도 주 덴버, 청소년 모임, 1996년 4월 14일)

“주님과 그분의 살아계신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 매체의 부도덕한 것들을 피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0쪽)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꺼 버리고, 그것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태워 버리고 지워 버리고 부숴 버리십시오. 저는 우리가 성인 영화나 부모를 동반했을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입장이 가능한 영화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권고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등급 체계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연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영화나 음악이나 테이프 등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암흑의 왕인 사탄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43쪽)

교만

본질적으로 교만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 6쪽

파수꾼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지는 않다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우리는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들

주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이 자라는 데 따라서 나쁜 것을 쳐 버려서, ...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이기고, 나쁜 것은 찌혀 불에 던지워,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되기까지”(야곱서 5:66) 그것은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의 사회를 만들게 해 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

교만

이제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의로운 교만과 같은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죄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가장 잘 형성되는 자신의 가치에 관한 건전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말했듯이 보편적인 죄로서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몬은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교만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의 멸망이 되었다.”(모로나이서 8:27)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교만을 조심하여 옛 니파이인과 같이 되지 말라.”(교리와 성약 38:39)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본질적으로 교만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 온유함, 순종 또는 온순함입니다.(앨마서 13:28 참조)

회복된 교회의 초기 시대에 주님은 두 회원에게 교만에 관해 훌륭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분은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조심하라.”(교리와 성약 23:1)고 하였고, 에머 스미스에게는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교만을 조심하라.”(교리와 성약 25:14)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네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교리와 성약 42:40)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몰몬경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모사이야서 4:10)고 말합니다.

지구가 후일에 불로써 깨끗하게 될 때 교만은 초개와 같이 될 것입니다.(제3니파이 25:1; 교리와 성약 29:9, 62:24 참조)

리하이가 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이었고, 그 안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니파이전서 11:35~36 참조) 곧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사람들을 그 건물에 있는 자들은 놀리고 조롱했습니다.(니파이전서 8:20, 27, 33, 11:25 참조)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는 빛”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니파이후서 28:14)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며 옳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겉눈질로 보며 누가 옳은가에 대해 논쟁합니다. 교만은 분쟁하는 마음에 나타납니다.

사탄이 악마가 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자신의 위치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위에 올라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생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 보다는 “나는 이 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주위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찬사가 그들의 꺾전에 땀뭇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은 어느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뛰어나기를 구하며 내 앞에서 충분히 은유하지 아니하므로, 나 주가 그를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함이니라.”(교리와 성약 58:41)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

교만으로 인해 큰 고난을 받았던 몰몬경에 나오는 두 무리는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니파이후서 28:15)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엘마서 4:19 참조)

교만에는 큰 저주가 따르지만 겸손에는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예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그들이 겸손한 만큼, 강하게 되게 하며,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게 하며, 시시로 지식을 받게”(교리와 성약 1:28)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비로”(교리와 성약 61:2)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 있습니다.(힐라맨서 11:11 참조)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생활과 가족과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만은 변화하여 발전하려 하지 않고 합리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려 합니다.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겸손한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느 정도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거둘 수 있도록 몰몬경을 올바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겸손하여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시게 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축복을 전해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7쪽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맞는 영광스런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세계의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기도와 봉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몰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자 노력하시는 충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몰몬경을 보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과 온 지상에 그 놀라운 메시지를 더욱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니파이전서 19:23 참조)

교만의 죄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이 “타락한 백성의 기록”(교리와 성약 20:9)임을 말해 줍니다. 왜 그들은 타락했습니까? 그것이 몰몬경의 주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몰몬경은 끝부분에서 이와 같이 답해 줍니다.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교만이, … 그들의 멸망이 되었도다.”(모로나이서 8:27) 그 타락한 백성들로부터 나온 중요한 몰몬경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옛날의 니파이인들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교리와 성약 38:39)

나는 간절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의 도움을 구하며, 이 몰몬경 메시지인 교만이라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 동안 나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교만을 조심하라”

전세의 회의에서,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가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니파이후서 24:12~15; 교리와 성약 76:25~27; 모세서 4:3 참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불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때, 교만한 자는 초개와 같이 될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 받게 될 것입니다.(제3니파이 12:5, 25:1; 교리와 성약 29:9; 조셉 스미스-마태 1:37; 말라기 4:1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교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교회의 두 번째 장로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선지자의 아내인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포함됩니다.(교리와 성약 23:1; 25:14; 38:39 참조)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교만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죄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죄를 짓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1; 제3니파이 6:18 참조) 경전에는 의로운 교만과 같은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여 경전에 나오는 단어를 알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4:15; 모사이야서 1:3~7; 엘마서 5:61 참조)

우리는 대체로 교만을 자기 중심, 자만, 자랑, 거만함 또는 오만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죄의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교만의 중심적인 양상은 적대감,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란 증오의 감정, 적개심 또는 반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빌립보서 2:21)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에 더 치중하면 소망과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엘마서 38:12; 제3니파이 12:30 참조)

교만한 자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힐라맨서 12:6 참조)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보다는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신권 권능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보다는 그들의 성취를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은 반항, 강박한 마음, 완고함, 회개치 않음, 자랑, 쉽게 성내고 표적을 구하는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적대감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교만이라는 죄의 다른 중요한 면은 우리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그들을 낮추어 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힐라맨서 6:17; 교리와 성약 58:41 참조)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의견, 행실, 부, 재능 또는 기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비교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위에 있다는 즐거움은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 비교의 요소가 사라지면, 교만도 사라진다.”(순수한 기독교 정신[뉴욕: 맥밀란, 1952], 109~110쪽)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쟁하여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모세서 4:1~3 참조)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존경 받기를 원했습니다.(니파이후서 24:13 참조) 간단히 말해서 그의 교만한 욕망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29:36; 76:28 참조)

교만의 결과

경전에는 개인이나 단체, 도시나 나라에서의 교만이란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언 16:18) 교만은 니파이 민족과 소돔 시를 멸망시켰습니다.(모로나이서 8:27; 에스겔 16:49~50 참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리새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화를 냈으며, 그것은 그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요한복음 11:53 참조)

사울은 교만으로 인해 다윗을 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질투가 났습니다.(사무엘상 18:6~8 참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교리와 성약 3:6~7; 30:1~2; 60:2 참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아 왕은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풀어 주려 했으나, 그의 사악한 제사들이 그의 교만에 호소하여 아빈아다이를 불길 속에 처넣게 했습니다.(모로나이서 17:11~12 참조)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그의 아내의 요청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얕은 자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교만한 욕망으로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마태복음 14:9; 마가복음 6:26 참조)

인간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요한복음 12:42~43)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동기를 보면 죄가 어디에 있는지 곧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항상” 했다고 했습니다.(요한복음 8:29) 우리의 동기가 우리 자신을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보다는 월급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많은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인한 적대감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신의 속삭임보다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논리를 따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교만한 자는 쇠막대를 지나칩니다.(니파이전서 8:19~28; 11:25; 15:23~24 참조)

교만이 나타나는 방법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은 거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교만이란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부자나 학식있는 자와 같은 높은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합니다.(니파이후서 9:42 참조)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훨씬 더 흔히 보게 되는 문제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결점 찾기, 험담, 비난, 불평, 분수에 넘치는 생활, 질투, 탐심, 배은망덕, 용서하지 않고 시기함 등 너무나 많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 위에 있는 권능있는 자에 대해 싸우는 분명한 교만입니다. 그 대상은 부모나 신권 지도자, 교사 또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은 좀더 흔히 보는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자기 기만, 자기 연민, 세상적인 자기 성취, 자기 만족 및 자기 본위와 같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영광”과 힘을 얻기 위해 세워지는 비밀 결사를 낳습니다.(힐라맨서 7:5; 이더서 8:9, 16, 22~23; 모세서 5:31 참조) 소위 비밀 결사라는 교만의 열매는 야벳인과 니파이인의 문명의 몰락을 초래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이더서 8:18~25 참조)

교만의 다른 모습은 논쟁하는 것입니다. 말다툼, 싸움, 불의한 지배, 세대 차이, 이혼, 배우자 학대, 폭동 및 소요 ... 이러한 모든 것은 교만이라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가정에서의 논쟁은 주님의 영을 쫓아냅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가족들을 쫓아냅니다. 논쟁은 거친 말에서부터 세계 도처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잠언 13:10; 28:25 참조)고 말해 줍니다.

경전은 교만한 자는 쉽게 화내며 악의를 품는다고 증거해 줍니다.(니파이전서 16:1~3 참조) 그들은 그것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고 상처 받은 그들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려 듭니다.

교만한 자는 권고나 시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잠언 15:10; 아모스 5:10 참조) 자기 방어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마태복음 3:9; 요한복음 6:30~59 참조) 교만한 자는 그들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세상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그들은 업적에 있어서나, 재능이나 아름다움이나 지적인 면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있을수록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교만은 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했다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죄”

교만은 그 말 자체로 보면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제한시키거나 멈추게 합니다.(엘마서 12:10~11 참조) 교만한 사람은 쉽게 가르침 받지 못합니다.(니파이전서 15:3, 7~11 참조) 그들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 그의 종과 우리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고용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인류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교만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올려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까?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과 형제 관계라는 인식을 버리게 해 줍니다. 교만은 우리가 “그들의 부와 그들의 배움을 위한 기회를”(제3니파이 6:12) 따라 우리를 구분하고 나누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단합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모사이야서 18:21; 교리와 성약 38:27; 105:2~4; 모세서 7:18 참조)

교만의 대가

교만으로 인해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 우리 가정, 교회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회개하여 생활이 변하고,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강화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감정이 상하고 교만으로 인해 용서치 못하고 주님의 식탁에 온전히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이 저조하게 된 많은 회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아니었다면 선교 사업에 나가 있었을 수많은 젊은이들과 부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앨마서 10:6; 힐라맨서 3:34~35 참조)

만약 성전 사업에 쏟는 시간을 우리 시대에 교만한 마음으로 다투어 추구하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성전 사업이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인 죄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때와 정도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교만을 나타내는 리하이의 꿈에서 본 건물이 왜 것처럼 크고 넓었으며 그 곳으로 들어간 무리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니파이전서 8:26, 33, 11:35~36 참조)

교만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겸손: 교만의 치료제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순종입니다.(앨마서 7:23 참조)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제3니파이 9:20; 12:19; 교리와 성약 20:37; 59:8; 시편 34:18; 이사야 57:15; 66:2) 루드야드 키플링이 그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걱정 소요 사라지고
수령과 왕은 떠나가,
주께서 보이신 희생
결단코 없이지않네.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영문 찬송가, 80장)

겸손을 선택함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앨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앨마서 32:16)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하며, 우리와 같이 또는 더 높이 올려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38:24; 81:5; 84:106 참조)

우리는 권고와 징계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야곱서 4:10; 힐라맨서 15:3; 교리와 성약 63:55; 101:4~5; 108:1; 124:61, 84; 136:31; 잠언 9:8 참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3:11, 14; 교리와 성약 64:10 참조)

우리는 현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16~17 참조)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앨마서 4:19; 31:5; 48:20 참조)

좀더 자주 성전에 감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8:43; 모사이야서 27:25~26; 앨마서 5:7~14, 49 참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1:11; 13:33; 모로나이서 10:32 참조)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시온의 큰 장애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지 못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인들 간에 헌신이 종말을 맞이했던 것도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제4니파이 1:24~25 참조)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여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앨마서 6:2~4; 마태복음 23:25~26 참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교만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유순, 온유,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3:19; 앨마서 13:28 참조)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리

원리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항구적인 진리, 율법,
규칙 등을 말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우리는 … 매일 경전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

“여러분이 …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전에 몰두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 속에 들어 있는 원리를 익히십시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1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이 기사에 나온 원리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원리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항구적인 진리, 율법, 규칙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리란 세세한 것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구적인 진리, 즉 원리를 여러분의 뜻으로 삼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17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교리를 통해 우리는 행동의 원리, 즉 일상 생활의 문제, 심지어는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20쪽)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일포드 우드럽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밝혀진 원리들은 여러분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공모로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원리들입니다. … 이 원리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거나 파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Journal of Discourses, 22:342]”(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2쪽)

“조직, 프로그램, 절차, 정책 및 원리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만일, 계시에서(계시에 있는 복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공의와 자비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징계와 용서에 관해 어떤 것을 계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판단력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영감 받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

“교회 행정의 모든 면은 복음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침서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경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제반 절차, 프로그램, 행정 정책 및 심지어 일부 조직 형태까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사실 바뀔야 합니다. 그러나, 제반 원리와 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

“…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후기 성도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신권 행정의 참된 본질은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교리에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는 관리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원리, 성도의 벗, 1985년 10~11월호, 39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현세적이고 영적인 위대한 힘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개인적인 힘과 능력은 주님의 살아 있는 특사들이 가르치는 영원한 원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74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교회의 표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음의 강력하고 정확한 원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복음의 원리에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부분이 서로 떨어지거나 고립될 때, 사람들이 교리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조화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8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원리들을 탐구하십시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적인 내용들로부터 그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추려내십시오. 원리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축된 진리입니다. 참된 원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격심한 상황 아래에서도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단순한 원리의 말씀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86쪽)

“사람은 항상 참된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유익을 얻습니다. 용감한 폴리네시아인들은 튼튼하지 못한 배를 타고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목적지를 향해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위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해의 왕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리들을 반드시 들고야 말겠다는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며, 항로를 변경하거나 항해를 지연시키게 하려는 온갖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도 계시된 진리에 뿌리를 둔 올바른 원리들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준행함으로써 인생의 가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안전의 닻입니다. 그것은 강철 앵커 없이는 오를 수 없는 벼랑을 정복하기 위해 산악인들이 사용하는 그 강철 앵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원리들은 여러분이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또한 폭풍우와 같은 삶의 역경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도 할 것입니다.

“계시된 진리에 정성을 다해 꾸준히 순종할 때 오늘날 주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초래되는 온갖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리의 풍부한 힘을 통해 여러분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는 조셉 스미스의 영감에 찬 말씀을 아직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존 테일러 인용, *밀레니얼 스타*, 1851년 11월 15일, 339쪽)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구주와 선지자들과 경전, 특히 몰몬경의 가르침에서 올바른 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원리를 찾기는 비교적 쉽지만, 생활에서 완전히 습관화 되기까지 그것에 따라 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리들은 여러분의 가슴속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고, 유혹과 동료들의 압력과 ‘쉬운 길’이라는 거짓된 매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원리들을 굳건히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급박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성품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리를 꾸준히 따를 때 여러분은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매혹적이지만 거짓된 생활 양식을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이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 여러분의 희생 하나 하나는 소중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닻을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에 두십시오. 삶 그 자체보다, 또 지상의 사랑하는 동반자나 자녀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르겠다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2, 34쪽)

우선 순위와 균형

마음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애의 우선 순위를 용기 있게
평가해 보십시오.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필멸의 생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선택의지를 잘 사용하여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혼란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에서 확실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Disposition of a Disciple*, 68쪽)

“이 말이 세상 일을 제쳐 놓는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도덕한 가라는 일과 훌륭한 나라는 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훌륭한 다라는 것과 역시 중요하고 훌륭한 라라는 것에 대해 시간과 재능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쪽)

“주님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모세서 1:39)이 그의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진정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재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정해질 것입니다.”(*We will Prove Them Herewith*, 66~67쪽)

영적인 우선 순위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저는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마치 피아노 건반의 키와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키들은 다른 키들보다 자주 사용되지만 화음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키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과 모임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균형, 즉 이 곳 저 곳에서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되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Conference Report, 1976년 4월, 70쪽; *Ensign*, 1976년 5월호, 46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적당한 위치로 가게 되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애정과 시간을 바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와 우선 순위 등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쪽)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생활에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Come unto Christ*, 92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선 순위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조성, 마태복음 6:33) 고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현대 계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라,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 펼쳐지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부하게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그가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7)(*Pure in Heart*, 6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우리가 정말로 귀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개인적인 위기가 필요합니다. 경전에는 위기를 직면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애의 우선 순위를 용기 있게 평가해 본다면 내가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우선 순위에 더 좋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13쪽)

가족의 우선 순위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배우자의 삶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며,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기타 다른 어떤 이해 관계나 사람이나 사물 등도 배우자를 우선할 수 없게 됩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10~311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때로는 젊은 신권 소유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교회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업이나 교회 부름에서 성공하더라도 만일 가정에서 실패할 경우 실망 속에서 영원을 맞게 될 것입니다. … 가정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느껴지도록 계획한 곳입니다.”(*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09~510쪽)

존 에이 윌소 장로

“교회는 여러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318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현재 주어진 상황의 심각성을 돌이켜 볼 때, 부모님들이 밖에서 하는 일을 한 가지만 포기하고 그 시간과 재능을 가족에게 내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 인생에서 더욱더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 계획표와 우선 순위를 신중히 생각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을 바쳐 헌신하던 브리검 영조차도 한때 주님으로부터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어다.’(교리와 성약 126:3)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철저한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90쪽)

회원들에게 보내는 제일회장단의 서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Church News, 1999년 2월 27일, 3쪽

수신: 세계 전역의 교회 회원

(성찬식 시간에 읽거나 가정 복음 교사가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

부모와 자녀 되시는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을 비롯한 교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부모님들을 도와 주셔서, 그분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가족을 양육하는 동안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요일에 세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정규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갖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규 모임 전 아침에 평의회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저녁 시간에 노년의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강화시키는 일은, 바로 교회 전체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제일회장단

시온의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의회 회장 대리

성도의 빛, 1999년 1월호,
22~24쪽

시온의 부모

1831년, 주님께서는 시온의 부모에게 한 계시를 주셨습니다.¹ 저는 부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의회에서 28년 간 봉사해 왔으며, 십이사도 보조로 9년 간 봉사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37년이 되는데, 이는 정확히 제 인생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오래된 또 하나의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부름입니다. 곧 아버지요 할아버지로서의 부름입니다. 할아버지란 호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란 호칭을 얻기까지 또다시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호칭들, 즉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란 호칭에는 책임과 경험에서 배어 나오는 권위가 따릅니다. 경험이란 강력한 스승입니다.

가족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

제가 가진 신권의 부름은 교회에서의 제 위치를 나타내 주고, 할아버지란 호칭은 가정에서의 제 위치를 말해 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후기 성도들이 헌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충실한 교회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의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교회에 다님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도록 권세를 주는 신권이 있으며, 영원히 그들을 함께 묶어 주는 성약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주 함께 모[여]”²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 서로 가르치고 덕을 세우”³도록 명령 받았습니니다. 모사이아와 엘마도 그들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⁴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⁵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 이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로써 주 앞에서 질책당할 필요가 있느니라.”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은 그의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질책이란 단어가 그의 잘못을 고쳐 주는 데 사용된 유일한 때였습니다.

그의 보좌였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도 “너는 …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똑같이 비난 받았습니니다. 감독인 뉴얼 케이 휘트니⁸와 마찬가지로 시드니 리그돈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이르는 것”⁹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교회의 영감 받은 지침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하락하여 이제는 낙하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아 왔습니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영감의 인도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과 과정과 활동들은 가정과 관련시켜 재구성되었습니다.

- 와드의 가르침은 가정 복음 교육이 되었고,

- 가정의 밤이 재건되었으며,
- 계보는 가족 역사로 이름이 바뀌어 가족의 모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고,
- 역사적인 가족 선언문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 가족은 모임이나 대회 및 회의에서 널리 알려진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일들은 가족을 영원히 함께 인봉하는 권능이 행사되는 성전 건축 시대의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향한 정면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부모와 주님의 종들에게 내려진 영감의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활동을 계획할 때 신중을 기함

가족을 위해 가정 밖의 활동을 준비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어떤 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목적을 위해 모든 힘을 바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때서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즉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무시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만족 대신 후회를 얻게 됩니다. 활동이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간절할 마음이 앞서다 보면 부모의 책임이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러한 교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해되고 적용될 때 개인이나 가족 모두를 강화시켜 주고 보호해 줍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야로 가족과 교회를 바라봄

최근에 저는 “아기를 낳은 뒤로 그녀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듣고 대꾸하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여성은 감정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기에겐 생명을 주었지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며 가르치고 있구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장애인 자녀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자매와 생활비 외의 지출로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를 활동 회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족의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교회에 다님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훌륭한 아버지이지만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한 아버지가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을 잘 보살피면서 교회에도 충실히 나온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배웁니다.¹⁰ 집에서는 이를 실천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름과 봉사는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과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부름이라고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시각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족을 포함시키는 활동을 계획하는 방법에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됨

그렇다고 저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영감으로 주어지는 부름을 거절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가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부모나 가족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울 활동을 계획하거나 부름을 주지 않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의 직책을 가진 한 젊은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맡길 보모를 자주 불러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청소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가족, 특히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십시오.

어머니는 자신의 교회 부름과 남편의 부름 이외에도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 활동, 저 활동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실망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다해낼 수 없어서 죄스럽다는 표현까지 적혀 있는 편지도 받아 보았습니다.

교회 참석은 일상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난 중간 휴식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평안과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압박과 좌절을 안겨 준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만이 부모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도 부모의 도움을 요구할 매우 합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학교와 고용주와 지역 사회,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어머니가 인적이 드문 시골 와드에서 이사 왔다면서 그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활동들을 하루 저녁에 모두 몰아서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이 식탁 주위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쪽의 더 큰 와드로 이사 왔는데 회원들의 집은 교회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 밤에도 일정이 잡혀 있어요. 우리 가족에겐 너무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청소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가족, 특히 어머니를 염두에 두십시오.

대부분의 가족은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다가 금방 지치게 되어 결국엔 저활동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빛과 진리의 원천이자, 가족과 더불어 도움 받을 최상의 원천에서 위험과 슬픔이 있는 암흑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확실하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를 짚어 보아야겠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가르침이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줄 활동을 꾸준히 제공한다면 부모들이 주의를 기울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거나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영감을 통해서만이 그 어려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일의 중요성

종종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지 못한 곳에 가지 않도록 재미있는 야외 활동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도록 부모를 가르친다면 결국에는 자녀들이 집에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나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일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갖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들은 교회에서 십일조의 원리를 배우지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매우 어린 자녀들도 어떻게 십일조를 계산하고 바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럴드 비 리 회장님과 자매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리 자매님은 저희 어린 아들 앞의 식탁 위에 동전을 한 움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이에게 깨끗한 동전들을 한 쪽으로 밀어 놓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 십일조야, 주님의 것이야. 다른 쪽 것은 네거야.” 제 아이는 양쪽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러운 동전 더 없으세요?” 진정한 가르침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와드 평의회를 활용함

와드 평의회는 가정과 교회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곳에서는 각자 다른 입장에서 가족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인 신권 형제들과 어머니인 보조 조직 자매들이 영감에 찬 통찰력으로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 회원들은 각 조직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예산과 시간을 쓸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갈라놓기보다 단합시킬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활동보다 결혼 가정이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와드 평의회는 눈에 띄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때 자신이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젊은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¹¹

이러한 와드 평의회는 현재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 곳에서 가정과 가족이 온전해질 수 있으며 교회는 부모를 배척하기보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와 교회가 주는 축복, 양쪽 모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이 더욱 위험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더 하늘의 권능이 부모와 가족에게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경전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으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분들은 한 남자이자 아버지인 세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진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제 아내와 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제 부모로부터, 제 아내의 부모로부터, 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제 아이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68:25 참조.
2. 교리와 성약 20:75.
3. 교리와 성약 43:8.
4. 모사이야서 18:25; 엘마서 6:6 참조.
5. 말라기 4:6; 제3니파이 25:5~6; 교리와 성약 2:2~3 참조.
6. 교리와 성약 93:47.
7. 교리와 성약 93:41~42 참조.
8. 교리와 성약 93:44,50 참조.
9. 교리와 성약 93:49.
10. 엘마서 12:32 참조.
11. 교리와 성약 68:25.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14~16쪽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성약과 성스러운 의식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면을 회개하고 어느 면에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야 할지를 아는 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훌륭한 계획과 신중하고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개념들은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제언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결심과 개인적인 수련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안목으로 우선 순위를 정함

첫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그 곳에 도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누가복음 5:16) 구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 나기 위해 때때로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매일의 계획표를 작성할 때 주님과 맺은 거룩한 성약을 우선 명심하십시오.

합리적인 단기 목표를 세움

둘째,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정하십시오. 균형이 잘 잡힌 목표를 정하십시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기록하고 중요성에 따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 내가 천사라면, ...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마서 29:1)이라고 외친 엘마의 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

“... 어찌 내가 부름 받은 일 수행하기보다 더 원하리요?”(엘마서 29:3, 6)

재정적으로 확실하고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현명한 예산 작성으로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 사항을 조절하고 인생의 많은 욕구를 주의 깊게 평가하십시오.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과 가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을 꾸는 것이 돈을 갚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또한 쉽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아마 “재물”을 모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보다 인생에서 균형을 원리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의 받은 투자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 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김으로써 너무나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균형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야곱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아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며, 너희 영혼으로 하여금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니파이후서 9:51)

마지막으로, 완전한 십일조를 항상 바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및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이룩함

넷째,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성인들에게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때를 말하고 그 때의 경험을 설명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불행했던 때도 말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 주거나 슬프게 해 준 것은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개인의 건강, 직장, 돈 그리고 다른 물질은 훨씬 덜 중요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훌륭한 결혼과 훌륭한 가족 관계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종종 살짝 쳐다봄, 링크, 고개를 끄덕임 또는 살짝 만짐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치 있는 유머와 훌륭한 청정도 훌륭한 대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전을 공부함

다섯째,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가까이 느끼게 해 주는 가장 좋은 근원의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된 한 가지 방법은 경전을 통해서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물몬경을 공부하는 것이 매일의 습관과 평생 동안 추구할 일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충고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훌륭한 권고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경전)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5~16)

휴식, 운동, 편히 쉬

여섯째,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운동하며 오락을 즐길 시간을 찾기가 힘듭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즐기려 한다면 매일의 계획표에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외양은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더 높여 줍니다.

“서로 복음을 가르치라”

일곱째,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가족은 서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특히 주례 가정의 밤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갖는 습관을 서서히 잃어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교리와 성약 88:77) 가르치기 위해서 이 특별한 기회를 잃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왕국의 교리는 가족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간증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의 계명대로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저항력이 생겨나므로, 그 저항력을 초월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혼란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주 기도함

저의 마지막 제언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정규 가족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 훈육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은 끊임없는 참된 기도를 통해 매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요약했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엘마서 13:28) 제가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제 인생의 모든 일에서 더욱더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와 순리대로 함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제언 이외의 다른 제언도 추가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의 많은 요구 사항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베냐민 왕은,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모사이야서 4:27)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을 잃은 인생은 균형을 잃은 자동차 바퀴와 같습니다. 균형을 잃은 차 바퀴는 차의 운행을 거칠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완전히 잡힌 차 바퀴는 순조롭고 편안한 주행을 하게 해 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의 주행은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한층 더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불멸과 영생”(모세서 1:39)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즉 우리를 소란케 만드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정력을 소모시키는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말고 도와 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생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과 가족의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그들에게 많은 일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함

얼마 전 제 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떤 때는 내가 그 일을 해낼지 의심스러워요.” 만일 여러분이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딸아이에게 한 대답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본적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은 영적인 이해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한 이해력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 때 그의 생은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되고 균형을 더욱 쉽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 마음에 기쁨을 품고 생활하십시오. 인생은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함

영적인 성장은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안정과 행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

“...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목표와 욕망과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약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충실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간음을 분명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충실함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가정 생활은 훗날 자녀들이 즐거운 추억과 정다운 시절로 회상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억제하고 자제하는 태도는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말도 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해 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생각과 열망과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결국은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논쟁과 문제가 있을 때,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전에 의지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에 대한 무절제한 강조는 이기심과 고립을 낳고 있습니다.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예나 다름없이 주님의 표준입니다.(창세기 2:24 참조)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자아의 발전은 물론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2년 11월호, 4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우리는 악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만족의 철학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즉각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정서적인 안락함을 얻도록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바심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으로부터, 분석으로부터, 의약으로부터 너무 성급하게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도전입니다. 근심과, 침울과, 실망과, 실패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그들이 때때로 혹은 잇달아 불행을 당하더라도 굳게 서서 그것들을 직시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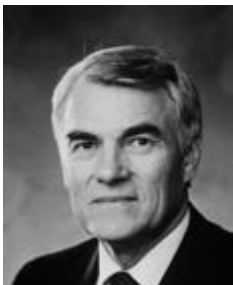
“인생의 투쟁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상담하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경전을 읽음으로써 오는 평안과 안정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경전을 읽을 때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정되는가를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45~146쪽)

결혼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3~65쪽

저의 아내 바바라와 저에게는 여섯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자녀들의 조부모를 뵈게 하려고 그들을 모두 데려갔을 때, 저의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범과 어머님이 이제 결코 중지시킬 수 없는 일을 시작했구나.”

이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성스러운 신권과 인봉의 권능 안에서 결혼과 가족은 결코 중지되거나 끝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결혼 생활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여덟 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 결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에 나오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필멸의 몸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성전에서 결혼할 때까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현세와 내세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성스러운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과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가족을 이루고 완전하게 하는 것만큼 이 지상에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구원은 가족과 관계된 일입니다.”, *Improvement Era*, 1970년 6월호, 43~44쪽)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2.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수년 전, 총관리 역원이 모든 선교사들을 접견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하던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선교 사업을 거의 다 마쳐가는 한 장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해임된 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학에 복학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볼 장로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장로님이 단지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결혼하게 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특히 덜 이기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배우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개인적인 문제점과 연약함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몰몬경의 다음과 같은 강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결혼 상담자들은 매일 기도하는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여 결혼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3. 경청하십시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계획하고 나아가 이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십시오. 서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배우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브렌트 발로우 형제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계시를 받고자 하는 형제님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발로우 형제는 그들에게 지금 집으로 돌아가 그들의 아내들에게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충고를 따랐으며, 그 날 오후에 아내 수잔과 한 시간이 넘도록 매우 유익한 토론을 하였습니다!”(*Ensign*, 1922년 9월, 17쪽) 그와 같은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중 최근에 제가 들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아내에게서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놀라는 사람은 아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손녀딸 앨리슨이 다가와 제 눈꺼풀을 울리며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홍보기”를 삼가십시오

4. “끊임없는 홍보기”를 삼가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권고하듯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볼 회장께서 말씀하신 “끊임없는 홍보기”는 모든 결혼 생활을 약화시킵니다. (“결혼과 이혼”, 브리검 영 대학교 1976년 올해의 말씀, 유타 주, 프로보: 대학 출판사, 1977년, 148쪽)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약점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비난과 잔소리로, 이러한 약점을 개선시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칫 부주의하면, 우리가 의도한 건설적인 비평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인 로라 윌터 자매는 결혼 생활을 강화하려면 상대방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열거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상대방의 다섯 가지 행동을 열거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몽을 먹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렌지 같이 껍질을 벗겨서 먹곤 하였습니다. 자몽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어느 여자가 남편이 자몽을 오렌지 같이 먹는 것을 평생 바라보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다섯 가지 사례를 말하고 남편이 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싫은 점을 하나도 생각해 낼 수 없소.’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며

“불에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황급히 등을 돌렸습니다.

윌터 자매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부부가 소위 자몽 신드롬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나 항상 생각해 봅니다.” (“자몽 신드롬”, *Ensign*, 1933년 4월, 13쪽)

그렇습니다. 종종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애정 표현을 계속하십시오

5. 애정 표현을 계속하십시오.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듯이 둘만의 시간을 매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이를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를 위해 헌신과 계획과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저의 장인 어른께서 점심 식사 후, 들로 다시 일하러 나가려 하실 때, 장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얼른 이리로 오셔서 저에게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말해 주세요” 장인 어른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여보,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당신에게 말했잖소. 혹시 마음이 변하면, 그 때 알려 주리다.”라고 익살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일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신속히 사과하십시오

6. 신속히 사과하십시오. 자신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말하기 힘들더라도, “미안해요. 용서해요.”라는 말을 신속히 하도록 하십시오. 진실된 사랑은 개인적인 실수나 반감을 기꺼이 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합니다.

불화가 생겼을 때, 이를 대화로써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열이나 백 정도를 세며 말이 나오려 하는 것을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따금 분을 참고 그 날을 넘기는 것이 다음 날 보다 평온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거나 아니면 혹자가 말한 것처럼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일 것입니다. 지성적인 부부라도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목표는 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결혼 생활을 더 훌륭하게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십시오

7. 분수껏 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재정적인 면에서 야기됩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는 이혼 사례의 89퍼센트가 금전에 관련된 논쟁과 불화에서 발생된다고 발표했습니다.”(Ensign, 1975년 7월호, 72쪽) 여러분의 재정 형편에 맞도록 물품 구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도록 하십시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가능한 한 부채를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한 달에 50달러 정도 덜 쓰는 것이 행복하며, 50달러 이상 쓰는 것은 불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홀랜드 장로님이 비유하셨듯이, 언젠가는 “신용 카드 수술”, 즉 가위를 꺼내 여러분의 신용 카드를 절단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Things We Have Learned-Together”, Ensign, 1986년 6월호, 30쪽)

가정과 가족의 책임을 나누십시오

8. 가정과 가족의 일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생활비 조달은 자신의 몫이며 집안 일과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내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앉아 기다리는 그러한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반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의 아내 바바라와 저는, 매일 아침 1분 정도만 침구를 함께 정돈한다면, 그것으로 정돈은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 저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함께 할 시간을 찾아보시고 다음과 같은 킴블 회장님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룩한 성전에 자주 가며, 가정에서 온 가족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함께 손을 잡고 참석하며, 영과 육의 생활을 온전히 순결하게 지키며,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힘쓴다면 행복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Marriage and Divorce,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24쪽)

요약:

- 결혼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 “끊임없는 홍보기”를 삼가하십시오.
- 애정 표현을 계속하십시오.
- 신속히 사과하십시오.
-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십시오.
- 가정과 가족의 책임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돌아가신 지 삼 일째 되는 날에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린도전서 15:22)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인봉의 권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있게 이러한 시의 구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엘리자베스 배렛 브라운, “그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재일 정원회

Ensign, 1987년 1월호,
60~62쪽

언제든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견해 차이를 갖기 마련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자녀 훈육, 가사, 음식, 금전 관리, 집안 장식, 라디오 방송 선택, 어떤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과거의 환경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은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과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한 쪽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과 다릅니다. 도덕, 교육, 재정 및 종교적인 배경은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면에서 다른 견해 차이를 가져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자연스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한 사람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거나, 혹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단합은 기꺼이 타협하고 효율적인 관계가 되게 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주님께 의존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견해와 습관 혹은 배경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모사이야서 18:21) 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이 삼만 명이 넘습니다만 동반자간의 심각한 문제는 비교적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모든 전임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선교사 지침서 내의 훌륭한 공식 때문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동반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는 데 첫 단계가 된다. 동반자와 협의의 모임을 갖도록 한다.

“이 모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반자 관계, 개인적인 생활 등을 토론할 수 있다. …

“동반자간의 반목이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25~26쪽; stock no.PBMI4201)

물론, 선교사 동반자는 함께 일하도록 지명될 때 종종 전혀 어울릴 수 없거나 그저 조금 알고 지나치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룸메이트 역시 종종 전혀 어울릴 수 없거나 아니면 서로 잘 아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잘 알게 된 두 사람이 더욱 단단한 기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선교사 협의의 모임 이면에 있는 기본 개념은 교리와 성약 6편 19절에서 “[동반자]의 잘못을 타이르며 또한 저로부터 훈계를 받으라. 인내하며 근신하며 절제하라. 인내와 신앙과 희망과 자비를 품으라.”고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판

어떤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노골적이든 암시적이든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날카롭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소?” 혹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었소.”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본질과 관련된 비판은 결혼의 단합이 약해지고 파괴될 때까지 사랑의 유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슬픈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비판을 통해 여리고 무방비 상태인 감정을 공격합니다. 비판을 할 때 우리는 비난, 질책, 저주, 힐책, 탄핵을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마치 판사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빨리 대꾸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습관입니다. 비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머와 같은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비극적이고 정죄 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문제를 철저히 의논함

물론 부부가 토론하는 형태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배우자가 그 필요를 느낄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례, 월례, 혹은 분기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차를 타고 가거나, 걸으면서, 혹은 데이트를 하면서 토론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좀더 형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를 하고, 지난 한 주(혹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앞으로 있을 활동을 점검하며 개인 및 남편과 아내의 목표를 토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러한 모임을 갖든, 토론은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훌륭한 것들에 대해 사랑이 담긴 도움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로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동반자가 한 훌륭한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나 행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에서 자라납니다.

감사와 사랑과 감정을 진지하게 나눈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에서 걱정스럽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할 때 바울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린도전서 7:3) 토론을 하는 동안 따뜻함과 민감함과, 배려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남편(혹은 아내)이 되겠소?” 그러면 상대방은 친절하게 아이디어와 제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에게 감정을 전하고 제언을 하는 동안 겸손하고 온화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공격자의 입장에 있고 배우자는 수세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실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시간에 불평거리를 늘어놓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더 사려 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해야 할 또 다른 규칙은 한 번 모임을 가질 때 각자 제안하는 일의 숫자를 두

번, 혹은 많아야 세 번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토론이 지나치게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꼬치꼬치 캐지 마세요. 그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증거를 대라고 다급하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동반자가 말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인 체하는 답변을 피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군요.”

배우자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난 세박해야 할 옷을 치우고 방을 좀더 깨끗하게 치워야 돼. 나를 용서하구려. 그리고 내가 잊거든 상기시켜 주기 바라오. 당신의 인내심과 도움에 감사하오.”

그런 다음 더 나은 반려자가 되기 위해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모임을 하는 동안 동반자에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추가 항목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나면 순서를 바꾸십시오. 이제는 다른 동반자가 향상시킬 내용들을 제안할 차례입니다.

모임을 갖는 목적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습관과 풍습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기꺼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는 커다란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타협도 필요합니다. 타협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고 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항목은 언급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참조하고 적용하도록 제언된 이 절차를 검토해 봅시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남편이 되겠소? 솔직하게 말해 주구려. 나는 내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소.”

아내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최근 들어 당신은 아이들 앞에서 여러 차례 나를 공박하거나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정 분위기를 그리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욱 단합할 수 있다면 우리나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 일에 대해 정말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서, 최근에 그렇게 한 세 가지 경우를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내가 말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 할 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만약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내가 눈치채도록 신호를 보내 주오.”

또한, 아내는 남편이 남자 친구에 대해 민감해져 있는 딸을 너무 놀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에게 한 해의 실천 사항으로 약속했던 주례 데이트가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차례가 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근 그녀가 몇 차례, 예산에 없는 구매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충동 구매를 자제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최근 읽은 기사에 튀긴 음식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삶은 계란보다는 후라이한 계란을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그러한 토론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관해 많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떤 것들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하찮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부부의 화합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감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일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약점에 대해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협하고, 세상적인 태도로부터 돌이키실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및 순종과 같은 참된 복음 원리 위에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의 견해 차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은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혹은 남편]를 사랑하며] 다른 아무 여자 [혹은 남자]와도 결합하지”(교리와 성약 42:22) 않을 능력을 축복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권고

선지자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권고에서 안전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24~26쪽

구주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심

구주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옹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답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제3니파이 10:5)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설명해 주신 후에 똑같은 비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들의 입으로, 또 천사들의 성역으로, 또 내 자신의 음성으로, 또 우레의 음성으로, 또 번개의 음성으로, 또 폭풍우의 음성으로, 또 지진과 큰 우박의 음성으로, 또 기근과 각종 역병의 음성으로, 또 큰 나팔 소리로, 또 심판의 음성으로, 또 온종일 자비의 음성으로, 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라는 부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교리와 성약 43:25)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이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질 준비가 된 자들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서 권능을 받은 종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한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38년 가을, 미주리 북부 지역에서 성도와 주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파 웨스트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농장에 살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혼즈 밀” 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착촌의 설립자인 혼 씨에게 그 곳을 떠나 파 웨스트로 오라는 말을 전했으나, 혼 씨는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Four Faith Promoting Classics,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90쪽)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구하도록 세계 지혜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교회 정사, 제5권, 137쪽) 선지자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따랐더라면 혼즈 밀의 무죄한 생명은 구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슬픈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슬픔과 죄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권고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들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계속해서 그 경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 대회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선지자가 이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두 번째의 증인이 되고, 때로는 세 번째의 증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김블 회장님께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벤슨 회장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셨으며, 힝클리 회장님께서 그 두 분의 말씀을 모두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증인의 법을 통해서, 즉 권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축복된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지자를 따르거나 다른 영향을 선택함

선지자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저 현명한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의 권고자

자신이 받아들이기엔 편안하고 적절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충고라고 간주해 버리거나, 자신의 입장은 그 권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몰몬경에서 코리호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처럼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같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좇아, 너희 스스로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내고, 마치 속박에 든 것처럼, 그들을 억누름으로써, 그들의 손의 수고로 너희 스스로를 배불리고자 하며, 그들로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며, 그들로 감히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도다.”(앨마서 30:27)

코리호어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논쟁을 벌여온 그릇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를 거부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다른 영향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 다시 본향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온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고를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미움을 싹틔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다른 권세의 영향력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덕적인 선택의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선택하는 영향력에 전념할 수 있는 박탈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한 선택은 훌륭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유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믿는 것 또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돕기로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가 맨 처음 부탁했을

때입니다. 그 후 그가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의 요구를 더욱 바보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저는 그 길이 저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험한 곳이 평탄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에 준비하신 사랑의 보살핌으로 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권의 열쇠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들

몰몬경의 시작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리하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리하이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권고를 주실 때 일어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리하이의 가족 가운데 신앙을 갖고 분명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위험과 안전의 길 모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이 광야로 간 자들은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스럽게 보였습니다. 리하이는 죽는 날까지,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구주로부터 신권의 열쇠를 위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권고를 줄 수 있는 권세는 그러한 열쇠를 통해 오게 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쇠는 선지자로부터 보다 적은 수의 회원 그룹, 나아가 가족 및 개인에 이르는 권능선을 따라 위임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스테이크를 안전한 장소로 만드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부는 저희 이웃에 살고 계시는 감독님께서 소집한 부모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소집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명한 분의 목소리 이상의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경고할 책임에 부합하며 우리에게 실천할 책임을 부여해 주는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신권의 권능선을 존중해서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는 생명선을 동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의 큰 위험 속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주께서는 신권의 열쇠를 주셔서 들을 귀와 순종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권고를 받아들임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쉬 회장과 다른 십이사도들이 시험 받을 것을 아시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주님은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나의 종 조셉을 거스려 거역하지 말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또한 너희에게 준 열쇠는 내가 올 때까지 그에게서 취하여 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2:1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권고를 따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분의 다른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권고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위안을 가져다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힘들지라도 권고를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레딕 뉴튼 알레드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데려오도록 브리검 영이 보낸 구조 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자 구조대의 대장인 그랜트 대장은 손수레 부대를 찾으러 나가면서 스위트워터 강가에 마차 몇 대를 남겨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고, 날씨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험악해지자, 스위트워터 강가에 남아 있던 대원들 가운데 두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손수레 부대가 어딘가에서 저울을 나고

있든지, 아니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레딕 알레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이 자기들을 보냈으며, 신권 지도자가 그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대의 마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바로 솔트레이크에서 오는 마차를 보는 즉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일흔일곱 대의 마차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 마차들이 리틀 마운틴까지 갔을 때 영 회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침내 윌리의 손수레 부대가 로키 리지를 힘들게 넘어 왔을 때, 그들을 맞아 준 것은 바로 레딕 알레드와 그의 몇 대의 마차였습니다.(레베카 바톨로뮤와 레오나드 제이 에링턴, 1856년 손수레 부대의 구조, 유타 주 프로보, 찰스 레드 서부 연구원, 1992년, 29, 33~34쪽)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딕 뉴튼 알레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우정 증진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영적으로 지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친절할 말을 해 주고 우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목숨을 걸고 온 손수레 개척자들을 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그 개척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레드 형제가 느꼈던 그 거룩한 느낌을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증명할 기록은 없지만, 저는 알레드 형제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때 그는 끝까지 충실하라는 권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에 찬 기도를 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고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인내함

때때로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거나 명상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권고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권고를 거부하지 말고, 깊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건네 주면서 그 안에 황금이 들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현명하게도 손에 그대로 들고 있다가 부드럽게 흔들어 볼 것입니다. 선지자께서 권고하신 대로 행할 때마다, 저는 얼마 후 금 조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듯이 축복을 받기 시작해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 주어진 때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모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충족시켜 주는 말씀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겸손한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충실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동성 연애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정선된 가르침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귀하의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스러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집에서 행사되는 영원한 신권의 권세를 통해 결혼이 영원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우리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성향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러한 성향에 따라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회원들과 똑같은 축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순결의 법이나 교리의 도덕적 표준을 어긴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굳건해지도록 돕고 싶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거나, 소위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을 고수하고, 지지하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의 중대하고도 거룩한 기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1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동성 연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6년 3월호,
14~24쪽

모든 후기 성도는 하나님께서 혼인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금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죄라는 구주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마태복음 5:28; 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창조주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을 존속시키고 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정하신 가족 형성에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묶기 위해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의 힘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인 결합은 합법적이며, 만일 그것이 정당한 의도로 행해진다면 영예롭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인 외의 성적 탐닉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입니다.”¹

어떤 후기 성도들은 동성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끌 수 있는 성적인 감정을 갖게 됨으로써 혼란과 고통에 직면합니다. 그러한 행동이나 느낌을 수반하는 종교적인 도전과 정서적인 도전 및 가족 생활의 도전에 직면할 때,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들과 교회의 회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거나, 그들에 대해 성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동성 연애자로서 과학적인 증거가 그것을 입증한다거나 그것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와는 다른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어떠한 자연스러운 성적인 행위도 죄라고 주장하는 우리를 편협하며 무자비하다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복음 교리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복음 교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교리와 성약 20:18; 모세서 2:27; 창세기 1:27) 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²
2. 인생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늘 부모와 같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3.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죄”[교리와 성약 93:38]하게 되었으며 그 상태로 남을 수 있음) 가능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그것에 충실한 남자와 여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 참조)
4.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통해, 올바른 일을 하려고 소망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생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이 맺은 침례 성약과 기타 다른 성약들에 충실하다면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³
5.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영향력뿐 아니라 선(생명의 길)과 악(영적인 사망과 멸망의 길)[니파이후서 2:27; 모세서 4:3 참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인 선택의지도 주셨습니다. 이 생의 여건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어떤 선택권에 대한 우리의 기동력이나 행할 힘을 제한하는 등의 일),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황(모로나이서 8:5~12; 교리와 성약 68:27; 101:78 참조)에 이르게 되면 어떤 육적 또는 영적인 힘도 우리의 선택의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6.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대되는 것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은 인생의 목적 중 한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니파이후서 2:11; 아브라함서 3:25~26 참조) 그러한 상대되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우리가 선택의지와 자유를 사용하여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7. 사탄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니파이후서 2:27)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방해가 될 만한 선택과 행동을 부추기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책임의 원리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거룩한 창조의 힘을 오용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합당하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남성이나 여성의 의미를 혼란시키고자 노력합니다.
8. 이 모든 일에서, 육신이 없는 악마는 사람들이 “육체의 뜻과 그 안에 있는 악을 좇아 영원한 죽음을 택하”고 “악마의 영에게 [자신들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어내릴 능력을 주어, [악마가] 자기의 왕국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니파이후서 2:29)기 위해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9. 제일회장단은 “[1] 부도덕한 생각 및 감정을 갖는 것과 [2] 직접 부도덕한 이성 관계나 어떠한 동성애적 관계를 갖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도덕한 생각은 부도덕한 행위보다 덜 심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엘마서 12:14)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억제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생각(과 그러한 것으로 이끄는 덜 심각한 감정들)은 죄가 되는 행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0.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조차도(또는 거의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에게 합당한 왕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⁵ 선하게 살고 대부분의 구원의 의식을 받았으나 영원한 결혼을 통해 승영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서 더 낮은 처소에 거하게 되며 영원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11. 삶의 고난과 선택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12,17)는 구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제일회장단에서도 최근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친절하고 더욱 상냥하며 더욱 용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화는 더욱 더디 내고 도움은 더욱 빨리 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의 손길을 더욱 넓게 펼치고 보복의 손길을 삼가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⁶

친절과 연민과 사랑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이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또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교리와 책임의 적용

이러한 교리와 계명과 책임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교리는 동성에 행위에 참여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을 가하는 소위 “동성 연애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명백히 비난합니다.

우리는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AIDS)에 걸린 사람들(성 관계를 통해 병을 얻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을 포함하여 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제일회장단이 구분하신 대로, 우리는 (1) (억제하고 바꾸어야 하는) 동성애적인 “생각 및 느낌”들과 (2) (심각한 죄인) “동성애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라는 단어들은 특정한 생각이나 느낌 또는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낱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상태나 사람들을 호칭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교리는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는 사람이 성 행위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관해 아무런 선택권도 갖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은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또 어떤 감정은 “본성과 교육”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교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런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적절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죄가 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 유년기나 성인 시절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압력에 대해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감수성 중 어느것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도, 우선 순위, 행위 및 우리가

만든 “생활 양식”을 선택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의 본질은 자유와 선택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택의지는 외적인 힘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짊어진 책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선택의지 사이의 차이점은 자유는 감정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탐닉으로 진행한다는 가설과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은 도박, 흡연, 음주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이나 반응 또는 탐닉에 대해 유별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러한 감정들은 선천적이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고린도후서 12:7)라고 했던, 밝혀지지 않은 만성병처럼 개인적인 선택이나 잘못 없이 얻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감정이 끌려, 단지 장난 삼아 해 보는 사람과는 달리 상습적인 도박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좋아해서 흡연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특별한 매력을 느껴서 쉽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예로는 급한 성미, 호전적인 태도, 탐욕스러운 자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그리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에서 어떤 행동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감정이나 기타 다른 특성들은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러한 관계는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소는 개개인이 성장기 동안 특정한 영향을 받으면 어떤 감정을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생의 다양한 자유(이 생에서 오직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니파이후서 2:27])를 나타내는 우리의 감수성이나 약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과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에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말씀할 때 이 차이점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태어납니다. [또는 성장합니다.] 어떤 것들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특별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민감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선택의지에 따라 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변명을 대신할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니파이후서 2:2 참조) 선천적인(또는 후천적인) 어떠한 약점이든지 그것을 극복하는 데 들인 노력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 를 빼내 주시기를 세 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린도후서 12:9~10)

"우리의 감수성이나 성형감정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금해진 일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의 영원한 결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성향은 중독되지 않고 마시겠다는 희생자의 자유를 구속하지만, 그의 선택의지는 그가 술을 끊음으로써 알코올에 의한 신체적인 쇠약과 중독에 의한 영적인 퇴보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강한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힘이 없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할 경우, 그러한 주장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전제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생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가 전세에서 도전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자신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 기 때문에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 전쟁의 결과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선전을 위한 노력의 일부가 됩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 모두에 적용됩니다. 문명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책임을 안겨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동을 억제할 책임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 법칙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방아쇠를 당기려는 충동에 굴복한 성미 급한 사람이나, 흠치려는 충동에 굴복한 탐욕스런 사람이나, 어린이에 대한 강한 성적인 충동에 굴복한 이상 성욕자의 죄를 변명해 주지 못합니다 ...

"이 생애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유의 범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선택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안겨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 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절하게 표현될
때만 정당합니다.**

과학적인 고찰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문제를 오로지 현재의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 문헌과 자격을 갖춘 과학자 및 의사의 조언을 토대로, 동성 연애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인 발견들이 증명해 준다는 몇 가지 주장을 논박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질이 신체적인 많은 특성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부모와 형제간 같은 사회 심리학적 요인(특히 성격형성기 동안)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세기 동안 있어 왔습니다. 동성에 감정과 행위에 대한 그 같은 논쟁은, 이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행동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⁸ 또 어떤 과학자들은 “성적인 본능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제창하는 이론이나 증거를 옹호합니다.⁹

물론 유전질을 통해 암과 같은 특정한 질병과 진성 당뇨병 같은 다른 병들에 대한 민감성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질은 공격성, 알코올 중독, 비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가 된다는 학설과 증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질이 성적 본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옹호론이 인정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유전 가능성의 개념을 필연적인 유전 가능성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 아마 대부분의 심리 과정은 타고난 성격과 환경적인 사건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⁰

과학자들이 성적 본능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완전히 용인하거나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간에, 그들 대부분은 현재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자신을 “게이”라고 한 일란성 남자 쌍생아 56쌍에 대한 어느 연구는 그 중 52퍼센트의 다른 쌍둥이들이 똑같이 자신을 게이라고 했다고 전해 줍니다.¹¹ 일란성 여자 쌍생아에 대한 유사한 연구에서도 동성 연애자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71쌍 중 34쌍으로 48퍼센트)¹² 이러한 연구가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을 동성 연애자로 분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어떤 영향력이 선천적으로 미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도, 이러한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 저명한 과학자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에게서 양육되었다 할지라도 한 쪽이 동성 연애자인 일란성 쌍생아가 정상 연애자가 될 확률은 50퍼센트 이상입니다.”¹³ 또한 우리는 이러한 연구(그리고 아래에 설명될 다른 연구들)의 결과가 질문 받는 사람의 자가 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기원에 관한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임상학자와 행동학자 사이에서도 동성 연애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흔들리는 과학적인 결론의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¹⁴

새로운 연구 영역에서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아주 반가운 것입니다. 1993년 7월에 딘 해머 박사의 “남성 동성 연애자와 18세 이상의 그 친척들로 선별된 그룹의 염색체 엑스큐

28(Xq28) 상의 유전 표식 유전질[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디옥시리보핵산(DNA) 조각]과 성적 본능 사이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발표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엑스큐28에 남성들의 동성 연애적 본능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¹⁵ 해머 박사는 자신의 발견에 가장 정확한 해석을 달아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일반 남성들의 엑스큐28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단지 경험에서 나온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볼 때, 그 부분은 높게 본다고 해도 동성에 남성의 67퍼센트 이상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 비율도 엄격히 선별된 동성 연애자 형제들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더 낮게 봐서, 많은 동성 연애적인 성향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호 작용하는 많은 유전자 수에 의해 형성된다면, 엑스큐28은 어느 정도 남성의 성적 태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계 자료 및 입수할 수 있는 쌍둥이와 가족 연구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중간 수준에서 보면, 엑스큐28이 동성 연애 남성 가운데 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까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 추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¹⁶

자가 분류한 “동성 연애” 남성에게 대해 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까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학이 “동성 연애”가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키기엔 아주 부족합니다. 한 저명한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불확실한 점을 밝혔습니다.

“동성 연애 성향 아래에 있는 선천적인 생물학적 특성들에 대해 어떤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 동성 연애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연구의 증거들을 보면 무엇이 유전되고 그것이 성적 본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¹⁷

콜럼비아 대학교 정신 의학과와 바인 박사와 파슨즈 박사는 인간의 성적 본능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을 재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고와 제언을 했습니다.

“임상가와 행동 학자들은 성적 본능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사회 심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주장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성적인 본능의 기원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을 보면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관한 내용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 유전자나 호르몬이

성적인 본능을 특정짓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것들은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와 호르몬은 성적인 본능과 기타 다른 개별적인 특성이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과 그 개인의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¹⁸

과학자들의 많은 제언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조건은 특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멸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참된 원리로 여기는 중요한 개인적 선택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원과 회원의 책임

1991년 11월 14일, 제일회장단은 순결의 법의 중요성에 관한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성 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절하게 표현될 때만 정당합니다. 사통, 간음 및 동성 연애 행위를 포함한 다른 어떤 성적인 접촉도 죄입니다.”

그러한 방향에 따라 교회 역원들은 범법자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악한 니파인들에게 가르쳤던 다음의 원리를 상기시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평생을 두고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히라만서 13:38)

계속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교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의 징계가 없지만(그것들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격려는 있을지라도)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종들에게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 어떤 사람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 그를 금하”(제3니파이 18:28~30)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또한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31절; 모사이아서 26:36; 엘마서 5:56~61 참조)라고 명하셨습니다. 필연적으로 범법자가 회개하라는 외침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회 회원을 돌보는 목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가 되는 행동과 부적절한 생각이나 위험성이 내포된 감수성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1991년 11월 14일의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사통, 간음 및 동성 연애 행위”의 죄스러운 본질을 재확인하신 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원하는 개인과 그 가족들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의 손길을 뻗도록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권유를 받고 구주의 속죄와 치유의 권세를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영감 받은 권고에 응할 것입니다.(이사야 53:4~5; 모사이아서 4:2~3 참조)”

이와 비슷하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 한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있진 않진 죄의 쓰디쓴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는 꾸짖었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주님의 모범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친절과 위로로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 나서야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¹⁹

그러한 권유와 확인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 회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관해 계속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역원 중 한 명이 텔레비전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동성 연애를 증오하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9년 전에 이 주제에 대해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던 중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은 불량하고 ... 그들은 그들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이 교회가 견지하는 태도”라고 가르치거나 암시한다는 소문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다 의미심장하게, 우리는 충실한 회원들로부터도 그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최근에 받은 한 편지도 그 실례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다른 걱정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상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되는 점입니다. 아마 어떤 점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년 청년들은 오로지 끝까지 남아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의 가족과 교회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연사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할 때 그것은 특히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들을 더욱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엄청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며 자신의 가치를 부족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러한 감정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체험을 하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때때로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총관리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자살이나 분열을 막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회원들이 그들을 '사악한 사람들'로 판단하는 사실을 쉽게 참을 수 없으므로 동성 연애의 생활 양식에서 위안을 찾습니다.”²⁰

이러한 편지들은 온갖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과 좀더 나은 대화를 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밖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도움과 이해의 손길을 펼쳐야 할 분명한 교리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죄인은 부적절한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제3니파이 18:22~23, 30, 32 참조)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올바른 원리와 의로운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모든 주제에 대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동성 연애적 성향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려움의 정도와 행동을 삼가고 생각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우정 증진의 손길은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아무튼 불량”하다고 가르쳤음을 시사했던 텔레비전 기자에게 대답할 때, 그 중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량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아주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충분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느껴야 하는데, 그분은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구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선례가 되는) 간음한 여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 …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그 죄는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²¹

동성 연애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유혹과 또 다른 많은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죄에 대항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움은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회복된 복음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는 진리는 우리 구주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결혼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규정된 신성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목표는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결혼이 동성 연애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²²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통해 교회 참석과 예배를 통해, 영감 받은 지도자의 권고를 통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얻게 됩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근원은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특별한 사랑과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약을 통해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모사이야서 18:8)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갈라디아서 6:2)겠다는 마음을 지닌 교회 회원들의 분명한 책임입니다.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어 줄 행동을 선택하도록 빛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결론

과학적인 증거와 종교적인 교리의 서로 다른 시각은 자동차에 있어 그 작동을 관찰하고 여러 부분을 해체하며 분해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과, 제조업자가 쓴 운전자 교재를 읽음으로써 연구하는 것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분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기계의 기능과 가능성에 대해 단지 부분적인 지식만 얻게 될 것입니다. 기계의 조작과 가능성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지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쓴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영혼에 대한 교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분의 선지자가 해석한 경전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거룩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계발해야 할 행동과 생각에 관한 지식의 가장 훌륭한 근원입니다.

이 생의 문제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시에 공감할 것입니다.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

“나는 나를 것처럼 쉽게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에워싸였도다.”(니파이후서 4:17~18)

우리는 죄를 극복할 힘과 의지를 갖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그를 지키사 고난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20절 참조) 니파이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죄에 굴복해야 하느냐?”(27절)라고 묻은 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31절)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니파이는 이 기사에서 토의된 어려움 가운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육신의 팔에 자기의 신뢰를 두는 자가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앎이니이다. 참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신뢰를 두는 자, 곧 육신으로 자기의 팔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았나이다.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리이다.”(34~35절)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한 운명을 이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분의 확신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권유에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주

1. 복음 교리, 278쪽.
2. 제일회장단 말씀, 1912년 1월 31일, *Improvement Era*, 1912년 3월, 417쪽; *Millennial Star*, 1922년 8월 24일, 539쪽 참조.
3. 로렌조 스노우, *Millennial Star*, 1899년 8월 31일, 547쪽; 델린 에이치 옥스, *Pure in Heart*(Salt Lake City: Bookcraft, 1988년), 61~62쪽)
4. 제일회장단 서한, 1991년 11월 14일.
5. 교리와 성약 76편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Apostasy and Restoration”, *Ensign*, 1995년 5월호, 86~87쪽.
6. “An Easter Greeting from the First Presidency”, *Church News*, 1995년 4월 15일, 1쪽.
7. “Free Agency and Freedom”, *Brigham Young University 1987~1988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Provo: BYU Publications, 1988), 46~47쪽; 이 곳에 있는 내용은 Monte S. Nyman and Charles D. Tate, Jr., *The Book of Mormon: Second Nephi, The Doctrinal Structure*(Provo: BYU Religious Studies Center, 1989), 13~15쪽에 들어 있음.
8. R. C. Lewontin and others, *Not in Our Genes*(New York: Pantheon Books, 1984); R. Hubbard and E. Wald, *Exploding the Gene Myth*(Boston: Beacon Press, 1993).
9. R. C. Friedman and J. Downey, “Neurobiology and Sexual Orientation: Cur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Neuropsychiatry* 5(1993): 149쪽.
10. 같은 책.
11. J. M. Bailey and R. C. Pillard,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1991): 1089~1096쪽.
12. J. M. Baney, R. C. Pillard, and others, “Heritable Factors Influences Sexual Orientation in Women”,

-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993): 217~223쪽.
13. D. Hamer and P. Copeland, *The Science of Desire*(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218쪽.
 14. W. Byne and B. Parsons, "Human Sexual Orientation: The Biologic Theories Reappraise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993): 228쪽.
 15. Dean Hamer and others,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16 July 1993): 321~327쪽.
 16. *The Science of Desire*, 145~146쪽.
 17. W. Byne, "The Biological Evidence Challenged", *Scientific American*, 1994년 5월호, 50쪽.
 18. Byne and Parsons, "Human Sexual Orientation", 236~237쪽.
 19. 고든 비 힝클리, "경건과 도덕",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8쪽.
 20. 달린 에이치 옥스에게 온 편지, 1994년 9월 3일.
 21. 달린 에이치 옥스와의 텔레비전 인터뷰, 1986년 12월 3일, 대답은 방송되지 않았음; 발췌한 내용은 "Apostle Reaffirms Church's Position on Homosexuality", *Church News*, 1987년 2월 14일자, 10, 12쪽에 실려 있음.
 22. 고든 비 힝클리, "경건과 도덕",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7쪽.

동성(同性) 결혼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려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8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시간이 조금 남아 또 다른 한 문제를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입안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상정되는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윤리 문제나 교회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 사안에 대해서만 취급한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박과 음주를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세력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우리와 공통된 이해를 나누는 단체와 협력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며, 실제로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룹, 가톨릭, 회교, 개신교, 또는 특별한 종교적 성향을 갖지 않은 단체 등과 함께 지극히 중요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일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후기 성도들은 한 연합체에 참가하여 신성한 제도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우리 사회의 세력으로부터 전통적인 결혼을 안전하게 고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가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수천 년간 문명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경전 어디에서도 결혼에 대해 무엇인가를 재정의해야 할 당위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른바 동성간의 결혼의 합법화를 시민의 권리로 옹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권리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가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성을 내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교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 결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이 성스러운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종교 및 헌법상의 권리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리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성간의 결혼을 입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보이는 증오나 배척이나 인신 공격에 대한 정당화라고 해석하지 않기 바랍니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연단에 서서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들과 딸로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간에 성행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68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입니다. 이외의 다른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엘마는 ‘설혹 너희가 이를 거스려 말한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니라.’(엘마서 5:58)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사탄은 온 인류가 신성한 출산 능력을 약하게 사용하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탄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모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지기 마련입니다.”(Things of the Soul, 113~114쪽)

“세상 지도자들과 법정의 판사들도 우리가 살아 남길 원한다면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유와 선택이란 단어들을 과거의 안전 장치를 풀며, 결혼, 낙태, 성에 대한 법을 느슨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바로 가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19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는 성별을 혼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압력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안목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의무와 특권을 변경시키려는 것들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3쪽)

이기심

이기심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나는 모든 사람이 먼저 그의 마음에서 화목과 평화의 적들, 곧 증오, 이기심, 욕심, 적대감, 질투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가정과 이웃, 그리고 조직에서의 화목, 우리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데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Gospel Ideals*, 292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그 모든 것은 결국 이기심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13쪽)

“모든 이혼은 결혼 서약에 대한 일방 또는 쌍방의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
편리함, 자유, 사치, 혹은 안락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 불행, 불만, 이기적인 배우자에
대해 끝도 없이 늘어놓는 불평은 결국 심각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정당성을
느낄 정도까지 벗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기심에 기초를 둔 결혼 생활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나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결혼한 사람은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허영심과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과시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주고 받기 위해,
봉사를 주고 받기 위해 두 사람의 이익은 물론 당연히 오게 되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 될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Marriage and Divorce*,
148~149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기심은 종종 가정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요인인 금전 문제의 근원이 되고, 간음의 근원이 되며,
이기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숙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파괴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기심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기심은 파괴적인 탐욕을 나타내는 것이고 절제심을
파괴하는 것이며, 충성심을 말살하고 성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남녀 모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73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대개 ‘너무 먼 곳까지
미치는 다리’를 놓는 간교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이거나 사회적인 파탄, 혹은 부정이나
이혼이든 간에 거기에는 대개 교만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성약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문을 키워 온 사람들은
지성적인 겸손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만의 씨앗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들의
불만의 씨앗이 만약 엘마가 말한 신앙의
씨앗이었다면 그들은 오래 전에 강한 간증의
나무를 키웠을 것입니다.”(*Meek and Lowly*, 6~7쪽)

“모든 이혼은 결혼
서약에 대한 일방 또는
쌍방의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자립

자립의 원리는 세상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적용됩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자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76년 3~4월호,
21~23쪽

자립의 원리는 정서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립의 원리를 한번도 강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 상담 봉사의 네트워크와 교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상담의 증가에 관해 무척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복지 제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 나갈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항상 뒤를 받쳐 주고, 밀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자신의 것을 바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 세대 동안 실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들을 정서적으로(그리고 영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정서적인 자립과 영적인 자립을 잃는다면 물리적으로 남을 의존했다가 이를 잃을 때보다도 더 힘을 잃고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들에게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회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하게 하지 않고 권고나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그러한 도움이 꼭 필요할 때에만 교회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교회의 전회원을 완전하게 도와 주기 위해 복지 생산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회원들을 도와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감독, 지부 회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광범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매달린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의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뜻 깊은 말씀입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져 그른 것을 잊어버리게 되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네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스러운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7~9)

정서적 및 영적인 독립을 위한 지침

만일 여러분께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가 여러분의 정서적, 영적인 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독립심, 근면, 검약, 자기 존중의 정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을 생활의 지배 원리로 생각하며, 영적인 보조 행위의 악이 퇴치되어야 하고,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원리와 제언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회원이 먼저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다시 가족에게서 도움을 구했다면 복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미안함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교회 회원이 조언을 구할 때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도움을 찾은 후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또 사람이

타락한 때로부터 길이 예비 되었으며, 구원은 저저 주어지는 것이니라.

“또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 (니파이후서 2:4~5)

여러분은 이미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으며, 본래부터 천성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난 못해, 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끈기와 용기와 놀라운 힘을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강력한 도움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복음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일들은 쉬워집니다.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부 회장이나 감독이나 기타 총관리 역원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은 혼란에 빠져 있거나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쁜 일이라고 알고 있는 일에 마음에 끌려 그러한 결정을 확인 받으러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해결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문제에 관해 기도하십시오. 주요한 결정은 남이 내릴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통찰력을 발휘하십시오. 구약전서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언 29:18)

문제를 매일 조금씩 생각해 보고 항상 순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곳에서 주요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면 초기에 이를 수습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주요한 결정이 여러분을 당황하게도 하겠지만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서 결과를 기다린다면 도중에 장애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큰 해를 입지는 않게 됩니다.

저는 주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는 정신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모든 생각과 근심 걱정은 밤의 휴식으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산만했던 것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육신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입니다. 그 때야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해롤드 비 리 회장님께서 계시와 관련해서 “아침 일찍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정신이 맑고 깨어있을 이른 아침을 이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4)

…

저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공부가 있을 때, 밤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애쓰지 말고 맑고 깨끗한 아침에 공부하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격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밤 늦게 앉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이 사업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른 아침을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계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시에 관해서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은 “제가 언제 계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받아 실수 없이 일을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청하십니까? 아니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에 비추어 문제가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께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쭙보십시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마음속으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면 다음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어리석게도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나 주님께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청한다면, 그 결정에서 자립이란 찾아 볼 수 없게 됩니다. 매번 여러분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주요한 것을 잃게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흔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지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양식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기도했다고 가정합시다. 주님께서서는 그와 같은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보시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집을 짓기로 했다면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정직하게 사고 정당하게 값을 치루며 주님의 방법대로 집을 지은 후 이사를 가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때때로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기꺼이 승인해 주신다는 점을 조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찾아 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수록 우리는 보다 영적으로 자립하게 되고 자유와 독립심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 스스로 멸망하려 하느냐?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니파이전서 15:7~11 참조)

만일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의 영이나 힘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고 강력한 도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분주하게 찾아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타인의 영역에 관한 일로 계시를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곧 무질서 속에 빠지며, 그러한 계시가 잘못된 원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나 기도의 응답에 너무 의존하거나 불안해 한다면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지 생산품에 대한 체제를 철저히 따르는 한편 여러분의 지식과 영감의 창고에 상담과 권고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간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께 다가가서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원천을 활용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선지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립하는 사람이 됨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75~77쪽

니파이의 자립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광야에서 8년간 여행한 후 과일과 들꿀이 풍성하여 바운티풀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를 보았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운티풀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일어나 산으로 가라”(니파이전서 17:7)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가서 기도드렸으며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네 백성을 이 물 건너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보여 줄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할지니라 하시더라.”(니파이전서 17:8)

이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여쭙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내가 녹일 광석을 찾아,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하기 위한 연장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니파이전서 17:9)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쇠붙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셨으나 그 다음 일은 니파이에게 맡기셨습니다. 니파이전서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짐승 가족으로 불을 부칠 풀무를 만들었으며, 내가 가지고 불을 부치기 위해 풀무를 만든 다음, 나는 불을 만들기 위해 돌 두 개를 마주쳤느니라. …

“내가 바위에서 녹여 낸 광석으로 연장을 만들었도다.”(니파이전서 17:11,16)

이 구절은 주님께서 꼭 필요한 도움만을 주시고 그 다음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신다는 매우 흥미로운 예입니다. 만일 니파이가 연장을 만들기 위해 쇠붙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시길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직접 연장을 달라고 간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과연 니파이의 요청을 들어 주셨을까 의심이 갑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가 연장을 만들 수 있음을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직접 해 주시는 일은 드뭅니다.

자립의 중요성

주님께서는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께 나아가면 도움을 주시며, 특히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최대한 자립하기를 바라십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브리검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8년, 293쪽)

독립 또는 자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세속적인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립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자유도 위협 받게 됩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게 될수록 우리의 자유도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상호부조회 잡지, 1937년 10월, 627쪽)

저는 전생애를 통해 지금까지 이 자립 정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장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는가 하면 몰락하기도 하며, 어떤 회사는 흑자를 보는가 하면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곧 또다른 발견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계속하여 우리의 안목을 넓히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적어도 세 번 내지 다섯 번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더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의 전통

저의 부모님은 가정에서 한 전통을 만드셨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그저 재미있다고만 생각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의 돌이 되면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돌을 맞이한 아기를 방 한쪽에 앉힌 후, 방 한가운데에 성경, 우유병, 장난감 및 동전이 든 저금통을 놓고 아기가 기어가 어느 것을 잡는가를 보곤 했습니다. 아기가 어느 것을 잡는가에 따라 장차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그 적성을 알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아기가 그런 물건쪽으로 기어가서 뭔가를 집도록 부추기곤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모두 재미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금통을 집었다고 하는데 정말 은행가가 되었으며, 제 동생인 테드는 경전을 집었는데 그는 결국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다년간 그는 판결의 기초를 경전에 의존하였습니다. 또 저의 막내 동생인 봄은 다재다능한 형제인데 그는 기어와서 성경 위에 앉아 우유병을 입에 물고 한 손엔 장난감을 들고 또 한 손엔 저금통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양육

이 재미있는 가족 활동에서 우리는 자립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전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 줍니다. 경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밝혀 주십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스런 경전에는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굳건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상고할 때 더욱 자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룩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독립 또는 자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세속적인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서, 또한 앞으로 쓰여질 책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훌륭한 책을 우리의 지침서로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순종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옴의 생애를

살펴보고 성실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서에서 베냐민 왕은 근면에 관해 가르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조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의 도덕 표준이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교훈을 가르칠 책임을 맡아 우리 가족의 마음에 그것을 깊이 심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립

둘째, 우유병은 육신이 영양을 필요로 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적인 자립에 필요한 요소가 수레바퀴 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살들은 교육, 건강, 직업, 가정 비축, 자원 관리,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영적 능력입니다.

이번 여름 저는 아내와 함께 어느 80세 되신 노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요소를 인생에서 실천하며 보여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다호 주의 조그만 읍에서 태어나 교육비를 벌기 위해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분은 소규모의 고등학교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의 교육과 선교 사업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딸기를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분은 여름 내내 이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사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으므로 누구나 이를 회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딸기는 생산하기가 무섭게 모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재의 생산량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분의 뒷마당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장이었으며, 개발된 품종은 그 특정한 기후에서 가장 달고도 풍성한 수확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분은 노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으며, 딸기 농장은 가족들에게 여름에 일할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장성이 좋은 그 딸기는 현금 수입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정 비축을 위한 일상용품과도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정 관리를 잘하여 아름다운 집도 마련했으며, 가족들도 넉넉히 부양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번성케 하며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즐거이 지켜보면서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훌륭한 교사로서 정년 퇴직하셨으나 아직도 딸기밭을 가꾸는 일을 계속하고 께비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딸기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매주 6일 동안 아침마다 그분의 딸기밭으로 향하는 열 대쯤

되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와서 가정 비축을 위해 딸기를 따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밭에서 손수 따 갈 경우에는 딸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분들이 직접 따 딸기를 한아름 안고서 밭을 떠날 때 그 기쁜 표정을 보는 것이 제가 받는 보상입니다.”

가족이 생산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가정의 밤 시간에 함께 토론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좀더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언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함

셋째, 제가 언급했던 장난감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선 들여다놓고 나중에 일부로 조금씩 값으라고 하는 선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든지 즉시 소유하기를 원하는 조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소유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더욱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어느 젊은 부부가 이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창고에서 나오는 짐에 표시된 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살짜리 여자 옷”, “세 살짜리 여자 옷” 등으로 표시된 글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구입한 옷들을 최대한 잘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받은 이러한 자원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재정적인 복지

끝으로, 저금통은 재정적인 면에서의 복지를 상징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처음 일하던 당시에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의 상사가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그분이 뭔가 마음속에 품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 뜻을 설명했으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답은 바로 이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축을 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계속 높이려면

신앙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 정확한 십일조를 드린 후에는 미리 정한 금액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도 세금, 식품비, 의복비, 집세, 교통비 등을 지불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식품점, 집주인, 전기 회사, 자동차업자, 은행 등에 계속 지불하고 있으나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 즉 저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투자하실 때에는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투기성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투자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 위급한 때와 퇴직 후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더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립의 원리는 세상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며,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인 자립의 원리에 충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편부모

편부모의 가정에서도
가족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벤 비 벙크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홀아버지나 홀어머니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름은 아주 깊습니다. 돈이 궁하고, 시간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와 이해와 성취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 주신 축복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성도의 빛, 1997년 11월호, 24쪽)

“홀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현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들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일을 해야 하며, 자녀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들끼리 놓아 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어리다면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여 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며 그들의 품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4:13)

“여러분이 사랑과 큰 희망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들의 생활은 더욱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방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노동과 일의 의미를 존중하고 깨달으며 가정과 가정 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면서 자라게 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자신의 경비 일부를 벌게 하십시오. 아들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하게 하시고 그들이 재정적인 면뿐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도 자신을 준비하고 또 이기심 없이 주님께 봉사하러 나가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축복을 세어 볼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강한 확신으로 약속합니다.”(“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히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9쪽)

“홀로 자신의 아이를 길러야 하는 젊은 여인에게 떠맡겨진 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단순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해답은 복음 원리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훈련이 걸린 문제입니다.”(1994년 10월 대회 보고, 73쪽;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3쪽)

“지난 십 년 간 저는 교회의 자매들에게 서너 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씀에 대한 느낌을 편지로 적어 보내 주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저는 “불행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파일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바로 지난 주에 받은 편지의 일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생활에 파탄이 찾아왔습니다. 약 1년 전인가,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면서, 그에게 있어 저희들의 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수속을 하더니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기다려요” “아,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 떠나야만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발 말 좀 해 봐요. 애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꿈은 어떻게 하고요? 성약을 잊으셨나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라고 외쳤으나,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어린 아들들은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어린 딸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저는 술한 밤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여야만 하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혼란 속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 했습니까? 제 학교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제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 주세요! 저 역시 남편에게 버림 받은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돌보아야 할 자녀는 많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쌓여만 가는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57쪽)

“이혼하신 여러분,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실패자로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많은 경우에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의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잊고 고양시키고 도와 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 30)

“주님은 여러분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극적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쉽사리 이해되지도, 혹은 심지어 인식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축복 받았다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자녀가 있고 그들을 의로움 속에서 양육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다가올 세월을 통해 그들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위안과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사별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별의 칼로 상처 입은 마음에는 어떤 치료제도 없습니다.’(Hitopadesa, *Elbert Hubbard's Scrapbook*, 뉴욕 시: Wm. H. Wise and Co., 1923년, 21쪽)

“여러분 중의 많은 분에게는 상실과 두려움의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4)

“우리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의 낮과 그리움의 밤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이사야 51:12)고 말씀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손 닿는 곳에 계셔서 초대 받을 때는 언제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훌륭한 재능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위안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곤경을 돕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곤경들은 잊혀질 것입니다. 짓밟히고

억압 받는 사람들의 짐을 들어 주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짐들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To Single Adults”, *Ensign*, 1989년 6월호, 74쪽)

마빈 제이 애쉬튼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옷을 지어 주며, 빵을 굽고, 피아노를 가르치며, 상호부조회에 가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일을 모두 할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의 예를 보면서 실망하고, 자신은 부족하며, 그들과 비교할 때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열등 의식에 빠져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탄의 또다른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인간적인 어머니” 또는 “초인간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너무 독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열등 의식을 갖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처지와 힘과 재능을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가족이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하나의 팀, 또는 단위 조직으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이 자신의 필요 사항과 힘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지식에 맞추어 자신의 항로를 계획하고 선택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12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벤슨 회장님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자매님들 중에는 미망인이 되셨거나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며, 생활비 때문에 얼마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것일 뿐, 결코 규칙은 아닙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시온의 어머니들께*, 소책자, 1987년, 5~6쪽)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힘을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집을 비우는 분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4쪽)

벤 비뱅크스 장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과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후기 성도 가족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가족”, 즉 부모와 자녀들이 다함께 영원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을 서로 나누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다른 가족 중에는 부모 중 한 분과 사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과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만 계시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제가 두 살이 되었을 때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의 어머니와 계속 양육 받아야 할 일곱 명의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만 있는 가족에서도, 가족은 계속되며 영원한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9쪽)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나는 가정을 관리하고 그들을 축복할 신권 소유자가 없는 편모 슬하의 가정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집이

되는 것을 꺼려하며, 그들의 가정 상태에 대해 무심히 한 말에 의해 자주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물론 가정 생활의 주류로부터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특히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정원회 형제애와 상호부조회 자매애에 대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대가족 가정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와드 내의 각 가정은 손길을 뻗어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3쪽)

성전 준비

지상에서 인봉하고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결봉되는 열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성전에 가기 위한 합당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모든 후기 성도들께 주님의 성전을 회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바라보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길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개인이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독특하고 훌륭한 건물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신학사상 가장 심오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세상 모든 곳의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으며, 그것을 고귀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된 영과 축복을 누리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진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을 나설 때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소음과 요란스러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거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57쪽)

성약과 의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만일 어떤 사람이 침례나 성임이나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든 성약을 깨뜨리면 영은 승인의 도장을 취소하게 되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1:43)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때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덕과 순결의 법을 엄격히 지키고, 자비롭고 유덕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결하기로 결심하며, 재능과 재물을 바쳐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를 향상시키기로 하며, 진리의 대업을 위해 헌신을 계속하며, 이 지상을 만왕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힘써 공헌하기로 성약을 맺는다. 모든 성약을 맺고, 책임을 받아들이면, 조건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다.”(주님의 집, 73쪽)

성전의 상징성

휴 비 브라운 회장

“이 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옷뿐 아니라 세상의 생각도 제쳐 놓고 우리의 몸을 깨끗한 흰 세마포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생각으로 감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Continuing the Quest, 38쪽)

존 에이 윗소 장로

“우리는 상징의 세계에 삽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도 그 상징을 너머 그 상징물이 의미하는 힘있는 실체를 보지 않는 한 그가 받아야 할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Temple Worship”, 62쪽)

엔다우먼트의 목적

선지자 조셉 스미스

“형제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는 엔다우먼트가 필요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2:309)

브리검 영 회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이 생을 떠난 후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들의 옆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 영원한 승영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을 주님의 집에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416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성약을 맺고, 이 지상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주어질 수 없는 열쇠와 권능을 부여 받게 될 때까지는 승영을 얻을 수 없습니다.”(*구원의 교리*, 2:224)

존 에이 윗소 장로

“성전 엔다우먼트는 인간의 영원한 여행의 이야기를 해 주며, 영원한 여행에 있어서의 진보를 좌우하는 조건을 말해 주며, 진보의 법을 받아들이고 이용하겠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약 혹은 합의를 요구하며, 의에 대한 우리의 기꺼운 태도와 적합성에 대해 시험하며,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에 의해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려 줍니다.”(*Program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78쪽)

엔다우먼트를 이해함

존 에이 윗소 장로

“게시에 의해 주어진 엔다우먼트는 계시에 의해 가장 잘 이해 될 수 있으며, 청결한 마음으로 가장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시는 가장 위대할 것입니다.”(*Temple Worship*, 63쪽)

해롤드 비 리 장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그 과정에 의해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있어서의 성도들과 우정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세상적인 보물의 부유한 유산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부를 부여

받습니다.

“성전 의식들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시하신, 우리 전생애의 지침이자 보호입니다.”(*“Enter a Holy Temple”*, *Improvement Era*, June 1967, 144쪽)

칼로스 이 예시 장로

“몇 년 전에 새롭게 부름 받은 성전장과 메이트론을 위한 세미나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님이 자신이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에 관해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롤드 비 리 회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먼트를 합당하게 착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그분이 리 회장님에게 자신의 합당성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시냐고 여쭙자 리 회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가먼트를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합당성과 복음에 대한 헌신의 척도가 됩니다.

“성전 가먼트를 입는 것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상세한 착용 규칙을 반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들이 가먼트 길이와 언제 어떻게 그것을 입어야 하는지 혹은 입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금이라도 그 규칙에 어긋나면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기 성도는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덕적인 선택의지를 주신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성전 가먼트: 마음속의 약속을 외부로 표현함”,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33쪽)

성전 결혼을 위한 준비

후기 성도들은 성전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다. 신랑 신부의 결혼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인봉된다.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기 전에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다. 일부는 교회의 율법들과 관련이 있고, 일부는 그 나라의 국법과 관련이 있다. 성전은 많은 나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들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만일 어떤 성전에서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성전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성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감독에게 문의한다. 그는 금년도를 위한 “모든 성전 일정”을 갖고 있다.

아래에 열거된 것들은 고려해야 하는 준비 사항 중의 일부이다.

국법

혈청 반응 검사

일부 지역들은 결혼 허가를 받기 전에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결혼 허가

만약 민법이 성전 결혼을 인정한다면 그 성전이 위치한 관할 관서에서 유효한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결혼을 허가하는 법적인 허가증을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 허가증은 그 성전이 위치한 국가나 주/도에서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허가증을 받기 전에 주민 등록을 해 두어야 할지 모른다.

승낙

연령에 따라서 결혼 허가증을 받기 위해 서면 동의를 해 줄 부모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대기 기간

일부 정부는 허가증을 신청하는 날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날 사이에 대기 기간을 요구한다.

성전 인봉에 선행되는 일반 결혼

몇몇 나라에서는 성전 결혼이 국법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다른 나라에서의 법률은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먼저 일반 결혼을 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의 절차

증인들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교회의 두 남성 회원이 결혼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전에서 결혼 서류에 서명해 줄 자기 자신의 증인을 선정해도 되고, 아니면 성전이 증인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성전 결혼 추천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혹은 결혼 인봉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갈 때 두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성전 추천서와 산 자의 의식을 위한 추천서. 첫 번째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다시 갈 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것은 자신의 엔다우먼트, 결혼, 혹은 인봉을 위한 추천서이다. 그것에는 부모의 성명, 자신의 침례일, 이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다면 자신의 엔다우먼트 날짜 같은 회원상의 기록이 포함된다. 그것에는 또한 결혼하기 위해 성전을 왔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발표와 초대

만일 추천서가 어떤 이유로서든 거부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난처함을 피하기 위해 성전 결혼 추천서를 입수할 때까지는 안내장이나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다. 자신의 결혼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확인 접견 일정이 잡힐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한다.

일 년 미만

침례와 확인 후 완전히 일 년이 지날 때까지는 성전 추천서를 받지 못한다. 어떤 부부가 일반 결혼을 했고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인봉 받기 위해 그들의 일반 결혼 일자로부터 일 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제한은 처음에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시간과 날짜

예비 부부는 그들이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성전이 열려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결혼 계획을 성전과 협의해야 한다. 감독에게 성전 일정이 있을 것이다.

엔도우먼트와 인봉

인봉 받으려는 한 쌍은 먼저 자신의 엔도우먼트를 받아야 한다. 인봉일이나 그 전날에 자신의 엔도우먼트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엔도우먼트를 받기 위해서는 서너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계획해야 한다. 인봉은 의식 집행자가 주는 말씀을 포함하여 45분 정도 걸릴 것이다. 엔도우먼트를 받거나 인봉 받을 때에는 의식이나 인봉이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전에 성전에 와야 한다.

성전복

성전에서는 특별한 흰 옷을 입는다. 그것은 성전에서 빌려도 되고 자신의 옷을 가지고 가도 된다.

웨딩 드레스

신부는 인봉되기 위해 성전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어도 좋다. 드레스는 장식이 많지 않고 흰색이어야 하며 긴 소매와 정숙한 네크라인(목선)이 있어야 하고, 모든 얇고 비치는 재료는 안감을 대어야 하며, 뒤에 끌리는 옷자락(트레인)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떼내거나 핀으로 고정시키거나 흑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합당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도 있으면 그 드레스나 직물이나 패턴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승인 받는다. 신부는 엔도우먼트 의식 동안 웨딩 드레스를 입어도 되지만 그 의식 동안은 트레인(뒤에 끌리는 옷자락)을 떼내야 한다. 성전에서는 긴 드레스 속바지(팬츠)가 달린 가운을 입으면 안 된다. 많은 성전에는 자신의 특별한 행사를 위해 필요로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성전에 알아본다.

웨딩 드레스의 보관

웨딩 가운은 대부분의 성전에서 인봉 전에 인도될 수 있다. 그 가운들은 신부의 드레싱 룸으로 옮겨져 여러분을 위해 보관될 것이다.

손님 수

인봉실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예약할 때 성전에 알려야 한다. 엔도우먼트를 받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인봉에 참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전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청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로 국한되어야 한다.

손님에게 시간과 의상 요건을 알려 준다

만일 결혼식 날에 엔도우먼트를 받는다면 몇몇 손님들이 함께 엔도우먼트 의식에 참석하기를 원할지 모른다. 다른 손님들은 인봉에 참석할 시간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도 손님들에게 그들이 도착해야 할 정확한 시간을 알려 주어야 한다.

손님들이 성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는 그런 복장을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사항을 재점검해야 한다. 턱시도나 다른 공식 의상은 합당하지 않다. 모든 손님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집행자

성전장단과 다른 성전 인봉자들은 성전 결혼을 집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성별 받았다. 총관리 역원은 너무 바빠므로 결혼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

언어

대부분의 성전은 여러 언어로 의식을 갖는다. 자신의 엔도우먼트와 결혼이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집행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전장에게 알아본다.

성전 뜰에서의 사진 촬영

성전 안에서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봉 후에 성전 뜰에서 신랑 신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사는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기타 사항

각 성전은 여러분이나 감독에게 성전 결혼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 성전에 전화하거나(결혼 담당 직원에게 묻는다) 성전장에게 편지로 문의할 수 있다.

요약 점검표

끝났을 때 표시한다.

- 결혼할 성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다. 날짜 _____
- 결혼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성전에 예약한다. 날짜 _____ 시간 _____
- 초대된 손님의 수가 예약된 성전실보다 더 많지 않도록 한다.
- 성전 예약을 할 때 의식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는 언어를 밝힌다.
- 초대된 손님에게 성전의 의상 요건을 알린다.
- 아직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위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다. 날짜 _____ 시간 _____
-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려 준다.
-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받는다.
 - 날짜 _____ 해당 없음 _____
 - 결혼 허가증
 - 거주 자격이 필요한가? 예 _____ 아니오 _____
 - 승낙이 필요한가? 예 _____ 아니오 _____
 - 대기 기간이 필요한가? 예 _____ 아니오 _____
- 성전 인봉에 앞서서 일반 결혼을 해야 하는가? 예 _____ 아니오 _____. 만약 예라면 날짜와 시간과 집행인은? _____ 정해졌나? _____
- 성전 의식을 위한 증인을 정한다.
- 엔다우먼트 및 결혼을 위한 추천서와 함께 성전 추천서를 갖는다. 날짜 _____
-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일반 결혼을 한 후 일 년을 기다렸다. 해당 없음 _____
- 성전 가먼트.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가먼트의 목적에 대해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짜 _____ 가먼트 구입 _____
- 웨딩 드레스: 흰색 _____ 긴 소매 _____ 정숙한 높은 네크라인 _____ 비치는 재료는 안감을 댄
- 원한다면, 성전에서 흰 드레스를 빌리겠다. 이용 가능성에 대해 성전에 알아보았다. 해당 없음 _____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성도의 벗, 1992년 6월호, 14쪽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에서도 이 건물의 영적으로 심오한 목적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으나, 그러한 영적인 목적은 그 건물의 내부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전 문 위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성전이나 헌납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곧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합당한 교회 회원은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높은 구원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통해 씻음과 기름 부음과 가르침과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도 똑같이 행해집니다.

이 일은 성스러운 것임

경전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주님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그에 대한 전제 요건이 되는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전 의식이 바로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는 성전 의식에 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성전 의식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을 몇몇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제한하자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도록 온 힘을 다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다녀온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과 이 지상에 살았던 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성전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회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의식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도록 기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만으로는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의식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인 단계 곧 신앙, 회개, 침례, 확인과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 받아 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합당성, 성숙함과 고결성 등이 요구됩니다.

모든 면에서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합당함

일단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신성함과 성전 축복의 가치에 대해 다소 이해하게 되면 이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표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에는 합당한 교회 역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합당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해 질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점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점전은 주님의 성임된 종과 함께

자신의 인생 과정을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도록 감독이 도와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 곧

이스라엘의 판사와의 상담을 통해 주님의 승인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함을 선언 받게 되거나 합당하게 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 추천을 위한 점전은 감독과 교회 회원 사이에 은밀히

행해져야 합니다. 이 점전에서 회원은 개인적인 행위와 합당성과

교회와 교회 역원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피점전자는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있으며,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며, 배도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독은 피점전자와

가진 점전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대개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개인의 합당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만일 신청인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일상 생활에서 시정 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성전 추천서를 받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이 그와 같은 점전을 한 후, 우리가 성전에 가기 전에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점전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성전에 처음 가는 것이든 여러 번 가 보았든 성전에 가기 전에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교사이셨던 주님은

대체로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위대한 학교이며, 배움의 집입니다. 성전은 심오한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셨던 존 에이 윅스

장로님은 명문 대학 총장이었으며 세상에 잘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대해 커다란 경외심을 갖고 있었으며

언젠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위대한 학교이다.

그것은 배움의 집이다.

“성전 의식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가르친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해한 일들을

잘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배운 가르침을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적용시키는 일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무리가 없는 일입니다. 엔다우먼트의

철학적인 완전성은 성전 의식의 진실성에 대한 훌륭한 논증의

하나가 됩니다. 더욱이 복음 계획에 대한 이 완전한 개요와

설명은, 복음의 전체 골격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배의 하나가 됩니다.”(*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921년 4월호, 58쪽)

만일 성전에 가서 그 가르침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야를 더욱 넓히게 되고, 보다 숭고한 느낌을

지니게 되며,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 합당한 영의

상태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곳에서 가르쳐지는 원리는 참으로

훌륭하며 영감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밤에 환히 불이 켜진 성전을

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환히 밝혀져 있는 우뚝 솟은 주님의 집은 점점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 들어가는 세상에 햇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영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평상복을 벗고 흰 성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갱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갱의실에는 각 개인마다 하나씩 옷장이 주어집니다. 성전에서는 겸손이라는 이상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옷을 옷장에 둘 때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혼란도 벗어 둔 옷과 함께 그 곳에 남겨 둡니다. 이 갱의실에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모두가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봉의 권세

여러분들 중에 성전 결혼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 결혼 인봉 의식문을 인용해서는 안 되지만, 인봉실이 아름답고 분위기가 조용하여 그 곳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에 의해 거룩하게 된 곳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인봉 의식을 받기 위해 제단으로 가기 전에 의식 집행자는 젊은 남녀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고 또 젊은 남녀는 그것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때에 젊은 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결혼일입니다. 두 분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기쁨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은 의식을 위한 성소로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여기서 진행되는 일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두 분은 세상에 태어나 각자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의 장막을 준비하신 부모에 의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침례 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인 침례는 정결과 사망과 부활의 상징이며 새 생명으로 나오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죄 사유함이 포함됩니다. 성찬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대로 생활한다면 계속해서 죄 사유함을 받게 됩니다.

“신랑은 신권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먼저 아론 신권을 받고 그에 속한 직분인 집사, 교사, 제사 직분을 모두 거쳐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신랑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대신권인 이 신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를 따른 신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엘마서 13:18; 힐라맨서 8:18; 교리와 성약 107:2~4

참조)이라고 불립니다. 형제님은 그 신권의 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장로입니다.

“두 분은 각자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되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와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자유롭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자녀를 세상으로 데리고 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양육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들도 두 분과 같이 이 성스러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분은 자의로 이 곳에 왔으며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성약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며, 무한한 축복이 따르는 일입니다.”

성전 사업의 역사와 교리를 알기 원한다면 인봉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뿐 아니라 전세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에 있어서 인봉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봉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는 영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인봉의 권세를 지닌 사람은 교회의 회장으로로서, 이 지상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로 최고의 신뢰와 권능을 부여 받은 직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심오한 영적인 일에 관련되는 가르침, 특히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교훈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쇠라는 단어를 상징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신권의 열쇠는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권세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인봉이라는 말과 열쇠라는 말과 신권이라는 말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봉의 열쇠는 영원한 신권의 열쇠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3~19)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봉하는 권세 곧 땅에서 매거나 인봉하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권세를 지닌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교회의 회장 곧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인봉의 권세가 지금 이 교회에 있습니다. 권능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 있어서나 지상에서 이와 같은 인봉의 권세를 위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에 속했습니다. 어느 성전이나 인봉의 권세를 지닌 신권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누구라도 선지자시며 선견자시며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인봉의 권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은 지상에서 매고 하늘에서 영원히 인봉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신 대리자를 두셨다.(마태복음 16:19; 18:18; 힐라맨서 10:3~10; 교리와 성약 132:46~49 참조)

“이러한 권세에 의해 인봉되지 않은 모든 약속은 인간이 죽을 때 끝나게 된다. 침례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인봉의 권세가 없다면 우리를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결혼 성약이 이러한 권능에 의해 인봉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를 해의 왕국 내의 가장 높은 곳인 승영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인봉의 권세로 인해 지속적인 힘과 효력을 얻게 된다. 이 권세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집행된 의식이 포함되며 이 권세는 지상의 자녀들을 앞서간 조상들에게 인봉하여 승영된 자들 가운데 영원히 존속하게 될 영원한 축복사의 고리를 이루게 한다.”(브르스 알 맥콩기, *Mormon Doctrine*, 제2판,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683쪽)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가족을 구속하고 승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봉의 권세에 대한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반차로 이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집니다. 이러한 열쇠 곧 지상에서 인봉하고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결봉되는 열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는 침례를 줄 수 있고, 축복하며, 엔다우먼트를 베풀고, 인봉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님도 우리의 성약을 귀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종종 “그러한 모든 의식을 거치지 않고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충만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집은 왕국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인 승영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의 왕국의 율법과 완전한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6:184)

적대자가 없지 않음

성전은 영적인 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신성하고 영감적인 일에 참여하고자 할 때 적대자는 우리 교회 전체와 또한 우리 각자를 대항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성전 사업은 후기 성도와 교회 전체에 매우 큰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것처럼 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간 성전 정초식에서 조지 큐 캐논 회장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놓여진 모든 초석과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신권을 통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진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줄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성스러움을 증가시키며,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위해 하늘을 움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면전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도록 합니다.(*Millennial Star*, 1877년 11월 12일, 743쪽)

교회 회원들은 고통스러울 때나 큰 결정을 앞에 두고 마음이 무거울 때 흔히 성전에 갑니다. 성전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받아주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봉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즉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로 인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거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먼지가 가라앉고 안개와 아지랑이가 걷히게 되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집행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성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감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탐구보다 더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더 높은 의의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서 또한 한 백성으로서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십시오. 와서 축복을 받으려 하십시오. 이 일은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성전 가먼트: “내적인 결의의 외적인 표현”



카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1정원회
명에 회원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몇 년 전 새롭게 부름 받은 성전장과 메이트론을 위한 세미나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님이 자신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관해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롤드 비 리 회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먼트를 합당하게 착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그분이 리 회장님에게 자신의 합당성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시냐고 여쭙자 리 회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가먼트를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합당성과 복음에 대한 헌신의 척도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전의
성스러운 의식 사업을
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성전 가먼트를 입는 것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상세한 착용 규칙을 반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들이 가먼트 길이와 언제 어떻게 그것을 입어야 하는 혹은 입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금이라도 그 규칙에 어긋나면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회원들이 사소한 것에 신경쓰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다 중요한 사항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마태복음 23:23~26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후기 성도는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덕적인 선택의지를 주신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멸망되는 자가 스스로 멸망을 이룬 것이요, 간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너희는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니, 보라 너희는 자유로워 임의로 행함이 허가되었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며 또한 너희를 자유로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생명과 사망을 임의로 택하게 하시었고 선을 행하여 너희를 위해 선을 쌓으며 선한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하거나, 악을 행하여 악을 쌓을 수도 있게 하셨느니라”.(히라맨서 14:30~31)

저는 성전 가먼트와 관련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심이 강한 후기 성도는 가먼트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더 합당하게 입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스러운 의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을 행하고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전 가먼트의 성스러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성전 가먼트를 다른 옷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각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가먼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가먼트를 합당하게 입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의 침략군이나 외국의 해군이 아닙니다. 총탄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도 않고 우리의 집과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시키고 영적인 패배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을 세력을 가진 군대와, 우리는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높은 데 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력자, 통치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에베소서 6:12 참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설물의 맹렬한 공격과, 범죄와, 불법적인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남용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다른 음흉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협적인 영향력과 그 밖의 다른 급박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이와 같이 “고통하는 때”(디모데후서 3:1)에 맞서야 하는 “마귀의 간계”(에베소서 6:11)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3)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닌 선지자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는 현대에 존재하게 될 사악한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성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에베소서 6:14~16)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17절)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17절)고 항상 기도하라고(18절) 권고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의와 믿음과 영광 기도로 만들어진 갑옷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던지는 “불화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또다른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입는 성전 가먼트, 곧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로 알려진 특별한 내의입니다. 밤낮으로 입고 있는 이 가먼트는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가먼트는 주님의 성스러운 집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한 추종자들의 생활을 특징 짓는 겸손한 의복과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가먼트는 순결을 상징하고 정숙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에베소서 6:13; 교리와 성약 27:15 참조)고 한 바울의 권고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간주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먼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과 진리와 생명과 제자됨에 관해 복음 원리들이 지향하는 몇 가지 단순한 표시가 있습니다.”²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전쟁은 아담의 시대에 시작되어 모세의 시대를 거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계시에 의해 시작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불화살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보호막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고 현대의 계시(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에서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 가먼트로 상징된 “의의 갑주”(니파이후서 1:23) 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착용했던 투구와 방패와 가슴판을 포함한 무거운 갑옷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의 실제 전투에서는 영적인 갑옷,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대업에 대한 확신과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로 구성된 갑주를 입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성전 가먼트라고 불리는 갑주는 옷으로서의 편안함과 마스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주고 사악한 세력을 저지하며 의를 위해 굳게 서도록 강화시켜 줍니다.

역사적 배경

“주의 것”(니파이후서 4:16)에는 이 세상이 시작한 태초로부터 성스러운 의복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의 여러 부분에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특별한 가먼트를 입었다는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성스러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21)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속죄와 회개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이 옷을 받았습니다.(모세서 5:5~8 참조) 후기 성도에게 주어진

성전 가먼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먼트는 그것을 입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집에서 맺은 구속력이 있는 성약을 지키며 약속된 축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미덕을 소중히 여기고 나누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가먼트와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서 그들이 회막에서 의식을 집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출애굽기 28:1~3)

교회 회원들은 구약 시대에 선택된 지도자들이 입은 아론의 의복과 예복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화려한 의복”, “영광의 옷”, “영화로운 옷차림”, “구원의 옷”³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회막에서 의식을 집행하거나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입는 의복에 특히 더 잘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식어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일컬으며 나의 성도가 되고자 힘쓰고 있는 자”(교리와 성약 125:2)가 매일 입는 성스러운 의복에도 적용됩니다. 성스러운 의복은 성전에서만 입든 평상복 아래 매일 입든 관계없이 그 영예롭고 영화로운 성격이나 귀중한 본질 면에서 그것들을 만든 재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앨마서 5:15)으로 볼 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 명예 교수인 휴 니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먼트는 그 의미를 제외하면 무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먼트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할 때에만 가먼트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⁴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권과 성전 의식을 받았을 때에는 언제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선지자들과 다른 의로운 성도들이 가먼트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을 때, 성스러운 성전과 관련된 신성한 신권 의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새롭게 계시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에는 가먼트에 관한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먼트와 의복에 관해서는 경전에서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녹은 “[내가]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내가

영광으로 옷 입었더라.”(모세서 7:3)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심판의 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들은 순결함으로 참으로 의의 겹옷으로 옷 입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니파이후서 9:14) 이사야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신다고”(이사야 61:10)했습니다. 엘마는 “깨끗하게 되어 흠도 없으며 정결하고 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앨마서 5:24)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것과 다른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속의 정결함과 순결함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 위에 씌워진 흠없는 덮개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선량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들

많은 교회의 회원들이 성전 가먼트와 관련된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실을 알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가먼트를 부적절하게 입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입었다 벗었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지시는 무시되고 영적인 보호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1974년 7월 3일자 제일회장단 서한을 통해 교회 회원들은 가먼트의 신성한 특성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먼트를 착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오는 축복은 어떠한 불편이라도 감수할 만큼 충분히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은 성약을 깨뜨릴 때는 약속된 보호와 축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⁵

또한 신권 지도자에게 보낸 1988년 10월 10일자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가먼트를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먼트를 입는 의식을 통해 교회 회원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입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성약은 가먼트를 내의로서 밤낮으로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신성한 성약은 회원과 주님 간에 맺은 것입니다. 회원들은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보호와 축복에 대한 약속은 합당성과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충실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가먼트를 입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벗을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정원에서 일하기 위해, 또는 수영복 차림이나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 위해 가먼트의 전부나 일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복장 안에 가먼트를 잘 입을 상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락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것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수영과 같은 운동을 위해 가먼트를 벗어야 할 때에는 가끔씩 빨리 가먼트를 다시 입어야 합니다.”

단정함과 신체를 적절히 가린다는 원리는 성약에서 절대적인 요소이며 착용하는 모든 의복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교회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은 회원들은 가먼트를 주님과 맺은 신성한 성약을 상기시키는 의복으로, 또한 유희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의복으로 입어야 합니다.” 가먼트를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은 구주를 따르겠다는 마음속의 결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⁶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가먼트를 합당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를 주셨으며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어리석고 헛되고(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세상적인 지속적인 관행을 따르기 위해 그것을 망쳐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모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순결, 그리고 순수한 생활에 버금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을 주저 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신성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주신 형태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유행에 맞서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집시다. 특히 유행이 성약을 깨뜨리고 그리하여 중대한 죄를 짓도록 강요할 때 그에 맞서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집시다.”⁷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그가 쓴 책 거룩한 성전에서 가먼트를 합당하게 착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가먼트는 거룩한 성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정숙함을 증진시키며 착용자에게 방패와 보호막이 된다.

“회원들이 그러한 가먼트를 입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유행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정하지 않거나 모양이 극단적인 의복만 가먼트와 함께 입을 수 없을 뿐이다.”⁸

가먼트에 대해, 그리고 가먼트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또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리가 분명히 밝혀졌으니, 이제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은 착용자와 그들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지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규정이 허찮다는 이유로, 또는 모세 율법과 같은 세세한 행동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앨마서 42:29~31 참조)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이 정하신 대로 그들의 복장과 행동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

저는 가먼트를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성전의 일부를 지니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진 영감에 찬 가르침과 신성한 성약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지니고 가는 확실한 것은 가먼트입니다. 비록 항상 성전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일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기 위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가먼트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하얀, 깨끗한, 순수한, 정숙한, 덮는, 의식의, 성스러운, 신권의, 아름다운, 완벽한, 죄 없는, 전신 갑주, 성약, 약속, 축복, 존경, 영생 등과 같은 어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낱말들은 모두 진지하게 성도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선택된 믿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요한계시록 3:4~5)

모든 교회 회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사데 성도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가먼트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엘마는 그 당시의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가먼트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희어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 옷이 씻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참으로 그의 옷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이, 곧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실 그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 없이 스스로를 지켜 행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 속으로 너희가 충분히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옷이 장차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앨마서 5:21, 27)

우리의 가먼트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가슴속에서 “무릇 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며, ...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4)고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

1. 존 테일러, *Millennial Star*, 1851년 11월 15일, 339쪽.
2. Evelyn T. Marshall, “Garments”, in *Encyclopedia of Mormonism*, 2:534.
3. *Encyclopedia of Mormonism*, 2:534.
4. “Sacred Vestments: A Preliminary Report”,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1986), 13쪽.
5. First Presidency Letter, 1974년 7월 3일.
6. First Presidency Letter, 1988.
7. *Improvement Era*, 1906년 8월, 813쪽.
8. *The Holy Temple*(1980), 75쪽.

세상적 준비

교회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 뒤에는
자립의 원리가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상호부조회에서 ‘검약하는 생활’을 위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절약하는 일, 재정 문제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절한 준비, 가정 생산 및 비축에 대한 적절한 관심,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17쪽)

엘 톰 페리 장로

“우리는 매일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는 크게 변동하는 인플레이, 전쟁, 개인간의 갈등, 국가적인 재앙, 이상 기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도덕, 범죄, 가족과 개인에 대한 폭행, 공격 그리고 가족과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들, 직업을 잃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이 있습니다. 준비의 필요성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잘 준비되었을 때의 축복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네 가지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

“첫째, 적절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

“둘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하십시오. ...

“셋째, 과도한 빚을 피하십시오. ...

“넷째,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획득하여 저장하십시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35~36쪽)

건강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우리는 회원들에게 건강의 올바른대로 생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건강의 올바른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성도의벗, 1975년 8월호, 31~32쪽)

“교회의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 뒤에는 자립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합당한 식사법과 바람직한 습관을 익혀 건강한 신체를 간직하고 인생의 많은 시련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24쪽)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절제로 건강과 육체의 복리를 추구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8쪽)

고용과 재정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빚을 피하시고, 빚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세와 관련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난 뒤, 비록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 때에는 모진 풍파가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 줄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우리가 직업이나 고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하는 직업은 명예롭고 도전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흥미, 적성 훈련에 꼭 맞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직업은 적절한 수입을 제공하는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과 즐거움—그가 매일 고대하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우리 자매님들도 반드시 직업을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하게 되어 일을 해야 한다면, 품위 있고 보람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재능과 은사를 극대화시켜 줄 직업에 종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명예로운 직업을 위해 준비함”, *Ensign*, 1975년 11월, 122, 124쪽)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생계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보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수입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결코 경멸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직업은 어느 것이든 훌륭한 품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천하다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135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에 대해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계획 및 자제심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태도는 풍요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최선의 상태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웠는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나는 보다 많이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무상 배급을 주었던 대공황 때 살았던 사람 중에는 아직도 나라에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36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3쪽)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이 영원한 원리가 각자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두 번째 열쇠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한 목표를 종이에 써서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열쇠는 자신의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소비를 줄이려 할 때 자제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관해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스테이크와 와드의 재정적인 요청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이율로 상환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부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카드 사용을 그만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신에게 “우리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라고 타이르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자제력을 기르십시오.

“어느 날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낭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쓰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는 거요?”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봐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돈은 못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 한도로 그 돈을 써서 생긴 것은 있잖아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부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지출하십시오.

“4.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을 구별하여 지출을 줄이십시오. 물자와 용역과 에너지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5. 가사 기술을 향상시키고, 집과 승용차 수리 등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하십시오.

“6. 현명한 투자를 하십시오. 투기와 일확천금의 꿈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수입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직업을 갖거나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정규 직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곧 성공적인 태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나가 잘되면 만사가 잘된다.’

“긍정적인 태도, 잘 짜여진 계획 및 지속적인 자제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열쇠를 일상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수입을 더욱 늘리고, 가정에서 실천함으로써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와 아울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며,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130~133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자립의 기초는 근면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에는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법적인 책임 능력이 있는 연령의 자녀들은

생산적인 직업을 얻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 주도록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14쪽)

가정 비축 및 생산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일반적으로 가족이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곳에 있는 후기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 즉 식량 생산, 저장, 비축, 식량이 아닌 물품의 생산, 비축에 힘을 기울여 가정을 강화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을 권고합니다.”(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117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 년간의 식량, 의복, 연료 등을 비축해 두었습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비축하라는 계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배에 타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복지에 필요한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3쪽)

사탄의 유혹과 욕으로 난 인간

우리가 먼저 욕으로 난 이기적인 자기를
“던져 버리지” 않는다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브리검 영 회장

“악마는 욕신과 영을 초월하는 권세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마가 인간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악마의 영에 굴복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을 욕신이 지배할 때만은 예외입니다. 주님께서 욕신의 장막에 넣으시는 그 영은 전능하신 주님의 지시 하에 있지만, 영이 장막을 갖고 승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영과 욕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영은 욕신의 영향을 받으며 욕신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영은 순수하며, 주님의 특별한 통제와 영향력 하에 있지만, 욕신은 땅에 속한 것이며, 악마의 권세에 종속되고, 땅에 속한 그 타락한 상태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만일 그 영이 욕신에 굴복하면 악마가 인간의 욕신과 영을 이길 권세를 가지며 인간은 둘 다를 잃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69~70쪽)

“우리는 우리 욕신의 부모의 자녀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빛의 아버지의 친자녀이자 그의 왕국의 친상속자이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내부의 진리의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고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작품인 인간은 끝없는 영속을 위해 만들어진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것을 위해 모든 선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본성에 녹아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결코 악을 행하거나 악을 사랑하게 조직되지 않았습니다.”(*설교집*, 9:305)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사탄은 개인과도 같이 개별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나 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이끌려는 그의 사악한 욕망은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려는 아버지의 의로운 욕망 못지 않게 강렬하다.”(*용서가 낳는 기적*, 29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타락의 과정에서 아담과 이브의 욕신에 온 변화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발생했다. 그 중 하나로서 그들은 ‘자연(욕)’으로 떨어졌다. …

“아담과 이브가 들어간 그 욕의 세계의 일부는 그 시점까지 혈액이 없는 살과 뼈의 더럽혀지지 않은 욕신에—부패할 수 있는 성분—혈액이 첨가되는 것을 포함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에 대한 유혹과 위협이었다. 타락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의 육체적인 분리뿐 아니라 영적인 분리도 일어나게 되었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떨어져서 의로운 것들 중 많은 것들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

“[욕으로 난 인간의] 이 교리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또 그것이 잘못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욕으로 난’ 악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욕신의 남녀는 근원적으로 신성하고 그들의 잠재적인 운명에 있어서도 신성하다. 교리와 성약 93편 38~39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로서 그들은 악마가 ‘빛을 빼앗아’ 가는, 세속적인 인간 본성을 포함하여, 몇몇 욕의 요소들이 혼욕, 절제, 순화가 필요한 ‘욕으로 난’ (타락한) 세계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들이 신이 되는 길을 따라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다음 단계의 일부로서 가공되지 않은 육체적 및 영적 요소를, 달리 말해서, ‘욕으로 난’ 자원을 받은 것과 같다. 그런 자원은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와 잠재력이 방향이 잡혀지고 그리하여 좀더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억제되고 집중되어 있다. (‘자연’ 강이나 ‘자연’ 폭포를 종종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새롭고 훌륭하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갱생되지 않은 잠재력을 갖춘 욕으로 난 모든 인간은 여전히 우리를 복돋워 주고 위로 들어 올려 주는 성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과 전세의 열망들은 시초부터 거룩하며, 그것들은 아직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전의 순진 무구함의 메아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으며, 악한 것을 버리는 그 빛이 아직도 빛나고 있다. 우리의 가슴은 ‘욕욕적이고 호색적이거나, 악마 같은’ 것보다는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염원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희망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선택은 영원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 우리의 참된 유산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영향력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그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고, 욕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205~207쪽)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경전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창세기 1:26~27, 아브라함서 4:27~28 참조) 남성과 여성 모두 그들 안에 신의 속성들을 갖고 있고 남녀 모두 자신의 거룩한 부름을 이행할 때 축복 받는다. 사도 베드로와 베냐민 왕은 우리가 성신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 거룩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베드로후서 1:3~8, 모사이야서 3:19 참조) 성령의 열매와 하늘에 계신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거룩한 씨앗의 유사성을 주목하면

흥미롭다.(갈라디아서 5:21~22, 베드로후서 1:3~8 참조)

“광명은 광명과 결합”하고 성령은 선한 영과 결합하기 때문에 성신은 우리 내부의 거룩한 씨앗을 싹트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해 주는 빛의 한 부분에 의해 우리를 복돋워 줄 수 있다.(교리와 성약 88:29, 40 참조)

빛의 정도와 그 속성이 확산되는 정도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열정을 얼마나 잘 억제하며 거룩한 원리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The Eternal Family*, 112~113쪽)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수 세대 동안 악의 힘은 가정을 위협해 왔습니다. 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데 그토록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은 그가 가장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현재나 영원토록 자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 낸 자들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국이나 유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72쪽)

사라지는 예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 회장

1996년 4월 25일 브리검 영 대학 졸업식

여러분의 세상적인 교육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향상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가 여러분의 기술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보상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에 들어온 것처럼 브리검 영 대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에는 독특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교육은 단지 과학, 역사, 문학 혹은 예술의 몇몇 사실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참된 교육은 몸을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보존하려는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참된 교육은 자아 부정(금욕)과 극기심을 훈련시킵니다. 참된 교육은 감정을 다스리고 열정을 억누르며 사회적인 법률과 도덕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을 생의 지도 원리로 삼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Conference Report, 1928년 4월호, 102쪽)

여러분 중의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문명의 발달을 보아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살면서 사회가 진보해 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대장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룩했는지 의아합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세기에 인류는 역사의 어떤 다른 세기보다 더 많은 전쟁과 죽음과 고통을 목격해 왔습니다. 예절과 상호 존중은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죽이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절은 가정에서 훨씬 더 쇠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절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훌륭한 예의”와 “훌륭한 교양”같은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소름 끼칩니다. 그것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해지고 행해질 때 그 대가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탐욕, 통제되지 않은 열정,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무시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절의 결핍의 탓으로. 어떤 작가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문명화된 지역 사회에는 세련된 문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사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Royal Bank Letter, 1995년 5~6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언론은 야비함을 예술의 형태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 영화의 인기 주인공들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롱하고 알보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비판을 내뱉습니다. 나쁜 태도가 물건을 잘 팔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의 시트콤은 저속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독백하는 코미디언들은 그들의 청중에 대한 모욕에 기반을 둔 연기를 하며, 토크쇼 사회자들은 전화거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손님을 조롱함으로써 부유하고 유명해집니다.”(같은 책)

이 모든 것은 세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중함이나 예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난폭함과 무례함,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정숙하지 못한 악하고 더러운 언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보다 높은 수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훌륭한 학교의 졸업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어휘가 너무나 빈곤해서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궁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칠고 천한 말과 더불어 너무나 많은 신성 모독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예절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석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7)

저속한 언어와 저속한 행동은 함께 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동안 과학, 인문학, 법학, 공학, 예술 이상의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장소로부터 더 나은 삶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에 광택을 더해 주는 문화,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금속일 수밖에 없는 것에 은은한 광택을 더해 주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특징짓는 어떤 광채를 지니고 가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태복음 5:13)

예절은 우리의 생활에 맛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취향과 좋은 태도와 교양은 생의 소금입니다.

그것은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걱정을 다스림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1991년 10월 연차 대회 보고, 70~71, 73쪽, 또는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58~60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예절은 우리의 생활에 맛을 주는 것이다. 훌륭한 취향, 훌륭한 태도, 교양은 생의 소금이다.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많은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통 권위주의 일색이지요. ... 그이 그러한 번덕스러운 기질이 폭발할 때면, 제 마음은 종종 그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의 요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차곤 합니다.

헝클리 회장님, ... 모조록 형제들에게 여성에 대한 육체적, 언어적 학대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서로의 차이를 이용하는 비열한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특히 신권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더욱 그 품위를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결혼은 행복하며, 아내와 남편 모두 다, 안정과 사랑, 상호 의존과 짐을 서로 나눠지겠다는 마음으로서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속에서, 그들 생각에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려 자라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되는 상황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칠고 불친절한 말로 인하여 생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대체로 별 의미도 없는 미미한 일들로 인해 평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물론 각자 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분노를 발하는 성향에 대한 합당한 변명을 이제껏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잠언에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잠언 27: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격분은 것처럼 두렵고 인간의 정신을 쪼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이 주는 비극은, 그것이 선을 이루기는커녕, 오로지 적의와 반항심과 고통만을 수반하는 악을 조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들로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할 것과 고통을 주어진 사람에게 사죄할 것,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혀를 제어할 힘을 스스로 갖추게 되기를 제언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헤이트 형제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성품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과 힘을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분노를 격발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나이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나이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약점이 특세하게 되면, 이성이라는 강점은 슬그머니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면에 들어 있는 강한 자제력을 연마시키십시오. ...

행복한 결혼의 아름다움

주님의 제단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시작되는 선남 선녀의 결혼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쌓여 축복 받으며, 사랑 받고, 양육되는 가운데 돌보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평화와 강건함과 위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 보면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게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후에 닥칠지도 모를 비극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져 다 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하나 둘 독립하여 떠나면, 집에는 단지 부부만이 외로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지하고, 서로 복돋아 주고, 격려하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에 서게 되더라도 만족과 기쁨만이 떠오를 뿐입니다. 온 생애 동안에 걸쳐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예의가 있었으며, 텅 빈 관계를 채워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도, 나아가 길건 짧은 간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리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신권 권능으로 인해 그들의 동반자 관계가 인봉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릴 만큼 합당하게 살아 왔기에, 분명하고도 달콤한 재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며, 주님의 선지자들 또한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도 요구되며, 비이기적인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인 동반자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깊은 관심도 수반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욕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승리자가 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벗, 1991년
1월,
15~18쪽

화가 나서 내뿜은
거칠고 불친절한 말로
인하여 생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의 위험

선지자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위험에 대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과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과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완고하리만큼 이기심에 집착하는 행위는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사무엘상 15:23)고 경고했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심각한 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십계명을 깨뜨리게 하는 기폭 장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중심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무시하게 되기가 더욱 쉽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유욕이 앞서기 때문에 도둑질도 예사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요인으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막을 수 없도록 이미 깨뜨릴 수 없는 보호막을 치고 있어서 쉽게 탐욕에 젖어들게 됩니다.

성범죄는 쾌락을 추구하는 치명적인 불안난의 대명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우며,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잔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쉽사리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시하기도 쉽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들게 되면 진리마저 편의에 따라 그에 부속시키므로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약을 깨뜨리기조차 합니다.

이기심은 나 이외의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시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게 합니다.(마태복음 24:12; 교리와 성약 45:27; 모세서 6:27 참조)

후일에는 육욕으로 인한 죄악이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맹렬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으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세기 6:11; 모세서 8:28) 부패와 폭력-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이 홍수처럼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태가 이미 최고 수위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물결에 휩쓸린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누가복음 21:26; 교리와 성약 45:26 참조) 심지어는 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근육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는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중 인물인 엘리자베스는 명상에 잠겨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원리적으로는 안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평생 동안 이기적인 존재였어.”(오만과 편견, 뉴욕: 에어몬트 출판, 1962년, 58쪽) 이기적인 사람은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대명사 I(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수직선인 대명사 I(나)는 대명사 We(우리)의 첫 글자와는 달리 구부릴 무릎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아에 완전히 몰두하기 때문에 마땅히 칭찬할 일이 있을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꺼리며, 침묵으로 상대의 칭찬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맙니다.

이 밖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이기심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칭찬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것을 요구하는 마음, 과분한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해 하는 마음,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 사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는 마음,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니파이후서 28:8)는 마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그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숨이불 보따리가 있는데 화가 잔뜩 난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보따리 주변으로 몰려왔으나 그 속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보따리를 치우려 하지 않는 것과 흡사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야심적이며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자 투쟁합니다.”(The Words of Joseph Smith, 앤드류 에프 에하트 및 린든 더블류 쿡 공동 편집[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 종교 연구 센터, 1980년, 201쪽])

사무엘은 사울이 이기심에 부풀어 있자 사울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사무엘상 15:17)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범

이기심은 종종 마음이 완고한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가장 훌륭하게 될 수도 있을 영리한 사람조차도 때때로 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다니엘 5:20 참조) 매우 영리한 사람들에게 흔히 결핍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온순함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권고가 스며들 틈이 없으며 또한 흔히 남보다 뛰어나고자 애씁니다.(역대상 28:9; 고린도전서 2:16; 교리와 성약 64:34 참조) “그들 모두 보다 총명”하셨고 총명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겸손하십니다.(아브라함서 3:19 참조)

예수님은 허세를 부리시거나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으며, 그 위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교리와 성약 19:19; 모세서 4:2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총명하신 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기를 원하셨습니다.(모사이야서 15:7; 요한복음 6:38 참조) 교만으로 강박해진 사람들은 결코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인간을 버림

이 밖에도 이 완악한 이기심은 선량한 사람들을 피어 가축 떼나 작은 토지, 우유 짜는 일 등을 가지고도 싸움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을 탐하여 더 중한 일을 소홀히”(교리와 성약 117:8) 한다고 정의하신 탐욕에서 유래합니다. 이 근시안적인 이기심이 팔족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 이상으로 보게 하고 은 30냥을 마치 엄청난 보화 이상으로 여기게 한 것처럼, 우리의 강한 소유욕이 “무릇 재산이 내게 무엇이나?”(교리와 성약 117:4)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게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육으로 난 인간의 짐을 벗어버리는 지침입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실로 우리는 이처럼 필요 없는 짐을 지고 다니느라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 너무나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바늘 귀를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앤 모로우 윈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와 같이 많은 걱정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위선을 벗어버려야 한다. 참으로 홀가분해질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알아낸, 삶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생활을 그토록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이다.”(Gift from the Sea 뉴욕: 빈테지북스, 1978년, 32쪽)

이처럼 통제 불능의 이기심은 사랑,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친절, 우애, 선함, 온순함 등의 성스러운 성품들이 발전하는 모든 길을 차단시켜 버리며, 이러한 미덕들이 싹틀 때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이기심이라는 가위로 가차없이 잘라 버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저는 사람들이 성약을 지켰을 때 그들로부터 싹트는 이기심을 잘라 내지 않는 복음 성약을 하나라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정도는 다르더라도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참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으로 된 자기가 혹시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오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로 우리가 이기심을 벗어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또는 딸]이 있으리요”(히브리서 12:7)

영적인 시야를 가짐

복음의 회복과 함께 주어진 경전에는 결국은 “공의를 이기”시는 분의 “자비”(엘마서 34:15)로 인한 속죄를 통해 어떻게 인간이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욕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좀더 성도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획도 결국은 이와 같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니파이후서 27:20~21 참조) 인간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의 모든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선택의지를 제약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성취되도록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는 때가 되면 모두 실현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64:32 참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밖의 영적인 것에 관한 통찰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매우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어 갈 경우 사람들은 노력도 전혀 들이지 않고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정치 및 경제 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기적인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치인들로 인해 그

인도된 백성들은 그 방법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으로 자신을 귀속시키면서, 결국은 후대들까지도 저당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지며,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 파헤쳐질 때에, 인내심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며 이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신성한 소속감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 즉시 거대한 도시들이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이 없어지게 될 때에, 오늘날 성에 대한 예찬과 세속적인 종교들의 탐욕을 숭배하는 전례문 및 이를 뒷받침 하는 음악 등을 보십시오. 이들의 신학 이론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들의 미래는 곧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종교에 사로잡힌 신봉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감각이 없는 자”(에베소서 4:19; 모로나이서 9:30 참조)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이기심은 서서히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기심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킴으로써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 공간을 축소시켜 가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으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정이 결핍된 것에 대한 자기 연민에 완전히 도취하게 될 때 변화가 생겨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욕으로 된 자아의 소유욕이 발동하게 될 때, 홍수처럼 불어나는 이기심은 우리에게 냉정한 삶의 현장을 펼쳐 줍니다. 자신의 필요 사항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녀들의 숫자보다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노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데도 말씀입니다.

승리자가 됨

“기도와 금식”(마태복음 17:21)이 아니고서는 결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께서 경고하셨듯이 “욕으로 된 자기” 또한 인고의 노력 없이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같은 자기와의 투쟁에 관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도록

거룩한 가르침은
주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다.

생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이기적인 욕으로 된 자기를 “던져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자”(교리와 성약 10:5)가 될 수 없습니다.

욕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겸손한 사람은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면서도 자신을 자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방언의 은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청을 쉽게 들어주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옆으로 밀쳐 내셨던 적이 없습시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변함없이 충실하며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모였을 때나 차이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 뿐인데 두 개의 장부를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반면, 욕으로 난 인간은 “나를 숭배하라” “나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은 오래 참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권세를 행사하기를 추구합니다.(모세서 1:12; 4:3; 교리와 성약 121:41 참조)

욕으로 난 인간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은 쉽게 “성내지 아니”(고린도전서 13:5) 합니다. 욕으로 난 인간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린도전서 13:5)합니다. 욕으로 난 사람들은 좀처럼 세상적인 즐거움을 거절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엘마서 38:12 참조)

욕으로 난 인간은 부와 찬사를 몹시 탐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한 방울”(교리와 성약 117:8)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다행스러운 아이러니는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비이기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지 않음

이기심의 가장 교활한 성격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개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기로 결심한 사람은 곧 그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및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헌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고하게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겸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아에 얽매이는 일은 독립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닉에 빠진 것입니다.

이기심을 멸절시킬 때의 축복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기심을 멸절시킬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The Personal Writings of Joseph Smith*, 던 시 제시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년, 485쪽) 그러나 이 시점에서조차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해 아주 조금이나마 만물을 사실대로 볼 수 있습니다.(야곱서 4:13 참조)

진실로 이 복음은 우리의 가능성에 관한 영광스러운 빛을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기심이 흘러내리면서 시야를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맑아진 눈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일어나 주변을 보라.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어느 맑은 날 아침, 너는 숨이 멎을 듯 놀라리니—

너의 광채가 못 별들 위에 빛나리라—

그러면 어느 날 아침 ...

너는 저 시간 너머 영원을 볼 수 있으리라.”[앨런 제이 러너, “On a Clear Day”(Chappell and Co., 1965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관련 성구

“욕으로 난 인간”에 대한 보충 독서 과제

창세기 39:7~12

고린도전서 2:14; 10:13

에베소서 3:16

데살로니가전서 5:22

야고보서 1:13~15; 4:4

모사이야서 3:19

엘마서 13:11~12; 26:21

힐라맨서 12장

이더서 3:2

모로나이서 10:32

교리와 성약 9:43; 45:32; 50:41; 62:1; 67:12; 84:33, 47~58

조상들의 전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 우리 안에 고상하고,
책임감 있고, 충실하고, 품위 있고
사려 깊은 면이 있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모방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현대 사전에서 ‘tradition(전통)’의 첫 정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지식, 교리, 풍습, 관행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대회 보고, 1968년 10월, 116쪽)

의로운 전통을 지킴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니파이전서 1:1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니파이전서 3:19

“또 보소서, 우리가 이 기록을 얻어야 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보존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요,”

니파이전서 5:21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록을 얻어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 기록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았나니,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니파이후서 25:26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노스서 1, 3절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는 의인이었나니-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음이라-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보라,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내가 종종 들었던 바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68:25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93:40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그릇된 전통의 예

베드로전서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모사이야서 10:12

“그들은 거칠고, 흥포하며, 피에 목마른 백성으로, 그들 조상의 전통을 믿었나니,”

모사이야서 26:1

“자라나는 세대 중 ...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앨마서 9:8

“보라,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너희가 어찌 그리 잊었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잊어버렸느냐.”

앨마서 60:32

“레이맨인들의 증오심을 초래한 것은 그들 조상의 전통이요,”

교리와 성약 93:39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불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조상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선조들의 나쁜 모범과 가르침을 뜻합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51쪽)

그릇된 전통을 극복함

마태복음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모사이야서 25: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앰울론과 그 형제들의 자녀인 자들이 그 아버지들의 행위를 싫어하여, 더 이상 그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니파이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아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고자 하여 니파이의 이름을 취하니라.”

앨마서 3: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레이맨인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기록과 또한 그 조상들의 올바른 전통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이를 지키는 자들은 그때로부터 니파이인들, 곧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나니—”

앨마서 37:9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판에 있는 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것처럼 많은 수천의 레이맨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그릇된 전통을 깨닫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참으로 이 기록과 저들의 말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였나니, 곧 그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였느니라.”

힐라맨서 15:4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레이맨인들은 그가 미워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끊임없이 악하였던 연고요, 또 이는 그들 조상의 전통의 불의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의 전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러한 의도로 주께서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셨느니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어린 시절부터 견디어 온 태만과 학대를 계속하며, 헤어날 길 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행위에 사로잡혀 있다고 믿고 있는 성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인간도 달리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이 강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믿게 하기 위한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까지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교리는 참되고 기적적인 것이며, 행위에 자유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간증드립니다.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어린 시절에 학대 받아 아직도 부당한 죄 의식에 시달리고 계신 아무 죄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교리를 배우시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령층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되고 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새로워지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2쪽)

조상의 전통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보조

1968년 10월 대회 보고,
115~118쪽

조상의 전통

이 몇 분 동안 제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은 “저들의 조상의 전언 때문에”라는 문구와 “너의 집에 질서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전에 이 단상에서 저는 무관심한 부모의 방식을 개선시킨 자녀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 적이 있고,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자녀들이 선택의지와 개성을 잘못 사용하여 다른 길로 간 훌륭한 부모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각 개인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손자를 두고 있고 가정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많은 젊은 부부들이 그들의 가정을 막 시작하고 있거나 곧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지만, “악한 자”가 “불순종을 통하여”, 또 “그들의 조상의 전언 때문에”, 어린이들에게서 “빛과 진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진지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 사전에서 “tradition(전통)”의 첫 정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지식, 교리, 풍습, 관행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들

여러분의 집과 저의 집에서의 전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식, 교리, 풍습, 관행” 등이 우리 세대로부터 우리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혹은 전해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성품, 우리의 품행 속의 어떤 것이 그들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까? 우리 안에 고상하고, 책임감 있고, 충실하고, 품위있고, 사려 깊은 면이 있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모방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함으로써 정직을 가르칩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회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진 시골길의 외딴 옥수수 밭에 이르자 멈춰 서서 전후좌우를 살펴본 후에 옥수수를 몇 자루 훔쳐 가려고 담장을 기어올랐습니다. 그 때 그의 아들이 “아빠, 위를 쳐다보는 것을 잊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의 고결성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용하는 교활한 거래에 대해 자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고하신 조셉 웰치는 몇 년 전에 올해의 아버지로 지명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단 하나의 자질만을 부여하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기지나 지혜나 심지어 그 위대한 혜택인 교육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고결성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저의 자녀와 손자들이 서로에게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결성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치셨어.’라고 말한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고결성이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에게 전해집니까? 그것은 고결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가정에서 이 소중한 자질을 전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약간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감으로써, 속임으로써, 혹은 사기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의 두 아들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가 우리에게 선한 생활 방식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귀와 마음을 닫아 버리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순간들은 아버지가 가장 의식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 혹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었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아버지를 흉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결성을 가지려면 그들은 그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완전히 고결한 분위기에서 산다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태도로써 받아들일 것이며 그 이후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결성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기쁘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이상과 가치관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어떤 이상과 가치관들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녀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 심어 주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그의 부모와 관련된 그의 경험은 “하나님의 밝은 빛”이 모든 것 위에 비치고 있다는 인식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오래된 한 격언을 배웠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서 깃털이 있어야 한다.”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깃털을 심어 줄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시, 비판, 혹은 수치의 분위기에서 사는 어린이는 그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강력한 명언이 있습니다. “대학살은 원자탄 폭발에 의해서만 야기되지 않습니다. 대학살은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어디에서나 야기됩니다.”(아브라함 제이 헤셀, *The insecurities of Freedom*)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확실히 다른 사람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과 사랑과 이타적인 행위에서 표현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관심을 보고 느끼는 자녀는 그들 자신도 인류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 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리와 성약 81:5)는 경전의 말씀을 실천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 받은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신 그 독특한 개성이나, 선택의지의 권세와 능력, 생각하고 믿고, 선택하고 결정할 권세와 능력이 아닌,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환경의 동물이라고 얽잡아 보는, 인간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우리 세대의 그릇된 주장에 직면해 혼란에 빠져 들 가능성이 적습니다. 행동에 대한 그 “조건 반사”적 해석은 인간의 영광인 그 신비와 경이와 기이함을 고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각 개인은 영원한 존재이며, 잠재적인 신이나 여신으로서 인간 이상의 깊은 사랑과 우아함과 자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살도록 준비시키며, 자립, 자아 존중, 타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훈육의 전통

우리의 가정에서 훈육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는 응석받이로 자라, 탐닉적이고,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죄를 그의

부모, 친구, 가족, 그가 사는 시대, 사회 등의 다른 것에게 전가합니까? 만일 그가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받아들여도록 가르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실망과 실패를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무자비한 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들, 직면해야 하는 사실들, 어겼을 때 일관되게 부과되는 제재와 함께 이해되고 시행되는 공평한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 존중은 훈육의 열매이며, 품위에 대한 의식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과 함께 성장한다.”(Heschel, op. cit)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해 줄 다른 전통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머 감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웃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밝은 영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일할 의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도덕적인 의분을 느낄 능력, 혼자 설 용기, 악에 대한 경멸감, 정의에 대한 사랑, 조건이나 의문 없이 사랑할 능력을 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매력 없고 짜증나게 하는 버릇을 갖고 있어 교사들과 직원들이 싫어하는 8세짜리 고아원 소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오후 그 애가 그 시설로부터 추방될 수도 있는 어떤 규칙을 어긴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녀가 규칙을 어기고 담장 너머로 뻗어 있는 나뭇가지에 한 쪽지를 꽂는 것이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는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발견하는 누구에게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에서 애국심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월남의 다낭 부근에 있는 차이나비치 해변에서 성탄절 직전 토요일 밤에 두 명의 깨끗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 그들의 전투 장비를 옆에 세워 놓고 많은 전우들 앞에 서서 “고요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반주자가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의 그 달콤하고 맑은 울림과 우리 모두가 느꼈던 그 감정은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동트기 전에 그 젊은이 중의 한 사람이 저의 막사로 와서 정글 수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부대에 들어가며 다시 한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했을 안식일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임에서 전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 소년의 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자기 통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자기 통제 곧 우리의 언어와 감정과 욕망의 통제에 대해 우리의 가정에서 또다른 세대 속에 어떤 전통을 심고 있습니까? 1884년에 헨리 드러먼드는 우리 모두가 정기적으로 읽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한 성격을 별로 해가 없는 약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의 인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아니라 단지 성격의 약점, 가족의 결점, 기질의 문제로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거듭거듭 다시 그것을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정죄합니다.

“급한 성격의 특수성은 그것이 덕스러운 사람들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다른 면에서는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한 오점입니다. 급한 성격과 높은 도덕적 성품의 양립성은 가장 모순되고 슬픈 윤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큰 부류의 죄 즉 육신의 죄와 성격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악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황금에 대한 탐욕이나 술취함도 급한 성격보다 사회를 더 비기독교화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쓰라리게 만드는 것, 지역 사회를 와해시키는 것, 가장 신성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남녀를 쇠약하게 만드는 것, 어린 시절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없애는 것 등, 간단히 말해 비참함을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 이것과 겨룰 것이 없습니다.”(헨리 드러먼드: *The Greatest Things in the World*, 43~46쪽)

미래의 가정을 위한 전통

우리 자신들이 가질 가치가 있는 미래의 다른 가정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전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이따금씩 저는 많은 성인 지도자들에게 한 미완성 문장을 제시하여 각자 완성하게 한 후 그것에 대해 잠시 사색하고 그런 다음 그들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와 가족과 함께했던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내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___이다.”

저는 여러분의 답변이 제가 그 동안 들었던 답변들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높은 생활 수준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언급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언제나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관심, 가족 친분, 전통, 희생, 함께 한 모험, 소리 내서 읽은 책, 함께 부른 노래, 성취한 일, 가족 기도, 가족 평의회, 사랑에 넘친 이기심 없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 가정적이고 건전하고 행복한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던지는 단 한 가지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로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노래의 전통

지난 번 대회 이래로 아내와 저는 사모아와 먼 바다의 다른 섬들을 방문할 특권을 누리 왔습니다. 미국령 사모아에 있는 “사우니아투” 마을의 “우폴루”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어느 날 오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을은 몇 명의 어린 아이들과 집에 남아 있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밭에서 혹은 다른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념관을 출발하여 “사우니아투”의 오두막 대열 속에 있는 사잇길을 걸어 새 예배당과 학교를 향해 걷다가 어린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어섯 명 정도였고, 네 살 이상은 아무도 없어 보였는데, 어린이 특유의 달콤한 목소리로 귀에 익은 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냇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길고 힘든 길 끝의 높은 산 요새에서 우리는 그 작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작고 짙은 피부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 아버지들의 전통을 통해 배운 현존하는 진실 중에서 특별한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진실, 즉 “난 하나님의 자녀”를 노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의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으며, 그 “악한 자”가 우리들의 자녀로부터 “조상들의 전언 때문에” “빛과 진리”를 결코 빼앗아 갈 수 없게 생활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

신뢰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충실함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정선된 가르침들

신뢰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의 결혼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외설물, 다른 이성과의 유희, 불건전한 상상은 사람의 성품을 해치고 행복한 결혼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의 단합과 신뢰가 파괴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간음을 범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을 갖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0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신뢰와 충실함으로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후기 성도는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48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중요한 일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관심을 보이십시오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믿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52쪽)

더 큰 존경, 충실함 및 단합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약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충실하는 것은 사랑, 믿음, 그리고 평안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을 분명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은 사랑과 충실함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가정 생활은 자녀들이 재미있는 추억과 연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89쪽)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어떤 국가나 문명도 국민들의 가정이 굳건하지 않거나 생활에 활기가 없다면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가족과 가정이 도덕과 성실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깃들 수 없고 생활이 역경의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충실함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도덕의 늪으로부터 사랑의 따뜻한 햇살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0년 9월호, 5쪽)

“부정직한 행위 없이 간음이 저질러진 적이 있겠습니까? 통속적인 언어로 이 악한 행위를 “부정한 짓”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분명 부정한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순결을 빼앗으며, 충절과 성스러운 약속과 자존심과 진실을 강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부정직한 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간음이 가장 성스러운 인간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성약과 여러 조약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간음은 신뢰를 거스리는 심각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기적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형태의 부정직과 마찬가지로 그 열매는 슬픔과 비통한 심정과 비탄에 잠긴 배우자와 신뢰를 배신당한 자녀들입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59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상호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데에는 불충실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간음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가증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그대로 계속되며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있고 용서해 줄 만한 큰 사랑과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범한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려자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면에서만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충실해야 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녀 교제나 질투심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의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어떠한 것이든 피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4쪽)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잠언 31장의 말씀은 현숙한 여성의 훌륭한 자질을 열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10절) 값집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은 그의 마음을 아내에게 맡기었고, 둘째로 아내는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 곧 가족을 이루기를 성약한 남녀는 그들의 사랑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사랑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줄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이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 아일랜드의 시인, 극작가)의 다음과 같은 시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 남자는 온 마음의 소원을 애인의 발 밑에 놓고 애원했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는 내 모든 꿈을 밟는 것이오니.’(“그는 성직을 원하다”,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3판, 뉴욕: Oxford University Press, 585쪽)

“복음 생활에서 신앙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는 그 위에 무엇이든 얼마든지 더 건설할 수 있는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23쪽)

단합

우리가 단합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53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결혼 생활에서의 단합의 중요성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목표, 욕망,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9쪽)

바바라 윈더 자매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봉사하고, 모든 지체는 전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88쪽)

주님과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써 단합을 이룸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 길은 주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제3니파이 13:33 참조) 단합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빛을 따름으로써 옵니다. 그것은 아래의 혼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여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합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영감 받지 않은 자를 따름으로써 단합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합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런 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지킬 때까지 지상에는 단합과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권세는 교회 회원인 우리들이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22쪽)

엘 톰 페리 장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소망하는 데서 단합이 오며, 또한 백성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망과 육신의 쾌락과 세속적인 부를 추구할 때 분쟁이 옵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34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우리의 하나됨은 의로운 원리에 대한 완전한 동의와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36쪽)

사랑을 통해 단합을 이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음과 뜻의 단합은 ‘나는 당신의 진가를 알아요’와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라는 진지한 표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가정의 화목은 성숙해 가는 결혼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들인 용서와 잊음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존 피 브래들리 편찬,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oughts*, [시카고, 제이 지 퍼거슨 출판사, 1969년] 472쪽에서 맥멜레인 드 스쿠데리.) 참된 사랑은 결혼 생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곧 매일마다 다시 쌓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36쪽)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우리 가정과 가족 안에 사랑, 조화, 단합의 씨앗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들은 다음 구절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가족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 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할 것이니”(교리와 성약 121:41) 남편과 아내는 이기심을 벗어난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9쪽)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우리 각자에게는 어딘가에 속해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합과 함께한다는 느낌은 파스한 미소와 악수, 포옹을 통해서, 그리고 웃음과 말없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조용하고 경건한 순간이나, 귀기울여 듣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기시키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서 옵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81쪽)

충실함을 통해 단합을 이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주니어 회장

“단합의 한 필수적인 부분은 충실함입니다. 충실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단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충실함은 소유하기가 꽤 어려운 성품입니다. 그것은 이기심, 욕심, 야심 및 인간의 마음 속의 비열한 특성을 모두 버리는 노력을 요합니다. 복종할 용의가 있지 않는 한 충성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되려고 하는 사람 측에서의 약간의 희생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이 있지 않는 한 정신적, 육체적, 혹은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선호도와 욕구는 제쳐두고 앞에 놓여 있는 그 위대한 목적만 보아야 합니다.(대회 보고, 1950년 4월호, 180쪽)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단합을 이룸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가족간의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노력한다면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가정의 단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52쪽)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조정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화합과 가족의 영적인 성장, 가족들이 말하고, 귀기울이고, 대답하고, 모두 다 사랑으로 둘러싸여지는 유대감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성공은 단순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2쪽)

단합이 가져오는 축복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어린이는 자신의 가정이 피난처이며, 바깥 세상의 위협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처라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대회 보고, 1965년 4월호, 7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우리의 단합으로부터 오는 큰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53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특성들은 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편과 아내,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개인은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 정해 주신 역할에 어울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경우,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혼 부부는 하나가 되어 생각과 행동과 기쁨을 같이 나눔으로써 도전을 함께 감당하며, 사랑과 이해 가운데 서로 발전하며, 성전 의식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로 영원히 하나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계획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4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회원이 될 자들에게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될 때 결혼에서의 그들의 단합은 희망 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세기 2:24)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결합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그 단합과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 사도들과 함께 가진 마지막 모임에서 하신 기도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록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기록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기록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18~21)

“이 말씀 가운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는가를 명백히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인정하신 중에 의해 주어진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식과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결케 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지상에서 화평을 얻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해야 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66쪽)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세속적인 기록이나
거룩한 기록에서 어머니보다
더 거룩한 단어는 없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정선된 가르침들

237~240쪽의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도 참조한다.

여성의 신성한 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 상호부조회가 여성들에게 온유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더 잘 처신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합시다. 남편이 걱정, 근심과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을 때, 아내가 투정이나 말다툼이 아닌 미소를 보일 수 있다면,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의 영혼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낙담해 있을 때 사랑과 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15쪽)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제 판단으로는 한 아이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힘이 아버지의 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이 보이며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성취하는 것은 사랑 즉, 우리 이웃들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보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강합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훌륭한 모범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뻐합니다.”(*Gospel Standard*, 152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여성들은 인간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훌륭한 역할을 성취했으나 그 부드러운 여성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고 키우는 것입니다”(*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139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모성은 세 가지 주요한 특성 즉 (1) 잉태할 권리, (2) 양육할 능력, (3) 사랑할 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능력과 의욕, 사랑의 은사,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의 열망 혹은 염원으로 인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직분이나 부름을 갖게 됩니다”(*Gospel Ideals*, 453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결혼은 동반 관계입니다. 부부에게는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주어졌습니다. 몇몇의 남자와 여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 기회를 무시하고 게을리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동반 관계로서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완전한 동반 관계로서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 여성이 그 영원한 사명 가운데서 소극적인 동반자나 제한을 받는 동반자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기여하는 완전한 동반자가 되십시오.”(“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52쪽)

“주님께서는 태초에 아버지가 자녀를 갖게 하고, 부양하며, 사랑하고 이끌도록 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으셨지만 자녀들은 서로 훈련하고 훈육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책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4월호, 151; *Ensign*, 1973년 7월호, 15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여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 여성의 거룩한 일은 동반자가 되는 것과, 가사와 모성을 포함합니다.”(“그의 발자취 속에서”, 64쪽)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나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고, 돌보며, 의의 원리를 가르치며, 훈련시키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3쪽)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352~357쪽 참조

“어머니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남편의 내조자로서 남편과 상의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6쪽)

“여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지만 남자는 자신의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성의 거룩한 일은 동반자가 되는 것과 가사와 모성을 포함합니다. 여성은 이 세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을 먼저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런 다음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을 학교에서 배웁니다.”(*In His Steps*, 64쪽)

“우리들 가운데도 이 가정 중심 진리를 우리의 현대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중요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미혹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음성들은 여성에 대한 ‘대안의 생활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일부 여성들에게는 결혼이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직장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사보다는 자기 성취를 위해 보다 흥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선전으로 자신의 불만을 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물론 여성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과감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산아 제한을 하여 개인적인 목표와 자기 성취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여성의 고귀한 지위”,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58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어머니들은 “사람의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일이 계속되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니라.”(교리와 성약 132:63)

“제일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직분은 신성에 가깝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가장 성스럽고 높은 봉사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제일회장단 메시지*, 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1975년, 6:178) 동반자 없이는 신권의 운명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신권 소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사에 대해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 주님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그들을 부양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3:1; 디모데전서 5:8 참조)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남편이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아내에게 집 밖에 나가 일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남편]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막히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3쪽]”(*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1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여성 운동이 끼친 분명한 영향력 가운데 한 가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젊은 여성들이 불만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가사, 기저귀 갈기, 어머니를 찾는 자녀들로부터 벗어나 좀더 신나고 성취적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성을 택하셨다는 것과, 승영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영원한 관점을 잃게 합니다.(‘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선택 받은 여성들에게’ 일리노이 주 나부 상호부조회 헌납, 1978년 6월 30일)”(*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48)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계획(니파이후서 9:13)과 참된 행복을 얻어가기 위해 쓰는 간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쓰는 간계를 한 가지 소개한다면,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경시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을 키우고, 이해, 화평, 감사 및 성원의 분위기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은 가정이 약화되어 생긴 결과입니다. 정부와 사회의 계획은 폭력의 근절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의 근절을 위해 학교와 교회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가득 찬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헝클리 회장님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어머니 여러분은 신중한 가르침과 합당한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진리에 기초한 인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성품, 주님을 믿는 신앙, 책임감, 타인에 대한 존중심, 친절, 자신감 및 선행을 심어 주고, 배우며, 나눠 주려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탁아소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물론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여성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해야 할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 부모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서로 협력하여, 어머니를 가정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지킬 때, 자녀들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행의 모범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칠 때,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74~75쪽)

패트리시아 티 홀런드 자매

“이브는 자녀를 낳기 전에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는 신분을 부여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함이 필멸의 생의 투쟁보다 앞섰던 것과 같이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자격도 그녀가 어머니되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 중의 하나, 수많은 의미를 지닌 그 풍부한 단어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단어가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여성으로서의 거룩한 본성에 대한 으뜸되는 선언임을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 어떤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지만 결코 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어머니 역할을 하지만’ 결코 자녀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가임이든 불임이든 모두 이브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신과 여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한 가지 필요한 것’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의 여인이 되는 것”, *Ensign*, 1987년 10월호, 33쪽)

돕는 배필이란 무엇인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가정과 가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완전히 알고, 그 결정에 완전히 참여하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와 가정에는 관리 역원이 있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1 참조) 하나님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모세서 4:22 참조) 주님은 아내가 남자를 위한 내조자(내조자라는 말에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고 반드시 필요한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 그 문제를 알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 행해야 합니다. 남자가 아내의 조언과 느낌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것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0~51쪽)

이로운 여성의 역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교회 회장

그의 부인

카밀라 김볼 자매 대독

Ensign, 1979년 11월,
102~104쪽.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여성들의 세계 대회에서 한번 더 사랑스런 자매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기쁨을 가지기를 여러 달 동안 고대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 병원에 있고 직접 여러분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곳 후기 성도 병원의 병실 내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모임에서 주어진 훈계는 아직도 적절합니다. 저는 복음의 영광스런 진실들에 대해 상고하고 숙고할 때마다 자주, 과연 우리가 이 영광스런 진리의 함축된 의미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전과 선지자들은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사도행전 10:34)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각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것을 압니다. 자매 동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들을 알 때 그것은

거룩한 대업에 있어 세상에서 너무나 불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불완전한 남성들과 여성들에 의해 지각없이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고통과 실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할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로서 완전히 평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의 옆에서 걷는 것이지 그의 앞이나 뒤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관심사인 복음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 동등하게 쓰여진 것입니다”(Improvement Era, 1942년 3월호, 161쪽)

그러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여성들은 모성과 자매로서의 엄청난 책임을 부여 받았고 남성은 부권과 신권의 엄청난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차이점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참조) 의로운 남성과 의로운 여성은 둘 다 그들의 생활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곳에 오기 전의 세상에서 충실한 남성들은 특정한 신권 과업을 하도록 예입된 반면, 충실한 여성들은 특정한 지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특정한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한때 동의했던 것들의 영광스러운 실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오래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대되었던 것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영원한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일년 전에 여러분에게 지적해드린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개인적으로 나란히 발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여성이 경전을 공부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었든, 늙었든, 과부이든, 가족 안에서 생활하던 그렇지 않은 간에, 자매 경전 학자가 되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든지 경전의 진리들과 더 친숙해질수록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경전 학자가 되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베푸는 여성들이나 어머니들보다(그들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짚아 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의로운 노력을 통해, 그리고 인생의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축복은 풍부하고 다른 어떤 축복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여인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인정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자매애, 아내됨, 어머니됨 혹은 영원히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위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일시적인 차이점들과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죽음으로, 또 일부는 이혼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아직 결혼의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잠시 뿐”이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7 참조)

그 자매들 중에 또다른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따라오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의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영원한 계획에서 자신의 위치를 숙고하면서 젊음의 불확실성을 깨닫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실질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과 개성에 대한 복음 진리들을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해 갖고 계신 완전한 사랑을 느끼고, 한 개인으로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한 개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의문에 빠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순간에 특히 이 위대한 진리들에 대해 숙고하십시오.

우리가 이 곳에서 가정 생활의 영광과 중요성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둘째 지체에서 합당한 형제에게 인봉 되는 특권을 받지 못한 모든 충실한 자매들도 영원한 세상에서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지상의 가정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정과 애정을 갈망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고뇌를 알고 계시며 언젠가는 여러분께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시험 받고 입증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경우도 있지만 의로운 여성과 남성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자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갈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과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 결혼하거나 어머니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재능들이 인류에 대한 추가적인 봉사에 있어서 종종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영원한 임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필멸의 상태에서의 완전한 봉사뿐 아니라 영원을 위해 적합한 교육을 추구하고 성취할 것을 기원합니다. 가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술 이외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다른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현명해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여성들이 배우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기술들을 갈고 닦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재능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현세와 영원한 세계에서 모두 더 나은 어머니와 아내가 될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은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서 생명의 본질에 대해 필요한 설명들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원천으로부터 자신의 독특함과 실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에 대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수 세기 동안 여성들과 남성들이 자신과 인생과 우주에 대해 제기해 온 질문들의 유일하고 참된 해답입니다. 이런 진리들은 우리에게 심각하고 영속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해답과 확신을 축복하심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십니까?

후기 성도 여성, 특히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이 시점에서 태어나도록 부름 받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은 없습니다.**

주신 그 고귀한 임무를 받는 것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심사로 여기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사랑과 진리와 의를 위해 꼭 필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가치관들을 이기적으로 추구하게 두십시오. 그러나 남자들이 부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양육하는 엄청난 과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둘 다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전에는 결코 이런 식으로는 언급된 적이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에서 이루어질 그 큰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선한 여성들(그들 내부에는 종종 커다란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이 무리 지어 교회로 이끌려오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에 의로움과 분명한 태도를 반영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행복한 면에서 세상의 여성들과 뭔가 다르고 독특하게 보여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세상의 위대한 여성들은 이기적이 되는 것보다 의롭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여성 영웅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인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참된 겸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답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나쁜 것만큼 단지 여성답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여성들과 남성들은 지배하기보다 봉사하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교회 여성들의 모범이 교회의 수적,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원수의 특별한 관심을 받든지에 상관없이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니파이후서 2:27) 참으로 그는 “은 인류를 비참하게 하려” 합니다.(니파이후서 2:18) 그는 자신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교활하고 무자비합니다.

우리가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 임하면서 우리의 훈계는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 사랑이 덜하든지 덜 직설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영적인 힘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이

경륜의 시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신 것에 크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현세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사랑과 저의 축복과 함께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회 회장

1987년 2월 22일

노변의 밤에서 행한 말씀

제게는 가정과 가족보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없는데, 이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가족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서입니다.

최근의 본부 신권회 모임에서 아론 신권 청남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본부 여성 대회에서 교회의 청녀들에게 그들의 기회와 거룩한 부름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부모를 위한 노변의 모임에서 하늘의 훌륭한 영감을 구하면서, 여기에 모인, 또 교회 전체의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정의 심장이자 영혼이며, 또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고상한 일이 없음

세속적인 기록이나 거룩한 기록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더 성스러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더 고상한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밤 저는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영에 의해 이해되고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부름이 여러분의 삶을 고양시키고 축복해 주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성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좋게든 나쁘게든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잠재력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린 아이의 마음의 백지 위에 각인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안정감, 키스, 애정의 첫 인식, 동정심과 부드러움,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맨 처음 일깨워주는 것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성은 세 가지 주요한 특성 즉, (1) 잉태할 권리, (2) 양육할 능력, (3) 사랑할 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능력과 의욕, 사랑의 은사,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의 열망, 혹은 염원으로 인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직분이나 부름을 갖게 됩니다. 수백만에게 영향을 미칠 미술 작품을 그리거나 책을 쓸 수 있는 여성은 인류의 존경과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 세대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이 느껴질,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들 딸들의 가족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여성이야말로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Gospel Ideals, 452~454쪽)

온 마음을 다해 맥케이 회장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관리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양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계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에서 주님은 아내의 기회와 책임은 “나의 계명에 따라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창세 이전부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의 승영에 들어가 사람의 영혼을 낳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졌음이라.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시니라.”(교리와 성약 132:63)

남편과 아내는 공동 창조주임

이 거룩한 명령에 따라 남편과 아내는 공동 창조자로서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아이가 그들의 가족 세계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하며 이와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사무엘상 1:27~28)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 기도한 다음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어머니.

저는 언제나 솔로몬의 말씀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3~5)

저는 행복한 대가족의 특별한 축복들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애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열한 자녀의 장남으로서 저는 비이기심, 상호 배려, 서로에 대한 성실성의 원리 및 가정의 여왕인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대가족에서 키울 수 있었던 수많은 미덕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가져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공동 창조주가 되는 것을 미루지 않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권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상의 논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가질 더 좋은 형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이 교육을 끝낼 때까지, 그가 봉급이 더 많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더 큰 집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가 몇 가지 물질적으로 편리한 것들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등등.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건강하신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가지시되 일찍 가지십시오. 그리고 남편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아내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이유에서 자녀의 수를 줄이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소유, 사회적인 편리함, 소위 직업적인 우위는 의로운 자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관점에서는 소유물이나 지위나 명성이 아니라 자녀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보석입니다.

브리검 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막을 취하려고 기다리는 순수하고 거룩한 영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한 장막을 준비하는 것, 그런 영들이 악, 방탕 및 모든 종류의 범죄 가운데서 훈련 받은 악한 자들의 가족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장막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의로운 남녀의 의무입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4년), 197쪽)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복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기쁨과 축복은 가족과 부모가 되는 것과 희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영들이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희생이라도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

우리는 일부 여성들이 전혀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랑스러운 자매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자녀를 축복 받을 것이며 더이상 자녀를 못 갖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순수한 신앙, 간절한 기도, 금식, 특별한 신권 축복을 통해 이 사랑스러운 자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귀한 동반자와 함께 그들의 생활에서 기적으로 자녀를 축복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하는 중에 자녀를 입양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부부들이 자녀로 받아들인 아이들에게 바치는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기쁨과
축복은 가족과 부모가 되는
것과 희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함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는 자신의 신성한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시는 친애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주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손을 부양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태초에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써 먹을 것을 얻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통념과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부름은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83:2)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어머니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녀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한 생계비를 마련함으로써 이 양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남편에게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항상 교회의 훈계는 어머니가 전 시간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데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자매들 중의 일부는 과부가 되거나 이혼했거나, 어쩔 수 없이 한 동안 일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규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건강한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직하게 된 남편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남편에게 그는 계속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비록 남편의 일자리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은 일을 해야 합니다.

김볼 회장의 훈계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과 그들의 부름과 책임에 대해 하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분의 영감 받은 선언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많은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말씀하신 것의 진실됨을 증거하기 위한 두 번째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성은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 남편과 협력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남성들이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318쪽)

김볼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스웨터, 음악 레슨, 여행 등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서 나와 일합니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가르치고 훈련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때에 사고 활동이나 정치 활동, 공공 봉사에 시간을 씁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319쪽)

김볼 회장이 존과 메리에게 하신 훈계를 기억하십시오: “메리, 너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 즉 주부, 아내, 어머니라는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적 여성이 되어야 한다. 기혼 여성이 고용에 있어서 남성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5], 128쪽)

다시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아내는 오직 긴급한 상황에서만 가정 밖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을 쾌적한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내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수입은 생활 수준을 정상 이상으로 높여 줍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되면 완전하고 합당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 기도의 습관이 깨어지고, 협조가 아닌 독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고통을 하게 되고, 가족을 제한하고, 이미 태어난 자녀에게 실망을 안겨 줍니다.”(1977년 12월 3일, 텍사스 주 산 안토니오, 노변의 말씀)

마지막으로 김볼 회장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애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타자기, 세탁소, 간호 업무에서 탈피하여 집으로 오십시오. 공장으로부터, 식당으로부터 나와 집으로 오십시오. 어떤 직업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자신의 소중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접시를 닦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아내와 주부, 어머니의 직업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집으로 오십시오. 가정을 그들을 위한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아내 여러분, 태어난,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집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어머니 외투로 감싸고, 당황하지 말고, 간절히 기다리는 불멸의 영혼들의 육신을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신앙과 성실함, 책임과 선함으로 양육해야 하는 일을 완전히 이행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것이며, 현세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텍사스 주 산 안토니오에서의 노변의 모임 연설)

김볼 회장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열 가지 방법들

시온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은 여러분 자신의 승영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과 승영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저는 시온의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함께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직업도 ...
아내와 주부, 어머니라는
직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함. 첫째, 여러분의 자녀가 올 때든지 갈 때든지—즉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데이트하러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또는 자녀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올 때, 여러분은 언제나 그들이 여러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섯 살이든 열여섯 살이든 그 장소에 계십시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 오늘날 무수한 자녀들이 부모가 직장에 가고 없는 사이,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가 됨. 둘째,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녀와 함께 웃고 농담하고 노래도 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우십시오. 자녀를 껴안아 주십시오. 자녀를 솔직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바쁘지 않은 시간에 자녀와 일 대 일로 함께 지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에게 책을 읽어 줌. 셋째,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요람에서부터 읽어 주십시오. 어떤 시인이 쓴 다음 글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금은 보석 상자를 가진 부자일지라도,
여러분은 나만큼 부유할 수 없대네—
나에게는 늘 책을 읽어 주시던 어머니가 계셨네.
(스트리크랜드 길리란, “책을 읽어 주시는 어머니”)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책이나 경전 이야기를 규칙적으로 읽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책과 경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함. 넷째,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 기도는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 아침 저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리지기를 빌 때,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게 하십시오. 야고보의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로운 어머니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6 참조) 여러분의 자녀를 가족 기도에 참여시키고, 또 개인 기도를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귀엽게 말하는 것을 즐기게 하십시오.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짐. 다섯째, 매주 뜻깊은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감리자로 하여 매주 영적이면서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의 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십시오.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정의 위대한 전통의 하나로 삼으십시오. 교회에 최초로 가정의 밤이 도입되었을 당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께서 주신, 다음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큰 축복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즉 가족들 간의 사랑과 부모에게에 순종심이 커질 것이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신앙심이 증진될 것이며, 젊은이들을 둘러싼 사악한 영향력이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1965~1975] 4:339) 이 놀라운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함. 여섯째, 가능한 한 자주, 식사 시간에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는 자녀들이 점차 나이 들어가며 바쁘게 지내게 됨에 따라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함께 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즐거운 대화를 가질 수 있고, 그 날의 계획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자녀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 경전을 읽음. 일곱째, 가족들이 매일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개인적인 경전 읽기도 중요하지만 매일 가족들이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매일 몰몬경을 함께 읽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한 영성이 임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은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하게 되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이 여러분의 가족 생활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가족 단위로 어떤 일을 함. 여덟째, 가족 단위로 참여하십시오. 가족 산책이나, 가족 소풍을 가지십시오. 가족이 함께 생일 축하를 하십시오. 특별한 기회에 가족 여행을 가십시오. 가족 단위의 추억 만들기 놀이를 하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이 관련된 행사(예, 학교 경기, 축구나 야구 경기, 말씀, 독창회 등)에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십시오.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놀이에 참여하도록 돕는 어머니들은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자녀들의 생활에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침. 아홉째,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이 일은 저녁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어느 때든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 우연히 함께하는 자리에서, 또는 함께 앉게 되는

특별한 시간을 이용하여, 저녁 취침하기 전 침대 밑에서, 또는 이른 아침 함께 산보하는 동안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의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 중요한 책임을 탁아소나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떠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자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가르치십시오. 죄에는 안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그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쌓을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숙의 미덕을 가르치십시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성적인 순결, 데이트의 합당한 표준, 성전 결혼, 선교 사업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교회 부름을 받아들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일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훌륭한 교육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합당한 영화, 합당한 비디오, 합당한 음악, 합당한 서적, 합당한 잡지를 포함하여 합당한 오락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치십시오. 외설물과 마약의 폐해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순결한 생활의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여러분 자신의 노변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여러분처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탁아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노후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늙었을 때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복된 자, 진실로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라 일컬을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 성스러운 어머니의 가르침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시간제 근무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구원하고 승영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성한 부름입니다.

자녀를 진실로 사랑함. 마지막으로 열 번째,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어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찬미한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저는 투표에 대한 어머니의 견해라든가 어머니의 사회적 명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교육, 다이어트 및 육아 이론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이 무엇인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 동안 술하게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지금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두드러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풀밭에 누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달리고 숨바꼭질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행복하게 미소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하나님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즐거웠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어머니가 흔들의자에 앉아 의자를 흔들시며 노래하는 사이, 제가 어머니 무릎 위로 올라가 잠들려고 할 때의 황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속에 위대한 일과 계획들을 품고 있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세심한 주의가 자녀들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과연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십대 자녀들도 역시 이와 똑같은 사랑과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자녀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보여 주기가 더 쉽고,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십시오. 세대 차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쇠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세심한 주의입니다. 그들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의 이해심과 공감과 필요로 합니다. 부모가 무관심한 채로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시간을 내어 그들을 보살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가르침과 사랑과 신뢰만이 십대의 자녀들을 문자 그대로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들

마지막으로 제 연인이자 동반자이며 우리 여섯 자녀의 어머니에게 저의 사랑과 영원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저는 태만을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성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과 임무를 그녀의 가족에게 완전히 행복하게 바치는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 모인 아버지와 남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정과 가족 안에서 의로운 지도력을 베풀고 여러분의 동반자이며 여러분의 자녀의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로 다시 인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훌륭한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영원히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온의 어머니라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들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 참조)이 주어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여성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 회장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7~70쪽

여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적임

교회 성인 회원 중 절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바로 이 여성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들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과 복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뒤로 물러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계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모든 프로그램은 좌절될 것입니다. 전에도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주이신 여호와와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맨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며, 다음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신 뒤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작업으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거룩한 상속권을 지닌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교회 여성들의 위대한 힘

저는 여기 저기를 다니면서 언론계 대표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여성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투로 묻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큼 여성들을 발전하게 하고, 사람을 사귀게 하고, 많은 선행을 하게 하며,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조직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기자들이 모두 바로 일주일 전 토요일에 태버네클에서 열린 본부 상호부조회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재능을 갖추고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창조가 참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 하나님의 딸들을 보며 영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기자들이 브리검 영 대학교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큰 합창단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합창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하신 그 감명 깊은 말씀들을 바로 그 기자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은 참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과 확신과 훌륭한 설득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으로 그 대회를 끝맺어 주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그 큰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더 묻지 않아도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힘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고 신권 지도자들과 손을 맞잡고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지도력을 키우고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자립심을 키우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세우는 분들

여러분 대부분은 그 날 모임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며, 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남편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뿐 아니라 영원히 동반자가 되는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봉사하고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폭풍우를 겪었지만, 또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모두 이겨내 왔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어머니이며, 또 상당수는 손자 손녀와 증손자 증손녀를 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즐거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불멸과 영생의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이 지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밤낮없이 희생하고 근검 절약하며 고생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니, 앤 캠벨의 시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그녀의 자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넌 내가 해 보지 않은 여행이야

넌 내가 살 수 없는 보석이야

넌 나의 파란 이탈리아 호수야

넌 내가 가보지 않은 타향의 하늘이야.

(‘내 아이에게’, 찰스 앨 윌리스 편, 보물 상자(1955년), 54쪽 인용)

자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실제로 나라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힘과 평화와 안정이 깃든 가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바로 이러한 것이 힘입니다.

학대자들을 꾸짖음

불행히도 여러분 가운데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 분이 계시지 모릅니다. 그러한 남편들 중에는 낮 동안에는 세상에서 밝은 낮으로 잘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에만 들어오면 절제력을 잃고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마구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행과 비행을 저지르는 남자는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남자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들과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꾸짖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신을 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화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을 보면 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화를 냄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독신 여성들에게 주는 충고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대개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과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하는 독신 여러분, 제가 최근 이 곳 태버나클에서

가진 독신을 위한 모임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노력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버리십시오. 근심을 버리고 다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반드시 형언할 수 없이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의로움의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것은 바로 일, 곧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과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격려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관심과 격려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소년, 소녀들이 많습니다. 비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도 금방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을 도움

교회의 여성들 중에는 유기나 사별이나 이혼으로 남편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무가 큼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저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매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로 운이 좋은 자매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 남편 없이 혼자서 네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주위엔 늘 훌륭한 ‘와드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도와 주시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신답니다.

“저희 감독님은 필요한 양식과 의복을 후하게 주시고 두 아들을 야영도 보내주셨지요. 그분은 저희 모두를 접견해 주시고 한 사람씩 축복과 필요한 격려를 주신답니다. 그분은 제가 예산을 세우고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저희 가정 복음 교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며, 학기가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스테이크 부장님과 보좌들께서는 교회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참됩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와드 가족'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신권 지도자들은 아이들이 교회와 소년단 프로그램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한 아이는 이글장(독수리장) 수상자인데 이번 주에 네 번째 장을 받았습니다. 또 한 아이는 세 번째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이번 주에 이글 스카우트 상 신청서를 냈습니다. 막내는 유년대에 있는데 아주 활동적입니다.

"저희에게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스테이크와 와드 회원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덕분에 저희는 예상치 못한 시련도 잘 견뎌냈습니다.

"생활이 힘들었지만-저희는 매일 무릎 꿇고 가족 기도를 하며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저희가 받은 축복에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이들이 복음과 자신의 신권에 참되도록 격려하는 동안 성신이 늘 동반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며, 저희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편지입니다! 이 교회가 행하고 있고 세상에서 행해야 할 방법에 관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성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감독님과,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지를 아는 가정 복음 교사와,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많은 와드 회원들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쓴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활기찬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그분에게 항상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과 십대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감독님께서 음식과 의복의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표현으로 보아 수입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가정 밖에서의 취업에 대한 충고

몇 년 전, 벤슨 회장님께서 교회 여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직업을 갖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바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느끼셨듯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필요 사항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대,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차, 다른 사치품을 사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녀를 의와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고양시키고 격려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주부의 일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복지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과 상담해 주고 여러분을 도와 주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해심 많은 자매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상호부조회 회장님을 만나십시오.

이 교회의 어머니, 곧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의롭고 선하며 고결하고 신앙심 깊은 쪽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독신 부모들에게 주는 충고

배우자가 없는 부모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부디 건강과 활력이 함께 하여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때에 여러분을 세워 줄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여러분의 감독님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을 하도록 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동기 부여를 해 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정을 쌓고 친분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력과 지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연세 드신 여성들에게

끝으로 저는 대부분이 미망인인 연세 드신 자매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보화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젊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시련들을 훌륭하게 헤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이해력과 동정심과 사랑과 봉사는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의 용모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습니다. 화평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이길 성숙한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평정을 잃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대부분 잊혀지고, 이제 좋은 기억들이 삶에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풍요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쳤으며, 그것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사는 늘 상냥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우정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성들이야말로 훌륭한 자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리를 받아들이며, 그 조직에 속한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회원들에게 영광과 힘과 아름다움을 제공해 줍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우며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걸어나온 지 60년이 됩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젊은 시절만큼 똑바로 서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갖고 있으며 별로 기대지는 못해도 여전히 함께 서 있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날이 오면 슬픔이 크겠지만, 영원토록 아내가 저의 것이고 제가 아내의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우리나라 오는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아함과 큰 능력을 통해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와 청년회와 초등회의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배우자 및 형제들처럼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교회의 남성들이 신권을 갖도록

제정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위대하고 훌륭한 조직,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완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고 우아하고 선하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간증하며,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73~75쪽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

경전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 저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리라”¹ 이러한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을 때, 필멸의 육신을 갖기 이전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남자나 여자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지상의 경험을 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자비의 계획”², “영원한 계획”³ 및 “구원의 계획”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⁵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해 배웠으며,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지상에서의 생을 마친 다음에도 영원한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이 계획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핵심되는 사항은 선택의지, 즉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합법적인 결혼 서약의 범위 내에서 자손의 출산권을 행사하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남녀의 결혼은 영원한 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⁶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영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⁷

사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교하고, 사악하며, 교활한 파멸의 계획입니다.⁸ 사탄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로잡아서 행복의 위대한 계획을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결혼의 중요성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할 때, 그들의 개별적인 책임에 걸맞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각자 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역할은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개체인 것이지만,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특성이 결합된 경이롭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특성들은 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편과 아내,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개인으로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 정해 주신 역할에 어울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경우,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혼 부부는 하나가 되어 생각과 행동과 기쁨을 같이 나눔으로써 도전을 함께 감당하며, 사랑과 이해 가운데 서로 발전하며, 성전 의식을 통해 온전한 존재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계획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생으로부터 배움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의 생을 연구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창조를 도운 미가엘로서 영화롭고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브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완전하고 능력 있는 내조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실과를 따먹고 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답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명하기를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⁹ 아담의 답변을 통해서 되도록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 인정 받기를 바라는 남자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 하라 명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¹⁰ 그래서 주님은 이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¹¹ 이브의 답변에서 여성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브의 답변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¹² 그 후에 아담은 “그리고 그 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여

**주님의 계획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범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을 것임이니라.”¹³ 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범이 아니었던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니라.”¹⁴ 이브의 답변을 통해서 여성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브는 만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이용하여 행복, 개인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바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 조연하고 격려하여 진리를 폭넓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함께 일했습니다.¹⁵ 두 사람은 자녀를 가지라는 계명에 순종했습니다.¹⁶ 그들은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계획에 따른 시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니라 하니라.”¹⁷ 그들은 계명대로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행복의 계획을 가르쳤습니다.¹⁸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난관¹⁹을 극복해 나갔으며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²⁰

아담과 이브는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신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남편이며 아내인 여러분은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으로써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들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계획²¹과 참된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 쓰는 간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쓰는 간계를 한 가지 소개한다면,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경시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을 키우고, 이해, 화평, 감사 및 성원의 분위기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은 가정이 약화되어 생긴 결과입니다. 정부와 사회의 계획은 폭력의 근절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의 근절을 위해 학교와 교회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가득 찬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핑클리 회장님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어머니 여러분은 신중한 가르침과 합당한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진리에 기초한 인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성품, 주님을 믿는 신앙, 책임감, 타인에 대한 존중심, 친절, 자신감 및 선행을 심어 주고, 배우고, 나눠 주려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탁아소에서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물론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여성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해야 할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 부모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서로 협력하여, 어머니를 가정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²² 어머니가 가정을 지킬 때, 자녀들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행의 모범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칠 때,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축복들

제가 이상적인 여건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이 이러한 여건과 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혼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행복의 계획을 낱알이 이해할 때, 설사 여러분의 생에서 이상적인 여건이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은 이상적인 여건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여건에서 크게 성장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지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신앙과 순종심을 갖고 생활할 때, 주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²³ 피임에 빠져 하나님의 계획²⁴을 떠나 어머니의 역할이 경시되고, 여성이 천하게 여겨지며, 아내와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이 조롱을 받는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돕시다. 여러분은 참되고 영원한 업적과 충만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받을 자격이 있는 약속된 축복을 이 생이 아니면 저 생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²⁵

여성들의 인품과 행동에 대한 감사

저는 이따금 신앙이 강한 신권 지도자들을 접견하곤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내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내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듣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보다 영적이고, 순결하며, 헌신적입니다.” “아내는 늘 제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줍니다.” “아내만 있으면 힘이 납니다” 또는 “저는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성 여러분은 우리의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합당함, 필요성 및 사랑을 받는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기 희생의 특성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희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상에 내려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분의 딸을 주신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젊어지고 살아야 하는 불확실성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사회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은 청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의 요구나 교회의 부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남편과 동행해야 합니다. 많은 적든, 남편의 부양 능력에 따라 여러분의 환경과 이웃이 좌우됩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남편은 그러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보살피는 축복이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과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이기에 이러한 일을 자진해서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빈도가 적은 탓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며, 남자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최대의 행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전을 읽고, 경전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교리상의 근원을 배우십시오. 가정에 관해서 제일회장님과 십이사도가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활용하십시오. 이 선언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 현대 및 고대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은 영감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때, 기도를 통해 마음속으로 그 가르침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서 오는 내면의 느낌에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느낌은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생활하려고 결심할 때 생성됩니다.
- 필요할 때,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어떤 훌륭한 어머니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개척 시대의 여성들은 당시의 난관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들은 선지자가 주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랐다. 그들은 신앙과 순종으로 도전을 극복하고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안전이나 좋은 집, 또는 안락한 생활이 아니었다. … 그들은 소중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²⁷

여성이 된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압니다. 그분의 귀중한 딸 가운데 한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제가 충만하게 누릴 끝없는 축복에 대해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고 따르려 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상에서 그분의 계획을 가까이 하면 할 수록, 여러분은 보다 큰 행복을 누리고, 보다 큰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보다 큰 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받기에 더욱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모세서 2:27, 28; 3:5 참조. James R. Clark편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1965~1975) 4:303. James E. Talmage, *Millennial Star*, 1922년 8월 24일, 539쪽.
2. 엘마서 42:15.

3. 니파이후서 11:5.
4. 모세서 6:62.
5. 엘마서 42:8.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11쪽 참조.
7.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11쪽 참조.
8. 니파이후서 9:8~9; 엘마서 12:4~5; 힐라맨서 2:8; 제3니파이 1:16; 교리와 성약 10:12, 23 참조.
9. 모세서 4:17.
10. 모세서 4:18.
11. 모세서 4:19.
12. 모세서 4:19.
13. 모세서 5:10.
14. 모세서 5:11.
15. 모세서 5:1 참조.
16. 모세서 5:2 참조.
17. 모세서 5:8.
18. 모세서 5:12 참조.
19. 모세서 5:13 참조.
20. 모세서 5:16.
21. 니파이후서 9:13.
22. 스펜서 더블류 김볼, 1977년 12월 3일, 산 안토니오 노변의 모임, 32쪽 참조.
23. 고든 비 힝클리, 1991년 4월 대회 보고, 94쪽; *Ensign*, 1991년 5월호, 71쪽 참조.
24. 니파이후서 9:13 참조.
25. *구원의 교리*, 2권, 69쪽 참조.
2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11쪽 참조.
27. 제닌 더블류 스코트, 브리검 영 대학 여성 대회, 1989년 4월 6일, 1쪽.

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세리 엘 두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최근에 저는 직업상의 임무를 띠고 외국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매우 불길한 생각이 들어 신권 축복을 구했습니다. 신권 축복을 통해 원수가 제 여행 목적을 훼방할 것이며, 신체적,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니다. 또한 여행 중에 유람이나 쇼핑을 해서는 안 되며, 임무에 집중하고 영의 인도를 구한다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에 제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제 앞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여행하던 중에 저 혼자만이 그러한 독특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올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원수가 너희들의 사명을 훼방할 것이며, 너희는 신체적, 영적인 위험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집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지상에서의 삶을 그저 유람이나 쇼핑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리라.”

사탄은 우리가 그저 유람객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로 행동하거나, 쇼핑객처럼 우리의 영을 질식시키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여념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사탄은 은행 구좌나 신용 등급, 의상, 심지어 날씬한 몸매 등과 같이 썩어 없어질 쾌락과 몰입의 대상들을 미끼로 삼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6:21 참조) 불행하게도, 원수의 유혹물이 발하는 현란한 광채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태복음 16:26)

선지자들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내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다.”(교리와 성약 101:36)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는 데 온 일생과 자원을 바치면 그것만을 얻게 됩니다.”(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4쪽) 우리는 이른바 부유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영생을 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야말로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엠마 스미스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교리와 성약 25:10)는 조언을 통해 그 같은 영적 재난을 극복하는 치유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는 겻세마네 동산에 가시기에 앞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는 선언을 통해 우리들의 귀감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허영과 철학이 그 중독성 강한 매력을 상실하도록 우리 생활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활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두어 인간의 허영과 철학이 그 중독성 강한 매력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바빌론, 또는 세상의 신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극복할 권세를 갖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예지와 끝없는 삶을 바라한다면 세상을 버리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243쪽)

우리는 시온의 자매로서 가정과 덕성을 파괴하려는 원수의 음모를 막아내는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여 영원한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향락에 안주하게 하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섯 자녀를 둔 45세 된 한 어머니가 제게 멋진 실내 장식 그림이 가득 실린 잡지를 탐독하며 속삭여 하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더 큰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좀 살이 찌고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졌지만 저는 저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부조회의 명확한 목적이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스무트 자매와 젠슨 자매와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고, 상호부조회의 초점을 재정비하여 천명한 것을 기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것에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상호부조회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마음 내킬 때에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 어려서 할머니의 헌신을 보았는데 할머니는 캔사스 평원에서 자작 농장을 일구시던 할아버지를 도우셨습니다. 그분들은 대평원을 위협하던 흑모래 폭풍과 경제 대공황과 회오리 바람 등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따금 저는 할머니께서 변변찮은 수입과 인고의 세월들을 어떻게 참아 내셨는지, 끔찍한 사고로 장남을 잃고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의아해 하곤 합니다. 할머니는 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기억할 때면 가장 잘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머니가 복음에 대해 가졌던 열정적인 기쁨입니다. 가족 역사를 작성하거나 경전을 가르치실 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분은 전세에서 맺었던 약속대로 살았으며, 우리들에게 그 위에 계속해서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굳건한 토대를 남겨 주신, 이 세기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할머니는 완전한 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깃발을 다음 세기로 이어갈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께서 선포하셨듯이, “칭찬할 만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여성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여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Teachings, 184쪽)

이 말은 훌륭한 삶을 사는 전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특합니다. 우리의 독특함은 성약과 영적인 특권과 그에 따른 책임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부여 받았고 성령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살아 계신 선지자와 우리 가운데 있는 신권의 권세와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들은 신뢰할 만한 대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교리와 성약 82:3)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힘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리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안하려 함으로써 세상 일에는 몰두하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 표준은 언제나 세상의 표준보다는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구원을 포함한 주님의 보상은 무한하며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여성으로서 창조의 충만한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히브리서 11:6)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연구와 탐구를 통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핌으로써, 하나님과 탐욕의 신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에 걸터 앉은 세속적인 탐닉을 버림으로써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어”(교리와 성약 121:35) 부름은 받되 택함은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의 행동 표준은 언제나 세상의 표준보다 더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오는 주님의 보상은 무한하며 영화롭습니다.

이 경전상의 권고의 순서에서 가르치는 기본 원리를 숙고해 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교리와 성약 59:5)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 우리의 사랑과 욕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주를 사랑한다면 그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더운 여름날에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지, 방문하고 가르치고 서로 돌보라는 부름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영을 해치는 대중 매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같은 제자의 신분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의 여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충실한 남자가 신권을 받도록 예임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이 되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여성이 됨을 기뻐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는 신앙과 덕성과 통찰력과 사랑을 지닌 여성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허둥대지는 않지만 순수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복음에 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엘마서 26:12 참조) 다시 말하건대, 우리는 세상의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기 성도 여성입니다. 김볼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여성]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훌륭하게 인정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Ensign, 1979년 11월호, 102쪽)

저는 이번 여름에 성지에서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굽어보이는 산상수훈이 설패된 산 위에 앉아 멀리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숨겨질 수 없는 도시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도시의 이미지가 품은 상징에 대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여성이 바로 그 도시와 같다는 강한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으로써 주님의 영이 우리의 생활과 눈에서 그 빛을 발하게 한다면, 우리의 독특함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장막의 이 편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성처럼 보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절제할수록 세상의 여성들은 우리를 희망과 평화와 덕성과 기쁨의 샘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20년 전 이와 같은 모임에서 김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 후 우리는 줄곧 인용해 왔습니다. “후일에 성취되는 교회의 주요 성장의 대부분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에 의로움과 분명한 태도를 반영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행복한 면에서 세상의 여성들과 뭔가 다르고 독특하게 보여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1979년 10월 연차 대회) 우리는 더 이상 김볼 회장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예언을 실현시켜야만 하며, 그렇게 할 자매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영원한 구원은 이 교회 회원들의 두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떠한 사람들도 이보다 더 강력한 계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속히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Church News*, 1999년 7월 3일, 3쪽)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여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한 가지라도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것을, 그 다음 달에는 또다른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매 여러분, 이는 무장하고, 행동하고 일어나라는 부름입니다. 권세와 의로 무장하라는 부름입니다. 육신의 힘보다는 주님의 힘에 의지하라는 부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으로 살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이 본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주께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삼 일만에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구하도록 합시다. 바로 이 순간에 세상에서 벗어나 결코 뒤돌아보지 않도록 결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지닌 여성이 됨



패트리시아 티 홀런드 자매

이전 본부 청년 회장단

Ensign, 1987년 10월호,
26~33쪽

1986년 4월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부터 해임된 직후 저는 이스라엘에서 일주일의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의 2년은 저에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과업에서 성공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항상 저의 첫째되는 우선 순위였으므로, 저는 한 명의 초등학생, 한 명의 고등학생,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아들의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바쁜 대학 총장의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무실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본부 회장단의 보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들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저는 제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더 빨리 달리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2년 임기의 끝 무렵에 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체중이 줄고 있었고 잘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그들을 돌보려고 애썼던 것과 같이 저를 돌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사랑에 넘치는 총관리 역원들이 지켜보고 계셨고 사랑에 찬 해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의 봉사 기간이 끝난 것을 감사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도 사랑하게 된 여성들과의 교제 기회의 상실 때문에, 고백컨대, 약간의 자아 상실까지 느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요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저는 누구였고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생은 이 모든 것만큼 힘들어야 합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 저의 몇 가지 임무에 있어서 저는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망쳐놓았나요? 저의 해임 후의 며칠은 거의 그 이전의 몇 주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 저는 더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저의 연료 탱크는 고갈되고 있었고, 어디에서든 주유소를 찾을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에 저의 남편이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의 그 지명을 받았고, 그 임무로 여행하는 총관리 역원들께서 저에게 남편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당신은 생명과 생명의 떡의 구주의 땅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몹시 지쳐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병고치는 휴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혹은 적어도 희망하면서 짐을 쌌습니다.

청명하게 맑고 아름다운 화창한 날에 갈릴리 바다를 굽어보면서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의 말씀 대신에 저는 이런 말씀을 제 마음으로 보고 제 가슴으로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트야, 패트야, 패트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런 다음 “그러나 한 가지(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말씀을 읽을 때 순수하고 개인적인 계시의 힘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0:38~42 참조)

이스라엘의 5월의 태양은 너무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때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막 돌아온 길이었으며, 참으로 그 날 나를 위해서도 태양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앉아 있는 동안 그 때와 똑같이 태양의 치유해 주는 광선이 따뜻한 액체처럼 제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저의 근심하는 영혼을 쉬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저의 인생에 대해 좀더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승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느니라. 정말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네 눈이 계속해서 태양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내 아이야.” 갑자기 저는 지극히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으며 저의 생활이 첫 시작부터 항상 그의 손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눈 앞에 평화롭게 누워 있는 그 바다는 태풍에 흔들리고 위험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더 큰 신앙의 여성이 되는 것으로 도약합니까? 한 마음의 틀이 분명히

다른 마음의 틀을 부정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신앙과 두려움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중의 몇 가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네 개의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와드 중의 둘은 독신 여성을 위한 와드였고, 둘은 젊은 어머니들이 많은 와드였습니다. 제가 독신 자매들과 함께 앉아서 상담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의 외로움과 실망의 느낌을 저에게 설명하는 동안 저의 가슴이 종종 아팠습니다. 그들은 결혼과 가정 생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신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의 독신 상태가 그들 자신의 잘못이며, 때로는 심지어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목적-자신의 생활을 바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들도 그에 못지 않은 염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세계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항상 생존하기 위한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낄 충분한 시간이나 수단이나 자유를 결코 갖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을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봉급을 인상해 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의 남편 이외에는 (그들도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들과 관련하여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는 그들은 항상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자신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모든 다른 면에서 자기 가정의 유일한 부양자가 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직면한 그 시련을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몇 가지 면에서 그들의 상황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성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얻은 것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혼했든, 미망인이든, 주부이든, 전문가이든 간에 단 한 명의 여성도 혹은 여성의 단 한 집단도 모든 염려를 독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겪어야 할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난 축복도 있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특권들과 축복들이 있고 두려움과 시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외람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의 역사상 과거 어느 때에도 후기 성도 여성들을 포함하여, 여성들이 그들의 염려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더 큰 복잡성에 직면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상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 운동이 어머니 이브 이래로 또 그 이전부터 우리가 소유해 온 한 가지 복음 원리, 즉 선택할 권리인 선택의지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지의 문제에서 우리가 직면해 온 가장 불행한 부작용 중의 하나는 오늘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여성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불확실해지고 서로에게 더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진 공동체 의식과 자매애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은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관대함은 줄어드는 것같이 보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궁핍한 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는 거의 어느 때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복숭아를 사는 사람들이나, 35가지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 주키니(서양 호박)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단순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인생의 3/4 동안 저는 바느질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바느질을 할 수 있고 꼭 필요하면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지난 25년 혹은 30년 동안 상호보조회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체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어린 소녀들이 비슷한 복장을 한 어머니 앞에서 무리지어 들어오면서 손으로 바느질한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로 걸어 들어올 때—모두 에이프런을 달고 레이스를 달고 리본을 달고 스커트의 단을 달고—그들에게 미소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느낀 부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태도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느질에 대한 저의 반감에 대해선 솔직합니다.

저는 그런 날들 이래로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약간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의 자녀를 위해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또 제가 바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서로를 혹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끝단지도 우리에게서 사랑과 자매애를 빼앗아가는 반목 상태를 지닐 만큼의 가치는 없습니다.

명백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개성뿐 아니라 각기 다른 정도의 에너지, 관심, 건강, 재능, 기회를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와 충실한 헌신의 생활을 하는 데 전념하는 한 우리는 이런 신성한 차이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위협 받고 불안하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정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정확한 복제물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우리의 단합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이 필요한데,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감정 이입과 동정입니다.

저는 베티 프라이던이 사회를 뒤흔들었던 책, ‘여성 신비’를 출판한 바로 그 해인 1963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온화한 1940년대와 50년대의 추억들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여러분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 준 이웃들을 위해 준비된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훨씬 편안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혼자가 되고, 일을 해야 했고, 혹은 결혼 가정에서 시달리게 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점점 더 복잡한 세상에서 그 이전의 모델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우리는 심지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십 세기 후반부처럼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가혹하고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거의 광적으로 개인적인 목적 의식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많은 후기 성도 여성들도 자신의 여성됨에 대한 영원한 통찰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사탄이 되어 사회를 파괴시키기를 원한다면 우선 여성에 대한 대규모 공격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극도로 분노케 하고 산란케 하여 언제나 여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알려져 온 평온하게 하는 힘과 평정을 결코 찾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서 실제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잠재 능력을 달성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초인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도록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명예, 부, 가족, 즐거움을, 그리고 그것을 항상—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축복을 덜 받은 것이며 인생의 경주에서 이등 시민이라고 속입니다. 하나의 성으로서 우리는 고전하고 있고 우리의 가족도 고전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마약, 십대 임신, 이혼, 가정 폭력, 자살은 현대가 기대하는 완벽한 여성이 되기 위한 시도에서 끝없이 늘어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중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전하며 고통 받고 있고, 자신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단서에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스트레스 관련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엡스타인 바르 바이러스가 1980년대의 질병으로서 우리의 인기있는 의학 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환자들은 미열, 관절통, 때로는 목구멍 통증으로 고통 받지만 그들은 독감에 걸린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극도로 지치고 허약하고 쇠약하지만 에이즈는 아니다. 그들은 종종 혼동되고 건망증이 있지만 치매는 아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지만 임상적인 우울증은 아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약 3배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적이며, 높은 성취욕을 가진 사람들이다.”(뉴스위크, 1986년 10월 27일, 105쪽)

우리는 완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도 불완전을 극복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여권주의자 서적들, 죄담회 사회자들, 혹은 전체 언론 문화가 우리에게 상품을 의도적으로 속여 팔도록, 더 정확히 말해서, 없는 상품을 속여 팔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과 자기 존중심에 대한 모색에 있어서 너무나 궤도를 벗어나서 완전한 몸매나 학위나 전문적인 지위나 심지어 절대적인 어머니로서의 성공에서 그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것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진정한 내적이고 영원한 자아는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그들을 위해 연기하는 것에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우리의 독특함 즉 가치와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겁먹고 불안해져서 우리 이웃들의 다양성과 개성,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 관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안을 안고 있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을 지탱해 주는 그 핵심으로부터 붕괴되는 동안 무력하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요동하”는(에베소서 4:14) 돛이나 키가 없는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심하게 멀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든지 “침착하게 키를 잡아라”는 일등 항해사의 의기양양한 함성과 함께 우리의 배를 항해하게 해 주는 그 확실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여성 내부의 평온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육체적인 선입관, 초능력적인 여성의 성취들, 끝없는 인기 경쟁으로부터 떠나서 인생의 시련과 필연적인 다양성에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내의 단합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발판과 영혼의 평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저서를 쓴 그 여성의 이름은 앤 모로 린드버그입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여성의

절망과 전반적인 고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권 운동가들은 충분히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행동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 그들로서는 그 특권들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은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욕구들을 알지만 무엇이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모든 자유 시간으로 자신의 창조의 샘을 다시 채우기보다는 고갈시키는 경향이 더 많다. 우리는 손에 든 주전자로 정원이 아니라 밭에 물을 주려고 시도한다. 우리는 위원회들과 여러 가지 주의와 주장에 무차별적으로 몰입한다. 영을 먹일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그것의 요구를 혼란으로 덮으려고 시도한다. 그 바퀴의 축인 중심을 진정시키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더 많은 원심 분리 활동을 첨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지난 세대에 기계적으로는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잃었다.” 시대가 어떻든지 “여성의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 영혼을 먹이느냐이다.”라고 그녀는 덧붙여 말합니다.(바다로부터의 선물, 뉴욕: 판데온 출판사, 1975년, 51~52쪽)

벤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영에 영향을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결코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속적인 계명도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훌륭하게 균형 잡으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어쩌면 균형을 잘 잡을 때 그분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단합 즉 우리의 “중심의 평정”은 어떤 노력이라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영혼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1)는 그 신성한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바깥 껍질인 인간의 육신과 이 육신이 움직이는 허약하고 너무도 변덕스러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읽은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낸 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힘과 영적인 성장의 점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그 비유는 아름답게 새겨졌지만 매우 단단히 잠궜진 상자 속에 놓여진 한 영혼, 모든 훌륭함을 다 갖춘 인간의 영혼에 관한

비유입니다. 가장 깊은 상자의 내부에서, 위엄 속에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인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 상자는 더 큰 다른 것 안에 놓여지고 잠겨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되어 다섯 개의, 아름답게 새겨져 있지만 매우 단단히 잠겨진 상자들이, 그것들을 열기에 충분히 솜씨 있고 현명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그 열쇠를 찾고 이 상자의 내용물들을 열어야 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그녀 자신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신성함,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녀의 은사들과 은혜가 그녀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그 첫 상자의 열쇠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과제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다음 일어나서 그 첫 번째 자물쇠가 이제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위적인 기적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빛과 영원한 확실성들을 모색하려 한다면, 고대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여인이므로 성숙함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긴박한 기도와, 열렬한 기도를 묘사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들은 씨름하다, 호소하다, 울부짖다, 굶주리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행할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르며 어쩌면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소유물들과 명예와 지위에 너무나 몰두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색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보호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노스처럼 신앙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잠재적인 신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두 번째 상자로 인도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기록된 가르침들을 위해 경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이 교회의 모든 여성은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마되지 않은 다양한 재능의 집합체로서, 우리는 이런 은사를 파묻거나 우리의 빛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시라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특히 경전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를 그분을 향해 뻗어나가게 합니다.

그분은 “생명수”와 “생명의 떡”같은 거룩한 영향력에 대한 많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만일 제 자신의 발전이 정지된다면, 그것은 매일 그분의 거룩한 경전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영양 실조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순간만 주목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침대 머리맡과 손가방 안에 경전을 두지 않았더라면 저를 완전히

파괴했을 도전들이 저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경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저의 아들이 천사의 끈이라고 묘사한 해의 왕국의 정맥 주사이며, 저를 위한 신성한 영양 주사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성공의 시초에는 특히 우리가 세 번째 상자에 접근할 때 루시퍼가 더욱 초조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려는 찰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십 년 동안 사탄은 모든 인간이 그들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낭만적인 사랑이나 물질에 대한 사랑이나 과도한 자기애의 추구에 바치도록 유혹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절한 자기애와 자아 존중이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것에 대한 약속된 보상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누가복음 17:33) 세 번째 상자는 사랑의 열쇠에게만 열립니다.

사랑으로 진정한 성장과 순수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상자의 뚜껑은 거의 침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행히도 마음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여기에서 돌아섭니다. 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자물쇠는 너무 튼튼한 것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자아 평가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실제의 자신 그대로 보는 것은 종종 고통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참된 겸손, 회개,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내부의 선한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의 자아를 강화시켜 주고 우리를 외적인 칭송에 더 적게 의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개적인 칭송에 관심을 더 적게 기울일 때 공개적인 반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경쟁과 질투와 시기는 이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주처럼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

최소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여성 사회에 존재하게 될 그 강력한 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의 보상은 너무나 심오한 힘과 조용한 신앙의 승리이어서 우리는 심지어 더 밝은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과는 달리 네 번째 상자는 상한 심령이 깨지듯이 깨져서 열립니다. 우리는 지구의 깨진 틈으로부터 자라서 피는 꽃과 같이 다시 태어납니다. 다섯 번째 상자를 여는 저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내부의 선한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성전의 거룩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유행과 지위와 직업이 무시되는 곳인,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닌 그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정박시켜 줄 평화와 고요함과 평정을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렛의 형제처럼 그 거룩한 존재의 중심지로 장막을 뚫고 들어갈 용기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이더서 3:6~9 참조) 있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눈부신 밝음을 마지막 상자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온전함 즉,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상자의 입구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거룩함.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신성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발견되고 해방되고 확대되고 입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의 여성들이 자신을 알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신성한 여성 역할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하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리가 담긴 찬송—“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39장)를 부를 때 어머니의 최고의 정숙을 알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여왕다운 우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이 곳에 오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때, 하나님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그보다 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6쪽)

저는 하늘의 우리 어머니께서 왜 우리에게 베일로 가려 있는가라는 의문을 결코 제기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주제에 대해 그분이 해오신 것만큼 적게 계시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성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의 젊은 자매들과 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힘든 후일의 혼란을 헤쳐 나가도록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몇 가지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주님은 청사진 없이 이 외롭고 황량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52편에서 우리는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14절) 그분은 분명히 우리 여성들을 그 약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통해 여러 가지 규범을 주셨고, 또 성전 의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규범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범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말씀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영원한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비유, 상징, 우화, 은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고뇌를 너무나 잘 비유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확대해서 이 경험에 있어서의 사라의 고뇌에 대해서도 질문합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언제나 더 깊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와 상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흐나 모차르트 곡에서 발견할 그런 것들과 같은 주제들과 동기들을 찾아보아야 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패턴은 성경과 몰몬경이 모두 가족 갈등을 포함하여 가족을 주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단지 그 특정한 부모나 그 특정한 자녀들의 이야기 이상의 것으로서 가족에 대한 영원한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아담과 이브 같은 어떤 것, 가인과 아벨 같은 어떤 것을 봅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리하이, 새라이아, 레이맨, 니파이, 룯, 나오미, 에스더, 힐라맨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딸들의 느낌을 다소나마 갖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면서 보여 준 것은 부모로서의 헌신의 유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유형과 그림자, 즉 우리 자신의 필멸의 상태의 기쁨과 슬픔의 예표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 높은 원리들과 진리들의 상징물들, 기혼이든 미혼이든 나이가 많은 적은 가족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성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단어들과 상징물들의 조심스런 선택에 대해 몇 달 전에 그 곳에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성전 밖에서 부적절하게 말해지지 않도록 저의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저의 인용문들은 출판된 경전으로부터 발췌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습니다.(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의명으로 남아 있기로 선택하시는 작은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성전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할아버지 옆에 앉았는데 그분은 예상치 않게, 그러나 상냥하게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창조의 분명한 모습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서 4장을 읽으세요.” 제가 아브라함서를 펼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연히 모세서 3장 5절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 또 하나의 예표의 메시지—필멸의 상태의 창조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인 패턴. 그런 다음 저는 아브라함서 4장을 주의깊게 읽고 그 기회를 이용해 예비 의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그렇다는 것을 항상 알아온 어떤 것, 즉 남성과 여성은 신권의 여러 가지 축복의 공동 상속자이며 비록 남성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더 큰 짐을 지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그들의 신권 관련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더 큰 계시의 빛을 받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석하는 동안 만일 내가 여호와이고 지상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단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상징적인 예를 준다면 얼마나 많이 주고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과 유형을 찾기 위해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서 4장 27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들께서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그들 자신의 형상대로 남성을 만들고 그리고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의 중요한 대화에서 아담은 그 여인을 이브라고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는 그녀를 이브라고 부르니까?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창세기 3:20; 모세서 4:26)

자녀를 낳지 않은 많은 미혼 여성이나 기혼 여성의 현실적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한 가능성, 즉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단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브는 자녀를 낳기 수 년, 수십 년, 어쩌면 수 세기 전에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는 신분을 부여 받았습니다. 예전 동산의 완전함이 필멸의 생의 투쟁보다 앞섰던 것과 같이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자격도 그녀가 어머니되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 중의 하나, 수많은 의미를 지닌 그 풍부한 단어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단어가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거룩한 본성에 대한 으뜸되는 선언임을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저는 단 세 자녀밖에 없으며 더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흐느껴 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전혀 없는 분도 울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주제 자체에 분노해 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성을 위해 저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지만 결코 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어머니 역할을 하지만” 결코 자녀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가임이든 불임이든 모두 이브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신과 여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도 또 우리를 따라 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 거룩한 패턴 곧 모성의 모형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의 손길을 뻗치고 안고 들어올리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립된 상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강화시키고 분열의 상처를 감싸 주는 자매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각 개인을 위한 사명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갈릴리 언덕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시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봐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다양성과 개성 속에서도 저의 기도는 우리가 단합되는 것,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임된 사명을 찾는 데 있어서 단합되는 것, “왕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왕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저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과

도전과 신앙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지자, 그분의 교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우리 자신의 거룩한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우리가 화평스럽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어두운 곳에서도 비치는 그 빛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각
개인을 위한 사명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인용 자료

- 고든 비 힝클리, *행복한 가정의 초석*(팜플렛). 1984.
- . “사라지는 예절.”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 및 취임식 연설*, 1996년 4월 25일
- .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 . “This I Believe.” 1991~1992년 *브리검 영 대학교 예배 및 노변의 밤 연설에서*, 1992
- 닐 에이 맥스웰, *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 . “But for a Small Moment.” *Speeches of the Year: BYU Devotional and Ten-Stake Fireside Addresses*, 1974, 1975.
- . *Deposition of a Disciple*. 1976.
- . *Even As I Am.*, 1982
- . *Meek and Lowly*. 1987.
- . *Men and Women of Christ*. 1991.
- . “Not My Will, But Thine.” 1988.
- . *That My Family Should Partake*. 1974.
- . *We will Prove Them Herewith*. 1982.
- . *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77.
- 다니엘 에이치 러들로우 편집 *Encyclopedia of Mormonism*, 5권, 1992
- 데이비드 오 맥케이, *Gospel Ideals*. 1953.
- 델린 에이치 옥스, *Pure in Heart*. 1988.
- . “Revel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1982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 1982.
- 로렌조 스노우,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즈 편집, 1996
- 리그랜드 리차즈, *기이한 업적*, 1966년 개정판
-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가족 재정 지침(소책자). 1992.
- 메릴 제이 베이트맨, “Eternal Family.” *Brigham Young University 1997~1998 Speeches*. 1998년
- 멜빈 제이 벨라드, *Melvin J. Ballard—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 보이드 케이 팩커, *Eternal Love.*, 1973
- . “자립.” *Speeches of the Year*, 1975., 1976
- . *The Things of the Soul*. 1996
-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 1949.
- 브루스 알 맥콩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권, 1966~1973
- . *Mormon Doctrine.*, 제2판, 1966.
- .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 브리검 영, *Discourses of Brigham Young*, 존 에이 윌소 선정.
- 수세트 플렛처 그린 및 돈 홀 앤더슨 편집, *To Rejoice as Women: Talks from the 1994 Women’s Conference*. 1995.
- 스펜서 더블류 김볼,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 . *Love versus Lus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65년 1월 5일
- . “Marriage and Divorce.” *1976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중에서 1977.
- . *용서가 낳는 기적*, 1969.
- .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1981.
- .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편집. 1982년
- . 1977년 12월 3일 텍사스 주 산 안토니오에서 행한 노변의 밤 말씀
- 시 에스 루이스, *Mere Christianity.*, 1960
- 에즈라 태프트 벤슨, *Come unto Christ*, 1983.
- . “In His Steps.” *1979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80년판
- . “The Law of Chastity.” *Brigham Young University 1987~1988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 중에서. 1988년
- . “의로움이 한 민족을 승화시킴”(1986년 6월 29일, 프로보 자유 페스티벌에서 한 연설)
- . … *So Shall Ye Reap*, 리드 에이 벤슨 편, 1960년
- .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 . *시온의 어머니들에게(소책자)*. 1987.
- .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소책자)*. 1987.
- 윌포드 우드럽,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지 호머 듀럼 선정, 1946
- 제임스 이 탈매지. *주님의 집* 1968
- 제임즈 알 클라크 편집,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1975

- 제프리 알 홀랜드,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 .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Brigham Young University 1999~2000 Speeches* 중에서 2000년
- . *Speaking Out on Moral Issues*. 1998.
-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비 에이치 로버츠 2차 편집 및 개정, 1932~1951
-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선정, 1976
-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5판 1939
-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집, 3권, 1954~1956
- . *The Way to Perfection: Short Discourses on Gospel Themes*, 제2판 1935
- 조우 제이 크리스텐슨, *One Step at a Time.*, 1996년
- 조지 앨버트 스미스,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프레스턴 니블리 선정, 1948
- 존 에이 윗소, *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지 호머 듀럼이 정리함. 3권. 1960년 1
- . *Program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937.
- . “Temple Worship.”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921년 4월 50~64.
- 존 테일러, *The Gospel Kingdom*. 지 호머 듀럼 선정. 1943

- 팔리 피 프랫, *Writings of Parley Parker Pratt*, 파커 프랫 로빈슨 편집, 1952.
- 하워드 더블류 헌터,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즈 편집, 1997
- 해롤드 비 리, *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73.
- . *Stand Ye in Holy Places: Selected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Harold B. Lee*. 1974.
- .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즈 편집, 1996.
- 헨리 비 아이어링, *To Draw Closer to God*, 1997
- 휴 비 브라운, *Continuing the Quest*, 1976.
- . *공보*, 1998.
- 히버 제이 그랜트, *Gospel Standards.*, 지 호머 듀럼 편집, 1941.
- Family Home Evening: Love Makes Our House a Home*. 1974.
-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A Message from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팜플렛) 1973.
- For the Strength of Youth: Fulfilling Our Duty to God*(소책자). 2001.
- Journal of Discourses.*, 26권 1854~1886
- Responding to Abuse: Helps for Ecclesiastical Leaders*. 1995.

색인

가먼트, 성전

- 의 역사적 배경, 323
- 의 적절한 착용, 315

성전 가먼트: “내적인 결의의 외적인 표현”, 칼로스 이 애이시 장로, 322

가사, 238

가정

- 비축과 생산, 329
- 소유권, 61, 119

가정의 밤

- 가정을 학문의 집으로 바꿈, 244
- 교재, 47
- 제일회장단이 최우선사항으로 훈계함, 243, 277
- 아버지가 감리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함, 200, 205
- 을 가질 아버지의 책임, 214
- 을 위한 시간을 들임, 355
- 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침, 98, 208
- 재확립됨, 278
- 주례, 97, 241, 242, 282

가족

-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103
- 계획, 16, 203
- 기도, 130
- 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심, 83
- 대비, 204
- 에 대한 외설물의 영향, 264
- 창조주의 계획에 중심인, 83
- 청소년을 위한 축복, 52
- 평의회, 244
- 함께 시간을 보냄, 278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65
-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10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4, 83~110, 124, 239, 250, 253, 294, 348

-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103
- 신중하게 숙고할 가치가 있음, 104
- 원리들을 따름, viii

가족에 대한 선언문. 가족: 세상에 대한 선언문 참조

가치관들

-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함, 188
- 자녀들이 -을 내부에서 쌓도록 도와줌, 257

간음. 결혼에 있어서의 충성,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 참조

감사

- 깊었을 때 -를 배우라, 53
- 하나님에 대한 -, 215

기간, 1, 2

결혼

- “결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180
- “결혼과 이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168
-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 영원을 위한 -, 167~183
- 을 위한 기회가 없는, 246, 262
- 이상적인 -, 25, 76
-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261
- 허가서, 316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65
-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84
-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74
- “왜 성전에서 결혼하는가?”, 존 에이 윌소 장로, 178

결혼, 그 여러 해들을 통틀어, 184~187

-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러셀 엠 넬슨 장로, 26
- “힝클리 부부의 결혼 60주년에 즈음하여”, 186
-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80
- “결혼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 284
-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84

결혼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283~289. 또한 결혼에 있어서의 적응 참조

- “결혼과 이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168
- 기도와 함께 해결책들이 나옴, 76
- 적응함, 9~10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 “결혼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 284
-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로버트 이 웰즈 장로, 286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 342~343

- 결혼을 풍성하게 함, 184
- 할 가치가 있는, 34

결혼에 있어서의 적응, 9~10. 또한 결혼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참조

- “결혼과 이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168
-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로버트 이 웰즈 장로, 286

결혼에 있어서의 충실, 111~114

- 구식이 아님, 143
- “순결의 법”,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27
- 의 주님의 율법, 230
-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결혼에 있어서의 친밀함(은밀함), 139~146

- 결합의 궁극적인 상징, 234
- 에 있어서의 부드러움과 존경, 207
- 에 적응함, 9
- “생활의 기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141

결혼하지 않고 동거함, 152~153

- 은 결혼의 위조임, 181

겸손

- 겸손 대 교만, 268, 272
- 겸손함으로 훈계를 받아들임, 292
- 영적인 지식을 위하여 필수적임, 149

경고에 귀기울임, 231**경전**

- 가족으로써의 연구, 286, 355
- 의 개인적인 연구, 148, 281
- 인용됨, 10, 19, 31, 59, 73, 84, 93, 111, 112, 113, 139, 152, 154, 221, 222, 337, 338

경청함, 대화(의사소통) 참조**계명에 대한 순종**

- 은 힘을 줌, 49, 150
- 의 결과들, 221
-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필수적임, 157, 186

계시, 191, 194, 197**교만**, 268~273

-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69
-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68

교육, 77~78

- 경제적인 기회에 대한 열쇠임, 211
- 계속되는 과정, 119
- 교육을 위해 일함, 190, 211
- 여성을 위한, 240
- 청소년을 위한, 53

구원의 계획, 259~263

- 성전 의식은 -을 포함함, 319
- 행복의 계획, 65
- “결혼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284
-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60

구혼은 계속됨

- 결혼을 풍요롭게 함, 22, 184, 285
-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58

균형과 우선 순위, 276~282

- 일의 -, 96
-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80
- “시온의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77

그랜트, 히버 제이, 14, 347**근친상간**, 1, 2**기도**

- 가족, 130, 282, 355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 결혼에 있어서 중요함, 284, 288
-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함, 191
-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 228
- 의 원리, 85
- 차이점들을 해소함, 185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깨끗한 언어를 사용함, 55, 222

- 끝까지 견딤**. 또한 헌신(공약); 성약과 의식: 그 여러 해들을 통틀어서의 결혼
-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러셀 엠 벨슨 장로, 26

낙태, 1~2

- 는 심각한 죄임, 142, 261
- 에 대한 용서가 가능함, 87
-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 차이점, 63~72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65
-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60
- “여성의 기쁨”,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70

남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200~218

-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206
-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
-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09
-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러셀 엠 벨슨 장로, 212
-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 “아버지의 손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215
-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60
-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03

남편. 아버지도 참조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206

네이들드, 마가렛 디

“여성의 기쁨”, 70

넬슨, 리셀 엠, 2, 22, 77, 78, 99, 157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26

“배우기 위해 경청함”, 35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212

단합, 344~346. 또한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 결혼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참조

존경, 충성, 그리고, 342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로버트 이 웰즈 장로, 286

대비

가족, 204

개인적인, 212

성전을 위하여, 314

현세적인, 327

대회, 본부(연차), 151

덕성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164, 185

과 정숙, 227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 209

하나님의 전신 감주로서의, 224

데이트 표준, 51~58

-에 대한 외설물의 영향들, 26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팜플렛, 52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58

도덕과 정숙, 219~236

과 가치관들, 143

제일회장단 서한, 230

“순결의 법”,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 227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으라”, 해롤드 비 리 회장, 223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 268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230

“개인적인 순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233

“위대한 해육의 계획”,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독립, 137~138

“자립”,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305

부모로부터의 -, 9

재정적인 -, 310

“자립하는 사람이 됨”, 엘 톰 페리 장로, 307

독신

남성, 175, 190, 262

부모, 311~313, 359

어머니, 177, 216

여성, 175, 189, 358

회원, 168, 206, 246, 313, 362

돈. 재정 참조

동거.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동성 결혼 참조

동성 결혼, 303

동성 연애, 294~302

동성에 행위는 심각한 죄임, 221, 230, 303

“동성 연애”,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294

동성에 행위. 동성 연애 참조

듀, 셰리 엘

“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364

라슨, 딘 엘, 94, 100

롭니, 매리온 지, 38, 47, 137, 248, 344

리, 해롤드 비, 9, 63, 84, 192, 200, 264, 315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 수칙”, 124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으라”, 223

리차즈, 리그랜드, 85

리차즈, 스티븐 엘, 244

매력

동성에 대한 -, 294

육체적 -, 155, 156

맥스웰, 닐 에이, 2, 4, 31, 65, 81, 91, 138, 156, 199,

221, 242, 254, 266, 274, 276, 277, 304

“육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승리자가 됨”, 333

“어깨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94

맥케이, 데이비드 오, 14, 113, 140, 154, 188, 189, 252,

304, 345, 347

맥콩키, 브루스 알, 19, 79, 81, 85, 134, 136, 137, 167,

168, 188, 189, 191, 246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 193

명예

여성에 대한 -, 213, 214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리셀 엠 넬슨 장로, 212

모습

외적 모습, 189

자신의 -에 관심을 가짐, 70

젊은이들의 -, 54

모퉁이돌(주춧돌)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몬슨, 토마스 에스, 59, 64, 88, 92, 98, 113, 266

반대

성전 사업에 대한 -, 321
와 어려움들, 13

배우자 선택, 188~197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193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09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의 문화와 인종, 168, 188

배우자에게 있어서의 불완전성, 48

벨라드, 멜빈 제이, 16, 167

벨라드, 엠 러셀, 52, 80, 84, 94, 245, 247, 266, 276, 328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280

뱅크즈, 벤 비, 253, 255, 312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은 여전히 유효함, 67, 83, 141
하도록 지구가 창조되었음, 38

법률, 물리적이며 도덕적인, 232

베이트먼, 메릴 제이, 65, 82, 84, 91

벤슨, 에즈라 테프트, viii, 3, 16, 19, 51, 59, 63, 81, 85, 97, 112, 113, 133, 137, 154, 158, 190, 220, 237, 241, 244, 248, 253, 264, 266, 274, 276, 277, 283, 329, 338, 342, 344, 347, 348

“순결의 법”, 227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269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268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203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352

보험, 119

복천년, 263

부모 역할하기. 부모의 역할: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룸 참조

부모의 역할: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룸, 241~258

딸들의 잠재력을 키워줌, 71

생명을 낳을 책임, 143

은 결혼을 풍성하게 함, 186

은 계명임, 83

의 지고의 행복, 15

“시온의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77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제-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255

분쟁, 3, 31, 210, 245, 271

불의한 지배력

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들, 5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로버트 이 웰즈 장로, 286

브라운, 빅터 엘, 78

브라운, 휴 비, 14, 98, 314

브래드포드, 윌리엄 알, 344

비상 대비, 119

비판

-의 심각성, 287

자신의 가치를 파괴함, 48

빛(부채), 59~62. 또한 재정 참조

-에 대한 경고들, 187

역병처럼 피한다, 120

을 없앴, 117

피하기 위한 지침, 115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60

사도들의 간증, 147

사랑(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19~20

-을 통한 단합, 344

“사랑과 이해의 결합”, 말린 케이 젠슨 장로, 162

“신성한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워스틴 장로, 130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58

사랑, 154~166

과 애정 행위, 140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배우자를 사랑함, 101

성숙하고 오랜 -, 142

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214

“사랑과 이해의 결합”, 말린 케이 젠슨 장로, 162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58

사탄

가족을 공격함, 101, 247, 267

결혼을 공격함, 87, 231

성전 사업을 반대함, 321

의 목표, 259

의 유혹, 143, 330~336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시도함, 134, 231, 259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격정을 다스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2

“사라지는 예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1

“육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승리자가 됨”, 333

방해, 177

사탄의 유혹과 육으로 난 인간, 330~336

사통, 219, 220, 221, 224

사회 진출, 237

산아 제한, 14~18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질 의 응답”, 호머 엘스워스 박사, 16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취 옥스 장로, 259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352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40, 167

생각의 통제(다스림), 222, 228, 230

선교 사업

-의 축복, 192, 198, 211

자매들은 선교 사업을 할 의무는 없음, 192

혹은 결혼, 192

선택의 자유, 144, 231

선택의지

“공짜”가 아님, 231

-는 근본적인 원리임, 17, 144

젊은이들의 -, 52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193

성

전세에서의 특성, 83, 259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취 옥스 장로, 259

“여성의 기쁨”,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70

성숙, 198~199

성약과 의식, 38~50

결혼, 24, 167, 178

성전, 314

신성함, 24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러셀 엠 벨슨 장로, 26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성전. 엔다우먼트, 성전; 가먼트, 성전; 성약과 의식들 참조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318

의 축복, 146, 322

준비, 314~326

“성전 가먼트: 내적인 결의의 외적인 표현”,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322

“왜 성전에서 결혼하는가?” 존 에이 윌소 장로, 178

성질

자신의 -을 혼육함(다스림), 23, 160, 210

“격정을 다스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2

성찬, 43

세상적(물질적)인 준비, 327~329

속죄와 영생, 11~13

그리스도의 -, 7, 215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용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89

“위대한 해옥의 계획”, 달린 에이취 옥스 장로, 259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1

순결. 결혼에 있어서의 충성; 도덕성과 정숙함 참조

순수함

테이트하는 것에 있어서, 56

“개인적인 순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233

스노우, 로렌조, 140, 168

스노우, 엘리자 알, 80

스미스, 바바라 비, 94, 100, 343

스미스, 조셉, ix, 47, 314, 347

스미스, 조셉 에프, 9, 14, 139

스미스, 조셉 필딩, 38, 84, 157, 192, 314, 315

스미스, 조지 앨버트, 79, 347

스코트, 리차드 지, viii, 65, 84, 113, 124, 140, 156, 168, 188, 199, 240, 242, 275, 312, 345, 348

“영적인 지식을 얻음”, 148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5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360

스태이플리, 텔버트 엘, 245

시련

목적이 있음, 12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58

식량 비축, 119, 329

신권

안전을 향하여 따름, 291

의 맹세와 성약, 44

신성한(거룩한)

결혼제도는 -함, 172

운명, 83

“신성한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위스틴 장로, 130

신앙. 또한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 참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영원한 가족에 대한, 10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8, 149

“신성한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위스틴 장로, 130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지닌 여성이 됨, 366

심슨, 로버트 엘, 89

십일조

- 와 헌금, 57
- 이혼에 대한 보험임, 186
- 정직한 -를 바침, 116

아담의 타락, 260

아버지. 남성의 거룩한 역할과 책임도 참조

- 가 되기 위한 준비, 211
- 가정의 축복사임, 204
-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 83, 203, 208, 237
- 로부터의 축복들, 202
- 와 부모됨, 241
- 의 부재는 자녀에게 피해를 줌, 216
- 의 영원한 부름, 203
- 의 영향력, 217
- 의 의무, 200, 251
- 의 접견, 252
- 의롭게 감리해야 함, 83
- 하나님의 모범을 따름, 217
-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206
-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
- “아버지의 손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215
-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203

아이어링, 헨리 비, viii, 135, 345

- “가족”, 103
- “권고에서 안전을 찾음”, 290

안식일 준수, 57

애국심, 340

애쉬튼, 마빈 제이, 19, 59, 93, 155, 198, 245, 250, 266, 312, 342, 345

- “가족간의 대화”, 32
-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가족 재정 지침”, 115

에시, 칼로스 이, 315

- 성전 가문트: “내적인 결의의 외적인 표현”, 322

앤더슨, 에이취 벌란, 249

약속의 성령, 42, 136

어머니.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도 참조

- 가정 밖에서의 취업, 237~240, 359
- 를 공경하라, 71, 213
- 양육할 책임이 있음, 83
- 와 부모됨, 241
- 의 거룩한 부름, 68
- 의 의무, 252

엔다우먼트, 성전

- 와 인봉, 317

- 의 목적, 315
- 의 성약, 45, 314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347~372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 양육함, 204
- 여성 운동의 영향, 81
- 여성들의 불행, 22
- “의로운 여성의 역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349
-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지닌 여성이 됨, 366
-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러셀 엠 벨슨 장로, 212
- “위대한 해옥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60
- “여성의 기쁨”,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70
- “시온의 어머니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352
- “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세리 엘 듀 자매, 364
- “교회의 여성”,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57

영경, 48

연민(사랑, 애정), 9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동성 연애 행위는 심각한 죄라는 말씀, 303

오락과 대중 매체, 54

열정을 억제하기, 139, 140, 141, 143, 145, 164

영, 브리검, 47, 167, 184, 315, 330

영감

- “선택의지인가, 혹은 영감인가?”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193

영원한

- 가족들, 100, 179
- 속죄와 -결혼, 11~13
- 관점, 48, 81~82
- 성약을 받을 수 있음, 83
- “영원한 가족”,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100
- 증진, 167, 180, 182
-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65
-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80

영원한 결혼을 위한 기초들, 124~132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 “완전한 삶을 위한 기본 수칙”, 해롤드 비 리 회장, 124

영적 지식, 148~151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 148~151

-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148
- “권고에서 안전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90

영혼의 쌍, 환상, 51, 191

영화와 비디오, 266

예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십시오, 285
-을 사용함, 117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147

예언적인 훈계, 290~293
“권고에서 안전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90

예절바름
“사라지는 예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1

오락 활동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93
-의 원리, 97

옥스, 델린 에이치, 2, 16, 64, 80, 82, 115, 140, 191, 248, 254, 276, 303
“동성 연애”, 294
“위대한 해육의 계획”, 259

온유함, 334

워시번, 제이 벨라드, 40

완전해짐, 점진적으로, 165

외설, 264~267
-에 대한 경고, 213, 220

욕구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참조

욕심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119

용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회개와 -, 2, 12, 86, 90
“용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89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1

우드립, 윌포드, 190

우선 순위와 균형, 276~282
가족의, 207
결혼은 -에 있어서 높음, 165
를 정리함, 61
우리가 견디도록 도와줌, 28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80
“시온의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77

워시번, 조셉 비, 19, 94, 135, 244, 249, 250, 329
“신성한 성품을 키움”, 130

원리, 274~275
-에 의하여 생활함, 서문, viii
-을 추구함, 148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148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
신중하게 생각하라, 108
-에 있어서 정숙함, 211
혼돈하지 말라, 120

웰즈, 로버트 이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286

윈더, 바바라, 344

윗소, 존 에이, 154, 157, 277, 314, 315
“왜 성전에서 결혼하는가?” 178

육으로 난 인간
-의 욕구들, 108, 120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268
“격정을 다스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2
“사라지는 예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1
“육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승리자가 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333

육체적 건강, 58, 327

음악과 춤, 55

의로움이 부모를 준비시킴, 253

의무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 러셀 엠 넬슨 장로, 212

의무들. 성약과 의식 참조

의사 소통(대화), 31~37
“가족간의 대화”,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32
귀기울임, 284, 287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 89
-을 통한 단합, 345
행복한 결혼에 필수적인, 187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9
“배우기 위해 경청함”, 러셀 엠 넬슨 장로, 35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1

의상(드레스)
결혼, 317
-에 있어서의 정숙함,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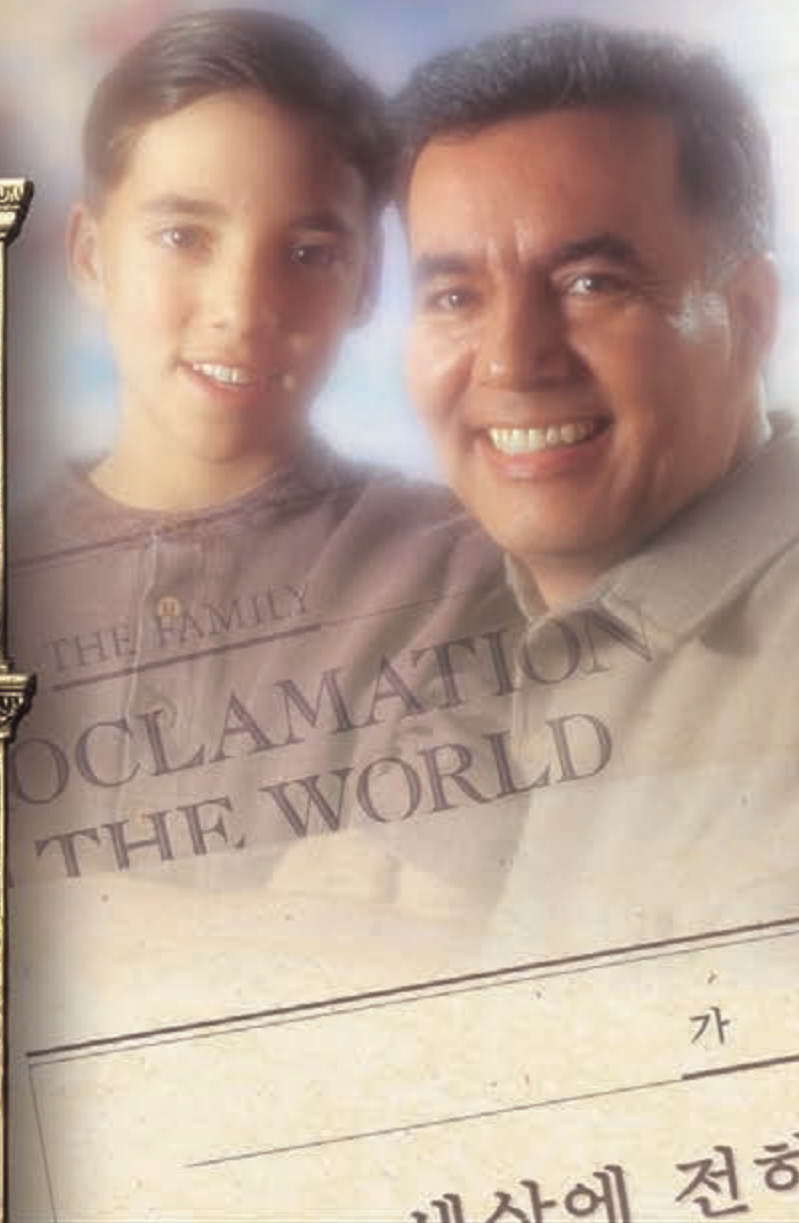
의식과 성약, 38~50
성신의 은사를 부여함, 42
성전 엔다우먼트, 45
성찬, 43
신권, 44

- 침례, 41
해의 왕국의 결혼, 46
- 이기심**, 304
비이기심, 9, 171, 336
-을 버리는 것의 축복, 336
-의 위험들, 333
이혼의 원인, 88, 171, 176
측량 잣대로서의, 17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119
“질의 응답”, 호머 엘스워스 장로, 17
“육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승리자가 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333
“하나님께서서 짝지어 주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74
- 이해함**
“사랑과 이해의 결합”, 말린 케이 켄슨 장로, 162
- 이혼**, 73~76. 또한 성약과 의식도 참조
“결혼과 이혼”, 데이빗 비 헤이트 장로, 74
“결혼과 이혼”, 스펜서 더블류 콧볼 회장, 168
이기심이 -을 야기함, 171, 176, 185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움, 181
“성약의 결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47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84
“하나님께서서 짝지어 주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74
- 인격**, 339
- 인내**
-는 자아 통제의 형태임, 4
-를 갖고 혼계함, 292
의사 소통에 있어서의, 34
자신에 대한 -, 370
- 인터넷**, 220, 266
- 인플레이션**, 119
- 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93
-의 원리, 93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침, 250, 256
“어깨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94
- 일하는 어머니**. 가정 밖에서의 어머니의 취업 참조
- 입양**, 1
- 자녀**
무자녀는 일시적임, 263
방종한 -, 47, 175, 242
성약의 -, 226, 258
-에게 복음을 가르침, 248, 250, 356
-와 함께 시간을 보냄, 254, 355, 262
-의 버릇을 망침, 120
-의 훈육, 256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침, 119, 279
훌륭한 결혼은 -를 축복함, 245
- 자녀 낳기**, 259
- 자립**, 305~310
“자립”,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305
재정에 있어서의, 62
“자립하는 사람이 됨”, 엘 톰 페리 장로, 307
“어깨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94
- 자아 통제(절제)**
돈에 있어서의 -는 중요함, 116
성질에 대한, 23
열정에 대한, 143, 164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필수적임, 186, 341
- 재정**, 115~123. 빛(부채)도 참조
내에서 생활함, 285
부부는 -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 211
-에 있어서 준비됨, 327
-에 있어서의 정직, 129
“자립하는 사람이 됨”, 엘 톰 페리 장로, 307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9
“삶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이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80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가족 재정 지침”,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115
- 저축**, 118
- 정직**.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도 참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57
재정적인, 129
- 제일회장단**
1912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부모의 영의 자녀라는 말씀, 259, 301
1915 가정의 밤을 시작하라는 지시, 244, 355
1936 일할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 94, 328
1942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경고의 메시지, 67
1974 성전 의상의 거룩한 성격에 대한 편지, 325
1988 성전 의상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편지, 325
1991 도덕성과 충실함의 표준에 대한 편지, 230, 295, 299
1996 더 친절해지는 것에 대한 부활절 인사말씀, 295
1999 가족을 양육하는 것의 우선순위에 대한 편지, 277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거룩한 봉사로서의 모성, 207, 213, 246, 348
데이비드 오 맥케이, 휴 비 브라운, 앤 엘돈 테너, 산아제한에

- 대하여, 14
- 문신과 피어싱(신체 관통)을 만류하는 것에 대한, 223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147
- 성적인 죄의 엄청남에 대한, 261
-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지, 배도할지 모르는 자녀들에 대하여, 47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배우자 선정에 대하여, 193
-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2차 대전 메시지, 236
- 조셉 에프 스미스, 안톤 에이치 런드, 찰즈 더블류 펜로스, 가정의 밤에 대하여, 243
-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결혼에 있어서의 충실함에 대하여, 111 산아제한에 대하여, 14
- 히버 제이 그랜트, 앤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찰즈 더블류 니블리, 영원한 증진에 대하여, 167
- 젠슨, 마빈 케이**
 - “사랑과 이해의 결합”, 162
- 조상의 전언(전통), 337~341**
 - “조상의 전통”,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338
- 존경**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 의 율리, 90
 -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필수적임, 186
 -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8
- 종교,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의 요소, 173, 188**
- 죄**
 -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의, 152
 - 법법과 대조됨, 260
 - of pride, 269, 271
- 지나친 탐닉**
 -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119
- 지혜의 말씀, 210**
- 책임**
 -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 책임성**
 - 성약을 위반한다면, 84
 -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83
 - 젊은이들의, 52
- 청소년을 위한 봉사, 58**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팸플릿, 52
- 출산**
 -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83
- 은 친(은)밀함의 주요 목적임, 56, 139, 140
- 의 거룩한 능력을 통제함, 235, 261
- 충성.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도 참조**
 - 배우자에게의 -, 209
 - 을 통한 단합, 345
- 친구들**
 - 신중하게 선택함, 53
 -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줌, 281
- 친절, 그리스도 같은 사랑의 동의어, 166**
- 캡, 아테스 지, 22**
- 커티스, 리그랜드 알, 245, 345**
- 크리스틴슨, 조 제이, 22, 60, 86, 99, 156, 244, 250, 266**
 - “탐욕, 이기심, 지나친 방종”, 119
 - “결혼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284
-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5**
- 클라크, 제이 르우벤, 14, 345**
- 클라크, 제이 리차드, 100, 247, 313, 331**
- 김볼, 스펜서 더블류, 1, 9, 15, 21, 47, 51, 52, 59, 63, 79, 81, 85, 86, 88, 90, 113, 133, 137, 139, 140, 141, 152, 156, 158, 188, 191, 198, 200, 219, 221, 237, 241, 244, 246, 247, 264, 276, 304, 327, 329, 330, 347**
 - “결혼과 이혼”, 168
 - “의로운 여성의 역할”, 349
- 탈매지, 제임스 이, 314**
- 탐욕, 76, 156**
- 태너, 엔 엘돈, 14, 47, 222, 247, 248**
- 터틀, 디어도어 에이, 254**
- 테노리오, 호레이쇼 에이, 252**
- 테일러, 존, 139**
- 텔레비전 시청, 266**
- 파우스트, 제임즈 이, 3, 21, 47, 59, 64, 73, 79, 88, 91, 92, 99, 134, 138, 222, 247, 249, 250, 251, 252, 254, 266, 274, 342, 344**
 -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184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제-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255
- 판단함, 34**
- 팔복, 125**
- 패커, 보이드 케이, 1, 39, 47, 64, 79, 87, 133, 134, 137, 152, 155, 156, 168, 192, 240, 246, 247, 253, 274, 283, 303, 328, 338**

- “거룩한 성전”, 318
 “결혼”, 180
 “자립”, 305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65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 230
 “시온의 부모”, 277
 “생활의 기초”, 141
- 페더스톤, 본 제이**, 100
- 페리, 엘 톰**, 59, 77, 81, 91, 93, 98, 222, 245, 249, 254, 327, 344
 “자립하는 사람이 됨”, 307
- 페이스, 글렌 엘**, x
- 평등**
 결혼 동반자들의 -, 65, 207
 남성과 여성들의 -, 3, 66, 79~80, 127, 207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 평의회**
 와드 -, 280
 천국에서의, 259
- 포올맨, 로날드 이**, 245
- 표준**
 -을 낮추지 말라, 19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52
- 프랫, 올슨**, 157
- 프랫, 팔리 피**, 139
- 피터슨, 마크 이**, 98, 248
- 피터슨, 에이치 버크**, 4, 267
- 하나님의 전신 갑주**
 전신 -, 323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해롤드 비 리 회장, 223
- 하펜, 브루스 시**
 “성약의 결혼”, 47
- 학교에서의 성교육**, 144, 231
- 학대(남용)**, 3~8
 교만의 결과임, 271
 마약 남용, 58, 251
 배우자, 84, 102, 109, 127, 134, 140, 208
 성적, 113, 208
 신권 소유자에게 합당하지 않음, 160, 358
 어린이, 134, 208
 언어적인, 23, 205
 -에 대하여 보호함, 156, 177, 208, 264, 358
- 영적, 23
 외설물이 -로 이끌수 있음, 266
 육체적인, 90, 208, 332
 -의 패턴(유형)을 반복함, 92, 338
 회개를 요함, 90
 희생자들은 죄가 없음, 56, 338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5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교회의 여성”,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57
- 학대의 희생자들**, 5
- 합당성**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의, 188
 성전, 314, 319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09
- 해의 왕국의 결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임, 74
 성전에서 행해짐, 168
 -의 성약, 46
- 행복**
 결혼에 있어서의 -, 133~135
 부모되는 것의 -, 247
 성전 결혼이 -을 가져다 줌, 133~135, 169, 179, 182
 얻기, 229, 363
 여성들의 불행, 22
 “행복한 가정의 초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127
 “위대한 해옥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259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60
 “여성의 기쁨”, 마가렛 디 네이들드 자매, 70
- 헝크스, 매리온 디**, 99, 199, 337
 “용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 89
 “조상의 전통”, 338
- 헌법**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 수칙”, 해롤드 비 리 회장, 124
- 헌신(공약)**, 21~30. 또한 결혼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결혼에 있어서의 신뢰 참조
 동반자에 대한 -, 165
 “참고 견디어 들리워짐”, 러셀 엠 넬슨 장로, 26
 “결혼과 이혼”, 데이빗 비 헤이트 장로, 74
 “우리의 신성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22
- 헌터, 하워드 더블류**, 3, 15, 21, 63, 78, 79, 88, 90, 112, 141, 200, 206, 238, 240, 242, 245, 246, 254, 264, 314, 328, 342, 348, 349

-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206
- 헤이트, 데이비드 비**, 85, 93, 249
 “결혼과 이혼”, 74
- 헤일즈, 로버트 디**, 39, 89, 112, 242, 243, 246, 249
 “영원한 가족”, 100
- 혈액 검사**, 316
- 호머 엘스워스**
 “질의 응답”, 16
- 홀런드, 제프리 알**, 39, 152, 157, 243, 330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158
 “개인적인 순결”, 233
 “아버지의 손길”, 215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11
- 홀런드, 패트리시아 티**, 39, 349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지닌 여성이 됨, 366
- 화평, 개인적인**, 11
- 황금률**, 86, 177, 332
- 회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83
 고백과, 146
 부도덕 후의, 145, 228, 230, 232, 235
 -의 원리, 86, 233
 힘과 화평을 가져옴, 12, 56, 235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1
- 혼계**
 선한 것을 추구함, 75
 예언적인, 290~293
- “권고에서 안전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90
- 훈육(선도, 다스림)**
 사랑으로, 252
 선도 평의회들, 229
 성질(기질)의, 23, 358
 어려운 도전, 256
 -의 전통, 340
 “걱정을 다스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332
- 휘트니, 울슨 에프**, 242
- 희망**
 복음이 -을 가져다 줌, 103
 예수님이 -을 줌, 11
 “신성한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위스틴 장로, 130
- 희생**, 32
- 힝클리, 고든 비**, 1, 3, 4, 15, 51, 59, 73, 77, 79, 81, 84, 85, 86, 88, 90, 91, 92, 93, 111, 112, 113, 134, 152, 155, 188, 191, 198, 220, 221, 238, 250, 252, 253, 265, 294, 303, 311, 314, 327, 342, 345, 357
 “행복한 가정의 초석”, 127
 “걱정을 다스림”, 332
 “힝클리 부부의 결혼 60주년에 즈음하여”, 186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209
 “사라지는 예절”, 331
 “우리의 신성한 책임”, 22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60
 “하나님께서서 짝지어 주심”, 174
 “교회의 여성”, 357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